

강진호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한 · 태 현대소설 비교 연구  
- 염상섭과 씨부라파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0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김영애

# 한 · 태 현대소설 비교 연구

- 염상섭과 씨부라파의 작품을 중심으로 -

강 진 호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김 영 애

## 논문 개요

리얼리즘이란 비록 서구에서 발생한 문학양식이고 정신이지만, 근대 사회의 성립 이후 지금은 동서양을 불문하고 두루 통용되는 보편적인 양식인 관계로, 그 보편 양식으로서의 리얼리즘이 환경적 차이에 의해 어떻게 구현되는가는 중요한 문학적 고찰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학을 규정하는 근본 요인은 시대, 환경, 인종이라는 테느의 발언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문학이란 본질적으로 환경의 구속을 받기 마련이고, 그런 관계로 한국과 태국이라는 상황적 차이와 문학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염상섭과 씨부라파는 문학의 본질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염상섭과 씨부라파라는 작가의 개별적 특성에 주목하면서도 동시에 그 둘에게 공통적으로 관철되는 시대 상황에 대한 문학적 대응과 작가적 사명, 특히 시대 현실을 이해하는 방식과 그에 대한 작가의 대응 양상이라는 근원적 태도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한국의 1920-30년대를 소설 속에서 재현한 한국 작가 염상섭(1897-1963)의 작품 『사랑과 죄』(1927-1928), 『삼대』(1931), 『무화과』(1931-1932)와 태국의 1920-30년대를 재현한 태국 작가 씨부라파(( ศรีบูรพา, 본명 กุหลาบ สายประดิษฐ์, 1905-1974)의 작품 『인생이라는 이름의 전쟁』(สงครามชีวิต, 1932), 『그림 저편에』(ข้างหลังภาพ, 1936), 『앞을 내다보며』(แลไปข้างหน้า, 1955-1957)를 텍스트로 삼았다.

한국과 태국이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지 않아 그 영향관계가 일천했고 문화적으로도 동양권 국가라는 점 외는 공통성이 없다고 해도, 한국과 태국의 작가 염상섭과 씨부라파는 적지 않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두 작가가 모두 수도(서울과 방콕)의 중산층 출신으로 신문편집자 겸 소설가였으며, 두 작가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이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하였으며 태국은 입헌군주제의 도

입에 이은 군부독재라는 점에서 평탄치 않았다는 점, 그리고 두 작가 모두 일본 및 영국과 같은 선진국으로부터 근대문명을 받아들이고 각각 조국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해 자유와 평등, 그리고 박애를 최고의 가치실현체로 인식하였다. 그러한 이 두 작가의 근대정신은 리얼리즘 문학으로, 다시 말해 염상섭은 비판적 리얼리즘 문학으로, 씨부라파는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으로 구현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작품들의 시대적 배경은 1920-30년대이다. 이 시기는 한국이나 태국 모두 그 이전부터 그 주체가 누구였던 간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진행되어온 근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지식인들 사이에 자신들의 목표가 뚜렷해졌던 시대였다.

한국사회는 전근대적 요소와 근대적인 요소가 뒤섞인 과도기였다. 개화가 무엇인지 모르는 계층과 개화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계층의 혼합, 신분상의 사회적 차별과 빈부의 격차, 봉건제도의 잔재, 그리고 가치체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세대적 혼란 속에 갈등과 고통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이렇게 근대화적 동시대성에서 유사하였지만, 한국과 태국의 시대현실은 뚜렷한 차이를 노정하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상태 하에서 국가독립이 최고의 역사적 과업이며 그의 실천인 거족적 민족해방투쟁이 지상과제로 대두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태국의 경우는 민주주의 체제의 완성과 그를 위하여 군부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 세력의 독재와 억압을 타파하는 일이 매우 긴박하였다는 사실이다.

'모든 작가는 시대의 산물'이라는 말은 리얼리즘 문학의 변함없는 격언이 아닐 수 없다. 염상섭과 씨부라파는 자신들이 정성을 기울여 완성한 소설에서 자신들이 속한 가정과 계층과 민중과 사회와 국가의 시대적 현실을 생생하게 그려내었다. 두 사람 모두 리얼리즘 문학의 원리에 입각하여 작품과 현실의 상관관계를 충실히 보여주었다고 할 것이다.

서울의 중산층을 대변하는 중용주의를 실천해 보인 염상섭은 중도적 민족주

의에서 출발했으나 진보적 보수주의 쪽으로 그 삶의 자세를 굳혔다. 그는 보수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서 보수주의 편에 서서 사회주의를 동정하며 그들의 형편을 봐 주면서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했다. 작가는 이러한 지식인을 소설 속에서 '심퍼사이저(sympathizer)'로 설정하였다. 염상섭은 유교에 근간한 민족주의적 인도주의 차원에서 주인공을 심퍼사이저로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염상섭이 사회주의 지식인의 지하운동을 처음으로 취급한 공로는 인정해야 한다.

씨부라파도 전근대(봉건)와 과도기, 근대라는 차별화된 시간성을 주축으로 한 소설 『인생이라는 이름의 전쟁』, 『그림 저편에』, 『앞을 내다보며』에서 한 사회(일시적 가족 등)에서 근대화된 삶을 이루려는 노력과 이를 위협하는 전근대적 의식 간의 갈등과 변화를 주인공 라핀(ระพีพันธ์)과 플린(เพลิน), 끼라띠(ค.จ.ศิริดี)와 늑핀(อุฬาร), 그리고 잔타(จันทา)와 니탓(นิ탓)을 통해 보여주었다.

방향을 대변하는 지식인의 중도주의를 실천해 보인 씨부라파는 중도적 민족주의에서 출발했으나 진보적 사회주의 쪽으로 삶의 자세를 굳혔다. 그는 무산자의 입장에 서서 무산계층의 권익을 강하게 주장하고 대변하며 무산계급 지식인과 진보적 민중에 의한 사회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다. 씨부라파는 불교에 입각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무산자 지식인, 또는 중산층 지식인들을 적극적인 참여자, 즉 래셔널 도어(rational doer) 또는 적극적인 참여자(active participator)로 설정했다. 그러나 그는 그 과정에서 전쟁과 대립을 부인하고 대화를 통한 화해라는 평화적 방법을 추구하였다. 염상섭이 그랬던 것처럼 씨부라파도 사회주의 지식인을 태국민주주의의 건설자 또는 민주수호를 위한 대정부투쟁자로 취급한 최초의 소설가이다.

염상섭과 씨부라파는 작가 의식에서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이 차이는 당대 한국과 태국의 리얼리티에서 오는 당연한 귀결이다. 씨부라파가 불교적 자비와 서구적 박애주의에 충실한 사회민주

주의에 전념할 수 있었는데 반하여, 염상섭은 민족해방 투쟁이라는 지고의 목표에 주인공들의 의식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심피사이저의 설정을 통하여 결국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조화시키는 작가 의식을 재현하게 되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두 사람의 작가 의식은 당대 한국과 태국의 공통적 지도사상이었던 민족주의 이념을 기본으로 하여 염상섭은 중도 우파인테 반하여 씨부라파는 중도 좌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곧 두 작가가 리얼리즘이라는 동일한 문학방법론으로 작품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근본요인이다.



# 목 차

논문개요	i
I. 서론	1
1. 연구목적 및 문제 제기	1
2. 연구사 검토	7
3. 연구 방법	13
II. 한 · 태의 역사와 문학 환경	
1. 문학 환경과 리얼리즘	18
2. 역사적 상황과 리얼리즘 기법	26
III. 염상섭과 씨부라과의 현실 인식과 비판	
1. 일제 식민지배와 민족해방 : 염상섭	46
1) 식민지 현실과 중산층의 소외의식	49
2) 민족의식을 통한 식민타과의 의지	62
3) 돈의 지배 및 성 관념에 대한 새로운 접근	73
2. 전제군주제와 민주주의 : 씨부라과	79
1) 전근대적 현실과 지식인의 근대지향 의식	80
2) 전제주의 타과와 민주의식	102
3) 돈에 지배되는 애정윤리	114

IV. 염상섭과 씨부라과의 주체 정립과 사회적 전망	
1. 중도적 주체와 휴머니즘 : 염상섭 -----	130
1) 중산층의 전통지향적 윤리의식 -----	133
2) 가치중립적 세계관과 민족해방 -----	143
3) 무산계급의 시민적 휴머니즘 -----	153
2. 총체적 주체와 민중의식 : 씨부라과	
1) 사회 계급간의 대립과 화해 -----	157
2) 반독재와 민주주의의 의지 -----	167
3) 무산계급의 실천적 사회민주주의 -----	183
V. 결론 : 한 · 태 리얼리즘 문학과 작가 의식 -----	194
참고문헌 -----	207
ABSTRACT(in English) -----	214

## I. 서 론

### 1. 연구 목적 및 문제 제기

문학은 시대 환경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존재하는 양식이다. 작가는 시대 환경의 제약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문학은 그 제약 속에서 형상화된 시대의 산물이자 모사품이다. 특히 리얼리즘 문학에서 작품(혹은 작가)과 환경의 관련 양상은 한층 직접적이고 밀접하다. 리얼리즘이란 본래 경제적 · 사회적 그리고 지적 · 문화적 상황을 배경으로 존재하는 양식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문학 연구란 환경과 작품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것이다. 한국과 태국 문학의 대표 작가인 염상섭과 씨부라파(ศรีบูรพา, 본명 กุหลาบ สายประดิษฐ์, 1905-1974)에 대한 비교 연구는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한국과 태국은 역사적으로 밀접한 교류를 가졌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았던 나라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태국을 대표하는 염상섭과 씨부라파의 문학에서는 많은 유사성이 발견된다. 작가적인 지향에서나 작품의 양상, 인물의 갈등 관계, 심지어 창작방법에서도 유사성이 확인되는데, 그것은 문학 특히 리얼리즘(realism) 소설이 갖는 근본속성과 관계된다. 시대 현실을 객관화하고 그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와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리얼리즘이고 그래서 그것은 시대 구속적인 성격을 갖지만, 한편으로 그런 환경을 초월하여 인간보편의 문제를 감당하고 모색하는 또 다른 속성을 갖는다. 리얼리즘은 시대와 환경을 반영하지만 한편으로 그것을 초월하여 시대정신을 표현하는 문학적 응전의 양식이기도 하다. 리얼리즘 작품들은 대체로 평범한 작중인물과 그들의 삶의 일상적 사건에 초점을 두었으며 작품의 플롯(plot) 또한 모든 사회계급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중 인물의 말씨와 행동은 그들의 교육과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등 구체적 현실을 재현해내는 담지물(談智物)이다. 그런 점에서 염상섭

과 씨부라파는 각각 한국과 태국이라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작품 활동을 했지만, 리얼리즘 문학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많은 유사성을 갖고 있다.

염상섭은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사망한 서울을 대변하는 중산층 인물이었으며, 근대 전문직업인으로서 신문편집인이자 소설가였다. 그는 1912년에 일본의 마포중학에 다녔는데, 그 학교는 상류사회의 자제들이 다니던 학교였다는 점에서 미루어보건대 그의 소년기는 상대적으로 유복하였다. 그러나 염상섭은 1919년에 3·1운동에 가담하고 1년간 옥고를 치렀는데, 이 사건은 그로 하여금 ‘일본 속의 한국인’이라는 민족적 자아의 실상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었다. 그가 돌연 학업을 중단하고 1920년에 《동아일보》 창간사원으로 들어간 것은 그런 체험에서 비롯된 현실 참여의 정신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다.<sup>1)</sup>

씨부라파 또한 방콕에서 태어나서 1958년 중국으로 망명하기 이전까지는 방콕을 대변하는 중산층 인물이었고<sup>2)</sup>, 근대 전문직업인으로서 신문편집인이자 소설가였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그가 방콕에서 명문인 텡씨린타라왓중등학교(เทพศิรินทร์วิทยาลัย, 태국은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이 분리되지 않고 있다. 이하 텡씨린)에 다녔다는 사실은 명문학교의 비싼 등록금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집안 출신임을 말해준다. 그런데 그 소년기 6년간의 텡씨린 체험은 그에게 태국 사회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 텡씨린은 명문이었고 뛰어난 학생을 그들의 사회적 신분에 구애되지 않고 받아들여 균등한 교육 기회를 주기는 했지만, 학생들의 가문 형편을 기준으로 학급을 나누고 또 서로 교류하지 못하게 하는 신분차별이 심한 학교였다. 이 학교에서 씨부라파는 태국어와 영어에는 뛰어났으나 이과(理科) 과목이 약했기 때문에 ‘킹 스칼라쉽(King Scholarship)’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낮에는 모

1) 신동욱, 『염상섭론』, 『우리 시대의 작가와 모순의 미학』, 새문사, 1982, p.76.

2) 룡윗 쑤완마피촌(รุ่งวิทย์ สุวรรณอภิชน), 『씨부라파 : 태국문학의 거성 ศรีบูรพา : ศรีแห่งวรรณกรรมไทย』, Phasiko, 1979, p.24.

교 텃씨런 중등학교의 임시 태국어 교사를, 밤에는 영어학원 째낙루업간쁠래 (สำนักงานการแปล)에서 번역과 영어 강사를 하며 생계를 돕고 저축을 했다<sup>3)</sup>. 장래 신문사 경영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남다른 향학열을 갖고 있었던 그는 끝내 외국 유학의 꿈을 버리지 않았다.

두 사람은 또한 살았던 시대와 그 삶의 역정이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염상섭은 구한말 시대에 태어나 한일합방까지 유년시절을 보냈고, 한일합방 이후 광복까지 36년간의 일제 식민치하에서 청·장년기를, 그리고 광복 이후 사망할 때까지 6·25, 4·19 및 5·16 등 전쟁과 민주화의 격동기를 살았다. 이런 환경 속에서 염상섭은 일본을 통해서 받아들인 근대문명을 식민 현실에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 근대적 가치인 자유와 평등, 그리고 박애를 최고의 가치 실현체로 인식했던 그는 근대정신에 투철했고, 그것이 리얼리즘 문학으로 구현되었다. 평생 대상의 객관화 작업에 충실했던 그의 유일한 창작방법은 바로 비판적 리얼리즘 문학이었다. 1930년대의 대표작 - 『삼대』, 『무화과』, 『사랑과 죄』 - 속에서 당대 사회의 과제를 사회의 근대화에 두고 식민치하에서 민족해방을 추구하고 민족적 삶을 구현코자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작품에서 그는 한 가족이나 한 집단의 삶을 통해 근대정신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씨부라파는 전제군주시대에 태어나 봉건제도 속에서 서양식 교육을 받으면서 유년기를 보냈고, 서구화되어 가는 사회 환경 속에서 청년기를 보냈으며, 군부와 소수 서양 유학과 정치인들(인민당, คณะราษฎร, the People's Party)에 의해 민주주의 제도가 변질된 독재시대에서 장년기를 보내다가, 1958년에 중국에 망명해 그곳에서 사망할 때까지 살았다. 씨부라파가 명문 텃씨런 8년 과정을(당시는 학제가 초등 4년, 중등 8년이었음) 졸업한 1920년대 중반은 “근대화=서구화”라는 등식이 유학생과 지식인들 사이에 만연되었던 시기였으며, 또

---

3) 뭇 왓차라씨티엔(บุศ วัชรเสถียร), 『내가 아는 씨부라파 ศัพฺรพาที่ข้าพเจ้ารู้จัก』, Art and Sign, 1982, pp.43-57.

신문 활동이 왕성했던 때였다. 이러한 사회를 반영하고 봉건제도의 타파를 주장하는 내용의 작품을 1920년대 말부터 발표할 수 있었다. 씨부라파는 평민의 입장에서 자유와 평등, 사회 정의, 민주화를 최고의 가치 실현체로 인식했으며 이러한 정신은 비판적 리얼리즘 및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으로 구현되었다. 씨부라파는 소설 『그림 저 편에』(ข้างหลังภาพ)와 『앞을 내다보며 : 소년시대』(แลไปข้างหน้า : ภาคปฐมวัย)에서 전근대적 삶을 부정하였고, 『인생이라는 이름의 전쟁』(สงครามชีวิต)에서 사이비 근대성과 자본주의를 비판함으로써 참된 근대지향성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앞을 내다보며 : 청년시대』(แลไปข้างหน้า : ภาคมัธยมวัย)에서는 민주주의를 정의하고 무산계층(민중)에 의한 민주주의 실현을 모색하였다. 특히 1949년 이후에는 반전, 즉 세계의 평화수호를 외치며 무산계층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이들에 의한 사회민주주의를 주장함으로써 군부독재에 맞섰다.

이들 두 작가가 이렇듯 유사성을 보이는 것은 단지 시대와 개인적 환경의 유사성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두 사람은 성격적으로도 흡사한 면이 많았다. 염상섭은 본래 성격이 사회정의에 민감하여 불의부정에는 언제 어디서나 항거했으며 사회참여의식이 강해서 시평에 밝았고 독립자존의 패기가 넘쳐 흘렀다. 음주벽이 있고 고집불통이어서 한 번 옳다고 여긴 문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다. 일을 잘 만들고 또한 수습도 잘 했으며 자존심 강하고 원고를 구상할 때는 집 근처를 한 바퀴 도는 습관이 있었고, 흰 국화를 좋아하였다고 한다.<sup>4)</sup> 씨부라파는 “사회 정의를 사랑했고 불의와 부정을 증오했으며<sup>5)</sup> 일단

4) 김중균, 『염상섭』, 동아일보사, 1995, pp.19-21.

5) 부인 차녀여사의 회고에 의하면 씨부라파가 탭씨린을 졸업한 후 그의 글 솜씨를 인정받아 1927년에 태국육군사관학교 기관지였으나 문학작품을 실어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 인기리에 구독되었던 신문 『세나쓱싸래꽤윗타야쌌( เสนาศึกษาและแพทยศาสตร์ )』의 부주간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군인과 민간인 사이의 극심한 차별대우(아무리 직책이 높아도 민간인은 군인보다 낮은 봉급을 받는다)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시정하려 했으나 관철되지 않자 퇴사했다. 그 후 공무원이 되려는 생각에서 공무원시험에 응시하여 일등을 했으나 일등을 다른 내정자로 조작하려는 부조리와 당초 공시한 봉급보다 낮은 봉급을 제의한 데 대해 분노하고 공무원이 되려는 꿈을 접고 신문에만 매달렸다.

정한 원칙을 고수하였다. 주관이 뚜렷하여 한 번 옳다고 생각한 일에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으며 자존심이 강하고 남의 성공을 기뻐하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설득력이 있고, ‘자만은 후퇴를, 겸손은 발전을, 경거망동은 실수를, 신중한 사고에 따른 행동은 타당함을 초래 한다’라는 교훈을 일생의 모토로 삼았던 그는 불심이 깊었으며 애연가이자 애주가였다. 집에서는 험령한 바지와 상의를 즐겨 입었고, 목에는 스카프를 즐겨 댔으며 허리띠 대신 천을 둘렀고, 원고를 쓰기 전에 방안을 이리저리 거닐며 생각에 잠기는 버릇이 있었다고 한다.<sup>6)</sup>

본고는 이러한 유사성을 바탕으로 두 작가의 작품을 비교·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고찰이 단순한 비교연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작가의 문학적 행적과 삶의 궤적이 상당한 차이점을 보인다는데 주목하고자 한다. 즉, 두 작가 모두 리얼리즘이라는 작가 정신과 창작방법에서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한국과 태국이라는 시대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상황의 피구속성, 역사적 과제와 전망(perspective)의 차이에서 문학적으로 매우 상이한 모습을 보여준다. 즉, 염상섭은 서울의 중산층을 대변하는 중용주의를 실천해 보임으로써 진보적 보수주의 쪽으로 그 삶의 자세를 굳혔다. 보수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서 염상섭은 보수주의 편에서 사회주의를 동정하고 그들을 도와줌으로써 그들과 우호관계를 맺어 두는 것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하였다. 바로 이것이 그가 지향했던 가치중립적 보수주의였으며 이러한 작가의식이 민족적 리얼리즘 문학으로 나타났다.

한편, 씨부라파의 근대정신은 방콕을 대변하는 지식인의 중도주의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진보적 사회주의 쪽으로 삶의 자세를 굳혔다. 그는 무산자의 입장에 서서 무산계층의 권익을 당시 어느 누구보다 강하게 주장하고 대변했으

차넛 짜이쁘라딕(ชนิด สายประดิษฐ์), 「꼰랍 짜이쁘라딕의 생애와 작품(บันทึกชีวิตและงานของ กุหลาบ สายประดิษฐ์)」, 『โลกหนังสือ』 Vol. 2, No. 2 (Nov.) 2521. 참조.

6) 쉰딘 칸라야프록(สุนัน กัลยพจนาน์), 『인본주의자로서의 씨부라파 ศรีบูรพาในฐานะนักมนุษยธรรม』, 씨나카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p.38.

며, 쌀릿(สฤษดิ์ ธนะรัชต์)7)이 쿠데타에 성공하고 그 날부터 반체제인사를 체포 구금하자, 이미 피분(จอมพล ป. พิบูลสงคราม)8) 정권 때부터 여러 번에 걸쳐 구금생활을 체험했던 그는 중국에 망명함으로써 행동으로 정부에 저항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신 공산주의자는 될 수 없었다. 그의 정신적 뿌리는 방콕 중산층의 보수적 진보주의에 있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씨부라파는 중도적 민족주의에서 출발했으나 민중에 의한 진보적 사회주의, 즉 사회민주주의를 지지하고 또 실천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갈등 해소 방법으로 대결이나 투쟁을 부인하고 대화를 통한 화해의 방법을 추구하였고 그것이 성실한 평화주의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염상섭과 씨부라파는 많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한 사회 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지향과 방법, 그리고 문학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은 이런 양상을 두 작가의 대표작을 통해서 고찰하면서, 작품 속에서 포착되고 제시된 역사적 현실과 시대적 리얼리티(Reality)의 실상을 비교검토하고, 두 사람의 작가의식의 유사성 및 상이성을 일차적으로 해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리얼리즘이라는 양식이 시대 상황과의 관련성 속

7) 피분 정권에서 피분 수상의 오른팔 격이었던 군 장성이다. 그는 1957년에 쿠데타를 일으켜 성공한 후 당시 SEATO 사무총장이었던 쏫 싸라싸을 수상으로 내세우고 반정부인사를 대대적으로 숙청하였다. 1958년에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했다. 그는 피분과는 다르게 왕에 대하여 적대적이지 않았다. 그는 도리어 왕을 궁궐에서 밖으로 끌어내어 국민과 직접 만나게 함으로써 국민과 왕과의 관계를 군부 집권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이는 은인인 피분을 배반하고 정권을 잡은 쌀릿이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 때문이었다. 자기 정권의 정통성을 왕을 중간에 내세워 국민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인정받으려했던 것이다. 현재의 국민과 왕의 친숙하고 긴밀한 관계는 모두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는 1963년에 수상 재직 중에 사망했는데, 이 시대를 문학적인 측면에서는 암흑기, 정치적으로는 무단정치라고 평한다. 태국을 경찰국가로 만든 장본인이었다.

8) '태국의 비스마르크'로 비유되는 피분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성적이 뛰어났으므로 왕실장학금을 받아 프랑스에 유학한 인물이다. 귀국하여 국방부에 근무한 그는 인민당의 당원으로 입헌혁명에 참여하여 군부의 사기를 진작시켰고, 1938년에 수상이 되었다. 그 후 그는 일본과 공수동맹을 맺으며 군국주의에 몰입하다가 수도 천도가 1944년에 부결되며 수상직에서 물러났다. 2차 대전이 태국의 패배로 끝난 후 그는 전범재판에 회부되었으나 무죄로 방면되었으며, 1947년 군부쿠데타로 다시 수상에 추대되었다. 친미정권인 그의 정부는 동남아에서 미국의 시너로 미국의 반공정책을 대행했다. 1957년 쌀릿의 쿠데타로 권좌에서 물러나 해외로 망명하여 그곳에서 사망했다.

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발현되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서 본 연구는 염상섭 · 씨부라파라는 한국과 태국의 대표작가를 이해하고, 나아가 한국과 태국의 리얼리즘 문학의 실체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세계화의 거센 소용돌이 속에서 국경의 의미가 점차 퇴색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고찰은 같은 동양문화권에 속한 두 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될 것이고, 한편으로는 동북아와 동남아 문학의 교류를 촉진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2. 연구사 검토

염상섭과 씨부라파는 각기 한국과 태국을 대표하는 작가라는 점에서 그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라는 점에서 염상섭에 대한 연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분량이고, 지금도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씨부라파의 경우 태국을 대표하는 작가라는 점에서 상당한 연구 성과가 쌓였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으나, 염상섭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적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태국의 정치 상황과 문학연구 풍토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군부 독재에 항거하며 민주주의를 위한 정론을 펴던 씨부라파가 소설 『앞을 내다보며』를 연재하던 중에 중국에 망명한 사실과 당시 쿠데타로 집권한 쌀릿 정부가 반공법을 강화한 무단정치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958년 이후부터 1973년까지 태국 사회에서 그의 작품은 물론 이름조차 거론하지 못했던 정치적 상황이 그에 대한 연구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먼저,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중요한 작가의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염상섭에 대한 논의는 백철의 『조선신문학사조사』(1947)와 조연현의 『한국현대문학사』(1961)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서구의 문예사조적 개념에 입각하여

전자는 염상섭을 자연주의 작가로, 후자는 자연주의에서 사실주의로 이행하여 가는 과정에 있는 작가로 설정하였다.

염상섭에 대한 보다 더 심층적이고 본격적인 연구는 김종균의 『염상섭 연구』(1974)를 통해 이루어졌다. 김종균은 염상섭의 전기적 사실을 정리했고 작품연보를 작성했으며 개별 작품을 평설했다는 점에서, 또 실증주의와 역사주의를 모태로 하여 염상섭 문학의 전체 성격을 규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김종균은 작품이 생산된 시기의 사회적 시대적 상황 하에서 작가가 당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여 작품 속에 형상화했느냐에 초점을 두었다.<sup>9)</sup>

김윤식도 「염상섭의 소설구조」(1977)와 기타 논문, 특히 『한국근대소설사 연구』 등에서 염상섭의 작가의식을 추적하고 그의 소설구조를 해명하였으며, 『염상섭 연구』(1987)에서는 '심퍼사이저'(동정자, sympathizer) 개념을 소설에서 끌어내어 중인계급의 가치중립적인 성격의 핵심적 부분으로 지적했다.

이동하는 논문 「염상섭의 1930년대 중반기 장편소설」(1987)에서 1930년대 염상섭 소설의 통속적 경향을 당시 한국문학의 전반적 흐름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경향의 원인을 정치적인 상황의 악화와 상업화된 신문 저널리즘의 성장으로 보았다. 통속성에 대한 연구로는 '돈'과 '성'이 단순히 소비지향 사회에서 욕망의 출구, 삶의 수단이라고 본 최혜실의 논문 「염상섭 장편소설에 나타난 통속성 연구」(1992)와 김경수의 『염상섭의 통속소설연구』(1995) 등이 있다.

이보영은 『난세의 문학』(1991)에서 일제시대를 난세로 규정하고 염상섭이 보여주는 사회주의는 시민적 휴머니즘에 속하는 민족 해방운동의 이데올로기라며 염상섭의 정치성 짙은 윤리적 주제의식을 다루었다. 김경수도 『염상섭 장편소설 연구』(1999)에서 염상섭 소설의 정치적 성향을 '청산되지 못한 식

---

9) 이러한 경향의 연구는 신동욱의 「염상섭의 <삼대>」(1972), 김현의 「식민지시대의 문학」(1971), 김병익의 『갈등의 사회학』(1972), 오효진의 「작가의식과 정치현황」(1974), 이내수의 「염상섭의 전기문학고」(1980), 정현기의 「한국근대문학의 인물연구」(1982), 유병익의 『염상섭의 전반기소설연구』(1985) 등이 있다.

민지 역사와 새로운 식민권력(미군정)에 대한 비판적 글쓰기'라고 보았다.

본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려는 『사랑과 죄』, 『삼대』, 『무화과』 중 작품 개별적인 연구는 『삼대』가 가장 많다. 『삼대』와 『무화과』를 이부작으로 본 연구가 많으며, 위의 세 편을 삼부작으로 본 연구도 있다.<sup>10)</sup> 또한 위의 세 작품을 가족사소설보다는 정치소설로 본 연구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sup>11)</sup> 『사랑과 죄』와 『삼대』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랑과 죄』의 이해춘과 김호연의 관계가 『삼대』의 조덕기와 김병화의 역학관계로 이어졌으며, 류진의 인물됨과 행동양식 및 사고 형태는 조상훈과, 류택수와 이판서는 조의관으로 합성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연구도 적지 않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리얼리즘의 견지에서 이들 작품을 분석한 경우인데, 특정 시점에서 염상섭이 각 세대의 적응방식 그 자체를 식민지적 갈등의 총체적 구조로 파악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염상섭은 소설에서 소설의 집필 당시를 소설의 현실로 끌어들이 이야기를 엮어나갈 수밖에 없었다. 1929년에서 1930년대 초까지 연이어 발표한 세 편의 소설에서 그 작중인물의 성격 면에서 볼 때, 또 인물들 사이의 관련 양상으로 볼 때 『사랑과 죄』는 어느 정도 『삼대』의 전형(前型) 구실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사랑과 죄』, 『삼대』, 『무화과』는, 비록 염상섭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내용상으로는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sup>12)</sup>

염상섭이 『무화과』를 집필하면서 『무화과』가 3부작 중 『삼대』에 이은 제 2부작이라고 언급했으므로<sup>13)</sup> 『무화과』에 이어 발표된 소설 『백구』가

10) 이보영은 「민족의식과 정치소설적 특성」에서 위 3편의 소설이 '신간회'의 목적, 곧 민족주의 단체와 사회주의 단체를 통한 단일전선의 형성이라는 목적을 소설에서 실현한 유일한 예라며 삼부작으로 보았다. 이보영, 「민족의식과 정치소설적 특성」, 김종균 편, 『염상섭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99, p.37.

11) 대표적인 예가 이보영이다. 그러나 조남현, 김윤식 등 많은 학자들은 가족소설이라는 측면과 이데올로기 소설이라는 측면 즉 2 개의 기둥을 가진 소설로 평가한다.

12) 조남현, 『한국소설과 갈등』, 창작과 비평사, 1990, p.139.

13) 염상섭은 소설 『무화과』의 '작가의 말'에서 "이 소설은 ... 『삼대』의 자매편이 될 것이다. ... 그러므로 만일 나의 상상력이 허락하고 독자의 흥미가 끊어지지 않으면 자식의 살림과 마음까지도 쓸 날이 있을 것이다. 즉 이 『무화과』는 3부작의 제 2편의 형식이다." 라며 마치

『무화과』의 후속작 즉 제 3부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인물의 성격과 인물 사이의 관련 양상으로 보아, 특히 작품상의 이중적인 구조와 민족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민족 주체로서 사회주의자와 심피사이저(sympathizer)를 등장시킨 점으로 보아 『사랑과 죄』, 『삼대』, 『무화과』를 삼부작으로, 적어도 삼부작과 유사한 작품으로 보고자 한다.

한편, 씨부라파에 대한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군부 독재체제 하에서 씨부라파에 대한 연구는 전무했고, 1973년 학생의거로 씨부라파가 해금되어 그를 잘 아는 동문이나 작가 또는 옥중 친구들 몇몇이 그에 대한 회고담을 썼지만, 그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극히 적다.

씨부라파에 대한 연구가 염상섭의 연구 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가 가장 직접적 원인이 될 것이다. 그가 1958년 10월에 피분 정부의 허가를 받고 작가와 언론인으로 구성된 일행과 함께 문화사절단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있을 때 태국에서는 쌀릿이 쿠데타(1958. 10. 21))에 성공하고 집권하였다. 이때 쌀릿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의회를 해산하였으며 반공법을 공포하여 반체제 인사들-작가, 언론인, 정치가, 중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던 100여 명의 태국 인사를 체포하였고<sup>14)</sup>, 태국인 남녀 작가 12명과 중국 방문 중인 씨부라파 일행에게도 귀국 명령을 내렸다. 이미 투옥된 경험이 있고 나이도 적지 않았던 씨부라파는 귀국하여 다시 영어의 몸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몇몇 인사들과 함께 중국에 망명하였다. 이처럼 쌀릿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중국에 망명했다는 사실은 친미 노선을 표방한 쌀릿 군부로 하여금 그를 공산주의자로 낙인찍고 그의 작품을 금서화하는 등 그에 대한 연구 및 언급을 금지하기에 족한 빌미가 되었다. 이러한 상태가 1973년 10월 14일 학생의거로 인해 군부 독재가 축출될 때까지 15년 간 지속되었다.

---

막 편을 예고해 두었다. 김종근도 『염상섭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973에서 3부작으로 보았다.

14) 이 사건을 흔히 “관광반란(까뭇 땃싸나쩐)”이라고도 한다.

씨부라파에 대한 연구가 적은 또 하나의 이유는 학술적 연구를 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이 수적으로 적었다는 점과 태국의 문교정책에 있다. 태국에서 대학이나 대학교의 수가 1990년대 초까지 전국적으로 20여 곳<sup>15)</sup>으로 매우 적었던 데다가 정부의 문교정책이 교수들의 강의를 최우선으로 했으므로 그만큼 연구가 적었다.

학생의거 이후 씨부라파에 대한 복원사업이 벌어지면서 판금상태에 있던 그의 작품들은 인쇄되었다. 씨부라파상(賞)<sup>16)</sup>이 제정되었고 씨부라파의 문학적 업적이 재평가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한 편의 석사학위 논문과 비평가에 의한 단편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씨부라파의 작품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으나 기존 논의된 것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태국 씨나카린위룻대학교( มหาวิทยาลัยศรีนครินทรวิโรฒ ) 대학원의 석사학위논문( สุวิมล ภัลลพคุณ, 1981) 「인본주의자로서의 씨부라파」에서는 씨부라파의 비교적 자세한 생애와 함께 그의 초기 장편부터 마지막 장편인 『앞을 내다보며』 등 10여 편의 소설을 통해 그의 인본주의 사상이 고찰되었다.

쭈라롱껀대학교( จุฬาลงกรณ์มหาวิทยาลัย ) 태국어문학과 교수인 프리썬 분카쩐( ตริศศิลป์ บุญขจร)은 『태국사회와 소설(1932-1957)』(1980)이라는 책에서는 씨부라파의 소설, 『사내 대장부』( ลูกผู้ชาย ), 『인생이라는 이름의 전쟁』, 『그림 저 편에』, 『다시 만날 때까지』( จนกว่าเราจะพบกันอีก ), 그리고 『앞을 내다보며』를 태국정치사와 관련하여 리얼리즘의 측면에서 다루었다. 프리썬 교수는 소설 『인생이라는 이름의 전쟁』을 인본주의 시각에서 무산계급을 인식한 소설의 효시로, 『그림 저 편에』은 ‘구체제’라는 전통의 죽음으로, 그리고 『앞

15) Ministry of University Affairs, Thai Higher Education in Brief, Bangkok, Chuan Printing Press, 1995, p.9.

16) 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군부와 투쟁했던 씨부라파를 기리기 위해 1988년에 씨부라파 상을 제정했다. 이 상은 1932년 민주주의 도입의 뜻을 새기며 민주주의를 위한 태국 사회의 정의와 도덕을 수호하는데 앞장서거나 공이 있는 시인, 소설가, 언론인, 사상가에게 매년 수여된다. 씨부라파 상 수상자 선정위원회는 현존하는 인물 중에서 심사 당시까지 20년 이상 문필생활을 한, 타의 모범이 되는 인물을 선정하여 수여한다.

을 내다보며』는 민중소설의 효시로 보았다.

태국의 문학비평가인 란쭈언 인트라깜헝(รัญจวน อินทรกำแหง)은 『문학비평』이란 책에서 「씨부라파와의 만남」이라는 논문을 통해 씨부라파를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그의 글을 통해 볼 때 씨부라파의 소설 『다시 만날 때까지』의 남주인공 꼬멧(โกเมศ) 또는 『앞을 내다보며』의 니탓(นิทัศน์)을 씨부라파와 동일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꼬멧이 호주로 유학하여 낸시를 알게 되기 이전의 방탕한 부잣집 아들이었던 꼬멧과 낸시와 알게 된 후 자아에 눈을 뜨고 후진국 태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는다는 각오로 조국의 불의와 부조리와 싸우려는 용기로 충만하여 주변부에서 벗어나 스스로 중심부로 뛰어들려는 새로운 꼬멧이라는 양면성을 가진 인물이 바로 씨부라파<sup>17)</sup>라는 것이다. 한편 그는 소설 『앞을 내다보며』를 씨부라파의 자전적 성장소설 및 정치소설로 파악하고 작중인물 중 중산층 가정 출신의 우등생 니탓이 바로 씨부라파 자신이라고 보았다.<sup>18)</sup>

그리고 한국에서는 최난옥의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0) 「한국·태국 근대문학의 비교연구」가 있는데, 이 논문에서 저자는 씨부라파의 『사내 대장부』, 『인생이라는 이름의 전쟁』, 『그림 저 편에』, 『다시 만날 때까지』, 그리고 『앞을 내다보며』를 각각 이광수의 『무정』, 『유정』, 『재생』, 『사랑』, 『나』와 근대지향의 급진성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하였다. 1910-1930년대 한국과 태국의 남녀작가들의 초기근대장편소설을 근대성에 초점을 두고 비교한 이 논문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씨부라파가 지향하는 근대를 경제 · 문화 · 정신, 다시 말해 근대 기획 정신에 기반을 둔 애국계몽 중심의식을 소설 속에서 나타냈다고 보았다. 씨부라파가 근대를 주도해 나갈 선두주자를 사회의 상층부가 아닌 하층부에서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는 태국

17) 란쭈언 인트라깜헝(รัญจวน อินทรกำแหง), 『비평문학 2 วรรณกรรมวิจารณ์ ๒๑』, Bangkok, D.K. 1978, p.29.

18) 란쭈언 인트라깜헝(รัญจวน อินทรกำแหง), 『비평문학 I วรรณกรรมวิจารณ์ ๑๑』, Bangkok, D.K. 1978, pp.74-76.

이 추구하는 새로운 평민 남성상-‘복푸차이’-을 창조해냄으로써 근대의 역군으로 삼았다.

본 연구도 역시 같은 작품을 다루었는데, 특히 주목한 것은 군부 독재라는 억압된 현실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주체의 구현 및 창조를 리얼리즘적 측면에서 고찰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필자는 비교연구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태국의 문학이 소개되거나 연구된 경우는 많지 않으나 그나마도 대부분이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태국문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적은 사실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한국인들이 태국이라면 대체로 가까워서 가기 편한 관광국의 하나이기는 하나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후진국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은 그 깊이나 전문성에서 취약점이 많지만, 한국에서 태국문학에 대한 연구는 물론 태국에서도 한국문학에 대한 연구도 점차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한국과 태국의 소설을 이해하기 위해 염상섭과 씨부라파라는 두 나라의 대표작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런데, 두 나라의 문학에는 어떤 일정한 영향관계나 교류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비교문학 연구방법론, 특히 프랑스 비교문학 방법론으로는 분석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프랑스 비교문학은 ‘사실관계’, 곧 영향의 인과관계나 작품의 원천 탐구에 초점이 맞춰진 연구방법인데 두 작가 사이에서는 그것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상상력의 산물인 문학작품을 원천과 영향관계로만 국한해 파악하려는 프랑스의 방 띠이겔(Paul Van Tieghem)이나 귀아르(Marius Francois Guyard) 같은 비교문학자의 연구방법은 자칫하면 문학작품이 갖는 의미의 총

체성을 간과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교문학은 문학과 인간 활동의 총체를 대상으로 하면서 그 유사성의 추출로 보편성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문학이론과 비평, 그리고 문학작품의 미학적 분석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문학의 내적 구조, 즉 문학 자체의 분석연구를 세계문화적 시야로 확대하여 문학간의 유사성-표현방식의 유사성, 사고의 유사성, 인간관계의 유사성을 대비·연구하는 방법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sup>19)</sup> 국제간의 문학적 영향관계가 없어도 문학작품을 하나의 총체로 생각하고 그 작품에 나타난 공통적 특질을 밝혀 문학의 세계성 즉 그 보편성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그런 관계로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한 것은 작품에 나타난 시대 환경과 문학의 구현 양상, 특히 리얼리즘과 환경의 관련성을 해명하는데 있다. 리얼리즘이란 비록 서구에서 발생한 문학양식이고 정신이지만, 근대사회의 성립 이후 지금은 동서양을 불문하고 두루 통용되는 보편적인 양식인 관계로, 그 보편 양식으로서의 리얼리즘이 환경적 차이에 의해 어떻게 구현되는가는 중요한 문학적 고찰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학을 규정하는 근본 요인은 시대, 환경, 인종이라는 테느(H. Taine)의 발언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문학이란 본질적으로 환경의 구속을 받기 마련이고, 그런 관계로 한국과 태국이라는 상황적 차이와 문학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염상섭과 씨부라파는 문학의 본질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염상섭과 씨부라파라는 작가의 개별적 특성에 주목하면서도 동시에 그 둘에게 공통적으로 관철되는 시대 상황에 대한 문학적 대응과 작가적 사명, 특히 시대 현실을 이해하는 방식과 그에 대한 작가의 대응 양상이라는 근원적 태도에 주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소설을 이야기(서사)의 일종으로 보고 비역사적인 공시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하는 양식 중심이나 근대 장르로서의 소설(서구의 novel)을 인식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띄며 역사적, 통시적 태도를 바탕으로 하는

---

19) 김학동, 『비교문학』, 새문사, 1997, pp.53-57.

장르적 접근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통합적인 방법과 개방적 시각을 전제하고자 한다.

한국과 태국의 수도인 서울과 방콕 중산층 작가의 근대소설(novel)은 자아와 세계의 분열을 그 바탕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소설을 배태시킨 당대의 역사적 사회적 성격과의 관련 하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소설의 형식과 사회구조 사이의 일정한 관계(상동성)를 이루며, 소설이 사회를 내용 항목 차원 이상으로 의식과 구조의 차원에서 반영한다는 소설 사회학적 접근을 한 방법론을 택할 것이다.

또한 문학 작품의 의미 규정을 위해서는 양식 중심의 소설적 접근이 필요하다. 작품의 내용 분석은 의미구조를 중시하는 구조주의적 방법을 사용할 것이며, 이 방법론은 소설의 중심적 요소인 인물, 배경, 재현 방법을 분석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전체를 해명하는데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인간 행위는 어느 특정의 상황에서 ‘의미 있는 반응’을 부여하려는 시도이며, 따라서 그것은 행동 주체와 주체가 지닌 객체, 즉 환경과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려는 경향이 있다는 가설에서 출발한 골드만(L. Goldman)의 발생론적 구조주의 방법론도 준용할 것이다. 인간 현실은 구(舊) 구조의 ‘몰락’과 새로운 전체성의 ‘건설’이라는 이중적 측면을 가진 과정으로 나타나며 이것들을 다듬어 가는 사회적 그룹들의 새로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게 하는 균형 상태를 만드는 것이기<sup>20)</sup>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작품 구조 분석을 소설의 중심 요소인 인물, 배경, 재현 방식 위주로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인물의 계층과 작가의 세계관, 시공간(視空間)과 현실 인식 등을 결부시켜 검토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논의 진행 방향은 I장 서론에 이어 II장에서는 리얼리즘에 대한 이론을 비판적 리얼리즘과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 연구

---

20) 루시앙 골드만, 『소설사회학을 위하여』, 조경숙 역, 도서출판 청하, 1982, pp.239-240.

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1920-30년대 태국의 정치적 · 사회적 · 경제적 · 역사적 현실을 소개하고, 한국의 정치적 역사적 사회적 현실과 비교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리얼리즘 문학이 성립되는 기본 조건을 탐구하게 될 것이다.

III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룬 소설작품에 염상섭과 씨부라파가 각각 한국과 태국의 현실을 어떻게 재현해내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두 작가의 문학적 현실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는 당시 식민지 현실과 자본주의 측면에서 중산층의 가치중립적 의식을 당시 식민 타파와 민족의식의 표출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으며, 태국의 경우는 군부 압제 현실과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중산층 지식인의 근대(개화)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IV장에서는 염상섭과 씨부라파가 동시대에 대하여 어떠한 작가적 주체성을 세우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작가 주체에 내면화 된 당대의 현실은, 한국의 경우는 식민모국과 피식민지 사이에서 비롯되는 갈등 관계였으며, 태국의 경우는 대립하며 나아가는 ‘타자로서의 근대화’에서 비롯되는 모순 관계였다. 이에 대하여 염상섭은 심정적으로 사회주의에 동조하는 중도적 보수주의 세계관에 토대하면서 민족해방을 지향하였으며, 씨부라파는 후진자본주의와 제국주의와 군부 등에 의한 독재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민중에 의한 실천적 사회민주주의를 제시하였다. 대표적 사실주의 작가인 염상섭과 씨부라파가 각각 당면했던 시대적 모순과 현실을 어떻게 인식했으며 또 주체 정립과 작가 전망을 어떻게 설정했는지를 리얼리즘과의 연계 차원에서 분석할 것이다.

V장에서는 염상섭의 작가의식을 심퍼사이저(sympathizer)의 윤리적 민족의 식으로, 그리고 씨부라파는 래셔널 도어(이성적 실천주의자, rational doer)<sup>21)</sup>

의 민중적 민주주의식으로 규정하고 그 양상을 심층 있게 분석함으로써 한국과 태국의 리얼리즘 문학 속에 나타난 현실 인식의 양상을 고찰할 것이다.

---

21) 염상섭의 소설에서 몸으로 민족해방을 실천하려는 사회주의자에게 심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소극적이고 중도적인 rational doer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실천에 직접 옮기는 실천인으로서의 행위자, 즉 active participator의 의미를 갖는다.

## II. 한 · 태의 역사와 문학 환경

### 1. 문학 환경과 리얼리즘

문학은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양식이다. 또한 문학 작품의 제작자는 인간이다. 문학을 포함한 예술과 문학 환경의 하나인 사회의 관습은 그것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리적·풍토적 조건의 반영인 동시에 그 시대의 역사적 발전단계의 산물이다. 헤겔은 그의 『역사철학 강의』에서 문학을 사회의 표현으로 간주하고 또 사회의 지배적인 관념의 모사로 보았으며, 테느도 『영문학사』(1863)의 서문에서 문학 작품을 인종, 환경, 그리고 시대의 산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문학 작품의 발생을 알기 위해서는 작품 뒤에 존재하는 인간의 정신상태를 고찰해야 하는데, 그 정신상태는 바로 인종, 환경, 시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시대와 환경과 인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힘과 역할들이 서로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훌륭한 작가가 창출되고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말이다. 테느의 삼대 조건 중에서 환경의 의미는 매우 포괄적이어서, 인종이나 시대는 작가 또는 작품의 문학적 환경이라는 개념 속에 융해되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작품의 분석은 '환경'의 분해와 맥을 같이 한다.<sup>22)</sup>

문학을 사회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분석한 대표적인 이론가로는 위에서 언급한 헤겔(Hegel), 테느, 졸라(E. Zola) 등에 이어 마르크스(K. Marx)와 루카치(G. Lucacs), 그리고 골드만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비록 이데올로기에서는 차이가 있어도 문학적으로는 엄격한 리얼리즘 방법을 주장하였다.

문학이 동시대 문화의 일부로서 사회적인 연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문학작품의 하나인 소설도 문학 환경과 현실 안에서 발생한다. 소설의 특질을 흔히 현실의 반영이나 현실의 기록에서 찾으며, 또는 현실의 구성이라고 설명

22) 르네 웰락-오스틴 워렌 공저, 『문학의 이론』, 김병철 역, 을유문화사, 1986, pp.157-158.

하기도 한다. 현실의 기록과 반영에 문학의 기능을 두거나, 아니면 현실의 구성에 문학 기능의 중점을 둔다는 의미이다. 전자가 대상에 충실하다면 후자는 주체(subject)에 충실하다. 소설이 현실의 반영이나 기록이라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어떻게 보고 구성하느냐 하는 문제가 20세기에 들어서서는 더 크게 대두되고 있다. 굳이 테너나 마르크스 또는 루카치나 골드만의 이론을 언급하지 않아도, 작가가 처해 있는 환경 또는 상황이라고도 바꾸어 표현할 수 있는 '현실'이라는 개념은 다의성과 포괄성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므로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작가라 해도 교육 정도, 기질, 문학과, 심리적 의상, 경제력, 신분, 이데올로기 등에 따라 '현실'의 외연과 내포는 다르게 나타난다.

현실은 일상성으로 혹은 혼란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개념의 함의는 정책이나 정치적 상황이나 사회 제도나 시대정신이나 거대 이데올로기 등으로 표현되는 역사적 현실로 확대되기도 한다. 또 현실 개념이 개인의 자기유지, 자기실현, 자기완성을 하는 데 필요한 제반 상황과 여건으로 좁혀지기도 하며, 때로는 현실 확대론과 현실 축소론 사이의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sup>23)</sup> 작가들은 기질과 관심사와 환경에 따라 현실의 내용을 서로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설에서 환경은 문제성이 있는 위기의 현실, 즉 당대의 절박한 현실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 파악된 실상이다. 그러한 현실과 상황을 중심으로 하는 문학 환경을 재현하고 묘사하기 위해 등장한 문예사조가 리얼리즘<sup>24)</sup>이다. 그런데 문학의 기능에서 현실의 구성과 재현 과정을 통하여 주체가

23) 조남현, 『한국 현대문학사상 탐구』, 문학동네, 2001, p.226.

24) 리얼리즘이라는 용어는 그 개념의 정립과 사용이 다양하여 26개의 형용사를 지닌 리얼리즘이 열거되거나 여러 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 또는 용적이 큰 선박에 비유된다. 즉 리얼리즘은 모든 것을 실을 수 있는, 뭐든지 넣을 수 있는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한 유형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만큼 의미가 다양하다. 리얼리즘이 얼마나 다양하게 쓰이는 가는 문학비평서나 이론서에 보이는 유형에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주관적> 리얼리즘, <객관적> 리얼리즘, <시적> 리얼리즘, <일상적> 리얼리즘, <환상적> 리얼리즘, <심리적> 리얼리즘, <형식적> 리얼리즘, <낭만적> 리얼리즘, <반어적> 리얼리즘 등이 있다. 그러므로 리얼리즘이란 용어를 사용할 때는 관용어나 수식어를 붙이거나, 아예 인용부호처럼 사용해야 할 실정이다. 김옥동, 『리얼리즘과 그 불만』, 청하, 1989, p. 18 참조. 그랜트에 의하면 수식어에 따라 34가지나 되는 리얼리즘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 Damian Grant, 『Realism』, 김종운 역,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pp.1-2 참조. 이러한 성격 때문에 르네 웰렉은 '리얼리즘이란 좋지 못한 미학이론'

중요시되고 주체로서의 작가 의식이 강조되기 때문에 리얼리즘 작가가 작품 속에 위기의 현실을 적확하게 그리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니라 작가에 의해 재해석되고 재창조된, 깊이 추상화된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다. 여기에 문학 환경과 리얼리즘 관계의 또 다른 양상이 존재한다.

소설의 문학 환경에서 문제성이 있는 위기의 현실에 대하여, 작가들은 특히 전근대적인 봉건적 잔재가 남아 있는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와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전근대적인 요소의 척결,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와 부패 및 타락, 사물화 현상, 돈, 가난, 성, 민주주의, 국가 발전, 독립, 민족해방, 피지배자로서의 노동자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총체적이며 유기적인 관계에서 파악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문학과 예술은 인간의 삶과 역사와 그리고 환경의 실상을 언어로 형상화하여, 또는 언어를 포함한 인간의 행위를 매개로 하여 재현한다. 특히 리얼리즘 문학의 불변의 주제는 인류 사회에 역사적 상황과 객관적 현실이 존재하고 인간은 문학을 통해 그 실상을 적확하게 반영하고 사실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는 사상과 의식이다.

리얼리즘 문학의 심미적 목표는 인간의 사고와 의식과 행태 등 전체로서의 삶이 철저히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환경의 중심인 인간 사회의 정확한 분석에 있다. 그런데 인간이 주체인 사회의 현실을 관찰하고 분석함에 있어서,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인식하고, 사회 전체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며, 사회의 움직임과 인과관계를 광범하고 다양한 기능들이 상호 연계된 시스템으로 파악하려는 사조가 리얼리즘 문학에 또 다른 지평을 열었다.

---

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Rene Wellek, 『Concepts of Criticism』, Yale University Press, 1973, p. 255 참조.

문예사조로서의 리얼리즘은 19세기의 경제적·사회적, 과학적·철학적 그리고 지적·문화적 상황을 그 배경으로 하며 단순한 문학 전통이나 문학 이론의 범위를 초월하여 당시의 시대정신을 표현한 사조로<sup>1)</sup>, 정치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신학에 있어서의 합리주의, 철학에 있어서의 유물론, 그리고 문학에 있어서의 리얼리즘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어느 문학전통이나 이론보다 본질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강조한다. 김옥동, 『리얼리즘과 그 불만』, 정하, 1989, pp.34-35.

문학과 사회에 관련된 이러한 새로운 논의는 산업혁명 이후의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의 현실을 비교한 마르크스에 의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계몽주의적 질서 하에서 과학 기술과 자본주의의 발달로 생산력의 놀라운 비약을 보이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의 경제 발전을 연구하면서 한편으로 후진자본주의의 병폐를 절감하게 되었다. 그는 포괄적으로 사회에서 인간의 의식과 문화를 상부구조로, 생산력의 소유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를 하부구조로 파악하고 이 두 구조간의 끊임없는 영향관계가 현실 세계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모순인 착취와 그에 따른 노동자들의 참상을 목격하고, 마르크스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과학적 사회주의'를 제시하였다. 그는 이 새로운 이데올로기에 유기적인 세계 발전과 자아 표현 그리고 도덕적 자율성을 내포하고 있는 독일 철학사상을 접합하였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의 왜곡된 현실을 개혁하기 위하여서는, 역사적 상황과 시대 현실의 분석 및 묘사에 심미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리얼리즘 문학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사실주의에 충실한 작가나 문학 주체는 세부적 진실성의 묘사 외에 당대의 역사적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회 심층부의 구조적 모순을 동태적으로 그려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루카치는 역사적인 현실, 곧 자본주의 사회를 교환가치만으로 지배되는, 인간의 진정한 의식을 가로막는 사악한 체제로 파악하면서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을 자본과 노동의 대립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타락한 사회의 극복은 노동계급의 자기각성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사회적으로는 사회주의를, 그리고 문학적으로는 비판적 리얼리즘을 제시하였다.

마르크스나 엥겔스나 루카치 등 문학 환경과 리얼리즘의 새로운 관계를 주창하는 사상가들은 자본가에 착취당하는 민중의 편에 서서 자본주의 사회가 지니고 있는 병폐와 자본주의 체제의 부패 및 타락을 맹렬히 비판하였다. 또한 노동자들에 대한 효율적 설득 수단이고 민중에 대한 강력한 선전 매체인 문학의 가치를 중시하면서, 특히 리얼리즘 문학의 비판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예술의 진정한 가치도 현실의 기계적 모사나 객관적 반영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상황과 당대 사회의 현실로부터 영향을 받은 작가의 세계관이 반영되는 데서 발생한다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비판적 리얼리즘<sup>25)</sup>이다. 이 비판적 리얼리즘은 도덕적·윤리적 측면을 강조한 부르주아 리얼리즘과 달리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고 문학의 재현적 기능보다는 비판적 기능을 더 중시한다.

20세기 초 이러한 비판적 리얼리즘에 사회주의 이론 또는 마르크스 사상이 가미되어 정치성을 띠게 된 것이 바로 사회주의 리얼리즘<sup>26)</sup>이다. 이 문학 전통은 일부 비판적 리얼리즘 작가들이 당대의 삶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재현하여 발전적 삶으로 개선시키고 변혁하려 하는데 중점을 둔 이후, 마르크스주

25) 이 용어는 20세기에 와서 쓰였지만, 실제로 비판적 리얼리즘을 발전시킨 사람은 19세기에 활동했던 니콜라이 고골리와 톨스토이이다. 비판적 리얼리즘의 비조라고 평판을 받는 고골리는 평범한 일상적 사건을 다루면서도 강렬한 풍자, 유머, 우울, 허무, 그리고 병적인 공포로 둘러싸인 이른바 ‘페테레스부르크’적인 분위기를 다루었다. 톨스토이는 기존의 소박한 리얼리즘에 뚜렷한 도덕적 신념을 가미했다. 그는 제정 러시아의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재판, 교회, 행정, 관료체제의 불합리성을 지나치게 비판했는데, 그 비판의 저변에는 인도주의에 입각한 도덕적 신념이 깔려 있어 세칭 ‘톨스토이주의’라는 말이 생겨나기까지 했다. 임명진, “리얼리즘”, 『문예사조의 이해』, 백운복 외, 새문사, 2003, pp.112-113 참조.

비판적 리얼리즘도 본래는 철학에서 사용되던 용어였으나 1930년대에 미국의 문학사가인 버턴 루이스 페어링턴이 1860-1920년대에 걸친 미국의 문학사상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기 위하여 『미국사상의 주류』(1927, 1930)의 제 3권의 제목으로 사용한 것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페어링턴의 비판적 리얼리즘은 오늘날의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 부르주아적 리얼리즘 또는 자연주의 문학 일반을 가리킨다고 하겠다. 그러나 막심 고리끼는 1934년 8월에 개최된 제 1차 전소련 작가대회에서 행한 「소비에트 문학」이라는 제목의 연설문에서 페어링턴보다는 제한적인 개념으로 비판적 리얼리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는 서유럽의 작가를 크게 부르주아 작가와 부르주아 계층에서 튀어나왔거나 파멸된 부르주아 또는 빈민 부르주아 작가로 나누며, 후자의 작품이 보다 가치 있는, 비판적 리얼리즘 작가라고 했다. 부르주아 세계에 대해 변명적이고 개혁적이었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인 개념으로 비판적 리얼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람은 게오르그 루카치이다. 그는 『비판적 리얼리즘과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구별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했다.

26) 공인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명칭에 대한 기원은 다양하고 흥미롭다. 1920년대부터 30년대에 이르는 동안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다. ‘사회적 리얼리즘’이라는 용어가 처음 쓰인 것은 『이즈베스치야』의 편집자 이반 그론스키가 1932년 5월에 모스크바 작가들에게 행한 연설에서였으며, 1920년대에는 “사회적 리얼리즘”이라 했고, 이외에 “프롤레타리아 리얼리즘”(글라드코프, 리벤딘스키), “투쟁적 리얼리즘”, “혁명적 리얼리즘”, “정적 리얼리즘”(마야코프스키-공식적인 제안), “기념비적 리얼리즘”, “공산주의적 리얼리즘”(그론스키) 등으로 불렸다. 제임스, C.V. 『사회주의 리얼리즘론』, 연희원 역, 도서출판 녹진, 1990, pp.130-133 참조.

의 문학이론가에 의해 20세기 문학을 대표하는 전통이나 이론으로 간주되어 왔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문자 그대로 사회주의(정치학)와 리얼리즘(미학)이 결합한 형태이다.<sup>27)</sup> 그러므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따르면 문학은 이데올로기 성이 강하고 이데올로기의 성질을 띠는 동시에 이데올로기에 기여하는 문학이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삶의 현실을 사회주의 관점에서 문학과 예술 속에 형상화시켜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문학을 통해 인간사회를 변혁시키려고 한다. 루카치도 “사회주의와 리얼리즘의 결합(동맹관계)은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운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sup>28)</sup>고 말하여 이미 부르주아의 비판적 리얼리즘 속에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씨앗이 배태되어 있음을 시사했다.<sup>29)</sup> 엥겔스(F. Engels)도 “리얼리즘은 세부적인 내용을 진실 되게 표현하는 것 외에도 전형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전형적인 인물을 솔직하게 재현하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구성원들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억압에 대해 혁명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즉 의식적이건 반의식적이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발작적인 시도이다”<sup>30)</sup>라며 전형성 이론을 방법론으로 제시했으며, 테

27) 미하일 솔로호프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무엇이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솔로호프는 사회주의와 리얼리즘을 결합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다. 불성실해 보이는 답변이기는 해도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핵심을 파악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답이기도 하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사회주의라는 수식어와 리얼리즘이라는 범주가 단순히 산술적인 결합을 한 것이 아니라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본질적인 변화라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와 리얼리즘이라는 두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최유찬, 『문예사조의 이해』, 실천문화사, 1995, p.212. 참조.

28) 게오르크 루카치, 『현대리얼리즘론』, 황석천 옮김, 열음사, 1986, p.99

29) 루카치는 그의 논문 「비판적 리얼리즘과 사회주의 리얼리즘」(1956)에서 졸라, 톨스토이, 발자크 등의 19세기 리얼리즘 작가들은 사회적 현상을 외적 관점에서 묘사하고자 한 반면 사회주의 리얼리즘 작가들은 오히려 그것을 내적 관점에서 묘사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관점의 사용방법에 있어서도 전자의 작가들은 주로 유토피아적 접근 방법을, 후자의 작가들은 과학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했고, 전자의 작가들이 과거에 관심을 가진 데 반해 후자의 작가들은 미래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비판적 리얼리즘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도달하기 위한 일종의 예비단계나 과도기적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양자는 모두 동일한 소재를 다루며, 다른 것은 다만 사회 현실을 탐구하는 방법만 다를 뿐이라는 의미이다. 한마디로 요약하여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세계관으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의존하고, 방법론으로는 전형성이론을 내포하며, 형식으로는 19세기의 리얼리즘에 기초하고 있다.

30) Karl Marx and Friedrich Engels, 『On Literature and Art』,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78, pp. 90-91. 김옥동 p.75 재인용.

리 이글턴(T. Eagleton)도 “인간이 어떤 형태의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는 투쟁”이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이론이라고 정의했다.<sup>31)</sup>

20세기의 시대적 사회적 분위기 하에서 리얼리즘 작가들은 일상적 경험 중에서 문제성이 있는 위기의 현실로서 일과 노동을 주요 주제로 삼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파악했으며, 독자들이 쉽게 자신과 동일시할 수 있는 소시민, 민중, 중산계급에 속한 사람들, 또는 밑바닥 인생들을 작중인물로 다루었다. 소설의 소재는 삶의 모든 면에 걸쳐 매우 광범위하여 과거에 금기로 취급되었던 주제들이 다루어졌으며 삶의 어두운 면이나 밑바닥이 적나라하게 그려짐으로써 사회에 대한 묘사의 내용을 확장하고 당대 현실을 밝게 해명하며 아울러 사회 비판적인 자세도 취한다는 원리가 확립되었다. 그러므로 리얼리즘 문학 속의 동시대 현실에 대한 묘사는 관습적인 사회 질서에 대한 적대적 입장을 취하게 되었고, 외부 현실에 대한 관습적인 현실 묘사 또한 자신의 관념적인 비현실성을 폭로 당하게 하는 예술적인 거울 역할을 하게 되었다.

리얼리즘은 자세나 기법에 있어 객관성을 중시하여 정확하고 냉철한 관찰과 엄밀한 묘사에 기초하므로 우주나 자연 혹은 삶의 실재를 있는 그대로 그리고 가능한 한 충실하게 개관적으로 모방하거나 재현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 그러므로 작가는 삶의 실재에 단순히 예술이라는 거울을 비추어 있는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나게 할 뿐, 자신의 주관성이나 개인적 편견을 배제한다. 비개성이나 몰개성이 예술 원칙으로 요구된다. 한마디로 작가의 모습이 작품 도처에서 느껴지되 절대로 눈에 보여서는 안 된다.

리얼리즘 문학은 서술 자체보다는 서술이 만들어내는 진술에 더 중점을 두며, 언어(기호)보다는 그것을 매체로 표현되는 메시지(내용)를 더 주목한다. 비록 리얼리즘 문학이 내용지향적이라 해도 지나치게 교훈적이거나 도덕적 입장을 취하는 도덕적 공리성과는 무관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리얼리즘의 한계가

31) 게오르크 루카치, 『현대리얼리즘론』, 황석천 역, 1986, pp.102-103. 참조. Terry Eagleton, *Marxism and Literary Criticis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6, pp.7-8. 김옥동, 『리얼리즘과 그 불만』, 청하, 1989, p.75 재인용.

드러난다. 비록 리얼리즘 문학이 객관성이나 몰개성을 표방하고 있으나 완전히 도덕적 기능이나 사회적 기능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리얼리즘은 다른 문학전통이나 문학이론보다 이데올로기를 기초로 삶과 유기적 관련성을 중시하는 사회가치성을 내세운다. 그러나 이 사회가치성, 즉 가치 평가적 특성은 기술적(記述的)인 면을 경시하게 됨으로 이 점 또한 한계가 된다.

문학 환경으로서의 역사적 현실의 중요성은 한국과 태국의 현대소설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특히 한 · 태 현대문학에서 대표적 리얼리즘 작가인 염상섭과 씨부라파에서는 문학 환경이 더욱 두드러진다. 두 작가가 왕성한 작품 활동을 시작한 동시대에 한국과 태국은 공교롭게도 모두 역사상 대 변혁기에 처해 있었다. 또한 역사상 가장 중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제국주의 침략이라는 정치적 상황과 자본주의라는 사회제도의 유입과 자유민주주의라는 시대정신의 전파와 그리고 사회주의라는 혁명적 이데올로기의 확산이 국가와 사회와 국민을 압도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현실은 그대로 문학 환경이 되어 염상섭과 씨부라파의 작품에 리얼리즘을 통하여 융해되고 재현되었다.

한편 문학 환경으로서의 '현실'은 작가로서의 한 개인의 의식이나 성향도 역사적 상황 이상으로 중요하다. 이 주체성이나 작가 의식에서 염상섭과 씨부라파 양인은 모두 강렬한 개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과 태국의 동시대의 문학이, 그리고 소설가로서의 염상섭과 씨부라파가 상호 교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리얼리즘 문학인으로서의 두 작가의 의식과 성향은 매우 유사하다. 여기에서 한 · 태의 리얼리즘 문학 환경의 특색을 찾을 수 있을 정도이다. 염상섭과 씨부라파는 두 사람 모두 동시대 시대정신을 선도하는 선각적 지식인의 길을 걸었다. 또한 두 작가는 모두 동시대를 관찰하고 비판하고 이를 민중들에게 알리고 교육하는 신문기자 과정을 거쳤다. 또한 양인은 모두 전근대성에 도전하면서 영어(囹圄)의 생활을 감내한 저항적 지식인의 중심에 놓여 있었다. 이와 같이 염상섭과 씨부라파에게는 선각적이고 저항적인 현실이 당대를 지배한 시대정신이며 동시에 개인의식의 토대를 형성하는 원형이다. 이러한 개인적

주체성과 작가의식은 견고한 문학 환경이 되어 리얼리즘을 통해 두 문학가의 작품에 사실적으로 발현되었다.

## 2. 역사적 상황과 리얼리즘 기법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태국에서 리얼리즘 문학의 씨가 배태되고 뿌리내려 성장하는 데는 오랜 기간이 걸렸다.

한국에서는 일찍부터 근대문학이 발생하고, 여기에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민중들이 살아가는 삶을 묘사하거나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모방해낸다는 차원에서 넓은 의미의 리얼리즘 문학이 태동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김시습의 『금오신화』를 기원으로 하는 고대소설의 발전이 어느 정도 현실 의식의 반영을 나타내는 것이었으며, 김만중의 『구운몽』을 거쳐 연암 박지원의 소설이나 특히 판소리계 소설에 이르러서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일반적이고 광의의 리얼리즘 예술과 문학은 이미 19세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발전되어 왔다고 하겠다.<sup>32)</sup> 그러나 이러한 넓은 의미의 한국적 리얼리즘은 시대적 상황에 의해 좌절과 변모를 거듭하다가 1920년대에야 근

32) 이재선, 『현대소설사』, 흥성사, 1979, p.32.

한국문학에서 근대문학의 기원은 그 설이 분분하나 조선조 후기, 특히 영·정조 시대부터라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김윤식·김현은 한국근대문학의 기점을 영·정조시대로 삼고, 그 이유를 첫째, 이조사회의 신분제도가 혼란을 일으킨 점, 둘째, 상인계급의 대두와 화폐의 유통, 셋째, 실사구시파의 성립과 사회적 제도에 대한 회의, 넷째, 관영수공업이 쇠퇴하고 독자적 수공업자의 등장, 다섯째, 시조와 가사의 집대성과 판소리, 가면극, 소설 등으로 발전, 여섯째, 서민계급의 진출로 인간평등에 대한 자각 등으로 설명하면서 이 시대를 ‘근대 의식의 성장’시대로 규정했다.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2001, pp. 33-34. 근대에 관한 논의는 ①김윤식·김현의 영·정조시대 외에 ②1860년대 : 김규태, 『한국현대문학사』(서문당, 1976), ③1894년 : 조운제, 『국문학사』(동국문화사, 1965), 김사엽 『국문학사』(동국문화사, 1958),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이재선, 『현대소설사』(흥성사, 1979) ④1901년 : 박영희, 『현대한국문학사』 ⑤ 1906년 : 백철, 『조선신문학사조사』, 김우중, 『한국현대소설사』(선명문화사, 1968)⑥1908년 : 김동리, 『한국문학의 과거와 미래』(예술원보, 창간호), 구인환, 『한국근대소설연구』(삼영사, 1977) 등등이 있다.

대 의식과 결합하면서 심미적 목표로 성장하게 된다.

태국의 경우는 한국보다 늦은 19세기 말에 서양의 영향을 받은 유학생들에 의해 넓은 의미의 리얼리즘 문학이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1920년대 말에 근대적 소설이 등장하게 되자 현실에 대한 관심과 소설에의 반영이 시대 의식으로 구현되면서 태국 문학의 심미적 목표로 발전하였다. 그 이전에도 민담이나 불교설화나 실제 있었던 이야기 등이 서사문학 형식으로 정착되어 광의의 리얼리즘 문학이 존재했었으나, 이 작품들은 운문문학이었다. 운문문학이 아니라도 인간의 정서와 세상의 실상을 표현할 수 있다는 의식을 태국인에게 갖게 해 준 것은 『삼국지』의 번역과 출간에 있다. 그 후 1855년에 영국 등 서양의 열강과 외교관계를 맺게 되면서 태국 사회에도 유럽 유학생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귀국한 후에 유럽에서 보았던 신문을 만들고 자신이 공부했던 분야를 태국에 소개하였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산문문학, 즉 서양의 소설이 태국에 번역·번안되어 소개되었고 후에는 유학생들이 창작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유학생 중의 한 사람인 끽롬루엥피찐쁘라차껌(กรมหลวงพิชิตปรีชากร) 대군이 1885년 주간지인 『와치라얀위셋(วชิรญาณวิเศษ)』<sup>33)</sup>에 『생각만 해도 우스운 이야기(สนุกนิด)』을 발표하였는데, 이 작품을 태국 소설의 기원으로 삼고 있다.<sup>34)</sup> 계속해서 서양 유학생들에 의해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Robert Louis Stevenson), 마리 코렐리(Marie Corelli), 조셉 콘라드(Joseph Conrad) 등의 소설이 번역·소개되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태국인들이 소설문학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게 되고 리얼리즘에도 눈을 뜨게 되

33) 왕자들에 의해 왕실의 소식지로 1876년경에 일주일에 두 번 발행되던 이 신문은 1885년에는 일주일에 한 번, 1895년에는 월간지로 변하고 신문의 성격도 오락지로 변하여 1905년까지 발행되었다. 이 신문은 태국문학의 발달에 큰 기여를 했다. 세익스피어의 작품 등 서양의 소설을 태국에 제일 먼저 소개하였다.

위파 끽까난(วิภา กษณะนันท์), 『태국소설의 기원(กำเนิดนวนิยาย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 Dokya, 1997, pp.148-153.

34) Wibha Senanan, 『The Genesis of the Novel in Thailand』, Bangkok, Thai Watana Panich, 1975, p.63.

면서 20세기 초에는 사실에 근거한 근대소설이 본격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하였다.<sup>35)</sup> 특히 태국에 입헌군주주의의 도입이라는 정치적 변혁을 초래한 입헌혁명을 기점으로 소설은 "과거의 오락문학에서 지식문학으로 발전했으며, 정치적·사회적 변화에서 비롯된 영향을 받은 소설이 사회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sup>36)</sup>으로 그 성격이 바뀌어 나갔다.

한국과 태국의 역사적 상황과 그에 따른 리얼리즘 문학의 배경 및 그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 리얼리즘 문학 성립의 역사적 상황과 그 양상에 관한 검토이다. 한국 사회에 리얼리즘 사상이 뿌리내려 성장할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을 19세기 중엽 이후부터 살펴보면 대체로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sup>37)</sup>

먼저 정치·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변화와 이에 대한 국민의 시대 의식의 발전이다. 서양의 시민 평등 의식과 자유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독립협회를 결성하고 주도하였던 신지식층이 전개한 민권 확립과 민주주의 운동, 양반 관료들의 착취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운동, 외국세력 특히 일본의 침략에 대한 자주독립 운동, 나라를 위해 스스로 나서는 온 국민의 자강운동, 일제의 토지 수용과 식량수탈 및 고리채 등 일련의 식민지화 정책에 반항하는 민족해방투쟁, 그리고 민족자결주의를 계기로 전개된 3·1운동 등등의 역사적 상황들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봉건주의 타파에 의한 근대화 달성과 자유 평등에 토대를 둔 민주주의 실현 그리고 자주독립의 민족국가 건설에 대한 사회 의식을 새로이 하게 만들었다.

다음으로 과학의 도입과 그의 생활화이다. 생활화를 통한 과학 정신은 당시

---

35) M.C. 아갓담경 라피팻(ม.จ. อาภาศต่าเกิง รพีพัฒน์), 덕마이쑈(ดอกไม้อุต), 크루텡(ครูเทพ), 씨부라과 등이 활동했던 문예지 『렝롬』(เรื่องร้อย)과 『쑤팜부룻』(สุภาพบุรุษ)이 리얼리즘 문학의 길을 터 1933년 이후의 참여문학 또는 생의 문학시대를 여는 길잡이가 되었다.

36) 프리친 분카판(ประสิทธิ์ บุญขจร), 『소설과 태국사회 1932-1957 วนิยายกับสังคมไทย ๒๔๗๔ - ๒๕๐๑』, Bangkok, Chulalongkorn University Press, 1999, p.217.

37) 장사선, 『한국리얼리즘문학론』, 서울, 새문사, 1988, pp.10-11.

생겨난 교육기관의 증가와 신 교육사상의 전파를 타고 경향 각지의 모든 백성들에게 보급되었다. 갑오경장 이후 실시된 교육제도의 개혁에 따라 각급 학교가 광범위하게 설립되었으며, 또한 “배우는 것이 힘이다”라는 각성에서 일어난 민간 교육단체와 사립학교 설립의 열풍은 신교육에 대한 교육열을 크게 고조시켰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학문과 사상의 습득 기회를 일반 평민이나 가난한 서민들에게까지 활짝 열어주었다. 이렇게 과학 기술과 신교육에 의한 국민 의식의 변혁은 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과학과 기술을 숭상하는 새로운 사상으로 과학주의가 확립되면서 합리성과 사실성을 중시하는 실증적 현상이 시대적 특성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새로운 역사적 상황이 예술 문학에서도 리얼리즘으로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사립교육기관은 지식의 전달처의 역할 외에도 민족운동의 근거지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인의 애국열을 고취시켰다. 사립교육기관은 정치적·사회적으로 활발한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했던 종교단체 및 청년단체와 함께 금주, 금연, 미신타파, 남녀평등, 일부일처, 생활 간소화 등 각 방면에 새로운 풍조를 일으켰다.

끝으로 국제적인 배경으로 제국주의 세력의 팽창과 러시아 혁명의 충격을 빼놓을 수 없다. 또한 일본과 미국 등 외국으로 공부하러 갔던 해외유학생들이 귀국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한 한국 내의 학계 및 사상계의 변모 현상을 들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시대 변화의 배경에서 잉태되고 발전한 새로운 역사적 상황은, 근대정신인 실학사상을 토대로 한 비판의식의 대두와 서민적 희극성에서 비롯된 한국적 사실주의를 출발점으로 하여 3·1운동으로 절정을 이룬 민족적 각성과 더불어 1920년대 서구의 리얼리즘에 접맥되면서 한국 문학의 새로운 리얼리즘 양상을 조형시켰다.<sup>38)</sup> 이렇게 새로이 출현한 근대 리얼리즘은 신소설 작가인 이광수-김동인-염상섭-현진건-이기영으로 이어지는 한국 현대소설문학의 발달 과정과 맥을 같이 하며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38) 이재선, 『현대소설사』, 홍성사, 1979, p.42.

한국 문단에서 리얼리즘과 관련된 용어와 개념은 1907년 무렵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1907년 『태극학보』 1, 2월호에 백악춘사(白岳春史)의 소설 『다정다한(多情多恨)』이 발표되었는데, 제목 옆에 ‘사실소설’이라고 부기하여 소설의 사실성을 강조함으로써 리얼리즘 문학 용어가 등장하였다. 1909년 12월에는 『대한홍학보』 제8호에 몽몽(夢夢)의 소설 『소설 요조오한(小說 四疊半)』의 내용에 사실주의라는 용어가 문학적으로 사용되었다. 그 후 백대진은 “현대조선에 자연주의 문학을 제창함”<sup>39)</sup>을 발표하여 한국 리얼리즘 논의의 형성과정에서 확실한 이정표를 세우며 새로운 시대의 출발을 알렸다. 여기에서 그는, 20세기 급일에 적합한 문학이란 현실에 바탕을 두는 문학이고 현실을 위한 문학이어야 하며, 그런데도 우리 문학은 아직도 무가치한 몽상적 문학과 낭만적 문학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예술을 위한 예술의 영역에 머물고 있으며, 따라서 현실을 지향하여 인생의 암면까지도 노골적으로 진직히 묘사하여 허무 가식 공상이 없는 자연주의 문학을 세워야 한다고 주창하였다.<sup>40)</sup> 그러다가 현철이 일본에 유학하였을 때 동경예술좌 연극학교에서 수강했던 것을 바탕으로 한국 최초의 소설론이라 할 수 있는 글, 즉 「소설개요」<sup>41)</sup>를 발표함으로써, 그동안 관념적으로만 논의되어 오던 리얼리즘 사상이 창작현장과 결부된 이론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 후 리얼리즘은 일제 식민지 하에서 현실의 삶에 대해 부정적 가치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채택되어 잠정적으로 민족정신을 추구하는 방법과 연계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리얼리즘이 문학사조의 하나로서 수용된 것은 1919년 2월에 창간된 『창조』에서였다. 최남선과 이광수 등은 신문학의 동기를 새 시대의 윤리 도덕과 가치관 그리고 민족의식을 고양시키는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하고 문학을 통해 이를 선전 계몽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고전주의적 문학에

39) 『新文界』, 1915, 12. 3권 12호.

40) 윤희로, 「1920년대 한국소설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0. p.54.

장사선, 『한국 리얼리즘문학론』, 새문사, 1988, p.33 참조.

41) 『개벽』 1-2호. 1920년 6-7월.

반기를 들고 문학을 문학 자체로서 인식하고 실천하려는 의지를 처음으로 천명한 그룹이 바로 『창조』 동인들이었다. 그 동인의 실질적인 주도자인 김동인은 창간호의 편집후기격인 「남은 말」에서 “우리는 다만 충실히 우리의 생각하고 고심하고 번민한 기록을 여러분에게 보이는 뿐이올시다”<sup>42)</sup>라는 말로 리얼리스트의 입장을 표명했다. 그런데 『창조』의 리얼리즘의 성격이 ‘인생의 충실한 묘사’ 일뿐 묘사론적 리얼리즘이나 자연주의적 리얼리즘 또는 비판적 리얼리즘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음이, 또 그가 리얼리즘의 속성을 표현의 문제 또는 소설 구성이나 표현상의 기법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이 아래에 잘 나타나 있다.

리얼리즘이라 하면 흔히 ‘있는 대로’를 묘사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이가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리얼리즘의 사명은 이 복잡하고 불통일되고 모순되는 인생 생활을 단순화하고 동일화하는데 있다. 찌꺼기를 모두 뽑아버리고 골자만을 남겨가지고 그것을 정당화시켜서 표현하는 데 있다.<sup>43)</sup>

똑똑히 관찰하고 정확히 진맥하여 ‘실재한 사실’을 혹은 ‘실재할 수 있는 사실’을 현실에 즉하여 묘사하는 것이 리얼이 아니다. 그것은 즉 영상으로 비유하자면 ‘사진’에 지나지 못한다. ‘사진’은 소설수법상의 리얼이 아니다. 리얼이 될 수도 없다. 소설수법상 리얼이라 하는 것은 위에서 말한 것 같이 ‘있음직한 사실’이라야 한다. 이성으로 정확히 타진하면 ‘그런 것이 있을까’하게 생각될 일일지라도 독자가 읽은 중에 부자연미를 느끼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소설 수법상의 리얼이다.<sup>44)</sup>

한편 당대 일부 지식인층에서는 사회 현실에 대한 강렬한 비판과 사상적으로 저항적 경향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러한 성향이 문단에도 파급되어 새로운

42) 김동인, 「남은 말」, 『창조』 창간호, 1919, p.81.

43) 김동인, 「근대소설의 승리」, 『김동인전집』 제 16권, 조선일보사, 1988, p.221.

44) 김동인, 「창작수첩」, 『김동인전집』 제 16권, 조선일보사, 1988, p.429.

문학적 태도로 등장하면서 종전의 리얼리즘에 대한 인식태도가 각도를 달리하여 굴절되는 양상을 보였다. 1922년에 창간된 『신생활』 45)과 『개벽』 신년호(1923년)에는 이미 부르주아 예술이 프롤레타리아 예술과 대치될 날이 멀지 않음을 예고했으며, 1925년 2월에는 『개벽』에 이광수, 김동인, 염상섭, 나도향의 민족주의 계열과 김기진, 박영희, 김석송, 박종화 등의 프로문학 계열 간에 계급문학 시비론이 전개되면서 신경향을 반영한 작품이 등장하였다. 46) ‘카프(KAPF)’ 결성 이후 신경향과 문학이 프로 문학으로 이행되어가자, 이에 대해 염상섭이 비판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민족의식에 대한 자각과 현실인식을 함께 강조하면서 민족문학과 프로문학의 방향을 통일시켜 더 큰 민족문학의 범주를 이루려는 모색을 시도하기도 했다. 47)

한국 문학의 역사적 상황과 리얼리즘 양상에 있어서 사회주의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한국 사회에 사회주의 사상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3·1운동 이후이다. 1919년 전 민족의 쫓겨난 통한 독립투쟁이 실패로 나타나자 새로운 방법에 의한 민족운동이 탐색되었다. 마침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하고 레닌이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에 대한 원조를 제창하자 이 영향을 받아서 사회주의와 연결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던 것이다. 48) 다시 말해 3·1운동 이후 한국에서 부르주아 민족주의의 한계를 넘어 자본주의와 식민주의의 모순을 동시에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사회주의가 수용되었다. 그러나 계급문제를 중시하는 사회주의는 식민지 한국에서 민족주의의 대안이 될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의 비판적 리얼리즘은 루카치가 말하는 사회주의적 세계관과는 무관하게 수용되고 전개되었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염상섭은 이른바 ‘개성론’과 ‘생활론’을 절충하여 기존의 모사론

45) 김태준은 『조선문학사』(학예사, pp.262-263)에서 이 잡지를 신경향과 대두의 배경에 넣고 있는데 반해 장사선은 『한국 리얼리즘 문학론』(새문사, 1988, pp.117-118)에서 이 잡지가 한국문학사에서 민중문에 확립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선언한 이정표라고 평했다.

46) 최서해, 박영희, 조명희, 이기영, 송영, 주요섭, 최승일 등의 작품이 이에 속한다.

47) 권영민, 「한국근대소설론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4, p.111.

48) 이기백, 『한국사신론』, 일조각, 1975, pp.385-386.

적·자연주의적 리얼리즘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했다. 그는 “순객관이라는 말은 예술상에 용납할 수 없는 말이다. 다만 자연주의나 사실주의에서 객관을 주장하는 것은 작가의 의식적 태도에 그치는 것이요, 어떠한 작품이든지 작가의 생활과 작가의 생활을 조직하고 지배하는 시대정신과 생활감각 및 생활의 식이라는 액즙으로써 반죽되지 않은 것이 없다.”<sup>49)</sup>라는 말로 개성과 생활의 문제가 리얼리즘의 정신에 입각해 있음을, 또 생활의 소설적 형상화에서 리얼리즘이 필수임을 역설하였다.

1931년 카프에 대한 제1차 검거 선풍이 있을 후 새로운 창작방법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때마침 1932년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채택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이러한 수정주의적 방향 전환에 소개되어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안막이 <동아일보>에 「창작방법-문제의 재토의를 위하여」(1933. 11. 29.-12. 7.)라는 제목 하에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소개한 후 그 수용을 두고 찬반으로 나뉘어 논전을 벌였으나, 결국 한국 문단에 수용되었으며 이후 큰 영향을 끼쳤다. 김남천의 고발문학론이나 임화의 낭만주의론 그리고 백철의 인간탐구론 등은 직·간접으로 여기에 영향을 받아 전개된 창작방법론들이다.

이상에서 검토한 것처럼 한국 문단에서의 리얼리즘 문학 정립에 대한 예고는 1920년대 초에 들어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수용되고 논의되었으며, 1920년대 말에는 이미 서구 리얼리즘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이며 민족적 리얼리즘에 대한 새로운 자각과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sup>50)</sup>

다음으로는 태국 리얼리즘 문학 성립의 역사적 상황과 그 양상에 대한 검토이다. 1855년에 영국을 필두로 서구 열강과 불평등 조약인 우호통상조약<sup>51)</sup>을

49) 염상섭, 「문예와 생활」, 『조선문단』, 1927. 2. pp.4-5.

50) 조진기, 『한국근대리얼리즘소설연구』, 새문사, 1989, p.72.

51) 태국의 근대화나 민주화를 논의할 때 흔히 바우링 조약이라고 부르는 이 조약을 기점으로 삼는다. 영국이 1855년에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약체결을 제의하며 당시 동인도회사 영국총독이었던 Sir John Bowring을 단장으로 파견하자 라마 4세는 이의 없이 일주일 만에 영국과 그 신민에 대하여 치외법권과 영사재판권을 인정하는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제국주의 침략대상의 표적에서 벗어났다. 주변 강대국들이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모습을 지

맺고 문호를 개방한 이후 태국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왕의 주도 하에서 근대화가 시작되었다. 20세기 초까지 약 60여 년에 걸쳐 근대화과정<sup>52)</sup>이 진행된 결과 태국은 경제와 사회와 정치면에서 큰 전환을 이루었다. 우선 당시 정치의 주체이자 주인인 라마 4세 스스로 민주적인 왕으로 거듭나 백성들과 가까워졌다. 그 전까지 왕의 즉위나 생일, 또는 필요한 때에 실시되었던 신하들의 왕에 대한 충성맹세식(พิธีก่อนนำพระศพขึ้นเสด็จ<sup>53)</sup>)을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지 않았다. 왕 또한 신하들과 백성들의 평화와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다짐하였다. 문호개방과 더불어 시행된 외교관계는 자연스럽게 태국인들로 하여금 외국에 상주할 기회를 갖도록 했다. 초기에는 대부분이 왕족으로

켜보며 영국과 프랑스의 힘을 인식하였기 때문이었다. 영국에 이어 미국과 유럽의 15개국 및 일본과도 이와 같은 내용의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태국을 국제사회에서 열등국으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 조약으로 태국은 서방 여러 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함은 물론 국내적으로도 교육과 행정, 경제면에서 영국을 모델로 한 근대화에 주력하게 되었다. 왕은 왕자들에게 영어교육을 시키고 유학을 보냈으며 제대식 군대 대신에 서양의 장교를 고용하여 신식군대를 창설하고 관료들을 해외에 파견하는 등 군대와 관료 조직을 우선적으로 근대화하였다. 또한 이 조약은 태국이 그간 누렸던 무역독점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영국은 자국의 식민지 백성을 위한 쌀을 강제로 태국에게 수출하게 하였다. 결국 벼농사가 장려되었고, 이에 따라 태국의 경제구조는 물론 사회구조, 나아가서는 정치구조가 바뀌는 결과를 낳았다. 김영애, 『태국사』, 한국외대출판부, 2002, pp. 151-159.

52) 1850년 이전에 아시아의 정치권에 큰 변화가 있었다. 유럽에서 영국이 강대국으로 성장하여 이미 국제사회에서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로 부상하였고 아시아의 중심국이었던 중국이 유럽 열강에 의해 분열되었으며 대신 일본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추세에서 태국을 제외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유럽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수 세기를 두고 태국과 패권을 다투어 왔던 미얀마와 베트남이 각각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로 전락했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도 이미 각각 네덜란드와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이 시기에 태국의 지배계층의 대부분은 바깥 세상의 변화에 둔감했으나 몇 명의 왕자와 귀족들은 서양, 특히 미국에서 온 선교사로부터 배운 영어를 통해 유럽의 선진학문을 공부하고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으며, 태국이 서구열강의 식민지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려는 그룹이 생겨났다. 그 그룹의 중심에 1851년에 즉위한 몽꿋 왕자 즉 라마 4세와 친동생 쭈타마니 왕자가 있었다. Rong Syamananda, 『A History of Thailand』, Bangkok, Thai Watana Panich, 1973, pp.118-120.

53) 힌두 문화권에서는 고대부터 왕이나 우두머리에 대한 신하나 부하들이 충성을 맹세하는 전통이 있었다. 태국은 아유타야 왕국(1350-1767) 때 힌두-대승 문화의 산실이었던 크메르 제국의 문화를 받아들여 신하들이 왕의 즉위식이나 생일, 또는 왕이 원할 때 실시했다. 브라만의 집전으로 왕에게 불충하거나 반역하면 신의 저주가 내린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ลิลิตฉลองการแข่งน้ำ 리릿 옹칸챙남>을 암송하며 충성을 선서한다. 태국인들은 "피티 트남 프라 피팟쌌따야"라고 칭한다. 라마 5세는 스스로 국민에게 정치를 잘 할 것을 선서했다.

구성되었으므로 왕족들의 자녀는 외국교육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그 수가 거듭 증가했다. 라마 5세는 서양에서 교육받은 인재의 필요성과 그 효과에 깊이 인식하고 왕족과 관료 자녀의 외국유학을 장려하였으며 국비유학생제도<sup>54)</sup>를 만들어 평민의 자녀에게도 외국유학의 길을 열어 근대화의 동량으로 삼았다.

19세기 말부터 진행되었던 노예제가 1905년에 완전히 폐지되었고<sup>55)</sup> 아울러 1905년에 백성의 국가(왕실)와 관료를 위한 부역이 철폐됨<sup>56)</sup>에 따라 태국 사회는 과거와 달리 빠른 속도로 평등사회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1932년에 민주주의가 도입되었으며<sup>57)</sup> 새로운 중산층이 방콕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형성

54) 1891년 9월 24일 왕에게 하직인사를 하러 온 해외유학생의 수가 모두 19명이었다. 영국 유학생 8명, 프랑스 유학생 7명, 그리고 독일 유학생 4명이었다. 라마 5세는 1898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력의 소지자 중 영어를 잘 하는 학생에게 응시자격을 주어 매년 2명을 선발해 국비유학생으로 파견했다. 국비유학생들은 영국을 선호했으나, 자비유학생들은 영국에서의 유학비용이 높아 미국이나 프랑스를 선택했다.

프랑스는 영국에 비해 국비유학생의 수가 적는데 불만을 품고 1924년 우호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할 때 국비유학생의 수를 증가할 것을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태국은 프랑스의 요구에 응했는데, 이때 추가 파견된 학생으로 빠리디 파놈용(ปรีดี พนมยงค์, 법무성 파견)과 피분송크람(국방부 파견, 흔히 피분이라고 부름)이 있다. 당시 프랑스, 덴마크, 스위스에 유학했던 학생들은 유럽을 풍미했던 자유사상과 민주주의에 깊이 매료되었다.

령 싸야마논(รอง สยามานนท์) , 『입헌군주제 하의 태국사 ประวัติศาสตร์ไทยในระบอบรัฐธรรมนูญ』 , Bangkok, Thai Watana Panich, 1977, pp.19-21.

55) 힌두 문화권이 그렇듯이 태국도 힌두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노예가 사회의 맨 밑 계급으로 형성되었다. 라마 5세 당시 노예의 종류는 매매노예, 자녀노예, 선물노예, 사법노예, 기근노예, 전쟁노예, 선물노예 등 일곱 종류로 신체상의 자유가 없는 주인 재산의 일부로 간주되는 계급이지만 노예로 전락한 원인이 제거되면 자유인(평민)이 될 수 있었다. 지배계층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으므로 라마 5세는 1874년에 노예의 몸값과 자신이 즉위한 해인 1856년을 기점으로 한 노예정년표를 발표하고 단계적인 노예해방에 앞장서서 1905년에 완전히 해방시켰다. 김영애, 『태국사』 , 한국외대 출판부, 2002, pp.180-185.

56) 라마 5세는 근 500년 간 지속되어온 무보수 부역제를 폐지했다. 아유타야 시대에 격월제로 일 년에 6개월 간 부역에서 라마 3세 때에는 4개월, 라마 4세 때에는 3개월로 단축되었다가 1905년에 완전히 폐지했다. 폐지 원인은 바우링 조약의 체결 이후 벼농사의 권장과 자본주의 경제 도입, 신식군대의 창설, 관료의 봉급제 도입 등이 있다. 김영애, 『태국사』 , 한국외대 출판부, 2002, pp. 185-186.

57) 소위 '인민당'이라고 불리는 해외유학과에 의해 입헌군주제 형식으로 도입되었다. 정체변혁은 1855년 이후 형성된 해외유학생에 의해 프랑스에서 계획되고 주도되었다. 영국(약 200 명)과 프랑스와 스위스(약 75명), 미국(100 여명) 등 유럽에 유학했던 학생들 중 빠리디 파놈용(ปรีดี พนมยงค์, 프랑스, 법학), 빠라운 파머라몬뜨리(ประยูร ภมรมนตรี, 프랑스, 정치학), 피분송크람(จอมพล ป. พิบูลสงคราม, 프랑스, 포병학교 유학생), 탓싸나이 밋팍디(ตันนัย มิตรภักดิ์, 프랑스, 기병학교 유학생), 루엡씨리라차마이뜨리(หลวงศิริราชไมตรี, 프랑스,

되었는데, 이러한 변화가 문학적으로 리얼리즘의 시대적 배경을 형성하였다.

태국은 19세기 중엽까지만 해도 농업국가로, 국민 대다수가 농업, 임산업, 수산업에 종사하여 "진정한 태국인은 농민이다"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였다. 태국 사회는 위로부터 왕과 왕족을 정점으로 하여 아래로는 사회적으로 귀족(관료), 평민, 노예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신분이 싹디나제도(ระบบศักดินา)<sup>58</sup>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신분사회였다. 전통사회가 그렇듯이 직업관도 역시 사농공상(士農工商)의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소수의 관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태국인은 농부였다. 공업은 주로 왕실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공급하는 장인들에 의해 유지되었으며 천한 계급이었지만 솜씨에 따라 대우를 받았다. 이에 비해 상업은 가장 천하게 여겨지던 직업이었다. 노예로 팔 수 있는 딸이나 아내가

---

주불태국대사관 서기관보), 뚜어 라파누끄롬(ตื้อ ลพานุกรม, 스위스, 과학), 그리고 넵 파혼요틴(เนบ พหฺโยทิน, 프랑스, 정치경제학) 등 7명은 1926년에 프랑스 뿌라운의 숙소에서 회의를 갖고 뿌리디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인민당을 결성하였다. 점 조직 방법으로 세력을 확장한 인민당은 마침내 그 수를 100여 명으로 늘리어 1932년 6월 24일에 새벽에 거사하고 민주주의 도입에 성공하였다. 이들은 스스로 "The People's Party"라고 불렀으므로 "인민당"이라고 번역하였다. 인민당 구성원은 육군, 해군, 그리고 민간들이 참여했는데 육군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민주주의 도입 사건을 입헌혁명 또는 무혈혁명이라 부르기도 하나 근래에는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 또는 정치사건으로 폄하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입헌혁명이라고 칭하겠다. Thamrongsak Petchlert-anan, 『1932 Revolution and the Aftermath』, Bangkok, Chulalongkorn University Press, 2000, pp.14-15.

58) 아유타야 시대, 프라버롬뜨라이록까낫(พระบรมไตรโลกนาถ, 1448-1488) 왕이 전 영토의 주인이자 전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인물인 신권 대행자 왕으로서 전국의 국민(노예 포함)과 땅(토지사용권)을 매개로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의무, 상과 벌을 정한 제도이다. 이 법은 왕족을 짜오화, 프라운짜오, 멤짜오, 멤라차왕, 멤루엥 등 5 등급, 관료를 9 등급(법 제정시는 프라야(พระยา), 프라(พระ), 루엥(หลวง), 쿤(ขุน), 몬(หมื่น), 판(พัน), 타나이(ทนาย) 등 7등급이었으나 후에 최고급 등급으로 짜오프라야(เจ้าพระยา), 톤부리 시대에는 솜땃짜오프라야(สมเด็จพระเจ้าพระยา)가 최고 등급으로 추가되었다)으로 나누었다. 프라이(ไพร)라고 했던 평민은 프라이루엥(ไพรหลวง), 프라이쑤(ไพรสม), 프라이쑤웨이(ไพรส่วย) 등 3 종류로 나누었는데, 거의 출생과 더불어 왕이나 왕족(프라이루엥), 또는 관료(프라이쑤)를 상전으로 모시고 상전을 위해 일 년에 6개월(후에 4개월, 3개월로 단축)간 격월로 무보수부역을 해야 했다. 프라이쑤웨이는 부역대신 그 지방의 특산물을 바쳤다. 통상적으로 크게 7 종류로 나뉘는 노예는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주인이 상품과 같이 취급할 수 있었으나 생사여탈권만은 왕 한 사람에게 있었다. 싹디나법은 1455년에 제정된 이래 1905년까지 엄격하게 하급상을 배제하며 태국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행되었다. 김영애, 『태국사』, 한국외대출판부, 2002, pp.68-69 참조.

없거나<sup>59)</sup> 또 끼니거리가 없어 기아선상에 놓일 경우이어야만 행상 등을 하며 생활하였다.

위와 같은 역사적 · 사회적 배경에서 영국과 맺은 우호통상조약은 태국의 경제와 사회를 바꿔놓았다. 물물교환의 경제구조에서 화폐경제로 바뀌었으며, 따라서 상업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되었다. 이미 동남아에 진출하여 동인도회사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던 영국은 태국에게 수출입관세를 3%로 강요했다.<sup>60)</sup> 그리고 식민지에서의 재식농업을 위해, 즉 인도 및 말레이시아 등의 식민지 백성의 식량공급을 위해 조약의 부칙으로 태국으로 하여금 쌀을 수출하도록 강제했다. 조약 체결 이전까지는 쌀을 금수품으로 정하고(특별한 경우에만 왕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었음) 자급자족만을 위해 벼농사를 짓던 태국이었으나 영국의 강요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라마 4세는 조약체결에 따라 갑자기 감소한 관세수입으로 인해 발생한 국고 손실을 메우기 위해 농지 개간과 함께 벼농사를 권장했는데, 이 정책은 성공적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국민들, 특히 왕족과 관료 등 평민을 많이 부리고 있는 대지주계급, 즉 상류계층에게 벼농사로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인식을 주었으며, 상업도 빠르고 효과적인 치부의 한 방법이라는 것을 터득하게 만들었다. 평민이나 자유인이 된

59) 라마 6세 이전까지만 해도 힌두 문화권의 여성들이 그러했듯이 태국여성은 남성의 전유물로 인식되어졌다. 태국여성에게도 삼중지도가 요구되었으며, 혼전 순결은 필수적이었고 이혼 요구도 할 수 없었다. 부모가 정해주는 남성과 결혼해야 했으며, 남편이 부역을 격월제로 나가 는 동안 집안 일은 물론 육아, 농사 등 모든 일을 책임져야 했고, 남편의 체면이 깎이지 않게 하는 것도 아내의 도리였다. 여성은 재산과 동일시되어 아버지는 딸을, 남편은 아내를 필요에 따라 매매할 수 있었다. 여성은 남편의 소유물이자 재산이었으며 장신구였고 열등한 하인일 뿐이었다.

랏차니깐 쉐트(รัชนิกร เศรษฐกิจ), 『태국사회구조와 태국문화 โครงสร้างสังคมไทยและวัฒนธรรมไทย』, Bangkok, Thai Watana Panich, 1993, p.103.

60) 이 항목으로 태국은 대외무역에서 또 관세소득에서 엄청난 손실을 겪게 되었다. 종전에는 왕실이 대외무역을 관장했으므로 태국왕실 마음대로 외국인 선박에게 수출입관세를 들고 날 때마다 물렸고, 태국 내에서 상거래를 할 때도 태국 왕실이 원하는 바에 따라 매매하도록 하는 등 부조리가 많았다. 그러므로 서양 선박들은 태국에 들 때마다 선물과 뇌물공세를 왕실과 관 계직원들에게 할 수밖에 없었다. 유럽의 초강대국인 영국은 1800년대 초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사절단을 파견하여 상거래에 대한 조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이런 저런 이유로 좌절당했다가 1855년에 성공하였다.

노예들의 돈에 대한 의식도 변했다.

이러한 변화는 종래의 전통적인 양반 외에 상업으로 인해 부를 취득한 신양반층 또는 중산층의 형성을 초래했다. 종래의 전통적인 명문가, 즉 양반을 총칭하는 ‘푸디’(ผู้ดี)라는 단어에 대하여 새로운 중산층을 가리키는 신 양반, 즉 ‘푸디 마이’(ผู้ดีใหม่)라는 단어가 생겨났다. 신 양반층 또는 신 중산층은 태국에 이주하여 외국인 대우를 받으며 상업에 종사해 부를 축적한 중국인들과 얼음 공장이나 성냥공장 등 공장경영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이었다. 그런데 당시는 물론 20세기 초까지도 전통적인 상류층은 이들 신 양반층을 무례하고 비속한 벼락부자나 또는 예의나 교양이 부족한 돈만 아는 계층으로 치부하여 비하하였다. 그러나 결국 자본주의의 도래는 태국 사회에서 명예나 체면보다는 돈을 중시하는 배급사상이 팽배하게 하였으며, 한편으로 부를 추구하기 위한, 부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병폐와 부조리가 수반되게 만들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시대적 변화를 배경으로 하여 나타난 이러한 역사적 상황은 태국의 문학 작품 속에, 특히 덕마이쑈(ตอกไม้อุต)61)의 소설 『양반』(ผู้ดี), 『세 남자』(สามชาย), 『업보』(กรรมเก่า), 『첫 번째 실수』(ความผิดครั้งแรก) 등에 사실적으로 잘 그려져 있다.

과학의 도입과 생활화는 태국 사회를 크게 변화시켰다. 선교사들에 의해 주도된 과학의 도입은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었을 뿐 아니라 건강 위생에서도 태국인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인쇄술 도입과 신문 잡지의 발간은 신흥 자본주의 국가에서 왕실과 신지식인이 주도하는 근대화가 서구화이며 민주화

---

61) 붓과 님만헤민(บุฟผา นิมมานเหมินท์, 1905-1963)의 필명이다. 방콕에서 왕족이자 고급관료의 딸로 태어난 그녀는 신식교육을 받고 1927년 『타йка셈(ไทยเกษม)』에 희곡 「디휘(ดีฟอ)」로 등단하여 많은 작품을 발표하였다. 대표적 작품으로는 위의 3 작품 외에 장편소설 『백분의 일(หนึ่งในร้อย)』, 『난타원(นันทวัน)』, 『이것이 바로 세상이야!(นี่แหละโลก)』, 『사고(อุบัติเหตุ)』와 단편집이 있다. 그녀는 작품의 주인공을 신식교육을 받은 여성으로 설정하여 여성의 교육의 중요성과 자유연애 및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작품을 썼다. 여러 가지 질병의 합병증으로 남편이 인도대사였던 때 인도 뉴델리 공관에서 사망하였다.

라는 새로운 의식을 빠르게 전파시켰다.

전통적으로 태국 사회는 출생에 의해 신분이 결정되는 신분사회였다. 일단 정해진 사회적 신분의 변화는 쉽지 않았으며, 국민들도 업보사상에 젖어 신분 제도를 운명으로 받아들였다. 바우링(Bowring) 조약(1855)의 체결 이후 전개된 서양 열강과의 외교관계는 태국인들로 하여금 직접 외국을 보고 경험하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었다. 영국과 같은 선진국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기 위해,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고 국제무대에서 일등국가로 거듭 나기 위해 라마 4세는 물론 그 후대 왕들은 군부와 관료를 근대화하고 서구화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왕실장학금(King Scholarship)<sup>62)</sup>을 만들어 가난하지만 우수한 평민의 자녀에게 유학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왕족은 물론 부유한 신 양반층의 자녀들은 자비로 해외유학을 떠났다. 그러므로 19세기 말-20세기 초에는 해외유학이 하나의 유행병처럼 변졌고, 아울러 신식교육에 대한 열의도 높아져 교육 기회가 지배계층에서 평민계층으로 확산되었다.<sup>63)</sup> 해외유학이나 태국 내

62) 선왕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선진 문명을 배워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서양식 교육보급이라는 선왕의 취지를 받들어 라마 5세는 왕족과 고위관료의 자녀를 유럽에 유학시켜 선진문명과 문화를 익히게 한 이외에 1898년에 “킹스칼라쉽(King Scholarship)”을 제정하여 시험을 거쳐 매년 2명을 선발하여 서양유학의 길을 마련해주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태국인들은 특히 영국을 선호했는데, 영국의 교육수준이 높았고 영어가 당시 세계어로 부상했기 때문이었다. 라마 5세 말기에는 영국에 비해 등록금이 싸고 생활비가 적게 드는 프랑스로도 많이 유학하였다. 그러나 국비유학생은 프랑스보다 영국을 택했다. 이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하는 학생의 자격은 중등학교 8학년이고 18세 미만인 태국인 평민학생이었다. 국비유학생의 수는 시대에 따라 1-3명 등으로 다소 증감되었으나, 세계공황의 여파로 태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라마 7세는 매년 유학생을 선발하여 파견하는 열의를 보임으로써 교육을 중시하였다. 텅빈 시절 씨부라과도 이 시험에 응시하려했으나 그는 영어와 태국어 등 문과 과목은 뛰어났으나 이과 과목이 약해 포기해야 했다.

63) 라마 5세(1868-1910)와 라마 6세(1910-1925)도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교육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신식 교과과정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는 등 교육 사업에 힘썼다. 1861년에 영어 교사, Anna Leonowens를 영국으로부터 초빙하여 왕자와 공주에게 영어교육을 시키는 것을 필두로 서양식교육은 왕족에서 귀족으로, 귀족에서 평민으로 확산되었으며 종래의 불교와 윤리중심의 승려에 의한 사원교육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마침내 1916년에 최고 고등교육기관으로 왕립쑤라롱껀대학교가 설립되었으며, 1921년에는 초등교육을 의무화하여 사원에 신식 학제에 따른 초등학교를 설립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교육기회를 갖도록 했다. 한편, 해외 유학생과 신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은 교육의 필요성을 신지식인의 전용장이나 다름없는 소설이나 신문에서 주장하였다. 이 시기에 평민을 위한 교육기관이 정부는 물론 개신교선교사와 가톨릭 선교사에 의해 세워졌다. 고급관료의 자제들이 다니는 학교는 보통 서양인을 교장으로 초빙하

고등교육은 바로 사회적 신분 상승의 지름길로 인식되어 교육의 중요성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다. 신식교육, 특히 외국인 선교사가 운영하는 태국 내의 학교에서도 서양의 신사상을 전파하는데 큰 몫을 했고, 그러한 교육을 받은 당시 신진작가들은 서양 신사상의 영향을 받아 삶의 진실과 일상성에 대한 표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예를 들어 덕마이쑈(ตอกไม้อุต)은 Saint Joseph's Convent School을 졸업했는데, 불문학을 전공한 그녀는 불문학 교사인 마가렛 수녀의 영향을 받아 작가의 길로 들어섰으며, 재학 당시 프랑스의 리얼리즘을 비롯하여 에밀 졸라(Emile Zola), 발자크(Honore de Balzac), 플로베르(Gustave Flaubert), 모파상(Guy de Maupassant) 등의 문학작품을 섭렵하였다.<sup>64)</sup>

서구 유학생들에 의해 들어온 서구 문물의 하나인<sup>65)</sup> 소설<sup>66)</sup>은 신문 및 잡지의 발전<sup>67)</sup>과 함께 1920년대 말부터 문자해독층<sup>68)</sup>인 상류층과 중산층 사이

---

고 외국어 교육은 native speaker를 초빙하여 교육하였다. 상류층은 자녀들을 이런 학교에 보내 자신들의 신분을 공고히 하였고 자녀교육에 관심이 있는 부유한 평민층은 애써 이런 학교에 보냄으로써 신분상승을 도모하였다.

64) 예술형(กรมศิลปากร), 『태국 작가 I ประวัตินักเขียนไทย เล่ม ๑』, Bangkok, Sanakpimsilpaban-nakan, 1984, p.72.

65) 머루영 본르어 텔쑈완(ม.ล. บุญเหลือ เทพยสุวรรณ), 『문학 วรรณกรรม』, Bangkok, Anthai, 1986, p.135.

66) 전통적인 태국문학은 운문문학이었다. 20세기 이전의 문학작품 중 산문으로 씌어진 것은 쑤코타이 시대의 불교문학인 『뜨라이폼 프라루엥(ไตรภูมิพระร่วง)』과 라마 2세 때 번역된 『삼국지』와 『라차티랏(ราชไตรราช)』이 있을 뿐이다. 태국에 번역되어 소개된 최초의 서양 장편소설은 Marie Corelli의 『Vendetta』인데 태국인 '매완'(แมวัน) 1900년에 『복수(กรรมพยาน)』라는 제목으로 번역했다. 그 후 서양의 로맨틱한 소설이나 모험소설들이 번역되어 신문에 연재되며 국민의 관심을 끌었다.

67) 라마 6세는 영국에 유학하였던 왕자 시절부터 잡지와 신문 발간에 관심이 많았고 실제 발간도 하였으므로 귀국한 이후 태국의 잡지와 신문이 크게 발전하였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신문의 영향도 증대되었고, 반대로 언론의 역할과 임무가 그만큼 무거워졌다. 라마 6세가 태국인의 의식을 깨우쳐줄 목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한 사실도 이러한 발전을 거듭했다. 당시 새로 발간된 일간지가 22 종, 잡지가 127 종이었다. 라마 3세 때에 잡지 2 종(일간지 없음), 라마 4세 때 잡지 6 종(일간지 없음), 라마 5세 때에는 잡지 47 종과 태국어와 영어 일간지가 모두 17 종이 새로 발간되었던 사실에 비추어보면 매우 큰 발전이었다 할 수 있다. 신문이나 잡지는 발간 초기에는 비매품이었던 관계로 재정적인 문제로 발간된 지 얼마 안 되어 중단되었다. 라마 5세 때에 발간되었던 것 중 1932년까지 또는 그 이후까지 발간되었던

에서 급속히 퍼져나갔으며 또 독자의 관심을 끌었다. 신지식을 배운 젊은이들은 신문에 종사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신문은 서양의 자유, 평등, 민주주의에 대한 기사를 실었으며, 민주주의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였다. 1920년대 말 세계적인 경제공황이 태국까지 전파되자 태국의 경제도 침체되었다. 때마침 즉위한 라마 7세는 경제타개책의 하나로 공무원의 봉급을 내리고 감면하는 ‘공무원균형정책’을 시행하여 국민, 특히 하급공무원의 불만을 샀다. 여론은 여론대로 왕의 정책을 비난하고 지식인층과 함께 민주주의의 도입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서 젊은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 속에 시대상과 가치관간의 갈등을 반영함으로써 리얼리즘 문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1929년에 M.J. 아캇담경 라피팻(ม.จ. อากาศดำเกิง ทรัพย์พัฒน์)<sup>69</sup>, 씨부라과, 매아농(แมออง)<sup>70</sup>, 휴머리스트<sup>71</sup> 그리고 덕마이쑈 등은 당시 태국인의 삶과 시대상

신문은 《뽀마이(พิมพ์ไทย)》, 《끄룽텝데일리메일(กรุงเทพเดลีเมล์)》과 영자 신문 《Bangkok Times》 3 종이었다. 라마 7세 때에는 잡지가 160 종과 일간지 60 종이 새로 발간되었는데, 특히 1932년 입헌혁명 후에 많이 발간되었다. 《씨끄룽(ศรีกรุง)》지가 가장 지속적으로 발간되었다. 1920년대 중반 이후의 신문들은 주로 의회와 국회의원의 선출, 국민의 각성 등에 관한 정치논설을 실어 국민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타이마이(ไทยใหม่)》지는 1931년에 민주주의제도의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당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이에 찬동하는 'Silent Majority'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쑤한야 띠라와닛(สุกัญญา ตีรวณิช), 『전제군주제 하의 태국에서 신문발달사 : 1782-1932 ประวัติการ - หนังสือพิมพ์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ภายใต้ระบอบสมบูรณาญาสิทธิราช : ๒๓๒๔-๒๔๗๕』, Bangkok, Thai Watana Panich, 1977, pp.102-103.

68) 1927년 당시 전 국민의 5% 정도가 문자해독이 가능했고, 1932년에는 5.7%라고 한다. Statistical Year Book of the Kingdom of Siam 19th Number, Bangkok, The Bangkok Times Press, 1939, p.48, 388.

예먼 니란랏(เอมอณ นิรัฐราช), 『라마 7세 태국문학에 나타난 사회의식 ทัศนทางสังคมในนวนิยายไทยสมัย - รัชกาลที่ ๗』, 1996, pp.59. 재인용.

69) 씨부라과의 텡씨린 동문으로 왕족 출신으로 씨부라과 및 덕마이쑈와 태국 근대문학의 장을 연 인물이다. 1905년 방콕에서 태어난 그는 1932년에 홍콩에서 요절했다. 작품으로는 장편소설 『인생이라는 이름의 연극(ละครแห่งชีวิต)』, 『피우르엉 피우카우(ผิวเหลืองผิวขาว)』, 『무너진 천국(นิมานหลาย)』 등과 단편 소설 여러 편이 있다.

70) 씨부라과의 텡씨린 동문인 말라이 추피닛(มาลัย ขุฑินิจ, 1905-1963)의 필명이다. 단편작가인 그는 “리암엥(เรียมเอ็ง)”이라는 필명으로 더 유명하다.

71) 씨부라과의 텡씨린 동문인 옴 차ैया와쑈(อวม ไชยวสุ)의 필명이다. 가볍고 재치 있으며 익살스러운 단편을 즐겨 쓴 그는 스스로 “Humourist”라고 칭했다.

을 사실 그대로 리얼하게 소설 속에 묘사하였으며, 태국 사회의 계층 간의 차별과 사회편견과 부정과 불평등을 폭로하는 소설들을 발표하며 근대문학의 장을 열었다. 씨부라파는 입헌혁명이 일어나기 두 달 전에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Poor People』을 모델로 한 서간체 소설 『인생이라는 이름의 전쟁』을 발표하였는데, 이 작품은 태국의 사회주의 리얼리즘<sup>72)</sup> 소설의 효시로 평가 받고 있다.

입헌혁명 후 일 년 만에 인민당이 집권하여 왕족의 재산을 국유화하고 왕족의 정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과거 왕족과 귀족계층이 독점해 온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역할이 인민당을 위시하여 새로운 중산층으로 넘어갔으며, 그 결과 인민당내에서도 신세력과 구세력이 대립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하에서 입헌혁명 초 인민당이 주창했던 자유권과 평등권<sup>73)</sup>은 지식인들에게 사회정의의 깨

72) 태국에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언제 어떤 과정으로 도입되어 발전했는가에 대한 연구가 알려져 있지 않으나 대체로 1910-20년대에 귀국한 해외유학생을 비롯하여 신문과 선교사를 통해 그리고 서양식 학교 교육을 통해 전해졌을 것이라고 한다. 당시 신식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은 전보다 더 정치에 관심을 가졌으며 해외 정세에 민감한 신문에 종사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씨부라파가 고등학생이었던 1925년에 교지에 인간의 노동력을 찬양한 "찬 멍 짜우 르어 쟁(ฉันต้องแจวเรือจ้าง)"이라는 제목의 시를 발표한 사실, 아직 태국에 번역소개되지 않은 러시아의 소설 『Poor People』을 모델로 하여 『인생이라는 이름의 전쟁』을 쓴 것이나 M.R.W. 니밋몽콘 나와랏(ม.ร.ว. นิมิตมงคล นาวรัตน์)이 1933에 왕정복고를 도모한 버워라멧 반란에 가담했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서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국가건설을 주장한 소설 『므엥 니밋(영어판, (เมืองนิมิต))』을 썼던 사실 등이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사회주의와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본격적으로 태국사회에 전파된 시기는 1940년대 말경이다. 씨부라파가 호주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1952년 8월까지 3 년간 전의 쑤팍부룻 동인을 다시 모아 쑤팍부룻 출판사를 경영하는 한편 후배 작가 쑤파 씨리마논(짚 푸미썩)을 도와 월간지 『악썬싼(อักษรสารสิน)』의 정치부 편집장직을 맡았다. 이때 『악썬싼』은 민주주의는 물론 사회주의, 마르크시즘 및 진보적인 정치 이론을 외국의 이야기에 빗대어 태국의 지식인에게 소개하고 전파하였다. 씨부라파는 이 잡지에서 그는 진보적인 사상에 관한 논문이나 글을 정기적으로 번역하거나 발표하였다. 이 잡지는 당시 대학생과 지식인들의 필독서가 될 정도였었다고 한다.

윗타야전 치앙쿤(วิทยากร เชียงกูล), 『민중의 정치 การเมืองภาคประชาชน』, Bangkok, Mingmit, 2001, p.57.

73) 인민당이 1932년에 국민들에게 내건 공약은 ① 태국의 정치적, 경제적 및 사법상의 독립 유지 ② 국내 평화와 질서 유지 ③ 경제계획에 의한 일자리 창출로 국민의 경제적 충족과 풍요 증진 ④ 국민의 평등 ⑤ 위의 항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자유 보장 ⑥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이었다.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한다는 내용에 국민들, 지

닫게 해주었을 뿐 아니라 무산계층에 대한 관심과 동정을 갖게 만들어 이른바 인본주의 문학의 시대를 열었다.<sup>74)</sup>

이와 같이 문학 환경의 변화와 시대적 상황에 따라 1930-40년대에는 리얼리즘 소설이 낭만주의 소설을 대신하여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인민당이 당초 천명한 것과 다르게 독재정치의 방향으로 나아가자 1930년대 중반에는 군부에 의한 민주주의 비판의식이 고조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 후 40년대 말에는, 잠시 반공법이 폐지된 상황에서 사회주의와 마르크시즘이 대학생과 지식인 사이에서 논의되었다.<sup>75)</sup> 이러한 경향은 1950년대에 들어서며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으로 나타났다. 일부 작가와 비평가들은 좀 더 깊은 차원에서 도시와 농촌에서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농민과 노동자 그리고 무산자를 둘러싼 사회문제를 호의적이고 낙관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노동자 계층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심층적으로 폭로하고 태국이 지향해야 될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소설들, 이른바 티빠껌(ตีปกร)<sup>76)</sup>이 말하는 경향소설 또는 민중소설<sup>77)</sup>이 나타나 국민의 관심을 끌었다. 군부 독재 하에서

---

식인들은 환호하고 지지를 보냈다.

령 싸야마논(รอง สยามานนท์) , 『입헌군주제 하의 태국사 ประวัติศาสตร์ไทยในระบอบรัฐธรรมนูญ』 , Bangkok, Thai Watana Panich, p.45.

74) 프리션 분카전(ศรีศิลป์ บุญขจร), 『소설과 태국사회 1932-1957 แนวชายกับสังคมไทย ๒๔๗๔ - ๒๕๐๐』 , Bangkok, Chulalongkorn University Press, 1999, p.31.

75) Mattani Rutnin, 『Modern Thai Literature』 , Bangkok, Thammasat University Press, 1988, pp.37-38.

76) ‘티빠껌’은 씨부라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상가이자 작가였던 찻 푸미쌉(จิตร ภูมิศักดิ์)이 문학에 관한 글을 발표할 때 사용했던 필명 중의 하나이다. 그는 『찻라빠 프어 치윗 찻라빠 프어 뿌라차촌(ศิลปะเพื่อชีวิตศิลปะเพื่อประชาชน) , 생을 위한 문학 민중을 위한 문학, 1957』에서 문학은 인간의 삶과 민중을 위한 문학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작가들에게 자신의 글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위의 작품은 ‘쌘싸마이 씨쭈트라판찻’(สมสมัย ศรีสุทรพันธ์จิตร)이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츄나 싸디나 타이 나이뿌쭈반(โฉมหน้าศักดินาไทยปัจจุบัน, 현대판 태국의 싸디나 제도)』와 함께 찻 푸미쌉의 대표작으로 간주된다. 1958년 10월에 쌀릿 정부가 단행한 언론인파 작가에 대한 숙청으로 체포되어 공산주의자라는 이름으로 사망했으나 1973년 이후 복권되었다.

77) 우돔 룡렁씨(อุดม รุ่งเรืองศรี), 『현대 태국문학 สภาพทางวรรณกรรมไทยปัจจุบัน』 , Bangkok,

이러한 소설이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에 가입하기 위하여 반공법을 폐지한 사실(1946)과 피분 수상이 1955년에 유럽과 미국을 순방하고 태국에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는 미명 하에서 쌀릿에 대응할 수 있는 자신의 지지 세력을 얻기 위해 일시적으로 민주화를 표방하며 언론의 자유를 허용했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1855년 바우링 조약을 기점으로 하는 태국의 근대화는 경제적인 변화를 기반으로 사회적 변화와 정치적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경제발전과정에서 형성된 신 중산층은 그 부로 인해 신식교육 또는 해외 유학 등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됨으로써 새로운 양반층으로 부상하며 태국사회의 변혁에 앞장섰다. 사회의 주체도 평민으로 옮겨왔다. 새로운 교육의 열풍과 해외로부터 대량으로 유입되는 신사상에 의하여,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자유주의와 평등사상 및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해 나갔다. 동시에 과학 기술과 자본주의 경제를 토대로 하는 서양 물질문명이 태국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다. 후에는 후진자본주의와 사이비 근대성을 비판하는 사회주의 사상이 지식인 사회를 풍미하였다.

이렇게 새로이 전개된 역사적 상황과 당시대의 객관적 현실은 태국 문학의 환경을 구성하게 되었으며, 리얼리즘의 문학을 통해 역사적 실체가 사실 그대로 소설 속에 재현될 수 있었다. 신문명의 도입과 함께 서구에서 들어온 문학 형식인 사실주의 소설들이 국민들의 역사의식과 시대상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sup>78)</sup> 씨부라파의 『악마같은 인간(มารมมนุษย์)』, 『인생이라는 이름의 전쟁』, 아갓담경 라피파트의 『인생이라는 이름의 연극(ละครแห่งชีวิต)』 과 『그녀의 적(ศัตรูของเจ้าหล่อน)』, 『세 남자』 등이 있다. 한편 인민당과 군부에 의해 정치가 독재로 흐르게 되자, 이에 항거하는 민중이 주체가 된 민주화의 의식이 사회주의와 결합되면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문학전통이 태국

---

Sinlapabannakhan, 1980, pp.117-128.

78) เอมอน นิรัญราช, 『ทัศนะทางสังคมในนวนิยายไทยสมัยรัชกาลที่ ๗』, Bangkok, Tonor Grammy, 1996, pp.37-38.

문단을 다양하게 하기도 하였다.

염상섭과 씨부라과 양인의 동시대의 한 · 태 문학 환경은 역사적 현실에서 여러 면으로 비슷하다. 위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자유주의 민주주의 평등사상이나 봉건성의 타파 등등에서 유사하다. 또한 과학정신의 도입과 생활화, 그리고 신 교육제도의 확산에 따라 합리성이나 사실성의 중시 경향에서도 그러하다.

그렇지만 한국과 태국 사이 당대 문학 환경에는 중요한 차이도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차이점은 한국이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의하여 국권을 상실하고 식민지로 전락했다는 사실이다. 그에 반하여 태국은 자주독립의 유지에 성공하면서 주체적으로 근대화를 추진할 수 있었다. 한 · 태 간의 이 상이성의 영향은 방대하고 깊었다. 태국에서는 근대화가 진척되면서 자유주의나 민주주의나 평등사상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후진자본주의 병폐들도 사회에 많은 위기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근대화가 타자에 의해 강요되었고, 그 결실에 의해 나타나는 자유 평등 민주 사상을 둘러싼 모순 갈등들이 훨씬 더 중대한 위기와 문제들에 파묻히고 말았다. 자본주의의 병폐들도 일제에 의한 식민지착취론과 연결되면서 잠복되어 버렸다. 결국 한국에서는 사회와 민중의 전 역량이 독립투쟁과 민족해방에 집중되고 있었던 데 반하여, 태국에서는 반봉건성 타파 및 반왕정주의 투쟁에 사회와 인민대중의 정당화 합리화가 집중될 수 있었던 것이다.

### III. 염상섭과 씨부라파의 현실의 인식과 비판

#### 1. 일제 식민지배와 민족해방 : 염상섭

작가가 현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나타난 하나의 예술작품은 작가와 외부세계 사이의 관계를 함축한다. 이때 작품 속에 형상화된 외부세계, 즉 현실의 모습은 작가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 이데올로기는 "삶과 자기 시대의 문제들을 보는 작가의 의식적 견해인 동시에 이 문제들을 작품 속에서 이해하고 묘사하는 것"<sup>79)</sup>으로 규정되는데, 엥겔스는 이 두 가지가 정면으로 대립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립관계는 시대에 따라 상이한 형식을 취하고, 동일한 시대라 해도 작가의 개성과 관점에 따라 달라지며 작중인물들의 사고와 행위를 통해서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또한 소설의 내적형식(inner form)은 소설 속에 명백하게 제시되지 않으면서도 타락한 현실에서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문제적 주인공(problematic hero)의 삶에 의해 교묘하게 결정되는 것이다.<sup>80)</sup>

일본은 1910년 한국을 강제로 점령한 후 군정체제를 유지하며 "동화"를 내세워 "한민족 말살정책"을 강행했다. 그들은 한국을 군사적으로는 병참기지로, 경제적으로는 식민지로 삼아 철저히 수탈했으며 동시에 아시아 대륙으로 팽창하는 전진기지로 삼았다. 3·1 독립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일본은 일시적으로 "문화정치"를 표방하여 노골적인 정치적 민족말살정책을 한 발짝 후퇴하는 듯 했으나 경제적인 수탈정책은 더욱더 노골화되었다.

한일합방 직후부터 일본은 식민지 착취의 기초 작업으로 1912년에 토지조사령을 발표하고 토지의 사유재산제도 확립이라는 미명 아래 1918년까지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일제는 농민들의 신제도에 대한 무지를 악용하여,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신고명의인을 그 토지의 소유주로 인정함으로써 친일파 내지

79) 게오르그 루카치, 『현대리얼리즘론』, 황석천 옮김, 열음사, 1986, p.71.

80) 루시앙 골드만, 『소설사회학을 위하여』, 조경숙 옮김, 청하, 1982, pp.12-13.

일부 상류층들이 남의 땅을 가로챌 수 있게 하였으며, 특히 신고 되지 않은 땅은 공유화하여 조선총독부가 차지하였다.<sup>81)</sup> 이러한 정책으로 일제는 당시 한국의 지배계층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었으나, 반대로 수조지를 세습적으로 경작해오던 일반 농민들은 토지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일시에 소작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한편 한국 사회에는 농촌에까지 자본주의 상품경제가 정착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반봉건적인 고율소작제도 밑에서 왜곡된 상품경제의 농촌 침투는 소농상품경제의 발전을 제약하고 그 계층분화를 진행시킴으로써 많은 빈농을 만들어냈으며, 빈농은 소작할 기회를 얻는 데도 경합하지 않을 수 없었고 불리한 조건도 감수해야 했다. 이렇게 왜곡된 농촌경제구조는 마침 한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인구 압력과 맞물려 무작정 이농하는 농민을 양산해 냈다.<sup>82)</sup>

일본은 1910년 한국을 강제점령한 후 군정체제를 유지하며 '동화정책'을 내세워 '한민족 말살정책'을 강행했다. 일본은 한국을 군사적으로는 병참기지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식민지로 삼아 철저히 수탈하였으며, 동시에 아시아 대륙으로 팽창하는 일본제국주의의 전진기지로 활용하였다. 3·1독립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일본은 일시적으로 '문화정치'를 표방하여 노골적인 민족말살정책을 한 발짝 후퇴하는 듯 했으나 경제적인 수탈정책은 더욱더 노골화되었다.

한국의 토착자본은 합병전후부터 1910년대까지는 민족주의적 자세를 견지하고 일제에 저항하는 성격을 나타냈으나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개량주의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서서히 예속화 경향을 보였다. 1931년 만주침략 이후 군수산업 확충 또는 대륙병참 기지화 정책에 따른 통제경제 실시과정에서 대부분의 토착자본은 일제의 예속자본으로 변질되었으며, 적어도 그 규모의 대소와 관계없이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기업과 자본은 기본적으로 식민통치 통제 하에

81) 김일곤, 『한국경제발전론』, 무역경영사, 1989, pp.34-35.

82) 차기백, 「일본제국주의 식민정책의 형성배경과 그 전개과정」, 『일제의 한국식민통치』, 정음사, 1985, pp.36-38.

철저하게 예측되었다. 그 규모가 클수록 통치체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므로 그만큼 예측성은 심해질 수밖에 없었다.<sup>83)</sup> 따라서 당시 지주계층을 중심으로 한 유산계급은 의식적이든 아니든 간에 친일적 성격을 띠게 되며, 이는 시대 현실과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염상섭 소설의 일부 등장인물들은 사회 경제면에서 토착적 지주계층에 속하는데, 이들이 식민지 상황에서 어떤 과정이나 연유로 토착적 지주계층이 되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자세하지 않다. 그런데 이들 지주계층은 농민이나 노동자 등 당시 가난한 하층민에게는 부르주아로 간주되며, 지배자 일본인들에게는 억압 착취의 대상인 식민지 백성이라는 이중적인 위치에 있다. 이러한 모순된 사회적 위치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에 무관심할 수 없게 만들었다. 안으로는 가정 내에서 구성원간의 끈끈한 애정이나 가족의 전통적 윤리를 확립하기가 어려웠으며, 밖으로는 독립운동이나 아니면 관료사회나 상업 활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도 없었다. 그래서 이들은 역사적 상황 하에서 당대 사회의 시대적 현실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제 모순을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전체적으로 관망할 뿐이었다. 역사적 현실에 온 몸으로 부딪치며 고민한 작가 염상섭은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성격 의식 활동 등을 당대의 역사적 상황들과 밀접하게 연관시켰으며, 충실한 리얼리즘 문학을 통하여 역사적 시대 상황을 상세하고 리얼하게 그리고 정확한 실증 기법을 구사하여 재현시켰다.

『무화과』에서 김우진의 셋째 딸 보희가 마음에 들었고 육군참장 김우진과 친했던 이의관이 며느리 뱃속에 있는 예비 손주 원영과 보희의 혼사를 자청했지만, 김우진이 독립운동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관직에서도 물러나게 되자

83) 梶村水樹, 「식민지에 있어서 민족자본과 예측자본」, 장시원 편역, 『식민지 반봉건 사회론』 미래사, 1985, PP. 376-379. 梶村水樹는 당시 호남제벌을 예로 들어 자본의 성격이 변한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호남제벌은 산업자본을 자립적으로 운영하며 존재했는데, 특질은 민족지인 「동아일보」를 간행하고, 이미 1910년부터 민족운동에 적극 관여했으나 일부 논자들은 민족주의적 가면을 썼다고 한다. 그러나 그 발자취를 비유적으로 말하면 1910년대는 민족주의, 1920년대는 민족개량주의, 1930년대 이후로는 예측적인 자세를 강하게 견지했다고 한다. 일제 하에서 민족자본은 단순재생산적인 영세자본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인색한 이의관은 욕심이 발동하여 김우진과의 관계를 끊고 보회를 멀리하였다. 가난한 김우진이 자신과 사돈이 되면 혹시 돈을 뜯길 것이 염려되어 자신의 경제력을 지키기 위해 친구와의 우정도 가족의 윤리도 배반한 것인데, 이 같은 사실은 바로 지주계급의 이중적 성격을 반영한 것이다. 오히려 일본인 고등계 형사에게 뇌물을 주며 자신의 가문을 지켰을 뿐이다.

본 논문에서 취급하는 『사랑과 죄』, 『삼대』, 『무화과』에서 작가는 동정자(심퍼사이저)를 등장시키고 민족주의자들의 비밀스런 반일활동과 그리고 일제 경찰에 의한 검거 및 고문 등의 장치를 공통적으로 설치하였다. 특히 정치적 장치를 끌어들어서 시대적 상황을 환기시켰으며, 역사적 정치적 사건을 배경으로 깔고 그 위에 이중적 서사구조를 그려내었다. 이중적 서사구조의 하나는 이해춘, 조의관, 이원영 가족을 중심으로 일제 식민지 현실에서 토착지주 일가의 운명적인 몰락과정을 그려내며 남녀 간의 애정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다. 서사구조의 다른 하나는 식민지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 구조를 통하여 염상섭은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 초에 이르는 식민지 사회의 현실에 대한 총체적인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 1) 식민지 현실과 중산층의 소외의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제 식민지하의 한국사회의 구조는 전형적인 식민지형 계층구조로, 한국에 대거 이주한 일인들이 각 계층에서 최소한 중간 이상의 지위를 점유하였고 이에 비례하여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하층민으로 전락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이조말기부터 심화되기 시작한 대지주와 소작농으로 벌어진 경제적 양극화 현상은 1910년에 시작된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을 계기로 더욱 심화되었다. 많은 토지가 일인의 소유가 되었으며 조선 농민

은 대부분 영세 소작농으로 떨어졌다. 또한 일본인은 상업자본으로 농지를 싸게 매입하고 고율의 소작료를 받아 막대한 이윤을 취함으로써 계층구조의 상층부를 독차지했다. 만일 한국인이 식민지형 계층구조의 상층에 있다면, 그것은 가문, 혈통, 교양과 같은 전통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시각에서 본 계층일 뿐이다. 이들은 단지 전통을 고수하고 전통의 권위에만 의존하는 명목적 조선인 양반계층으로, 이미 정치적·경제적 기반을 상실했거나 상실해 가는 과정에 있는, 그래서 다만 그 의식이나 귀속감에 있어서만 상류층일 뿐이다. 상층 밑에 있는 중간계층도 2/3가 일본인이고 한국인의 대다수가 하류층에 속하는 사회구조였다.<sup>84)</sup> 엄밀히 말하자면, 한국인은 부잣집 또는 부르주아라 해도 일본인에 비하면 중간계급(중산층)에도 이르지 못한다.<sup>85)</sup> 귀족이라 해도 “00 팔아먹고 땅 팔아먹고 조상 팔아먹고 집 팔아먹으면 막장 불 것 없으며, 누가 가엾다고 찬 밥술 한 술 주지 않는”<sup>86)</sup> 입장에 놓인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소유상태나 생활양식에 따라 구별되는 계층에서 노동자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도 중산층에 속할 수 있고 반면에 경제상태가 열악하면 일부 화이트칼라층도 중산층에서 제외될 수 있다.<sup>87)</sup> 염상섭의 소설 속에서 중산층<sup>88)</sup>은 전통과 권위, 가문과 명예를 고수하는 명목상의 양반가문의 지식인 또는 유한계급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해춘 일가, 조덕기 일가, 그리고 이원영 일가가 중산층에 속하며, 주인공들은 모두 해외 유학생이나 대학 졸업 학력 등으로 고학력 소유자이다. 염상섭이 중산계급의 한 가정을 모델로 삼아 그 가정의 일상적 삶의 모습과 가치관 및 세계관을 그리는 데에 역점을 두었다는

84) 김채윤, 「한국사회계층의 구조와 변화」, 『한국사회론』,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민음사, 1980, pp.100-102.

85) 『삼대』, p.62.

86) 『사랑과 죄』, p.53.

87) 홍두승, 구해근, 『사회계층, 계급론』, 다산출판사, 1993, p.244.

88) 염상섭은 『삼대』와 비평문을 통해 조덕기 일가가 “중산층” 혹은 “유한계급”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염상섭의 “중산층”개념은 현재 통용되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 이런 연유에서 김윤식과 정호웅은 중산층을 “중산계급”으로 보고, 이재선과 유보선은 “대지주계급”으로 본다. 본 연구자는 중산계급이나 대지주계급이 모두 유산계급이라고 판단하고 본 논문에서는 유산계급과 동일한 의미에서 사용하고자 한다.

삼대의 창작 의도는<sup>89)</sup> 작품 속의 갈등을 중도적 입장에서 어느 한쪽의 승리나 패배에 두지 않으려는 의도가 엿보이고, 소설 삼대가 가족이라는 공간 속에서 세대간의 갈등을 보여줌으로 '현재'라는 평면 위에서 과거와 현재 및 미래가 대립하고 충돌하는 모습을 구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시대의 변화상을 가족 공간을 통해 공시적인 차원에서 보여준 작품이다. 그리고 그가 중산계급을 선택한 것은 중산계급이 평형과 안정을 향한 구심력을 적어도 하층계급보다는 더욱 크고도 분명하게 내보이고<sup>90)</sup> 있었기 때문이다.

염상섭은 일제 식민지 현실에서 직접적인 현실 참여를 차단 당한 상류층 젊은이들의 소외된 모습과 그 일그러진 의식을 원인에 따라 정치적 소외의식과 정신적 소외의식과 사회적 소외의식으로 나누어 소설 속에서 그려내었다. 식민지 현실에서 자신의 학문을 펴 볼 길이 없이 소외당하고 타락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조선의 신청년의 유형 즉 정치적 소외의식의 유형을 조상훈으로, 식민지인 조선인과 지배국인 일본인 사이의 혼혈이라는 정체성으로 자신의 핏줄을 고민하고 스스로 조선사회에서 소외되며 허무주의자임을 자처하는 류진을 정신적 소외의식자의 대표로, 그리고 사회적 소외의식의 유형으로 이원영, 이해춘, 조덕기 등을 내세웠다.

양반가문이 이상인 전통적 구한말 조선사회에서<sup>91)</sup> 학문의 연마는 정치 또는 관직에 오르는 과정과 맥을 같이 했는데, 부와 교육과 정치권력이 하나의 자기 폐쇄적인 체계를 형성하였던 조선의 봉건적 질서가 일제 식민지 하에서

89) 염상섭은 『삼대』를 발표하기 전에 창작의도를 《조선일보》 「작자의 말」(1930. 12. 27)에서 "삼대가 사는 중산계급의 한 가정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한 집안에서 살건만은 삼대의 호흡하는 공기는 다릅니다. 즉 같은 시대에 살면서도 세 가지 시대를 각각 대표합니다. ...시대의 진전을 따라서 유심적 경향에서 유물적 경향으로 옮겨가서 단순한 도덕문제라든지 가족제도의 구습관의 파괴라는 부분적 노력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회적 의식이 깊어간 데에 같은 신구충돌에도 그 뜻이 새롭습니다. ... 필자는 그 새로운 뜻을 바로 삼고 조선의 현실사회의 움직이는 모양을 피로 하고 중산계급의 살림과 그들의 생각을 살로 부쳐서 그리려는 것이 이 소설입니다."라고 밝혔다.

90) 조남현, 『한국소설과 갈등』, 창작과 비평사, 1990, p.179.

91) 한배호, 「한국정치문화의 주요경향」, 『한국사회론』,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민음사, 1980, p. 53.

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조선조 사회에서 과거에 합격하여 관료가 되어 자기 가문의 복지를 책임지고 영광을 드높이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목표의식이었다. 이러한 의식은 식민지 시대에 들어서서도 변하지 않았다.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부모의 뜻에 따라 일본에 있는 대학과 전문학교에 유학하였는데, 이는 귀국하여 관리가 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 현실에서 한국인이 정치에 참여하거나 고급관료에 임명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일제 중기 고급관료의 민족별 충원구성을 보면 한국인이 얼마나 소외되어 있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총 독 부		지 방 관 서		합 계	
	일 인	한 인	일 인	한 인	일 인	한 인
국 장	5	-	-	-	5	-
비서관	3	-	-	-	3	-
이사관	-	-	30	9	39	9
서기관	-	-	-	-	-	-
사무관	34	6	27	3	61	9

<자료> 조선총독부 : 「직원록」(1926)에서<sup>92)</sup>

조상훈은 고등교육을 받은 신청년들이 자신들의 이상을 상실한 채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어두운 세계로 전락한 전형이다. 2년 간 미국에서 유학했던 신청년 조상훈은 도도한 웅변으로 설교하는 깨끗한 개화 선각자 신사로 당대의 인텔리였다. 미국 유학 당시 이상으로 삼았던 한국의 근대화를 위해 정치에 뛰어들어 노력하려는 꿈이 좌절되자 그는 절망한 상태에서 자신과 유사한 사람들이 모이는 기독교에 빠져 아버지의 신임을 잃었고, 마침내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첩질, 노름, 음주, 낭비벽 같은 사회의 어두운 늪, 정신적 공백 또는 방황의 늪으로 빠져 마침내 인생의 방향을 잃었던 것이다.

92) 김채운, 「한국사회계층 구조와 변화」, 『한국사회론』,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민음사, 1980, p.101에서 재인용.

이삼십 년 전 시대의 신청년이 봉건사회를 뒷발길로 차 버리고 나서려고 허비적거릴 때에 누구나 그러하였던 것과 같이, 그도 젊은 지사로 나섰던 것이요, 또 그러노라면 정치적으로 길이 막힌 그들이 모여드는 교단 아래 밀려가서 무릎을 꿇었던 것이 오늘날의 종교생활에 첫발새였던 것이다. 그것도 만일 그가 요새 말로 자기청산을 하고 어떤 시기에 거기에서 발을 빼냈더라면 그가 사상적으로도 더 새로운 시대에 나오게 되었을 것이요, 실생활에 있어서도 자기의 성격대로 순조로운 길을 나가는 동시에 그러한 위선적 이중생활이나 이상성격 속에서 헤매이지는 않았을 것이다.<sup>93)</sup>

조상훈의 이러한 행위 뒤에는 하층신분이었던 아버지 조의관의 부도덕한 행위, 돈으로 산 양반가문에 대한 회의 때문이기도 하다. 그가 장손이면서 어려서부터 전통적인 유교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2 년간의 미국 유학의 영향을 받아 조상의 봉제사를 거부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가 돈을 주고 산 조상에 대한 굴욕감 또는 거부 의식이 잠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조의관에게는 평생의 오입이 세 가지 있다. 하나는 을사조약 한창 통에 그때 돈 이만 냥, 지금 돈으로 사백 원을 내놓고 사십여 세에 육관자를 붙인 것이니 차함은 차함이로되 오늘날의 조의관이란 택호가 아주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요, ... 맨 나중으로는 하는 오입이 이번 이 대동보소를 맡은 것인데 이번에는 좀 단단히 걸려서 이만 냥의 열 곱이십만 냥이나 쓴 것이다. 그것도 어쨌이 자기 집 자기 종파의 족보를 꾸민다면야 설혹 지금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덮어놓고 오입이라고 하여서는 말이 아니요 인사가 아니겠지만 상훈이를 보아서 대동보소라는 것부터 굳이 반대는 안한다하여도 그리 긴할 것이 없는데 게다가 XX씨의 족보에 한뿔 비집고 끼려고---검불이가 사천원 탬이나 생돈을 내놓는다는 것은 적어도 오입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돈 주고 양반을 사!’

---

93) 『삼대』, pp.44-45.

이것이 상훈이에게는 일종의 굴욕이었다.<sup>94)</sup>

조의관과 같은 지주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구시대에서는 경제적으로 신분상승을 이룬 사람들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소외된 신분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좌절된 꿈을 해외유학을 통해 종주국 일본인과 같은 고등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정치 참여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갖도록 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의관도 조상훈을 미국으로 유학 보낸 것이다. 또한 당시 신교육을 받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조의관과 같은 유산계급의 아들이나 딸이었다는 사실은 중산층 가부장들이 가문의 후세를 위해 준비를 해 두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대적 흐름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이들은 가문의 영광과 안녕을 지속시키기 위한 배려로 선진학문의 습득을 중요시하였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가관이나 민족관을 중시하지 않는 지주계급들의 현실 적응력을 감지할 수 있다.

조상훈은 조의관의 뜻대로 유학을 하고 와서 구도덕을 보존하고 구시대 식으로 살지 않았다. 젊은 시절에 귀국하여 젊은 지사로 정치에 뛰어들어 자기 사상과 신사상이 합치되는 소위 ‘제삼제국’을 구현하려 했으나, 그 길은 일제에 의해 차단되었다. 그 후 그는 기독교와 신지식을 받아들여 한 때 사전 편찬과 자전 편찬사업 등 교육사업과 사회사업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부친의 경제력을 이용하여 신문명 보급에 앞장서기도 하였다. 그러나 흥경애와의 사건과 종교문제로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당하였다. 같은 교회학교 교사이자 우국지사의 딸이며 자신의 딸 같은 나이의 흥경애와 불륜에 빠져 딸까지 낳았으며 기독교에서 금하는 축첩과 술과 담배를 비롯하여 마작놀이 등을 즐기으로써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한편 그는 봉제사에 등한하고 축첩했다는 사실로 가정과 가부장인 조의관으로부터도 소외당하였다. 평생을 주판과 산가지로 살아온 조의관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적이지요 무타산적이지요 절대적인 것’<sup>95)</sup>인데도 불구하고 타산적으로 아들을 외면해 버리고

94) 『삼대』, pp.105-106.

95) 『사랑과 죄』, p.167.

이제는 새로이 손자에게 희망을 걸게 되었던 것이다.

조 의 관의 이러한 열려는 결국 그의 사후에 드러났다. 조 의 관의 발상에 상훈은 곡을 아니하여 문젯거리가 되었으나 상훈이는 내친 거름에 뺨대버렸다. 조 의 관의 죽음에 대한 조상훈의 태도가 당대 개화세대의 공통된 모습이었다 해도 그러한 태도는 그의 정신적인 파탄의 정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단순히 구질서에 대한 반감이 아니라 기독교의 계율마저 위반한 그는 마침내 자식뻔 되는 일본인 형사에게까지 모욕을 당하는 처지에 놓인다. 가짜 형사를 데려다가 상속문서를 위조하고 아내의 재산까지 탕진하는 그였기 때문이다. 조선인의 도덕적 타락의 화신으로 표현된 조상훈의 부도덕성에 관한 전경화는 다양한 인물의 시점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딸 덕희에게는 '젊은이 망령'으로, 금천형사에게는 '하루라도 빨리 죽어 없어지는 게 자손과 사회를 돕는' 인물로 지각된다. 새과랴게 젊은 일본인 형사 금천의 도덕성은 이러한 조상훈의 부도덕성이 일제의 부도덕성과 양립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시켜주고 있다.

나 같은 젊은 놈이 난봉을 피운다면 욕을 하면서도 그래도 마음잡을 날이 있거니 하고 용서도 하겠지만, 이거야 늦게 배운 도적놈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어디 영감 생전에 마음 잡을 날 있겠소? 여든을 먹어도 이 모양이라면야 얼른 죽는 게 자손을 위하고 사회를 위하여 다행한 일이 아니겠소? ... 조선이 오늘날 왜 이렇게 되었소? 모두 당신 같은 늙은이 때문이 아니오? 그 큰일났소! 난 이덕기 군이 가없소. 부모 때문에 얼굴을 쳐들고 세상에 나다닐 수가 없게 돼서야 이걸 어디 가서 호소를 한단 말요! 병어리 냉가슴 앓기지. ...”<sup>96)</sup>

결국 입으로만 세상을 움직이려는 계몽 지식인이지 실제 행동력이 없는 조상훈은 강한 세력인 일본 경찰에게는 굴욕적인 태도를 보이고 돈 앞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인간으로 타락하였다. 일제 식민지 사회에서 시대적 유

---

96) 『삼대』, p.553.

민이 된 그는 자신의 열정을 삭힐 수 있는 공간이 결여되자 돈을 위해서는 어떤 짓이든지 하는 매당집과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쉽게 현실도피적인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 파락호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부자 갈등과 정치적 참여 차단이라는 식민지 현실에서의 조상훈으로 대표되는 개화 인텔리층의 삶의 방식을 통하여 염상섭은 일제 하 우국지사들의 망명 생활과 달리 국내 지식인의 체제순응과 생활의 이중성을 통하여 타락한 현실을 부각시켰다.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 신자의 허위를 드러내어 과도기 세대가 지닌 허실을 보여주려고 했다. 기독교인의 허위는 조상훈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조상훈, 홍경애, 홍경애 모친이 만났던 장소가 교회라는 점, 교인들이 밤에 조상훈의 집에 모여 노름하고 술 마시는 점 등으로 묘사되었다.

일본을 통하여 서구의 신문화 영향을 받는 식민지 사회였지만 한국인 사회에는 아직도 조선조의 지도이념이었던 유교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가문과 혈연을 중시하며 결혼은 양가의 동맹처럼 간주되었다. 우국지사였다가 친일파로 전향한 아버지 류택수와 일본인 첩 스즈꼬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 류진은 스스로 "일본년의 뱃속에서 나온 놈" 혹은 "국적이 있어서 좋을 것도 없지만 비국민도 아니요 비국민 아닌 것도 아니니까", "국적 없는 놈"이라고 자조한다. 그는 생명은 엄숙한 것이 아니라 "연쇄한 맹목적 운동의 총체가 생명일 뿐... 먹는 것, 교미기의 비상활동을 개시하는 것, 새끼에게 제 관습을 가르쳐서 무가치한 자기의 재현을 남겨놓은 것"<sup>97)</sup>일 뿐, 그래서 "자살할 권리조차 없다"<sup>98)</sup>라며 "존재가 없는 사람이므로 허무주의가 무엇인지 모르네만은 나는 회의하여 본 일도 없네"라고 절망적으로 자기를 부정한다.

사실 내 피가 오 분은 감투로 되고 오분은 <계다> 짝으로 되었다는 점으로 보면 아닌 게 아니라 현대의 조선의 상징으로 태어났다고도 할 걸세. 우리 아버니의 설명을 들으면 류진이란 이름은 일본말로

97) 『사랑과 죄』, pp.134-135.

98) 『사랑과 죄』, p.267.

<야나기, 스수무>라고 읽도록 애를 써 지었다네. 허허허. ... 이름만 보아도 현대의 조선 사람답지 않은가?<sup>99)</sup>

류진의 유민의식은 염상섭이 지적한 바는 없지만 어머니가 일본여자라는 데서 오는 무소속감, 돈벌레이며 호색한인 아버지에 대한 증오감, 그리고 식민통치사회에서 지식인이면 누구나 갖기 마련인 닫혀있다는 감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유민의식, 또는 사회로부터 소외당하여 부평초같이 일정한 뿌리를 갖지 못한 유산계급 지식인들의 의식은 이보영의 부랑자의식이나 중간자의식 또는 룬펜인텔리와 맞닿는 개념이다. 식민지 지식인들 중 이들은 일제 식민지사회라는 현실에서 몇몇한 직업을 갖고 있다고도 할 수 있으나 실은 그 사회에서 주변부를 형성하는 방외적 인물들이다. 다시 말해 유산계급의 유민의식은 학력과 관계없이 친일도 반일도 아닌, 오로지 조상이 이룩해 놓은 부를 재산으로 가문의 부와 명예, 즉 자신의 부와 명예를 지키며 가치중립적으로 행동하는 부류가 갖는, 뿌리가 있으나 없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의식이다. 제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그 땅을 디디지 못하는 사람들의 의식이다.

일제 식민지라는 억압적이고 악마적 현실에서 등장인물들을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가해자는 총독정치와 조선 신궁을 절대적인 배경으로 안정된 세력을 형성하면서 조선인 위에 군림하는 일본인과 그에 빌붙어 사는 일부 조선인이고, 피해자는 사회주의 운동가나 독립지사들로서 가해자의 박해와 가난에 시달리거나 정신적인 방황을 계속하는 인물이다. 사회적 또는 정신적 측면에서 보면 이해춘, 조덕기, 이원영, 류진 등은 피해자에 속하며 김봉익, 김병화, 김호연도 외형적으로는 이러한 부류에 속한다.

친일귀족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신분에 대해 자학하면서 유민의식으로 전전

---

99) 『사랑과 죄』, p.268.

하다가 소설의 후반부에 최진국 사건을 계기로 자기 부정적인 발전을 꾀하는 일본 유학생 화가 이해춘, 사회주의에 관심이 있어 그에 관한 서적을 읽고 심정적으로는 동정적이지만 과거지향적 가족주의 사고와 개량주의적 준비론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벗어나지 못한 조덕기, 오래된 친구 김동국과의 ‘묵은 감정을 완화’시키려는 윤리의식에서 친구의 요구를 들어주는 이원영의 의식은 식민지 지식계급의 사회적 유민의식의 전형이다.

유산계급 지식인들은 모두 뒷방서방님이거나 뒷방센님들 출신이다. 이해춘은 아버지가 물려준 조상의 죄 값, 귀족 자작의 칭호를 사용하고 있다. 난봉 피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돈 있고 지체 있는 귀공자가 소일 삼아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낫지만 남아 일생일대의 큰 사업으로는 우스운 일이다. 그는 이상주의자는 아니라면서 입으로는 사회 평등과 노동의 가치 등이 구현되는 사회를 말한다.

모던보이 조덕기는 아버지의 정치 참여 좌절을 목격하고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음을 절감한 후 사회 참여 방법으로 일본이나 한국에서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는 길을 꿈꾼다. 조상훈은 법과보다 신진학문인 경제과나 상과를 전공하고 실업 방면으로 나가게 하고 싶어 했는데, 조상훈이 아들에게 경제과나 상과를 전공하도록 권한 이유는 자기도 아들의 사업을 이용하여 무슨 사업이든 해보려는 속셈도 있지만 시대의 변화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원영은 결단력이 부족하고 우유부단하며 책상물림으로 주변머리가 없는 인물이다. 백면서생인 25 살의 젊은 지식인인 그는 뒷방서방님 소리가 듣기 싫어 사회사업을 해보려는 깨끗한 마음으로 신문사 영업국장으로 들어가서 신문 사업에 뛰어든다 이용만 당하고 마침내 가산만 탕진한 채 쫓겨나고 만다. 그는 이미 그 전해에 3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들여놓았고 이번에 일만 오천 원을 출자하였으나 경리부장 털렁꾼 김홍근의 수작에 말려 두 달 만에 3만 원을 들고 온 이탁에게 그 자리를 내주어야 했다. 삼익사 사건도 무마할 겸 그

가 어떻게든지 성공해 보여야 했던 ‘내 평생의 시금석’<sup>100)</sup>은 좌절로 끝나고 말았다.

사람의 큰일이란 별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거나 맡은 소임을 제힘으로는 이것이 낱이라고 생각할 때까지 꾸준히 충실하게 하기만 하면 그것이 큰일이겠지요. … 나는 무슨 주의니 무슨 주의니 하는 것은 싫어요. 될 수 있으면 남의 머리 위로 걸어 다니지 않고 남의 입에 붙은 밥을 노리지 않고 제각기 먹고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사회에서 살아보고 싶을 따름이에요.<sup>101)</sup>

형법에 주력하여 형사 전문의 변호사는 아니 되더라도 조선형편으로는 그것이 자기 사업으로 알맞을 것 같았다. … 그는 무산운동에 대하여 무관심으로 냉담히 방관할 수 없고 그렇다고 제일선에 나서서 싸울 성격도 아니요 처지도 아니니까 차라리 일 간호졸 격으로 변호사나 되어서 뒷일이나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덮어놓고 크게 되겠다는 공상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책상물림의 뒷방 서방님으로 일생을 마치기도 싫었다. 제 분수대로는 무어나 하고 싶었다.<sup>102)</sup>

… 언제까지 집 속에 들어 앉았는 것보다 한번 나서서 활동도 해 보고 그야말로 확청도 해 보고 싶은 것이다. 무슨 마음으로 내놓았던 지 간에 기위 삼만 원을 들여 놓았던 그대로 얼뜨게 내버려두기도 아까운 일이요, 수지가 맞는다는데 이 모양으로 끌리는 것도 아까 회계의 말과 같이 무슨 폐단이든지 있는 모양이니 자기가 들어가서 바로 잡아보겠다는 결기도 나는 것이다.<sup>103)</sup>

위의 예문에 나타난 것처럼 1930년대 염상섭의 소설은 근대적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경제적 생활인으로서의 주체가 되려고 노력하는 인물들의 욕망을

---

100) 『무화과』, p.59.

101) 『사랑과 죄』, PP.32-35.

102) 『삼대』, p.135.

103) 『무화과』, p.135.

형상화했다. 이들의 사회 참여는 기본적으로 직업을 구하는 것, 돈을 매개로 사회적 관계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 그리고 돈을 통해 재생산되는 사회적 저항운동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소설 속에서 주인공들은 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한다.

한편 유산계급의 인텔리들이 '돈 없으면 두수 없이 굶어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인텔리 지식인계급의 비애요 프티 부르주아(중간계급의 소시민)의 공통적 약점'<sup>104)</sup>인데 비해, 가진 것이 없으므로 잃을 것도 없는, 차라리 없는 것이 무기인 무산자계급에 속한 인텔리 고등 무산자들은 이러한 약점에서 해방되어 있다. 김호연과 김병화, 김동국 및 김봉익은 염상섭의 난세의 시각에서 창조된 시대적 고등 무산자 지식인으로, 그 생활이 안정된 중류사회의 일상적인 생활과 규범에서 벗어나 있는 가난한 부랑자들이다. 김병화와 김동익은 빈촌에서 셋방살이를 하고 있지만 김호연은 아예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이해촌의 물질적 도움을 받으며 녹막염, 신경쇠약, 유행, 심장병 등등 야단스러운 여러 가지 병명으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처지이다.<sup>105)</sup> 시대감각이 있는 이 지식인들은 식민지 현실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재현되어 있으나 외형적으로 일본인 행사로부터 일정한 직업이 없이 떠돌면서 금품을 강요하는 악당이라는 의미의 단어인 '고로쓰끼'라고 불리고, 그 외에도 '부랑자', '반 미친 허풍선이', '천둥벌거숭이', '혈령개비' 등으로 불리는 어릿광대 같은 인물이다. 이들의 없는 것이 무기인 가난한 모습은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엄동설한인데도) 방바닥이 얼음장이다. 이때까지 들쓰고 누웠던 이부자리는 어디가 안이고 어디가 거죽인지 알 수가 없다. 밑바닥에서부터 찬 기운이 스며 올라오건마는 퀴퀴한 기름때 냄새 같은 사내 냄새가 코를 찔러서 비위를 흔들어 놓는다. ... 책상에는 잡지권이 되는 대로 흐트러져 있고 잉크병밖에는 눈에 띄는 것이 없다. 머리맡에

104) 『무화과』, pp.826-827.

105) 『사랑과 죄』, p.52.

는 신문이 해갈을 하여 있다.106)

삼청동 막바지에 있는 ... 약물터 옆당이 절간 아랫방에서 훑아비살림을 하면서 ... 저의 집 살림까지 하는 ... 하루 걸러끔씩 집에 갔다가는 입었던 헌털뱅이 외투라도 훌쩍 벗어주고 와야 하는 ... 빈대 피로 난초를 친 방이, 바닥은 싸늘하고(엄동설한인데도) 외풍이 심한 모양이다. 벽에 줄레줄레 달린 양복이며 두루마기며 솜옷들이 녀마전 같으나 그래도 책상 위는 암전히 치워 놓고, 윗목에 놓인 책꽂이에도 잔뜩 책이 끼여 있다.107)

염상섭의 리얼리즘은 시대정신과 생활론을 강조한다. 작가 염상섭이 소설을 집필하고 또 소설 속에 주인공들이 살다간 때는 일제의 무자비한 강압통치에 신음하는 식민지 시대이다. 작가나 주인공들의 현실 인식의 중심에 놓인 가장 중요한 시대적 현상은 재론할 필요가 없이 일제 식민지라는 사실이다.

일제의 억압 통치와 조선 민중에 대한 일본인들의 제도적 착취 그리고 일본인들을 정점으로 말단 조선인들에 이르기까지 철통같이 짜여진 계급구조가 식민지 조선 사회의 실상이었다. 그러므로 작가 염상섭이 소설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일제 식민지라는 현실의 인식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었으며, 인식의 결정체인 시대정신이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염상섭 소설의 주인공들은 대체로 중산층이다. 식민지 시대였지만 살아가기에 불편하지 않을 만큼 재산을 소유한 유산계급들이다. 일제 식민지 시대의 유산계급과 중산층들에게는 입신양명에 대한 일제의 탄압으로 인한 좌절과 신분적 사회적 차별에 의한 열등의식이 두드러졌다. 따라서 시대상을 리얼하게 반영하는 염상섭 소설의 유산계급 출신 주인공들은 좌절과 열등의식의 발로에 따라 한결같이 왜곡된 현실을 원망하고 모순된 자신을 자조하며 타락한 시대를 자학하는 자기 파멸의 길을 걷게 된다. 이러한 소설의 묘사는 작가 염상섭

---

106) 『삼대』, p.135.

107) 『무화과』, pp.356-366.

의 현실인식의 피할 수 없는 귀결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염상섭은 시대정신을 강조하면서도 최소한의 생존욕구를 꾸러가고 인간 본능을 토해 내는 현실의 모습을 통하여, 작가의 리얼리즘적 현실인식의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 2) 민족의식을 통한 식민타파의 의지

염상섭이 오산학교 교사직을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와 『개벽』에 「표본실의 청개고리」(1921)를 발표할 때는 당시 문학과 사회에 대한 급진적이고 관념적인 성격의 평론을 다수 발표하였을 때였다. 당시 그는 『삼광(三光)』 3호(1920. 4)에 「이중해방」이라는 글을 발표하여 “해방을 전제로 한 개혁”을 주장하고, 《동아일보》(1920. 4. 6.)에 「자기학대에서 자기해방에」라는 글을 실어 “노예적 모든 관습으로부터 개성적 또는 관념으로부터 적라의 개인으로 해방되어야 함을 못토”로 내세우는 등 자아해방, 자아각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근대적 인간관의 수립을 주장했다. 이어 《동아일보》에 7회 연재(1920. 4.20-26)로 발표한 「노동운동의 경향과 노동의 진의」라는 글에서 마르크스의 노동이론을 인용하며 노동운동의 혁명적 성격을 설명하고 노동운동을 “해방의 전주곡”이라고 규정하였다. 이 글에서 그는 노동운동의 원인, 노동운동의 세계적 경향, 노동의 의의, 조선에서의 노동문제 등을 언급했는데, 당대 현실이 식민지 현실이라는 것에 비추어볼 때 현실인식의 관념성을 나타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표본실의 청개고리」와 「만세전」 등 초기소설의 주인공들은 현실을 부정하고 절망한 나머지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한 것은 작가의 민족의식의 반영이었다.

이러한 초기소설에 반해 중기소설의 주인공들은 일상적인 삶에 기초하면서도 그 속에서 어떤 새로운 이상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당대의 사회주의 운동에는 동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중기의 대표적 소설인 『사랑과 죄』, 『삼

대』, 『무화과』에서 작가는 정치적 인유라는 장치를 끌어들이므로써 시대적인 배경을 환기시키는 역사적 정치적 사건을 배경으로 깔고 민족 해방에 대한 지식인들의 의식, 다시 말해 내면적으로는 조선 지식인의 식민지적 허무주의의 극복을 위한 반체제적 항일투쟁, 민족해방을 위한 독립투쟁을 취급하였다.

염상섭은 민족 전체의 정치적·사회적 의식의 고양과 함께 활발히 전개되었던 민족운동이 새롭게 유입된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민족해방운동의 성격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3 편의 소설에서 그려내었다. 민족자본가인 중소기업가, 토착 수공업자, 소시민의 저항이 이루어지던 1920년대 중반기의 한국 사회 모습을 『사랑과 죄』의 등장인물들을 통해 반영하였고, 1920년대 후반기 민족해방운동에서 민족주의 세력이 주도권을 상실해가고 대신 사회주의 세력이 급부상하고 있는 현실을 『삼대』에서 반영하였다. 이 시기는 '핏줄'에 근거한 민족주의 지향의 지주 세력의 해계모니가 약화되던, 다시 말해 민족주의 지향의 지주계층의 위기감이 고조되던 시기였으며, 이 소설이 연재되던 1931년은 어느 때보다도 사회주의에 영향을 받은 노동자 농민의 대중운동의 기운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라는 점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일본이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등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식민지 한국의 치안을 확보한다는 구실 아래 모든 사회활동을 제약하며 사상검열을 강화한 1930년대에는 민족운동의 성격이 국내에서 국외로 그 활동의 중심을 옮겨 민족연합전선을 전개하였는데, 그 시대적 성격이 소설 『무화과』에 반영되어 리얼하게 묘사되었다.

보름 동안 지속된 장마와 수해로 폐쇄된 수도 서울의 모습, 매독이라는 성병에 걸린 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행인에게 치부를 보여주면서 구걸을 하는 새파랗게 젊은 거지, 악에 받쳐서 자기네 자신까지도 저주하는 가난한 수재이 재민, 아편중독자 등 일제의 수탈로 인한 1920년대 한국의 타락상 묘사로 여러 장을 할애하며 소설 『사랑과 죄』는 시작된다. 작가는 『만세전』에서 “구더기가 들끓는 무덤”이라고 표현했던 서울의 모습을 『사랑과 죄』에서는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서울이라는 공간과 그 속을 채우고 있는 한국인의 절망적이고 참담한 현실, 식민지 참상을 폭로하고 그런 사회의 파괴와 종말을 예고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보름 장마가 휩쓸고 간 후 조선 땅의 재생, 정신적 재생을 말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의 소설에서 정신적 재생은 바로 일제 하 한국인들 사이에서 자생되고 발전하는 항일운동이며 이 운동과 관련된 정신운동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여기에서 염상섭 소설의 민족의식은 식민지 현실타파로 이어진다.

염상섭은 민족 해방운동의 정신을 『사랑과 죄』에서 사회주의 이념으로 시작하는데, 유산자는 무산계급에 대한 심폐사이저로, 무산자는 항일독립운동자로 설정된다. ‘없는 것이 무기’인 사람, 즉 김호연 김병화 김동국은 재산이 전혀 없는 떠돌이 기식인생으로, 유산계층의 친구 이해춘 조덕기 이원영의 도움으로 일상적인 삶과 항일운동이라는 이중적 삶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어를 비롯하여 영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를 할 줄 알면서 러시아어를 더 공부하는 김호연은 동경제국대학 독일법률과를 졸업하고 이년 동안 중국에 가서 김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귀국하여 변호사 개업한 지 일 년 반쯤된 인물이다. 그는 합법적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이나 사회주의 운동 같은 돈 한 푼 안 생기는 형사문제만을 맡아 무료변론을 하는 인물로 이해춘의 도움을 받아 세브란스 병원에 환자로 위장 입원해 있으면서 재판소도 가고 술도 마시고 기생집도 가고 빗쟁이에게 졸리며 지하운동도 한다. 한 개인의 사랑보다 조국의 독립을 위한 투쟁에 더 의미를 두는 급진적 행동주의자인 그의 모습은 『삼대』의 장훈과 맥을 같이 한다. 그는 ‘진리를 위한 사업’<sup>108)</sup>, 즉 인류의 큰 고민 -x국의 운명- 해방되지 않으면 안 될 무산자의 우는 소리에만 헌신적인데, 이 ‘진리를 위한 사업’은 식민지체제는 허위의 체제이고 식민지 사회의 문화는 허위의 문화라는 의식에서 그 문화와 체제를 타파하는 투쟁, 즉 민족해방운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투쟁의 무기는 민족주의에 기초한

---

108) 『사랑과 죄』, p.95-96.

사회주의라는 정치 이념이다. 그는 ‘△△△△내국본부총지휘장’이라는 직책으로 경찰 만능의 한국<sup>109)</sup>에서 중국의 동지들과 연락을 하며 독립운동을 지휘하던 한 사람으로, 소설의 뒷부분에서야 판명된다. 평양사건의 공판에서 최진국이 지니고 있던 붓 속에서 <“인증” 최진국 000단 애국 총지휘>라는 종이 조각이 나오므로써 그의 정체가 밝혀지는데, 이들 독립운동조직의 현실적 패배가 예상되는 종말은 1920년대 중반기의 한국 사회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작가는 김호연을 통해 자신의 관념적인 사회주의를 내보이고 있다.

… 하여간 우리의 처지로서는 란숙퇴폐한 신구대륙의 문명에서 배울 것은 다만 하나 기계공업뿐이라고 생각하네. 금후의 세계와 인류는 유물주의의 반동으로 유심주의 사상이 왕성하여 지리라고도 생각하네마는 나의 이상으로 말하면 물질과 정신이 융합한 소위 제삼제국이 정말 출현되어야 할 줄 아네. … 물질주의적 방면은 서구문명에서 구하는 동시에 정신주의적 방면은 동양문명에 토대를 잡게 되겠지만 일면에 있어서는 <인류의 새 시험>에서도 무슨 새로운 발견이 있을 줄 아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도 우리는 우선 한 번 신흥러시아의 실재를 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네. …

열른 생각하면 내 말이 역설 같기도 하겠지만 러시아의 정치라든지--직접 말하면 공산주의라든지 하는 그 자체나 표면적 사실에서 유심적 혹은 정신적인 것을 구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들을 지배하는 정신이나 관념에서 구할 바가 있으리라는 말일세. 더 쉽게 말하면 신흥하는 국민에게서 그 기상과 정신을 배울 것이 있다는 것과 같이 미래의 인류가 가져야 할 정신, 기상 관념 등을 거기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일세. 하여간 소위 선전적 의미는 고사하고 순객관적으로라도 한 번 가 보는 것은 해롭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네.<sup>110)</sup>

염상섭은 일본인 카페에서 짧은 순간 벌어진 주의자들의 만남과 토론을

109) 『사랑과 죄』, p.296.

110) 『사랑과 죄』, pp.58-59.

통해 당시의 다양한 사회주의 사상의 흐름과 그 사상 및 주의자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면서 일본 제국주의타도라는 목표 아래서는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 허무주의자 사이의 거리감과 갈등을 일시적으로나마 덮어질 수 있을 것임을 암시하였다.<sup>111)</sup>

당시의 한국 지식인의 신사상은 이해춘의 점진적이고 개량주의적 반봉건 근대지향의식, '오-로라(새벽빛)'라는 공산주의 색채가 진한 잡지를 경영하는 나이 지긋한 가명의 인물인 적토의 공산주의, 한국에 들어와 있는 무정부주의 계통의 거장으로 동경 흑색동맹의 별동대의 한 사람인 야마노의 무정부주의, 급진사상의 영향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류진의 허무주의, 그리고 김호연의 과격하고 급진적인 근대지향의식 등등이 그것이다.

“사실 이때쯤은 공산주의와 무정부주의 사이에 확연한 분계선이 있지 못하였다. 차라리 분계선이 없다느니 보다는 무정부주의라는 것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사회운동자의 대부분은 그러한 구별을 장래에는 있을 일이나 우선은 <반항>이라는 점에서 지기상통 하는 것만에 만족하여 청탁을 가리지 않는 형편이었다. 더욱이 조선 사람의 처지로서는 자본주의-제국주의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 일본청년이고 보면 공산주의자는 물론이거니와 허무주의자나 무정부주의자이거나 일체로 환영하였고 또 그들 중에서도 먼저 눈뜬 자는 조선을 활동무대로 하여 차츰차츰 건너오게 되었던 때이다.”<sup>112)</sup>

이때 해춘은 적토, 야마노, 류진을 공산주의자, 무정부주의자, 허무주의자의 삼각동맹이라고 비꼬며 이론과 실천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이라 그들의 동맹은 불철저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스스로 ‘나도 현대 청년이요! 나도 조선 청년이요! 나도 피가 있소!’<sup>113)</sup>라고 소리치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중간을 타고 나가는 것이 한국 청년의 바른 길이라고 주장한다. 이외에 물산장려운

111) 조남현, 『한국소설과 갈등』, 문학과 비평사, 1990, p.154.

112) 『사랑과 죄』, pp.209-210.

113) 『사랑과 죄』, p.210.

동114)을 두고 벌인 해춘과 적토의 논쟁도 현실을 형상화한 모습이다. 적토는 물산장려운동이 몇 몇의 중산계급인들을 모아 한 사람의 대자본가를 만들어 내자는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하며 민족운동이라는 것도 이와 같아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전제로 해야 발전할 수 있다고 비꼬았다.

염상섭에게 있어 주체적 민족의식은 항일투쟁과정에서 사회변혁을 위한 저항적 의지로 발현된다. 또한 그 저항의 육체적 표현<sup>115)</sup>이자 『삼대』에서 경찰의 혹독한 고문에 견디다가 죽음으로 대항하는 장훈의 강건한 의지이기도 하다. 『사랑과 죄』, 『삼대』, 『무화과』 등 세 편의 소설에서 염상섭은 흥경애와 사랑에 빠지며 현실주의자로 변신한 김병화보다 피혁(이우삼)과 같은 독립투사나 장혁과 같이 비밀리에 시험관을 제조하는 좌파 행동주의자들을 가장 긍정적인 세계를 지향하는 인물로 그렸다. 또한 작가의 민족의식은 『무화과』의 김동국의 생존 이유이자 투지의 근원이기도 하다. 김동국은 한국의 일제 식민지의 전략을 조국의 죽음으로 인식하고 극단적인 자기소외에 빠지게 되며, 이로 인해 항일투쟁이라는 삶을 위한 역설적인 힘을 얻는다.

『삼대』에서 항일투쟁 양상은 김병화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마르크스보이 김병화는 목사인 아버지와 의절하고 장훈의 투쟁정신을 계승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그의 항일운동은 당시 시대가 안고 있는 정치적 비극을 절대적 숙명이 아니라 창조적 운명으로 바꾸려는 시도이다. 그는 원삼이에게 광화문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일제의 한국 침략과 식민지 궁핍화정책 및 우민

114) 1920년 8월 평양에서 조만식 등이 자작자급, 일화배척을 내용으로 하는 <조선물산 장려회>단체의 구성에서 비롯되었다. 1923년 1, 20에 <조선물산장려회 발기준비회>를 구성하여 토산품 사용과 경제적 실용품을 사용할 것을 결의하고 자매단체로서 1923, 2.5.에 <토산품 애용 부인회>를 조직했다. 이것은 민족개량주의자들에 의한 사회운동으로서 국내 부르주아적 인텔리가 그 주류이며 문화운동, 민립대학 설립운동 등과 함께 일종의 자강운동이며 민족 개량주의 사상에 기초한다. 일부 진보적 청년들은 이 운동을 부르주아적 운동이라고 비판하며 중산계급의 이기주의로 규정하였고, 또 보수적 민족주의자들이 중산자적 입장을 고수하고 자치제를 주장, 민족동등권 실현을 궁극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민족자본가에 의한 민주, 민족혁명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며 레닌적 계급해방의 시대적 사조로 끌려들어갔다. 강동진, 「일제하의 한국사회운동사 연구」, 안병직편, 『한국근대민족운동사』, 돌베개, 1980, pp.486-489. 참조.

115) 이보영, 『난세의 문학』, 예림기획, 2001, p.265.

화정책을 이야기하고, 『무화과』에서 "무화과"<sup>116)</sup>로 표현된 존재인 대부분의 조선 청년이 역사적 피해자임을 역설한다. 항일운동을 하다 경찰에 잡혀 징역을 사는 사람의 강인한 저항력과 계속된 투쟁의지는 죽음을 무릅쓴 투쟁을 통해서만 정신적 희망이 온다는 것을, 무산계급이 더 효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변증법적 암시이기도 하다.

세상의 종교자니 양반이니 재산가니 하는 것들은 모두 그 따위인 것(오입장이)을 보구려. 우리는 두 주먹밖에는 아무 것도 없지만 돈도 명예도 지체도 종교도 아무 것도 없는 우리 같은 사람이 정말 사람다운 구실을 하고 세상일을 하려고 손목만 맞붙들면 무어나 되는 것이오. 저 사람들은 말하자면 인간의 찌꺼기요 걸레들이오. 기생 자릿저고리란 말이 있지 않소? 값진 비단은 비단이지만 닳고 해져서 쓸데없는 현 녀마란 말이오. 우리는 싱싱한 배울 같은 사람들이오. 짜놓으면 투박하고 우악스럽지만 그것이 우리에게서 쓸모가 있는 것이 아니오.  
...

... 경북궁 대궐을 다시 질 때 누가 백 년도 못 채우고 남향 대문인 광화문이 동향이 될 줄 알았겠소!<sup>117)</sup>

그 외에도 사회주의자 1기생 격인 필순 아버지와 흥경에 부친의 항일운동에 이어 김병화의 사회주의, 일경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이우삼의 국내 잠입과 김병화와의 접촉, 그리고 비밀 아지트이자 항일운동의 일경에 대한 보호색 격인 일본 식료품점 산해진의 매입과 경영, 산해진에서 제삼 XX당의 폭탄제조, 상해 자금문제로 인한 장훈(장개석)파와의 알력, 그 낚새를 탐지한 일본

---

116) 염상섭이 이 소설이 『삼대』의 후속편임을 말하며 <작자의 말>(매일신보, 1931.11.10)에서 "우리 부모만 하여도 비트러졌으나 꽃 속에서 나고 꽃 속에서 길러졌다. 그러나 우리는 꽃 없이 낳다. 무화과다. 우리 자식도 꽃 없이 낳다. 그러나 자식의 일생도 우리의 일생같이 보내게 하고 싶지는 않다. 꽃 속에서 기르고 싶다. 그 책임은 물론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축원하는 마음으로 이 소설을 쓰는 것이다. 읽는 분도 작자와 똑같은 축원을 가지고 읽으시리라."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무화과는 꽃 없이 이 세상에 나온 세대, 즉 조국을 상실한 식민지 세대를 의미한다.

117) 『삼대』, pp.259-260.

경찰에 의한 검거와 모진 고문, 그리고 이에 대한 장훈, 김병화, 홍경애의 반응 등에서 민족의식에 기초한 식민타파 운동이 극적으로 전개된다. 그 중 장훈의 출현과 검거, 그리고 모진 고문 속에서도 세속적 타협을 거부한 채 순수하고 젊은 27 세의 나이에 모든 이의 행위를 자기 혼자 책임을 지고 항일투쟁에 사용할 폭발물의 제조를 숨기기 위해 자살을 결행하는 아래의 묘사는 염상섭이 작가적 생애에서 단 한 번 보여준 종교적 정열이다.

... 장훈의 입에서는 사흘 낮 사흘 밤을 두고 다만 모른다는 말 한마디 외에 다른 말이라곤 나온 것이 없다. 이런 쇠귀신 같은 놈은 경찰부 설치 이래 처음 본다고. ... 장훈이는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며 혼곤한 듯이 금천 형사의 말을 듣다가 육혈포 폭발탄이라는 말을 듣자 정신이 반짝 든 듯이 무서운 눈을 똑바로 뜨고 한참 노려보다가 입을 쭉뚝 하며 무엇을 혹 내뿜는다. 금천부장은 ... 얼굴과 가슴에 유산탄을 받은 듯이 핏방울 친지다. ...

당장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죽는 것은 아니다. 몇 십 명의 숨은 동지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도 말이 아니다. 그들 개인이나 그들의 가족을 고통과 불행에서 건져주려는 그 따위 희생적 정신이란 것은 미안하나마 내겐 없다. 나는 다만 조그만 시험관 하나를 죽음으로 지킬 따름이다. 그 시험관은 자기네 일의 결정적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요, 지금 이 시각도 몇몇 우수한 과학적 두뇌를 가진 동지들이 머리를 싸매고 모여 앉아서 연구를 계속하는 것이다. 이 연구와 실험도 미구불원에 성공할 것이다. 이것을 죽음으로 지켜주는 것이 지금 와서는 나의 거룩한 천직이다. 그것 하나 만으로도 내 죽음은 값이 있는 것이다. ... 118)

『무화과』의 김동국은 제8차 공산당 사건으로 체포되어 4년간의 옥고를 치른 후 상해로 건너가서 활동하고 있는 인물이다. 최원애를 통해 김동국으로부터 독립활동 자금을 부탁받은 이원영은 사회주의자 원태섭에게 “돈 5백원(최원애의 100원과 안달의 100원 포함)과 특과원 명의의 패스पोर्ट를 마련”<sup>108)</sup>해

108) 『삼대』, p.519-522.

서 상해로 보내고 조일사진관의 구입자금도 보탠다. 조일사진관은 이 소설에서 지하 항일운동의 중심이다. 그 후 김동국의 동생 김동욱(조명식)과 조정애 등이 비록 암시적이기는 해도 조일사진관에서 독립투쟁에 사용할 모종의 폭약을 제조한 것이 시사된다.

소설 『무화과』에서 항일운동을 하는 인물들은 다른 두 편의 소설과 달리 중심적인 인물이라는 느낌이 약하다. 주변 인물, 예컨대 김봉익, 박종엽, 최원애, 조정애, 유병호 등이 더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는 느낌이다. 더군다나 이들은 "xx주의자"이다. 특히 최원애는 일본인 안달외사를 뒤에 보호색으로 두고 카페 보도나무를 운영하며 돈을 만든다. 김병화가 일본 식료품점인 산해진을 보호색으로 하여 독립운동을 한 사실이나 최원애가 안달외사를 보호색으로 하여 독립자금을 마련한 것은 이런 점에서 상통한다. 이렇게 산만하게 스토리를 전개한 작가의 태도는 한국인의 민족해방을 위한 운동이 일제의 극심한 탄압으로 어쩔 수 없이 해외로 옮겨졌다는 점을 소설 주제의 산만함으로 일부러 표현하려 하였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이 소설에서는 다른 소설보다 항일투쟁에 음으로 양으로 더 많은 수의 한국인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다. 조정애가 대표적 예이다. 조정애는 『삼대』의 필순이이다. 그녀는 원영의 도움으로 일본서 유학을 한다. 일본에 가기 전부터 자기 집에 하숙하고 있던 형 김동국을 찾아 자주 드나들던 동생 김동욱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던 그녀는 유학 중 일본에 온 김동욱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조국애를 깨닫고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주의자"가 된다. 안달외사가 박종엽과 최원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바로 정애를 지칭한 것이면서도 한국 젊은이들의 독립운동 참여에 대한 실정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제일 내가 걱정하는 것은 당신 같은 젊은 유망한 이들이, 진정으

---

119) 『무화과』, p.185.

로 자기 주의나 자기 사상이 굳어서 자기 신념으로 행동하는 것도 아니요, 또 그렇다고 부화뇌동하는 것도 아니면서 다만 사사 정분에 끌려서, 마음에도 없는 조그만 심부름을 해주었다든지, 말을 전해 주었다든지 하는, 아무 의사도 없고 내용도 없는 일로써 범망에 걸려들게 되는 것이란 말요. 가령 박종엽씨가 어떤 부호에게서 주의자에게 넘어가는 돈을 전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다 합시다. 그 부호에게는 은혜도 입었고, 서로 좋은 사이니까, 아무 의심 없이 심부름을 했는데, 그 돈이 어떤 놀라운 운동에 유용되었다 하면, 그 부호나 당신이나 영문도 모르고 아무 사상적 공명도 없이 범망에 걸린단 말요. 이 경우에 부호야 누가 생각하든지 험박에 못 이겨 돈을 썼다 해도, 당신은 무산자니까 으레 주의자와 한통속이 되어 부호에게 미인계를 쓴 것이라고 볼 것이요, 당신은 꿈에도 생각지 않던 열렬한 주의자가 되어 버린단 말요. 당신이 된 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주고 마는 것이란 말씀요. ... "120)

안달외사가 조정애에게 빗대어 종엽에게 경고하는 말은 당시 부유층이 독립운동자금을 대주는 한국의 현실을 대변한 것이다. 조정애는 인정에 끌려 심부름만 하는 여성이 아니라 참주의자다. 그녀는 완식의 책꽂이에서 「경제원론」, 「제이 빈보모노가타리(第二貧之物語)」, 「사회문제사전」을 발견하고, 그의 일기를 읽으며 완식의 인물됨을 알게 된다. 완식이 정애에게 보낸 편지에 나타나 있듯이 그는 정애를 통해 운동자가 되어 간다.

그러나 소학교만 졸업하고 철공장 노동자로 일하는 청년 김완식은 한말시대에는 육군참장이었던 김우진의 외손자다. 21살인 그는 무산자이고 언문잡지도 읽기는 하나 아직은 그렇게 과격한 사상을 가진 것이 아니요, 다소간 시대의 식에 눈을 뜨고 무엇을 알려고 애를 쓰는 듯하고 '경제학 공부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기도 한다. '공장 일을 하다가 엄지손가락을 잘릴 뻔'했던 그는 조정애를 알고 난 후 자기를 희생하고서라도 그녀를 돌보아 주리라고 생각한다.

---

120) 『무화과』, p.810.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그들(앞선 운동자들)의 뒤에 갈 사람이라는 생각을 요즈음 하였기에, 당신(정애)도 아직 발을 멈추고 그들과는 좀 떨어졌다가 나하고 같이 가시자는 그런 사상이 내 머리에 터득되었기 때문에, 당신은 나와 같이 걸읍시다... 우리들이 (이원영과) 다른 것은 그이는 몰락해 가는 중산계급이요, 무기력한 인텔리 ... 만일 그에게서 돈을 뺏어 버린다면 그는 아무 테도 쓸데없는 룸펜 ... 우리의 길은 그들이 걷지 않은 새 길이 아닌가-이렇게 생각하는 ... ”<sup>121)</sup>

『사랑과 죄』에서 김호연으로 태동된 염상섭의 사회주의운동의 저항적 중심은 『삼대』에서는 당의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김병화라는 인물로 발전되고, 다시 『무화과』의 김봉익이라는 인물에서 쇠퇴한다. 외형적으로 변호사이자 환자이며 아직 ‘물질과 정신이 융합한 제3제국’ 건설의 이상을 떨쳐버리지 못한 김호연과 달리 김병화는 작품 시작부터 경찰의 요시찰 대상인 사회주의자로서 상해파와 접선하고 재건된 당을 위한 아지트로서 ‘산해진’이라는 식료품점을 경영한다.

그러나 이처럼 『사랑과 죄』 및 『삼대』에서 일관되었던 항일운동자의 윤리적 의무와 실천은 『무화과』에서 퇴색하고 만다. 김호연과 김병화의 항일 독립운동은 국내 아지트인 세브란스 병실과 산해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무화과』에서는 김동국이 상해로, 김동욱은 일본으로, 김봉익은 일본으로 떠나게 함으로서 민족해방운동의 중심이 김동국의 망명지 상해로 이동하게 되었고, 국내 중심지 조일사진관은 인간벌레 김홍근의 방해로 막는 과정에서 폭파되어 동지들이 뿔뿔이 피신하게 됨에 해방운동의 중심은 혼미상태에 빠져버렸다. 결국 염상섭은 김동욱을 대신할 인물로 김봉익을 설정하고 김동욱의 투쟁을 계승하기 위해 그를 동경으로 보내는데, 작품에서 동경이 곧 “사지”로 표현되는 것은 죽음을 불사한 민족해방투쟁을 암시한다. 그러나 일본에 간 김봉익과 서울의 이원영 사이에는 아직 이렇다 할 언급이 없이 단절된 상태에서 소

---

121) 『무화과』, p.819.

설이 끝남으로써 민족해방운동은 불투명할 것이라는 예감을 준다.

작가는 『무화과』의 말미에 채련의 조카인 완식이라는 무산자 계급의 철공소 청년을 등장시키고 조정애와 연결시킴으로써 조국의 독립이 희망적임을, 또 무산자 계급에 의한 해방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민족해방을 위한 항일투쟁은 무산 고등유민 김호연, 김병화, 김동국보다는 학력은 낮으나 낙관적으로 식민지 자본주의 현실을 직시하는 현실감 있는 무산자 청년 완식에게 더 기대를 걸고 있다. 완식에 의해 항일운동의 중심은 반드시 국내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소설에서 사회적 저항의 좌절과 불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염상섭은 낭만적인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조국의 해방에 목적을 둔 항일투쟁가들에게는 이성 간의 사랑이 결혼-비록 남녀 간의 성문제에서 돈 이상의 힘을 가진 것-등의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으로만 인식되지 않고 민족적 동지에 또는 동시대적 우정으로 승화되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만하다.

### 3) '돈'의 지배 및 성 관념에 대한 새로운 접근

자본주의 사회는 화폐에 의한 사회, 곧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염상섭에게 있어 근대적 삶의 양식은 첫째가 돈의 문제이고 둘째는 성의 문제이다. 일제에 의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과거 한국인들이 목숨보다 귀중하게 생각했던 가문, 명예, 체면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로 급부상하며 한국인의 가치관을 뒤흔들어 놓았다. 이러한 현상은 양반보다는 사회의 혼란을 틈 타 치부한 중산계층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난다. '진짜 조선은 다 헐려나간 반신불수의 나라'로 표현된 한국의 사회 현실에서 작가는 식민지 사회의 타락한 중산층 인간들과 대립된 지식인의 생활과 의견을 식민지적인 가치관의 혼란성과 함께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그려내었다. 구한말부터 반상이 무너졌으며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현상, 돈으로 양반의 족보를 살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소설 『삼대』의 조의관은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상징적이다.

온 나라가 다 떠내려 갈 정도로 홍수가 난 후의 말세적 사회 현실을 염상섭은 일제의 죄업과 조선인의 갈등 및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 범죄적 분위기가 감도는 서울로 표출했다. 홍수는 자연에 의한 이 땅의 파괴이며, 한국에서 진행되었던 일제의 무서운 죄업의 결말이다. 딸의 행복은 아랑곳하지 않고 돈을 쫓는 해죽집의 파렴치한 행위, 사돈의 돈을 뜯어 제 앞가림을 하려는 한갑진과 한인호, 그리고 온갖 기만과 술수로 약점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김홍근 같은 인물의 행위는 말세적 징후의 하나이며 이는 곧 식민지 현실을 살고 있던 한국인의 도덕적 타락을 상징한다.

염상섭은 정통 양반가가 아닌 사이비 양반가, 돈을 주고 산 양반가를 내세워 역설적으로 양반이란 돈의 질서를 앞세우는 신분이 아님을, 선비의 자세를, 선비정신을 말하고자 했으며 한편으로는 몰락한 양반사회를 돈으로 부활시키는 신흥자본 세력의 부도덕성을 드러내었다.

염상섭은 돈을 추구하는 문제를 중산층의 근대적 삶의 양식 가운데 하나로 보았다. 근대의 일상적 삶의 의미, 특히 중산층 삶의 의미를 규정하는 것은 돈이라는 욕망이다.<sup>122)</sup> 그러므로 그의 소설 속 인물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인물일수록, 삶과 사랑-이성간의 사랑은 물론 육친간의 사랑에서도-에서 돈의 이해에 따라 움직인다. 류택수, 지덕진, 해주집, 정마리아, 매당, 조상훈, 이정모, 김홍근 등이다. 이들은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의 축첩제와 기생놀이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 목적을 위해 체면이나 양심, 도덕이나 윤리가 안중에도 없는 가장 부정적 인물은 김홍근이다. 그는 ‘낮에는 민중을 속이고 밤에는 시수가 흐르는 상여에 꼬이는 파리처럼 기생의 무릎으로 꼬여들고, 그리고는 그 죄악을 감추려고 좌청우측을 하러 권력자의 집 문턱이 닳도록 맥대령을 하는’<sup>123)</sup> 인물이다.

122) 김윤식, 『염상섭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p.369.

123) 『무화과』, p.538.

염상섭은 식민지의 암담하고 참담한 일상적 현실을 조선총독관저, 조선신궁, 심초맥부, 안달외사의 집 및 고급여관 등과 대비시키며 사실적, 은유적으로 제시했다. 소설 『사랑과 죄』에서 근 보름간 계속된 여름 장마로 인한 홍수로 피해를 입은 한국과 퇴폐의 서울을 통해 수해지 조선인의 빈곤상과 함께 일제의 식민지 궁핍화 정책을 재현했다. 가난과 허영으로 가진 몸을 상품으로 내놓은 매춘은 식민지의 성도덕을 타락시켰고, 식민지적 허무주의와도 관련이 있는 폭력적 범죄 및 음험한 살인과 기만은 처음으로 비판적 리얼리즘 시각을 통해 식민지 사회의 구조적 파악이 이루어지고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대립과 갈등관계로 집약된 인간관계가 재현되었다. 돈을 가진 남자는 물론이지만 경제 능력이 없는 여자의 ‘여성’이라는 것이 상품으로 되는데 넉넉히 금전 이상의 가치를 발휘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록 사람으로서-주관으로는 상품이 아닌 인격적 존재이겠지만, ‘여성’으로서-객관으로는 상품이기 때문이다.<sup>124)</sup>

인텔리 고등 유산계급 출신의 남성 이정모와 조상훈, 류택수 그리고 한인호는 바람둥이로 ‘돈과 성욕-이 두 가지밖에는 모르는’ 또 이 두 가지를 얻기 위해 도덕도 윤리도 학문도 저버리는 인면수심의 인간들이다. 『무화과』의 이정모는 『삼대』의 조상훈이다. 그들은 사회참여에 좌절과 실패를 거듭하고 유교사회에서 기독교와 천주학을 믿어 집안에서도 패륜아로 낙인찍히면서 어둠의 세계-부도덕적인 사회로 도피하였다. 그러기에 돈에 대해서는 더 탐욕적이다. 그들은 돈밖에 모르는 산 송장과 다름없는 인물로, 월척과 살림을 차리고 월척과 놀러 다니기 위해 아들이 일경에 붙들려가 문초를 받는 틈을 타 가짜 형사를 데리고 와서 또는 아들 석방 운동을 한다며 며느리를 속여서 딸의 유산을 훔쳐 가로채는 사기행각을 벌인다.

“동경고등사범에서 어학에는 천재이며, 졸업 후 동경에서도 중류는 가는 A 중학교 영어선생으로 학교에서 소개”받았을 정도의 유능한 부잣집 아들 한인

---

124) 『무화과』, p.807.

호는 유산 고등인텔리이다. 그러나 그는 일본을 오가는 여비마저 원영의 집에서 얻고자 하다가 원영이 거절하자, 문경의 반지 등 패물을 빼앗아 가는 몰염치한 인간이다. 그는 “후지미쑈(기생부락)에 출입이 잦았던 관계로 학교의 신용도 떨어지고, 빚도 지게 되어 동경사건이 터진 후에는 교장에게 불려가 권고사직” 당하게 된다. 그 후 그는 문경의 친구이자 조정애의 친구인 김영자와 애정행각을 벌이고, 아내 문경에게는 이혼위자료를 요구하기도 하는 인물로 타락해버렸다.

류택수와 해주댁 역시 돈과 성욕에 대해 동물적으로 탐욕적이다. ‘이 세상에 계집 때문에 나온 ... 섹광’인 류택수는 일본과 미국 유학을 했고 한 때 우국지사였으나 지금은 고리대금을 하는 친일적 민족자본가로, 미인 지순영과 결혼하기 위해 돈과 750원 짜리 보석반지를 가지고 온갖 술수를 다 사용하는 인물이다. 이 반지는 그가 얻고자 했던 여성들을 유혹할 때 사용하는 미끼다. 그는 “한 번 생각한 계집을 그렇게 훌훌히 단념하실 중 아십쇼? 밭길로 걸어 채고 얼굴에 침을 뱉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코 손아귀에 넣고야 마는 솜씨인데... 그 양반은 계집과 술 때문에 이 세상에 나온 양반이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sup>125)</sup>라고 표현된 인물이다. 그래서 평양사건에 연루된 아들 류진의 구명운동을 하러 평양에 갈 때도 기생 운선이를 데리고 가는 위인이다.

지순영을 자기 딸이라며 이해춘, 정마리아, 류택수에게서 돈을 뜯어내려던 아귀 같은 아편장이 동냥어치 해주댁은 젊어서는 명기로 날리다가 이해춘 아버지의 첩살이를 하였으나 지원용과 눈이 맞아 쫓겨난 여자다. 그 후 아편에 빠져 돈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지 서슴치 않으나, 목적인 바를 얻었을 때는 돌변하여 젊은 시절의 그녀 모습을 살짝 내비치기도 한다. 사람이란 동물과 하느님 사이에 끼인 어중된 물건으로 가장 불완전한 존재임을 증명해 보인다. 『삼대』의 수원집과 매당과 같은 부류이다. 그러나 해주댁은 돈에 대해 악착같이 동물적 본성으로 대드는 정마리아에 의해 살해되고 돈도 빼앗긴다. 정마

---

125) 『사랑과 죄』, p.312.

리아는 미국에 유학한 성악가로 남성 편력이 호화롭고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며 새로운 것은 무엇이나 쫓는 경박하고 허영심 많은 신여성이다. 이러한 타락 현실은 '오늘날의 결혼과 기생 갈보의 마음은 다를 것 없다'는 표현으로 반영되었는데, 이것은 신여성의 삶을 통해서도 잘 나타난다. 정마리아, 신숙, 김영자, 김의경의 타락은 마음과 동일시된다.

유산계급의 이러한 타락상은 결국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적 모순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염상섭은 이원영과 조덕기의 몰락, 즉 한국의 몰락이 타락한 인물들이나 한국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일제 식민정책과 시운에 있다는 운명론적인 생각을 아래와 같이 묘사한다.

“아, 할아버지께서는 아버지보다 나를 믿으시고 그대로 물려주셨것다! 할아버지 혼령이 계시다면 무슨 벌역이 내릴꾸 ... ? 그러나 신문사를 닦할 것도 없고 삼익사를 닦할 것도 없다. 하나는 우리네의 몰락해 가는 대세요, 조선의 시운이요, 또 하나는 돈푼 있는 집 자식들의 교육이 그랬던 것이라고도 할 것이다.”<sup>126)</sup>

또한 지주계급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돈 쓰는 법은 가르쳤어도 돈 낚는 법을 가르치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본다. 이러한 원영의 자기비판은 당대 한국 사회에서의 토착자본의 몰락과 식민지 교육의 불필요성, 그리고 부르주아 인텔리로서는 더 이상 시대적 모순 해결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염상섭 자신의 현실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으로 미루어보아 염상섭의 현실인식은 <무화과>에 이르러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127)</sup>

염상섭은 일상적 삶 속에 은밀히 스며있는 돈에 대한 욕망이야말로 일상적 삶의 ‘의미’를 결정한다<sup>128)</sup>고 파악하고 있다. 또한 근대인의 일상적 삶의 기호

126) 『무화과』 . p.828.

127) 신영복, 「1920-30년대 염상섭 소설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학위논문, 1987, p.56.

로 돈을 보았다. 상류계층에서 돈의 문제가 전통적인 윤리성으로 귀결되고 있다면 중간계층에서는 일상적 삶의 기호로 작용한다. 중산층 출신의 염상섭에게는 핏줄이나 사랑보다 돈에 대한 생각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설 세 편의 작중 인물 모두가 돈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그는 근대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간관계를 추상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물질적 이해에 따라 좌우되는 구체적 관계로 파악하였으며 돈이 최고 가치로 군림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진면목을 진지하게 파헤쳤다. 돈이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주원인이 됨을 간파하고 돈을 통해서 서울 중류층 가정의 일상적 삶의 모습을 재현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돈으로 인한 갈등관계는 파국 대신에 쌍방이 다 살아남을 수 있는 화해로 결말을 맺으로써 무해결의 구조를 갖는다. 무해결은 반복, 순환이라는 일상성의 논리이기도 하다. 작중 인물의 삶의 방식도 일상성을 지향한다. 그러므로 돈의 지배 및 성 관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식민지 현실과 자본주의 내면에 대한 염상섭의 리얼리즘적 관찰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염상섭의 사랑, 순수한 사랑에 대한 믿음이다. 염상섭은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이해춘과 지순영, 김병화와 홍경애, 이문경과 김봉익, 이원영과 김보희 등의 사랑으로 보여준다. 사랑은 바로 이상이고 꿈이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사랑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인륜이나 도덕심은 내팽개친 채 '돈'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지덕진, 해주집, 류택수, 정마리아, 로태로, 조창훈, 수원집, 김홍근, 이정모, 한인호 등의 인물들과의 대립에서 승리하도록 전개했다. 비록 식민통치와 정치적 · 이념적 싸움에서는 패배하여 봉천행 열차를 타고 조선을 떠나지만, 『사랑과 죄』에서 이해춘과 지순영의 사랑은 통속적인 면과 이데올로기적인 면이라는 양면을 담고 있어<sup>128)</sup> 『삼대』에서 보

128) 김윤식, 『염상섭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p.369.

129) 조남현, 『한국소설과 갈등』 문학과 비평사, 1990, p.140-141.

다 적극적인 정치적 · 이념적 투쟁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다.

## 2. 군부 지배와 민주주의 : 씨부라파

바우링조약 이후 태국에는 자본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사회적인 변혁이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변혁은 20세기 초에 민주주의를 도입하려는 신지식인 그룹을 창출했으나, 이 민주주의는 일 년 만에 그 신지식인에 의해 군부독재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라마 4세는 물론 라마 5세와 라마 6세도 서양의 민족주의를 도입하여 태국인의 의식을 개혁하려 했다. 특히 라마 6세는 영국 유학 당시 직접 보고 경험했던 과학적 사고방식을 태국에 확산시키고 정신적으로도 봉건적 틀에서 벗어나 서구식 새것을 취하도록 전국민을 계몽하였다. 왕은 1911년에 영국식 보이 스카우트 제도를 도입하여 쓰어빠(เสือป่า, The Wild Tigers' Corps)를 창설하고 태국의 문화에 맞게 수정하여 초등학교 학생으로부터 공무원과 마을의 동장 및 이장에 이르기까지 온 국민을 대상으로 쓰어빠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태국인의 긍지와 정체성을 자각하게 함은 물론 싹디나제도에 의해 400여 년 이상 계승 · 답습되어 오며 태국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 온 전근대적인 인습을 개선하려 했다.

라마 6세가 주도한 국가 중심의 계몽적 민족주의 운동 외에 평민 출신의 신지식인들은 잡지와 신문을 통해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문화를 받아들여 전근대적인 요소를 제거해내고 새로운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sup>130)</sup> 서구의

---

130) 언론인들은 당시 태국국민의 70% 이상이 문맹인 사회에서, 지식인들은 거의 도시에 집중되어 있던 상황에서 신문과 잡지를 통해 민주주의, 경제정책 등 제안을 정부에게 했다. 예를 들어 입헌혁명 직전 라마 7세가 '공무원균형정책'을 사용하며 하급관리를 해임하는 정책을 펴자 신문은 토지세의 징수를 제의했다. 대부분의 토지가 지배계급(왕족)에게 속해있었으므로 정부는 이를 묵살하고 관세를 재조정했고, 소득 600 바트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공무원들은 해임 아니면 무거운 세금을 내야하는 이중부담에 두려워했다. 국민 다수는 민주주의라는 정체를 아직 몰랐지만 피부에 와 닿은 불안의식은 왕정 대신 민주

제국주의에서 벗어나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첩경임을 역설하고 여론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정치, 법률, 교육 등 사회의 모든 부문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했다. 다시 말해 서구, 특히 영국에 의해 타자화되어 있는 태국을, 서구를 배움으로써 주체화시키고자하는 노력의 필요성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태국 사회에서 인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 1) 전근대적 현실과 지식인의 근대지향 의식

서구적인 의미에서 볼 때 근대란 이성과 합리주의를 사상적 근간으로 한 서구 물질문명의 현상계를 의미한다. 비서구 사회의 근대는 시간적 개념보다는 물질 토대를 근간으로 하여 서구적 공간으로 진입하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전근대적인 가정에서 태어나 근대 교육을 받은 비서구 사회의 지식인들은 자신의 전근대적 문화현상을 인습 또는 구습이라는 이름으로 규탄하고 서구 문화와 저축되는 자신의 고유문화를 대신하여 서구의 문화를 앞장서서 받아들였다. 특히 신분제의 타파에 앞장섰다.

태국의 지배계층은 바우링조약(1855) 이후 도입된 서구의 문명과 문화를 받아들여 태국에서 실현하는 것을 태국의 근대화라고 인식하였다. 전제군주제 하에서 근대라는 개념은 문학 외적인 정치, 경제 및 사회적 변동 상황과 그 궤를 같이하며 문학의 근대화 또한 같은 궤를 갖고 있다. 자본주의와 함께 서양인과 태국인에 의해 밀어닥친 서구화는 바로 근대화라는 의식과 연결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전통을 봉건성이라는 개념과 동일하게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근대의 가치인 자유와 평등과 박애, 그리고 민주주의는 특히 서구에서 교육받은 유학생 지식인들과 국내에서 서구식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에게 최고의 가치로 인식되었다.

이와 동시에 서구의 자본주의가 들어옴으로써 태국 경제는 화폐경제 속으로

---

주의에 동조하게 만들었다.

진입하였다. 자본주의의 도입과 함께 태국에도 상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에 따라 일부 지배계층과 19세기 중반 이후에 태국에 이주하여 재산을 형성한 화인을 중심으로 새로운 중산층이 형성되었다. 소상인, 하급공무원, 작가 지망생, 중소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이 신중산층은 지배계층과 평민 사이에 위치하며 평민(프라이, ไพร)에 대하여는 새로운 양반 또는 상전(나이, นาย)으로 부상했으나, 기존의 지배계층에게는 여전히 아랫사람의 입장에 있었다. 기존의 지배계층은 신 중산층을 양반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지만<sup>131)</sup>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법적인 신분제는 붕괴되고 있었다. 1905년을 기점으로 이루어진 노예와 싹디나제도의 철폐로 인한 사회적 개혁은 과거 4-500년 간 지속되어 온 법적이고 전통적인 상전과 평민 관계, 즉 주종관계(patron-client relations)를 붕괴시켰다 해도 사(私)적인 주종관계는 여전히 존속했기 때문이다.<sup>132)</sup>

태국은 인도 문화권에 속해 있다. 비록 ‘타이(ไทย, thai)’라는 말이 ‘방임적인 자유’를 의미한다 해도 고대 크메르 제국의 문화를 받아들인 아유타야시대(สมัยกรุงศรีอยุธยา)부터 고착된 사회적 신분제도(patron-client relations)는 태국인들의 신분상승을 어렵게 만들었다. 지배계층은 지배계층의 교육과 훈련을 받았으며, 혼인을 통해 지배계층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유지하였다. 관직이 세습제가 아니었다 해도 관리 등용을 위한 시험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관료나 지인의 천거에 의해 관직에 올랐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외가 있었다 해도 농민은 대를 내리며 농민이고 노예는 노예였다. 이러한 사회체제 내에서 신분상승은 쉽지 않았다. 특히 교육이 전무한 계층은 신분상승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하였다. 그들은 엽보사상에 얽매어 현실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현실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의 공덕 쌓는 일에만 열중했기 때문이다.

131) เอมอน นิรัญราช, 『พัฒนาทางสังคมในนวนิยายไทยสมัยรัชกาลที่ ๗ 』, Bangkok, Tonor Grammy, 1996, p.103.

132) 아킨 라뵈트(Akin Rabibhadana), 「Persistence Within Change : Thai Society in th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ries」, 『태국사회 200년(『สังคมไทยใน ๒๐๐ ปี』)』, Bangkok, Sinakharinwirot University Press(Prasanmitr), 1983, p.41.

『그림 저 편에』의 높편, 『인생이라는 이름의 전쟁』의 라핀(ระพีพันธ์)과 두셋(ดุสิต สมิโตกรณ), 『앞을 내다보며』의 니탓은 모두 중산층 출신으로 19세기 이후 태국 사회가 변화하는 시기에 현대식 교육을 받음으로써 사회적으로 신분상승을 이룩한 인물들이다. 높편은 신중산층의 아들로 일본 유학생이고, 라핀은 비록 가난하지만 지식인 관료이다. 두셋으로부터 빌려온 250쪽이 되는 영어판 소설 『Poor People』을 라핀이 5일 만에 읽어낼 수 있는 정도<sup>133)</sup>의 지식인이다. 짬타는 농촌 출신의 고아이지만 명문 중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료가 됨으로써 중산층 대열에 합류한 인물이다. 두셋도 가난한 작가지망생이었지만 세태를 재빨리 읽고 부를 축적한 후 유명한 전업 작가가 된 인물이다. 니탓은 아버지가 중풍으로 병석에 누워 있어 어머니와 누나가 가게를 책임져야 하는 비교적 가난한 중산층 가정의 아들이지만 교육의 필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는 어머니로 인해 테웻랑쌀릿(เทเวศร์รังสฤษดิ์)에 입학하여 우등을 한 학생이다. 전통사회에서 하층신분이었던 사람들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신식 고등교육을 받거나(니탓, 짬타, 높편) 근대적 자본 축적의 대상인 화폐에 의해 부를 축적함으로써(높편, 두셋) 근대적 사회구조에서 상부사회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 짬타와 니탓과 라핀, 그리고 두셋은 모두 그러한 인물이다. 씨부라파는 쑤코타이시대(สมัยกรุงาสโขทัย)부터 내려온 신분제도를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소설 속에서 구현해 보였는데, 그 방법이 바로 고등교육 또는 부의 축적이다.

왕족과 상류층, 그리고 신 중산층의 자제 등 자비유학생 및 국비유학생으로 이루어진 유학생 지식인과 태국 내에서 서양식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내 지식인들은 20세기 태국 사회를 서구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이유는 그 시대의 지식인들은 상류층 출신은 물론 중산층 출신의 공무원이나 지식인들이 모두 서양식 문화를 선호하고 따르는데 앞장을 섰기 때문이었다.<sup>134)</sup> 이들은 해외유학생들과 더불어 마침 태국 사회에서 봄을

133) 『인생이라는 이름의 전쟁』, p.130.

타면서 발간되었던 신문과 잡지에서 기자와 작가로 활동하였다.

씨부라과의 소설에서 지식인의 근대지향 의식과 그 가치를 실현하려는 욕망은 작중 인물의 자아 인식에서 비롯된다. 『그림 지 편에』의 여주인공 끼라띠(ม.จ.ศิริดี)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 불가능하게 됨을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의 신분과 교육에 대해 비판하게 된다. 『앞을 내다보며』의 남주인공 찐타는 부유한 계층이나 누릴 수 있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태국의 현실을 비판할 수 있는 의식을 갖게 된다.

1936년에 일본 신문업계를 시찰하고 돌아와 발표한 소설 『그림 지 편에』의 멨라차웡(หม่อมราชวงศ์)135) 끼라띠는 왕족집안 출신의 35세 여성으로, 50여세의 홀아버지와 결혼하였다. 그녀는 대학총장인 남편을 따라 일본에 2개월을 예정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그녀는 일본서 만난 태국인 유학생 늑편에게 자신이 받았던 교육은 아버지가 원했던 아버지 시대의 전근대적인 교육이었음을 말한다.

“당신(끼라띠의 아버지)께서는 정말 완전한 왕족이셨어요. 당신은 대부분 당신만의 세계에서 따로 계셨어요. 당신은 나는 물론 당신의 자녀를 모두 당신처럼 왕족으로 만들고자 하셨지요. 내가 처녀티가 나자 당신은 나를 당신의 세계에 (가두어) 두고 외부세계와 단절시키

134) 핀펜 한프라꾼(พรเพ็ญ สันตระกูล), 『태국사회변화경향 แนวคิดเกี่ยวกับการเปลี่ยนแปลงของสังคมไทย』, Bangkok, Srinakharinwirot University(Prasanmit), 1983, p.192.

135) 태국의 직계왕족의 지위는 왕과 부인의 지위에 따라 다르다. 왕의 부인은 보통 4등급(프라악카라마헤씨(พระอัครมเหสี), 프라악카라차야(พระอัครชายา), 프라만다(พระมารดา), 그리고 프라싸놈(พระสนม) 이 있고, 그 자녀는 어머니의 지위에 따라 호칭이나 싹디나(ศักดิ์นา)가 다르다. 직계와 방계를 포함한 왕족의 지위는 5등급으로 나뉘는데, 왕과 정비(프라악카라마헤씨) 사이의 자녀에게는 "짜오화"(เจ้าฟ้า)라는 호칭을 이름 앞에 붙였고, 왕이 되지 않은 "짜오화"나 프라싸놈의 자녀는 "프라옹짜오"(พระองค์เจ้า), "프라옹짜오"의 자녀는 "멤짜오"(หม่อมเจ้า), "멤짜오"의 자녀는 "멤라차웡"(หม่อมราชวงศ์), "멤라차웡"의 자녀는 "멤루엥"(หม่อมหลวง)을 붙인다. "멤루엥"의 자녀는 왕족의 혈통이기는 해도 평민의 대우를 받고 단지 이름 뒤에 "나 아 유타야"(ณ อุทัย), "나 송클라(ณ สงขลา)" 등의 지명을 붙일 뿐이다. 태국인의 성은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 "멤라차웡"인 여성은 흔히 "룬잉"(คุณหญิง) 이라고 높여 불린다.

셨어요. 그리고 나는 그 당시 궁이라고 불렀던 우리 집에서 나이 많은 서양 여인에게서 교육을 받았는데, 가끔은 그녀로부터 바깥 세상에 대해 이야기를 듣기도 했어요. ...

아버지는 가끔씩은 왕궁에 들어가 우리 친척인 일부 지위 높은 옹주들의 시중을 들게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나는 내 처녀 시절 중에서 여러 해를 왕족들의 세계에서 보냈어요. ... 나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교육되어지지 않았어요. 내게는 이미 정해진 길이 있었어요. ... 전통과 인습이라는 좁고 좁은 길을 따라 걸어야 했어요. ...

서양인 가정교사는 내게 영어책을 읽게 했는데, 그로 인해 나는 독서를 ... 문학과 미술을 즐기게 되고 모든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게 되었고 ... 내가 외모를 아름답게 가꿨는데, 그것은 단지 내 자신을 상쾌하고 즐겁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지요.

그러나 미술은 큰 도움이 되었지요. 그땐 온 종일 바빠 움직여야 되어서 외로움이나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만 난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틈만 나면 그림을 그렸어요. ... 그리고 또 하나 매일 잊지 않고 한 것은 내 피부를 다듬는 일이었어요. 그 일에 여러 시간을 할애했어요.”(136)

ท่านเป็นเจ้านายกันจริง ๆ โดยมาก ท่านอยู่ของท่านต่างหากในโลกอีกโลกหนึ่ง ท่าน พ่อของฉันก็พยายามที่จะให้ตัวฉันและลูก ๆ ของท่านเป็นเจ้านายเช่นเดียวกับองค์ ..... พ่อเข้าจะเป็นสาว ท่านก็เก็บตัวฉันไว้ในโลกของท่าน ท่านป้องกันฉันจากการติดต่อกับโลกภายนอก ฉันได้เรียนหนังสือต่อมากับแม่หม่มแก่ ๆ คนหนึ่งที่บ้านของเราหรือวังตามที่เรียกกันในเวลานั้น ฉันได้เรียนรู้เรื่องราวของโลกภายนอกบ้างจากครูแม่หม่มของฉัน.....

บางที่ท่านพ่อก็ส่งฉันไปอยู่ในวัง รับใช้เจ้านายใหญ่โตองค์หญิงบางองค์ที่เป็นญาติของเรา ฉันใช้ชีวิตในวัยสาวของฉันในท่านอนั้นหลายปี ฉันต้องอยู่ในโลกของเจ้านายมานานพอ... เราไม่ได้ถูกอบรมให้เป็นคนช่างคิด เรามีทางที่เขากำหนดไว้ให้เดิน เราต้องเดินอยู่ในทางแคบ ๆ ตามจารีตประเพณีขนบธรรมเนียม.....

ครูแม่หม่มมักหาหนังสือภาษาอังกฤษดี ๆ มาให้ฉันอ่านเป็นการกระตุ้นใจให้ฉันกลายเป็นคนรักหนังสือ แล้วก็รักศิลปะ รักความสวยงามทุกชนิด ..... ฉันรักษาบ้าง

136) 『그림 저 편에』, pp.112-113.

ความงามความเปล่งปลั่งของฉันในเวลานั้นก็เพียงเพื่อความชื่นใจสำหรับตัวของ  
ฉันเท่านั้นเอง.....

แต่ว่าศิลปะได้ช่วยฉัน ฉันไม่มีเวลาที่จะใช้ไปในความคิดคำนึงและความเปลว  
เปลี่ยมากนัก ฉันมีงานทำเกือบตลอดทั้งวันฉันสนใจในการวาดภาพและใช้เวลา  
ฝึกฝนมาก.....นอกจากนั้นฉันมีงานที่ต้องทำประจำวันอีกอย่างหนึ่ง คือการบำรุงรักษา  
ความงามความเปล่งปลั่งของฉัน ... ฉันต้องใช้เวลารวันหนึ่ง ๆ หลายชั่วโมง

딸 3형제 중에서 인물이 좋았던 그녀는 얼굴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또 장  
녀였기 때문에 동생들과 다르게 외부세계와 절연된 상황 속에서 아버지(왕손)  
의 특별한 교육방식에 따라 왕실여인의 전통적인 구식교육을 받았다. 태국이  
서구의 신문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19세기 중엽 당시의 왕실여성이 받았  
던 그런 식의 교육을 왕실과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게다가 서양인 늙은 여성  
즉 가정교사로부터 영국의 전통적인 여성교육까지 받았다. 다시 말해, 아버지  
시대의 왕실여성이 받았던 교육을 받음으로써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봉건시대  
의 전형적인 마지막 지킴이로 교육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시대의 변화에 둔  
했던 아버지가 그런 것처럼 그녀도 자신만의 전통적인 세상 속에서 30살이  
다 되도록 불편 없이 살 수 있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자신의 아  
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또 왕족으로서의 체통을 지키기 위해 동생의 손  
을 빌어 곱게 화장하고 처음 만났을 때 입었던 옷을 입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책을 펴들고 읽는 척하면서 높편을 만나는 그녀다. 그녀 역시 아버지와 같이  
자신만의 구식세계 속에서 살다 갔다.

봉건시대 왕족 출신의 여성이 받는 교육 내용은 태국 모든 여성의 귀감이  
되는 것이었다. 남성의 교육과 달리 여성은 시대가 바뀌었어도 생각하거나 새  
로운 것을 창조하는 교육을 받지 못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은 외모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내부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교육  
되었다. 35 살의 끼라띠가 높편에게는 아무리 많아도 28 살은 넘지 않은 우아  
하고 조용한 여인으로 보이게 된 사실은 그러한 교육이 성공적이었음을 의미

한다. 상류층의 여성들은 자신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활동은 자신을 위한 것만 아니라 왕족의 체통을 지키려는 것이었고, 또 남성을 위한 것이었다. 이는 태국이 힌두문화권 국가로서 남성은 가정의 중심이고 여성은 인간이 아니라 남성의 부속물 또는 장식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전근대적인 가치관 때문이다.

수도가 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인 것처럼 왕실은 태국가정의 중심이고 유행의 출발지였다. 그러므로 왕실의 여성은 누구보다도 아름다워야 했고 현숙해야 했다. 여성은 남성의 마음에 들어야 했다. 여성에게는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최고의 미덕이었다. ‘아름답지 못하면 여성의 선한 덕목은 그냥 간과되어버리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삼종지도(三從之道)’만을 중용받는 상류사회에서 여성의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와 남편과 아들을 위한 것뿐이었다. 혼전에는 아버지에게 의지하고 혼인해서는 남편에게, 늙어서는 아들에게 의지해야 하는 것이 여성의 운명이라고 배웠기 때문이었다. 그런 사회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고하간에 아름다움이 스러지는 나이가 되면 안방을 지키기는 해도 젊고 아름다운 다른 여성(첩)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어야 했다. 끼라띠가 받은 독서와 바느질 및 미술 등 예술교육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외로운 시간 죽이기’에 필요한 덕목이었다.

스스로 아름답고 완벽한 여성이라고 생각하며 칭찬 속에서 집과 왕궁만을 드나들던 끼라띠는 아버지가 만들어준 자신만의 공고한 세계에 살며 아버지 외의 남성은 알지 못했다. 좋은 집 가문의 남성측 집안에서 매과를 보내 청혼해오기만 기다렸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끼라띠는 자신이 정말 좁고 답답한 세상에 살고 있음을 29 살이 되어서 깨닫게 된다. 여동생 둘이 2년 사이에 모두 사랑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연애해서 결혼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에게는 34 살이 되도록 청혼하는 사람이 없는 사실로 자신의 사랑과 입장을 생각해보고 자아에 대한 눈을 뜨게 된 것이다.

씨부라파는 남편이 유학하고 있는 나라를 일본으로 설정했다. 그 이유는 그

가 수개월간 일본에 체류하고 방금 돌아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자신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선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태국보다 발전한 나라로서 태국이 배워야 할 나라로 일본을 보았다. 씨부라파의 이러한 의식은 1930년대 태국의 지식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서, 태국이나 일본이 거의 같은 시기에 영국과 미국에 의해 강제로 문호가 개방되며 각기 근대화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었는데 어찌하여 일본은 20세기에 들어서며 아시아의 강국으로 부상했는가에 대한 의문과 부러움 때문이었다. 그 해답을 태국의 지식인들은 일본의 근대적인 교육과 일본인의 근성에서 찾았다.<sup>137)</sup> 그래서 씨부라파는 끼라띠의 입을 빌어, 또 유생을 국내학생보다 더 높이 평가하고, 못 배운 사람보다는 배운 사람을 존경하고 또 그들의 말을 믿고 따르는 태국인의 가치관<sup>138)</sup>에 의거하여 뉘편으로 하여금 일본인의 성격 중에서 태국인이 갖지 못한 성질들, 예를 들어 인내성과 근면성, 그리고 일과 쉼(놀이)의 구별 지을 줄 아는 성격을 태국인에게 알려 스스로 배우도록 권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 유학의 목적이 "조국 태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뒤진 후진국이기는 해도, 제가 태국사람이고, 조국 국민의 한 사람임을 한 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공부하는 것도 태국의 발전에 기여할 방도를 모색하기 위한 것<sup>139)</sup>"이라는 신세대 젊은이 뉘편의 말은 그러한 시류 및 씨부라파의 세계관을 반영한 것이다. 뉘편의 이러한 대답은 아직도 그가 유럽을 선호하는 가운데 중도적 민족주의를 견지하고 있음을, 민족주의에서 근대화를 이룰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끼라띠의 남편 대학 총장이 일본인과 친분관계가 적지 않게 있음을 흘림으로써 작가는 총장

129) 멤짜오 아짚담정 라피팟(ม.จ. อาภรณ์สารกิจ ทรัพย์พนัน), 『인생이라는 미래의 연극 สวรรค์แห่งชีวิต』, Bangkok, Phraephitaya, 1983, pp.383-385.

138) 파이룬 크르며쨌우 나 람퐁(ไพฑูรย์ เครือแก้ว ณ ลำพูน), 『태국사회의 특성 ลักษณะสังคมไทย』, Bangkok, Bophit, 1975, p.78.

139) 『그림 저 편에』, p.68.

이 논문보다 20여 년 앞서 일본에 유학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사실은 일본이 이미 20세기 초에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들었음을 말해준다. 씨부라과는 일본이 명치유신 이후 태국과 달리 빠른 속도로 발전한 이유를 일본의 교육과 일본인의 성격과 근면성에 두었다. 일본인들은 자기의 나라를 잘 알 수 있도록 교육받으며, 분수를 알고, 천성이 부지런하고 시간을 아껴 쓸 줄 알고, 또 아이들 또한 게으르지도 풀이 죽어 있지도 않은 것은 열심히 일한 후에 자신에게 맞는 휴식을 취하는 경제적인 방법을 알기 때문이라며 평민들은 일과 놀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부자들만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나라인 태국의 처지와 대비시키고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대화 과정에서 남성들은 해외 유학을 하여 태국사회의 중심부에서 창조적이고 자기 발전적인 또 국가를 발전시키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지만 여성은 대부분이 여전히 전근대적인 교육을 받음으로써 남성의 부속물이자 장식품으로서 중심부에 있는 남성에 비해 주변부에 위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씨부라과는 소설에서 젊은 여성들, 예를 들어 플린(พลิน), 끼라띠(คิระติ), 뿌랑(บุรง), 그리고 왓차리 (วัชร) 등을 교육받은 여성으로 그리긴 했으나 남성과 대등한 입장에서보다는 남성의 장식품이나 전유물 또는 허영에 차 있는 여성들로 그려냄으로써 부정적인 견해를 표현하였다. 다만 니탓 어머니와 찐타 어머니 같은 어머니들은 아들의 교육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는 여성으로 그림으로써 현실적인 시대감각이 있음을 암시했다.

실에 대한 안목이 높다는 것, 다시 말해 보다 현실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씨부라과는 호주로 유학을 가기 전에 발표한 소설, 예를 들어 『사내대장부』와 『그림 저편에』 그리고 『인간의 탈을 쓴 악마(มารมนุษย์)』에서 가난하지만 똑똑한 주인공이 정직함과 근면함으로 인정을 받고 선진국으로 유학하게 설정함으로써 선진국 유학이 개인적인 출세 즉 사회적 신분의 상승과 유지의 표상처럼 그려내었다. 선진국의 학문을 배우고 학위를 받아와서(학위증의 중요성이 늘 강조되었다) 그 학위증을 발판 삼아 상류사회로, 또는 자신이 속

한 사회보다 더 상위의 사회로 진출하는 주인공들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그의 경향은 그의 친서양적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호주에서 귀국한 후 그의 작품 주인공들은 대학생이나 지식인으로 바뀌며 개인적인 출세를 위한 외국유학보다는 자신이 배운 것을 토대로 국내의 무산자와 문맹층을 위해 봉사하고 그들의 권익을 위해 유산계층과 투쟁하는 양상으로 바뀌었다. 비록 니타이 영국유학을 떠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해도 그의 유학은 개인적인 신분상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국의 민주주의를 배워 와서 태국에서도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려는 의도이다. 이러한 구도는 씨부라과가 영국식 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믿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부분이다. 또한 이러한 양상은 호주유학에서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아 씨부라과 자신의 의식이 변화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1930-40년대 초와 달리 1950년대에는 태국 내에서 서양식 교육이 자리를 잡았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소설인 『앞을 내다보며』에서는 서양유학생이 등장하여 정치와 외교, 법학 또는 경제 등 다양한 과목을 전공하나, 전과 다른 것은 명문학교에서 학교공부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낙제하는 자녀를 부모들은 자신들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자비를 들여 외국유학을 보내는 모습이다. 예를 들어 장군의 아들로 폭력을 사용하여 약하거나 눈에 거슬리는 급우를 괴롭히는 등 음험하고 거만한 루찌랙(รุฉีเรศ)은 7학년 진급시험에 낙제하자 학년 초에 자퇴하고 독일로 떠난 친구 잇티핀(อติพน)을 따라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 잇티핀은 성적이 나빠 낙제가 분명하자 그의 아버지는 서둘러 미리 유학을 보냄으로써 체면을 유지했던 것이다.<sup>140)</sup> 공부 잘하고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나 집안이 가난하여 진학을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고 가족 부양을 위해 생계 전선에 뛰어들어야 되는 썩(เช็ง)과 루찌랙이나 잇티핀의 대조는 자본주의의 단점을 부각시킨다. 단순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학업을 중단하고 시계수

140) 『앞을 내다보며 : 소년시대』, p.211.

리공이 된 썩이 자신이 ‘운이 나빠서 그렇게 되었다’라며 운명에 또는 업보에 밀어붙인 설명<sup>141)</sup>은 석연치 않다. 오히려 세상이 잘못 되었다며 “우리가 아직 모르는, 선생님도 아직 가르쳐주지 않은 그 잘못된 무엇이 사회에 존재한다”<sup>142)</sup>는 니탓의 생각이 더 타당하다. 니탓의 이 말에는 민주주의가 도입된 지 벌써 여러 해가 되었지만 태국 사회를 아직도 전근대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사회이며 신분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사회라는 사실을, 그리고 과거의 왕족이 차지했던 지배계층 위치를 군부라는 새로운 지배계층이 자리하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회임을 간접적으로 폭로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앞을 내다보며』에서 짚타의 신분은 가난한 농촌 출신의 고아 아닌 고아로, 방콕으로 발령 받은 스님을 따라 방콕으로 와 스님 시중을 들며 의식주를 해결하고 그 절에 달린 학교에 다니는 이른바 ‘텍왓( เด็กวัด\*, 寺童)’<sup>143)</sup>이다.

16 세 나이에 비해 숙성하고 신체도 건장한 짚타는 스님의 천거로 고급관료의 집인 아피반(ท่าอากาศยานอภิบาล) 영감 댁으로 가 살며 그 집의 작은 아들 왓차린( วชิรินทร์)의 보디가드 역할을 맡게 된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서 몸집도 작고 약한 왓차린이 학교에서 급우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염려된 아피반 영감은 짚타를 데려다 아들과 같은 학교, 같은 반에 보냈다. 그는 왓차린과 조석으로 같은 자가용을 타고 등하교하며 명문학교 테웻랑쌀릿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아피반 영감 댁으로 떠나는 날 스님은 짚타에게 신분상의 차이를 강조하며 분수를 지킬 것을 당부하고 축복도 해주었다.

141) 『앞을 내다보며 : 소년시대』, p.212.

142) 『앞을 내다보며 : 소년시대』, p.213.

143) 절에 기거하며 승려의 시중을 드는 아이를 통 털어서 일컫는 말이지만, 흔히 절에서 승려들의 시중을 들며 학교도 다니는 고아나 타지에서 온 가난한 아이를 뜻한다. “아이”라는 뜻을 가진 “텍”과 “절”이라는 뜻을 가진 “왓”이라는 단어의 복합어이다. 시골서 도시로 공부하러 온 학생의 경우 하숙비를 낼 수 없는 아이들은 절에 기거하며 공부하는 아이들도 “텍왓”이라 부르는데 이 경우 고아인 짚타와는 차별된다. 태국 사회에서 “텍왓”은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아이, 버려진 아이, 커서 잘될 확률보다 나쁘게 될 확률이 더 높은 아이로 평가된다. 주인 없는 야생견처럼 천대받는다.

“짠아, 넌 참 복이 많은 애구나. 너는 이제 백조의 세계 속에 들어가 살게 된 것을 알겠느냐? 앞으로 네가 다닐 학교는 가문이 좋은 고급관료와 왕족들이 다니는 명문 중의 명문이다. 네 처지에 중학교 3학년까지 다닌 것만 해도 분에 넘치는데, 더 높은 공부를 하게 되었으니. 나도 네가 그렇게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게 될지 몰랐구나. 만일 네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정신을 잃을 정도로 기뻐했을 거다. 넌 한시도 네가 까마귀인 것을 잊지 말고 분수를 지켜야 한다. 내가 그동안 가르치고 일러준 말을 한시도 잊지 말고 명심 하여라. ... 아랫사람은 늘 고개를 숙이고 공손한 태도를 가져야 하느니라. ...”<sup>144)</sup>

“นี่ช่างมีบุญเหลือเหลือเกิน อ้ายจัน มิ่งรู้ไหมว่ามิ่งได้เข้าไปในหมู่มงส์กับเขาแล้ว โรงเรียนที่มิ่งจะไปเรียนนี่นะ เป็นโรงเรียนที่พวกผู้ดีมีตระกูลและพวกเจ้านายท่านไปเรียนกัน สำคัญก็คิดว่า มิ่งได้เล่าเรียนถึงชั้นมัธยมสามก็นับว่าวิเศษโขแล้ว และถึงมิ่งจะมีโอกาสได้เรียนชั้นสูง ๆ ต่อไป ก็ก็ไม่คิดว่ามิ่งจะได้เข้าไปเรียนในโรงเรียนที่มีหน้ามีตาขนาดนั้น นี่ถ้าแม่มิ่งเขาอยู่เขาคงจะปลื้มอกปลื้มใจแทบตายทีเดียวละ แล้วมิ่งอย่าหลงอย่าลืมนะว่ามิ่งเป็นกษัตริย์เจียมกษัตริย์หัวขวงมิ่งเองและยังมีคำที่กูได้สั่งสอนไว้ต่าง ๆ นานา มิ่งยังจำได้ไหมนะ..... เป็นผู้น้อยคอยก้มประนมกร...”

가난한 농촌의 아이는 까마귀이고 고급관료의 세계는 백조의 세계다. 까마귀와 백조의 세계는 비록 같은 하늘 아래 있는 세상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정도로 다른 세계이다. 그 차이는 사회적 신분 및 가문, 부, 교육 수준 등에 의해 결정된다. 짠타가 방콕에 올라 왔을 때 방콕을 신천지로 보았는데, 방콕에서도 아피반 영감의 집은 별천지였고, 그가 새롭게 다니게 된 학교는 더욱더 달랐다.<sup>145)</sup> 비록 그가 아피반 영감의 작은 아들 왓차린의 보디가드의 신

144) 『앞을 내다보며 : 소년시대』, pp.27-28.

145) 시골과 방콕, 방콕에서 그가 다녔던 학교와 데헛랑쌀릿학교와의 차이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에 등교하는 첫날 그는 생전 처음으로 신발을 신어보았다. 그 전까지 그는 맨발로 걸거나 뛰는 것은 물론 축구도 했다. 자가용의 앞자리에 앉아 작은 도련님을 모시고 등교하며 목격한 학교의 모습과 분위기 또한 시골서 다니던 학교는 물론 방콕에 올라와 다녔던 학교와도 달랐다. 그가 승용차를 타 본 것도, 차를 타고 학교까지 간 것도 처음이었지만 학교에 도착한 후 기사 쨥(แจ๊ง)이 왓차린에게 자동차 문을 열어주고 그의 책가방과 도시락을 들고 교실까지 운반해주는 것을 보는 것도 처음이었다. 학교 교사의

분이었지만 그가 당면한 현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그에게는 스님이 하셨던 말, ‘넌 백조의 세계에 들어간 까마귀’라는 말이 진정임을 절감하게 만든 새로운 경험이었다. 이 학교에는 가난이나 구차함, 낡고 현 것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그에게는 시골서 갓 올라왔을 때 방콕의 모습에 놀랐던 것 이상으로 아피반 영감택과 학교가 새로웠다.

외형적인 차이뿐 아니라 교육의 내용 또한 달랐다. 그가 전에 받았던 교육은 남을, 특히 있는 사람과 사회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을 공경하고 경외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으나 테웻랑쌀릿의 교육은 달랐다. 동문이나 재학생 모두 ‘우리 학교’라고 자랑스럽게 부르며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나라에 대하여 충성하고 학교를 사랑하며 훌륭한 신사양반이 되라고 가르친다. 축구시합 등 행사가 있거나 조회 때마다 학생들이 ‘짜오쿤’(เจ้าคุณ)이라고 부르는 교장선생님은 팀워크 또는 단체 구성원으로서의 정신, 다시 말해 학생들의 스포츠맨십과 학교의 명예와 역사를 강조한다. 자라나는 양반집 자제들에게 사내대장부다운 덕목, 태국사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급 남성으로서의 기본적인 덕목을 갖출 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역설한다.

“학교의 명예와 명성, 그리고 올바른 학교사랑은 ... 학교선수들이 그 어느 것에 우선하여 승리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엄한 훈련에 임하고 운동규칙을 잘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시합에 임할 때도 운동규칙을 잘 준수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경기

---

모습도 전에 다니던 학교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웅장하고 컸다. 그 속을 오가는 선생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학생을 데리고 온 기사들의 복장 또한 달랐다. 교사 안으로 들어간 찐다는 또한 번 놀랐다. 깨끗함과 화려함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복이 구김살 하나 없는 훌륭한 것이고, 그들의 태도도 밝고 활기에 차 있으며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교사 구석구석이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고 메끌메끌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의 내용도 밝고 쾌활한 것뿐이었다. 이층으로 가는 벽에는 커다란 게시판이 걸려 있고 그 위에 해마다 킹스칼라십을 받은 학생들의 이름이 그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금색문자로 새겨져 있었다. 그들은 고급관료나 왕족의 자제가 많았으나 평민과 중국계 태국인의 자제도 더러 있었다. 그는 그 장학금이 어떤 것이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몰랐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받는 영예로운 것일 거라고 추측해 보면서 평민도 고급관료나 왕족의 자제와 비교될 만큼 영민하고 공부를 잘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경이롭게 여겨졌다.

에서 패한다 해도 기쁘게 스포츠정신으로 패배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패배해도 괜찮습니다만 운동선수로서의 예절, 스포츠정신만은 우리 학교로 돌려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스포츠정신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sup>146)</sup>

ความรักเกียรติชื่อเสียงของโรงเรียน.....ความรักที่ถูกต้องนั้นไม่ได้หมายความว่า  
นักกีฬาของโรงเรียนจะต้องมุ่งชิงชัยมาให้ได้ไม่ว่าด้วยประการใด ๆ แต่หมายถึงว่า  
นักกีฬาของโรงเรียนจะต้องมอบตัวไว้ในระเบียบวินัยของการฝึกซ้อมอย่างเคร่งครัด  
และเมื่อถึงเวลาไปแข่งขันก็จะพยายามเล่นอย่างดีที่สุดตามระเบียบของการแข่งขัน  
หากจะปราศรัยก็ยอมรับการปราศรัยโดยซื่อสัตยา...เธอจะเอาชัยชนะตั้งเสียก็ได้แต่เธอ  
จะต้องนำเอามารยาทของนักกีฬากลับมาโรงเรียนของเราสิ่งนี้ จะถูกทอดทิ้งไม่ได้  
ด้วยเหตุใด

그러나 입으로는 스포츠맨쉽과 명예를 지킬 줄 아는 신사가 되라고 강조하는 짜오쿤도 “프라이(상놈 또는 평민)”이라는 단어를 “푸디(양반)”라는 단어와 대비하여 “상류층”이라는 말에 대한 “하류층”이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하고 학생의 인간 됨됨이를 ‘누구의 자식이냐?’ 또는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물음으로 평가한다.

이처럼 교장 등 사회지도층은 신식교육을 앞세워 서구의 가치관을 갖추어야 할 덕성으로 교육시키고 평등과 자유를 부르짖지만 실제로 그들은 집안을 중시하고 혈연과 지연, 학연을 중시할 뿐만 아니라 중국인을 비하하고 가난한 사람을 홀대한다. 신식교육은 지배계층을 위한 교육이었고 기득권 세력이 그 권력을 세습하기 위하여 ‘푸디(양반)’를 양성해내는데 목적이 있었다. 양반은 늦게 일어나고, 일하지 않으며, 천천히 느리게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것이다. 시골서 올라온 짚타는 지배계층 즉 짚타를 제외한 저택의 모든 구성원들의 눈에는 소나 말 같은 존재였다.

사회적 신분에 따른 대립과 갈등을 작가는 『앞을 내다보며』에서 아피반 영감택의 구성원을 중심으로 그려내며 우회적인 방법으로 인간 평등에 대해

146) 『앞을 내다보며 : 소년시대』, pp.133-134.

이야기하고 있다.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입헌혁명 이전의 전제군주시대로 신분사회이자 계층사회이다. 노예제가 철폐되고 평민들이 부역제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전제군주 하의 시대였으므로 국민들의 가치관은 여전히 전근대적이었다.

아피반 영감의 저택은 봉건시대 궁전의 축소판이다. 아피반 영감과 본처, 그리고 큰아들 왓차라(ਵੱਚਰਾ), 고명딸 왓차리, 작은 아들 왓차린 삼남매가 주인이다. 이들과 저택의 다른 구성원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힘과 권위라는 잣대로만 측정되는 전근대적이고 절대적인 신분사회의 전형이다. 궁전 같은 저택에서 아피반 영감은 구성원 전체의 삶의 기둥으로 집안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다. 그가 바로 집안의 명예와 부의 근원이기 때문이다.<sup>147)</sup> 그러므로 그가 들이는 첩들은 그의 권위를 더 높여줄 뿐이다.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는다.

주인 가족 밑에는 집사이자 마님의 대리인격인 라마이(ਰਾਮਾਇ)가 있고, 그 아래에는 주인의 첩인 읍처이(ਊਚੈਯ)와 반촌(ਰਾਮੁਠੁ) 자매가 있는데, 이들의 관계는 수평적으로 평등하지 못하고 이들끼리는 수직적인 관계를 서로 인정하지 않는다. 누구든 윗사람의 총애만 받으면 그것을 힘으로 삼아 다른 사람들에게 군림하며 위에 서려고 한다. 그리고 그 밑으로 기사, 정원사, 찬모, 유모, 몸종 등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집안에서 짠타는 가장 낮은 신분이었고 괘시를 받았다. 그가 고아인데다 촌에서 갓 올라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애가 도련님이 다니는 학교에 같이 다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찌 그런 지체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자신들보다도 못한 그런 애가 상전이 다니는 학교를 다닐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는 저택 구성원의 심부름을 도맡아야 하는 동네북이 되었다. 그는 절에 있을 때보다 더 고되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림을 당했다. 먹는 밥값과 등록금을 대신하고 남을 만큼 일을 했으나 '분수를 알아야'하는 자신의 처지에, 스님의 당부에 참고 견디는 그였다. 그는 그런 대우가 조금도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147) 『앞을 내다보며 : 소년시대』, p.109.

씨부라파는 30 년대 태국 사회에 만연한, 너무 오래 동안 그래왔으므로 조금도 그르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지 않을 정도로 깊이 박혀버린 빈부의 격차와 신분상의 차이에서 겪는 갈등과 대립,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의 부재에 대해서도 묘사하고 있다.

시골 촌놈인 그가 왓차린 도련님과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도록 한 것은 그 자신이 지워버릴 수 없는, 전혀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죄악이고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이다. 그가 촌아이이고 텍왓(寺童)이 겹도 없이 고귀한 가문의 이 영감님택에 들어온 사실만으로도 그는 이미 어느 누구의 귀염을 받을 수 없는 입장에 있다. 짬타가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된 사실 자체가, 비록 그의 지위가 하인이라 해도, 그 집 구성원 모두의 지위를 하락시켰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 자기들도 역시 하인인데도 자기네들끼리도 서로 얽보고 멸시했다. 어떤 하인은 상전보다 더 그를 천시하고 멸시했다.<sup>148)</sup>

การที่เขาเป็นเด็กบ้านนอกและได้ถูกส่งไปเรียนร่วมกับคุณชายวัชรินทร์ เป็นบาปที่ไม่มีความดีใด ๆ ในตัวเขาจะลบล้างได้ และเป็นโทษที่ไม่อาจจกขยได้ เพียงแต่ความเป็นเด็กบ้านนอกและเด็กวัดเขาอย่างเดียวก็นำให้เขาหมดความน่าเอ็นดูเสียแล้วที่ได้บังอาจกระเสือกกระสนเข้ามาอยู่บ้านของท่านผู้มีบุญหนักศักดิ์ใหญ่ คนเหล่านั้นเห็นว่า การที่มีเขามาอยู่ร่วมด้วยทำให้ศักดิ์ศรีของบ่าวไพร่ในบ้านนั้นลดน้อยถอยลง ทั้งที่เป็นบ่าวเขาอยู่ บ่าวบางคนยังเหยียดหยามพวกบ่าวด้วยกัน บางคนก็แสดงกิริยารังเกียจกว่านายจริง ๆ

짬타는 집안과 학교에서 생활이 다르고 지위도 다르다. 상전인 왓차린과 그와의 관계도 저택과 학교에서 다르다.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평등이 요구되는 학교에서는 동급생이고 친구였으나 집안에서는 상전과 하인의 관계였다. 학교에서 배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 그리고 평등은 집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스스럼없이 친구로 대하는 왓차린에게 집안 살림을 도맡아하는 라마이는 '짬은 네가 부리는 하인이다'라며 왓차린의 신분을 일깨워 준다.

148) 『앞을 내다보며 : 소년시대』, pp.99-100.

하인 째타는 상전보다 공부를 잘 해도 안 되었다. 째타의 성적이 왓차린을 앞서자 이를 수치스럽게 여긴 아피반 영감은 아들을 영국으로 유학 보내 법학을 공부하게 한다. 그 바람에 째타는 중등학교 6 학년을 마치고 아피반 영감의 천거로 공무원이 된다. 양반의 체면 때문이었다. 저택의 구성원들은 째타가 6 학년을 마치고 더 이상 진학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가슴속이 후련했으나 그가 공무원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에게는 유학을 가고 8 학년까지 졸업한다는 사실보다 관리가 되는 것이 더 영예롭다고 생각된다. 관리가 된다는 것은 왕을 위해 일하는 매우 신성한 일로<sup>149)</sup> 간주되므로 개인은 물론 가문의 영광이다. 출근하라는 소식을 들은 째타 자신도 너무 기쁘고 흥분한 나머지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에 “너무 기뻐서 온 몸에 소름이 돋고 몸이 공중에 붕 떠오르는 것 같았다”<sup>150)</sup>고 썼다.

째타는 아파도 병원을 갈 수 없다. 병원 문턱이 높기 때문이고, 상전을 치료하는 의사는 하인을 치료할 수 없다는, 상전이 먹는 약을 하인이 먹을 수 없다는 불문을 때문이다. 운전기사 부부가 인명의 소중함을 들먹이며 의사에게 애원하자 의사는 본분을 깨닫고 기사 부부의 요구에 응한다. 하인의 병에 의사를 부른 사실은 세상이 180도로 돌아서 땅이 하늘에 닿았고 하늘은 땅으로 내려와 하늘로 올라간 땅을 대신하는<sup>151)</sup> 그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이었고 경악이었다. 이를 두고 라마이는 ‘가문의 아름다운 전통’이 깨졌다고 한탄했다. 아피반 영감의 입장에서 보면 라마이도 역시 부리는 사람에 있다.

149) 『앞을 내다보며 : 소년시대』, p.221.

10-20년 전만 해도 태국인이 가장 선호했던 직업은 관료였다. 이렇다 할 대기업이 많지 않았던 시절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정년과 복지생활이 보장된 철갑뱀통을 얻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됨으로써 명예를 얻게 되었고 명예는 곧 돈과 직결되기 때문이었다. 현재도 지방에서는 공무원이 되는 것을 선호한다. “10명의 상인이 한 사람의 관료를 당하지 못한다”( สิบบอด้วไม่เท่าหนึ่งพระยาเสียง ) 라는 태국의 속담은 태국인의 이러한 가치관을 잘 보여준다. 최창성, 「속담을 통해 본 한 태 양국민의 의식구조」, 『외대논문집』, 1979, p.256.

150) 『앞을 내다보며 : 소년시대』, p.219.

151) 『앞을 내다보며 : 소년시대』, p.104.

그러나 그녀는 아피반 영감 식구를 대신하여 찐타를 인간 이하로 취급한다. 인간의 모습보다 자신이 모시는 상전 집안의 명예가 더 중하다는 세습적인 가치관은 수백 년을 두고 답습되어 온 싹디나제도(ระบบศักดิ์นา)의 잔재이다.

“그 아이가 아파서 죽을 뻔했어요. 라마이님.”

“죽을 정도면 죽게 내버려둬야지.” 라마이가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건 법도에 어긋난 거야. 상전을 치료하는 의사에게 보이다니. 왓차린을 치료하는 의사가 찐을 치료한 사실은 찐을 죽게 놔둔 것보다 더 나쁘고 잘못된 행위야.” ...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 같이 집안 주치의의 승용차가 대문을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의아해하며 본체에 계신 주인어른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수근 거렸다. ... 의사가 왕진가방을 들고 본체로 가는 대신 차고로 가서 “그 촌놈”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한층 더 놀랐다.

... 라마이는 이 저택의 “아름다운 전통”이 수치스럽고 가슴 아프게도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하였다. 찐타의 회생은 이미 사라진 “아름다운 전통”과 맞바꿀 수 없었다. 그 “아름다운 전통”이 어떻게 해서 세워졌으며, 그 전통이 하늘을 찌를 듯이 드높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사람은 없었다.<sup>152)</sup>

“เด็กมันเจ็บงานจะตายอยู่แล้วคุณสมัย”

“เมื่อมันถึงที ก็ต้องปล่อยให้มันตายไป” คุณสมัยตอบอย่างมั่นคง

“มันไม่มีธรรมเนียมแม่สาย ที่ป้าจะใช้นายแพทย์ร่วมกับนาย ฉันรู้สึกว่าการจะไปเอานายแพทย์ของคุณ วัชรินทร์มารักษาอัยจันนั้น จะเป็นการกระทำผิดที่ร้ายแรงเสียยิ่งจะปล่อยให้อัยจันตายไป”.....

ทุกคนในบ้านต่างมีความประหลาดใจที่เห็นรถยนต์ของนายแพทย์ประจำตระกูลแล่นผ่านประตูใหญ่เข้ามา ต่างซักถามกันว่า “ท่าน” ที่บนเตียงเป็นอะไรไป แต่ครั้งแล้วทุกคนที่รู้เห็นต่างมีความประหลาดใจยิ่งขึ้น เมื่อเห็นนายแพทย์ก็ออกกระเป๋าทิ้งให้หญิงเดินตรงไปที่โรงรถยนต์ และเข้าไปในห้องของ” อัยเด็กบ้านนอก”...

คุณสมัยคือว่า “ประเพณีอันดีงาม” ของ “ประสาท” หลังนี้” ได้ถูกลบล้างไปอย่างน่า

152) 『앞을 내다보며 : 소년시대』, pp.104-105.

เจ็บใจและน่าอัปยศ การรอดตายของเด็กชายจันทาก็ไม่อาจขัดเซยกับ “ประเพณีอันดีงาม” ที่ได้สูญเสียไปแล้วไม่มีใครได้ซักถามคุณลมัยว่า “ประเพณีอันดีงาม” นั้นมันก่อรูปขึ้นมาได้อย่างไร และมีใครบ้างที่ต้องการเชื่อมั่นไว้ให้อยู่ท่าฟ้า

씨부라파는 당시 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 특히 신분제로 인간의 됨됨이까지 평가되는 봉건사회의 타파와 신식교육을 통한 새로운 가치관의 설립이 바로 태국을 근대화시키고 국제사회에서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지름길로 보고, 자신의 소설에서 주인공을 대체로 무산자들이나 무산계급 고학력 지식인들로 설정하였다. 그는 작가 지망의 가난한 공무원이나 하층민의 아들, 고아, 유학생 아니면 가난한 농촌에서 방콕으로 올라온 입지적 인물 또는 가난한 중산층을 주인공으로 하여 자아와 현실에 눈을 떠가는 과정을 그렸고 그 과정을 통해 당시 사회 현실을 재현하였다.

『그림 지 편에』에서 끼라띠의 슬픔과 죽음은 그녀가 속했던 계층의 상실감과 몰락을 의미한다. 인민당은 1932년 12월 10일에 제헌헌법을 발표하며 “멈짜오”(หม่อมเจ้า)이상의 왕족에 대한 정치참여를 금지하였다.<sup>153)</sup> 왕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호의호식하던 시대는 끝난 것이다. 그 결과 왕족들은 직업과 함께 권세를 잃은 것은 물론 이들과 결탁되어 있던 상류계층도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아피반 영감의 집이나 끼라띠가 그러한 예이다. 명예를 그 어느 것보다 중시하는 태국인에게 정치적인 명예를 상실함은 바로 경제적인 부를 상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거나 대응하지 못한 계층들은 몰락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다. 이 계층이 다시 자유를 찾고 과거에 누렸던 권세를 회복하는 것은 끼라띠의 자유 추구하고 맥을 같이 한다. 끼라띠가 봉건세계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또 다른 형태의 낡은 상류사회에 진입함으로써 자신을 개혁하는데 실패한 예는 바로

153) Rong Sayamananda, 『A History of Thailand』, Bangkok, Thai Watana Panich, 1977, p.165.

당시 상류층이 봉착한 실정이다. 씨부라과는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따라 변해야 됨을 끼라띠의 죽음으로 역설하였다. 끼라띠가 결혼을 해서 느꼈던 삶의 단조로움과 건조함이나 과거 처녀시절의 삶에서 오는 절망감 등은 60세에 접어든 늙은 남편이 속하고 있는 구세대 사회의 전유물이다. 과거 자신의 것을 지탱하려는 상류층의 몸부림은 바로 끼라띠의 몸부림이다. 그곳에 인정(자비)과 윤리도덕 그리고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화장법이 있다 해도 과거의 영화나 청춘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

아피반 영감이 6·24 입헌혁명으로 실직한 후 그 집안은 과거의 부귀와 영화를 신정부에 의해 모두 빼앗기고 만다. 집밖의 변화를 모르는 주인마님은 과거의 습관대로 재화를 쓸 줄만 알지 별 줄도, 살아남기 위해 지출을 줄여야 하는 것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은 그녀의 딸 왓차리도, 큰아들 왓차라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젊은이였지만 끼라띠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인습에 젖어 자신에 대한 개조를 거부함으로써 이 난관을 타개하지 못한다. 타개할 생각도 하지 못한다. 여태까지 살아온 것처럼 살아도 설마 굶어죽겠느냐는 배짱이다. 이렇게 아피반 집안은 몰락한다.

씨부라과는 세계적인 새로운 질서 속에서 봉건사회 몰락의 필연성과 새로운 시대변화에 적응해야 발전할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와 개인의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을 그림으로써 자신의 근대지향 의식을 자본주의에 대한 견해와 함께 표현하였다.

또한 수백 년 간 지속되어온 봉건주의 체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태국 사회에 만연시켰다. 전제군주제 하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1930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출생에 의한 신분상의 차이는 여전하였다. 신분은 부와 권위와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운명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체념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그 부와 권위를 걸모습으로 인정받으려 했으므로 상류층은 그 옷차림이나 씹씹이가 그 만큼 중요하였다. 라핀의 옆으로 이사 온 서른 살의 전업 작가 두셋은 인생의 성공 여부는 일의 종류보다는 당사자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하며 작가가 예전의 말처럼 “굶주린 창자”(โสดมึง)의 대명사가 아님을(154), 귀족계층이 부의 상징이 아님을 라퐼에게 일러준다. 두셋은 작가라는 직업도 ‘일부 귀족보다 더 나은 사회적 명성과 부를 누릴 수 있는 계층으로 부상했음’(155)을 가르쳐주며 가난 때문에 작가의 꿈을 버리지 말라고 격려하고 세상물정을 알려준다.

“3년 전만 해도 난 협회가 선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에서 이리저리 뛰며 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찾았으나 결국에는 난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협회는 그러는 날 원한 게 아니라 ... 협회가 원하는 것은 돈이었던 것이었지. 그래서 난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 협회라는 사회를 버리고 돈을 벌기 시작했네. 그랬더니 4-5년 후에 제법 큰 부자가 되더라구. 현재 나는 내가 버렸던 그 협회와 제법 잘 어울린다네. ...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난 그 협회를 싫어하지. 아주 가끔 가면을 쓰고 그곳에 가서 비위를 맞추고 서로 속고 속이면서 지내지. 그러면서도 난 그 협회를 버릴 수 없다네. 그것이 모두 내 작품의 소재이니까.

요즈음 난 한 달에 한 번씩 상류층 여성과 남성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파티를 연다네. 신분이 높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초대하고 돈이 없는 귀족들도 또 안면이 있는 기자도 한두 명 초청하여 비싸고 좋은 술과 음식을 내놓는데, 그들은 술을 한 두 모금 맛보곤 칭찬만 늘어놓는다네. 모두 내 작품이 좋다고, 흠 잡을 데가 없이 완벽하다고, 내가 젊지만 마음만은 웬만큼 나이 든 사람보다 더 넓게 쓴다고, 내가 잘 생긴데다 지혜가 있으며 재산까지 있어 완벽하다고, 딸 가진 사람은 누구나 사위로 삼고 싶어 한다고 입에 발린 말을 늘어놓는다네. 겨우 100 바트 정도의 돈으로 파티를 한 번 열면 다음 날 아침 신문에 내 칭찬이 있는 기사가 ... 나는 하루 밤사이에 유명 인사가 되어 있다네. ...

돈만 있으면 뭐든지 살 수 있고 체면도 세울 수 있고 명예도 사랑도 살 수 있지. 뭐든지 원하는 것은 쉽게 얻을 수 있는 세상이지. ... 돈

154) อุดม รุ่งเรืองศรี, 『สภาพทางวรรณกรรมไทยปัจจุบัน』, Bangkok, Silapabannakhan, 1980, p.90.

155) 『인생이라는 이름의 전쟁』, p.99.



회의 ‘선’이 그 힘을 상실했음을, 그리고 그 자리에 돈이 대신 앉아 있는 사회가 되었음을 씨부라파는 자신의 대변인격인 두셋을 통해 투사한다. ‘선’이 자리할 수 없는 사회는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여서 상류사회에서는 ‘선’이 ‘돈’이라는 물질에 여지없이 짓밟히고 유린당할 것이다. 그래도 사회에는 ‘선’이 존재해야 함을, 자본주의라는 힘을 가진 ‘선’을 새로 창조해야 함을 강조하며 씨부라파는 타락하고 부패한 태국의 상류 사회를 풍자한다. 한 마디로 두셋은 상류사회라는 사회의 중심부에 들기 위해 돈을 벌었고 그 돈의 힘을 이용하여 중심부로 들어갈 수 있었으며 그리고 그 사회의 중심부에 앉는 데 성공했다. 이에 비해 라핀은 ‘선’함만 가지고 있고 ‘부’를 갖지 못해 인생에서도 사랑해서도 패배한 것이다.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밑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물질을 무시하지 않는 씨부라파 정신의 발로이다.

씨부라파는 전근대성과 봉건성이 당시 태국 사회에서 가장 현저한 왜곡현상이라고 절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억압적인 태국의 낙후성을 타파하여, 과거 후진국이었던 아시아 국가 일본이 명치유신 후 성공적으로 봉건주의를 타파하고 서양을 따라잡은 것처럼, 씨부라파는 조국의 근대화를 성취시키려는 태국의 선각적 지식인들의 노력을 동시대 작가의 한 사람으로서 주시하며 소설 속에 리얼하게 반영하였다.

## 2) 전제주의 타파와 민주의식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여 독립을 유지한 사실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던 태국은 1차 세계대전에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하여 승전국이 된 후 유럽 열강과 협상을 벌인 끝에 1855년의 불평등 조약을 평등조약으로 갱신하는데 성공하였으나, 국제무대에서는 여전히 이등국이였다. 한편 태국과 거의 같은 시기에 미국의 힘에 굴복하여 문호를 개방한 일본이 아시아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하여 국제무대에서 일등국이 된 사실에 대해 지식인들은 이러한 일본을 태

국이 지향해야 할 모델국가로 여기기 시작하였다.

일본이 강대국으로 부상한 것을 비롯하여 세계 도처에 전제정치가 사라지고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이 들어서며 정치적 변화는 태국의 지식인들, 특히 유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그들은 그 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목격하고, 태국에는 큰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1920년대 말부터는 싹디나제도로 지속되어온 태국의 전제군주제도도 이 도도한 물결에 의해 언젠가는 무너지고 새로운 제도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도시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신문들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국민의 소리를 거론하기 시작하였고 의회정치와 공화정에 의한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주창하였으며, 태국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고위층에 의한 탄압, 가난한 계층에게 불리한 법률, 그리고 관리 채용상의 비리 등에 대하여 입을 열고 정부를 비난하였다.

프랑스에서 7년간 유학하고 귀국한 뿌리디가 “1927년에 귀국해 보니 외국에 가보지 못한 젊은이들이 벌써 자각을 했더라. 당시 태국의 정치제도인 전제군주제를 폐하고 헌법에 의해 통치되는 민주주의 체제로 변화해야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는 당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대중매체의 영향이다.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소수의 유학파들이 큰 어려움 없이 지식인들을 인민당에 영입할 수 있었다.”<sup>157)</sup>라고 기록한 사실은 1920년대 말 태국의 역사적 · 사회적 · 정치적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국에까지 밀어닥친 세계적인 경제 공황은 가난한 계층은 물론 하급 공무원과 하급 군인들의 경제생활에도 위협을 주었다. 라마 7세가 경제 위기를 공무원의 봉급 삭감과 해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었다. 태국 사회는 도시에서는 실직으로, 농촌에서는 쌀값 하락에 신음하는 생활고로 과거에 목소리를 내지 않던 사람들까지 불평을 하기 시작하였다.<sup>158)</sup> 사실 당시까지만

---

157) 뿌리디 파눔웅(ปฐวี พนมยงค์), 『인민당 결성에 관한 이야기 บางเรื่องเกี่ยวกับพรรคก่อตั้งคณะราษฎร』, Bangkok, Nitiwech, 1972, p.18.

해도 태국 국민 중 절대 다수는 농민이었는데, 그들은 정치의식이 거의 없었다. 농촌 사회와 농민들은 왜곡되고 억압적인 정치체제에서 오는 고통을 운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현실을 하늘이 내린 것으로 체념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천벌이라고 여기며,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상전들이, 그리고 왕과 관리들이 모두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몰랐으며 또 내지 못하도록 교육되고 훈련되고 또 탄압되어 왔었다. 그러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식생활마저 위협을 받자 마침내 농민을 포함한 국민들의 불평이 폭발하게 되었던 것이다.

마침내 1932년 6월 24일 새벽, 태국 역사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온 ‘입헌혁명(또는 무혈혁명)’이 발생하였다. 이 정치적 대변혁은 전지전능하다는 왕이나 왕족 또는 그 어떤 신성한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 평범한 인간, 다시 말해 중산층 출신의 서양 유학생 지식인 100 여명으로 구성된 인민당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들은 혁명을 일으켜 전제군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입헌군주제를 채택하여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태국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린 것이다.

만일 범천왕(梵天王, 우주의 창조신 = 조물주)이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 커다란 사회적 변혁을 가져다주었다면 그 날 그 범천왕은 군용트럭을 타고 지상에 납시었다고 할 것이다. 각종 인간 살상무기를 가득 채운 장갑차를 앞세우고 각종 총과 탄약으로 무장한 1군 근위기병대는 동틀 무렵 방쓰(방콕 공항 근처)로부터 시내로 진군해 왔다. 범천왕은 철모를 쓰고 각양각색의 무기 한 가운데 서서 엄격한 낮빛으로 구정권을 가루가 될 정도로 짓밟아 부수러 왔다. ...

**반란!**

**정치 변화!**

**왕권 탈취!<sup>159)</sup>**

158) เอมอน นิรัฐราช, 『พัฒนาทางสังคมในนวนิยายไทยสมัยรัชกาลที่ ๗ 』, Bangkok, Tonya, 1996, pp.23-24.

159) 『앞을 내다보며 : 청년시대』, p.14.

หากจะเรียกว่า พระพรหมเป็นผู้คิดประวัติศาสตร์บทใหม่ เป็นผู้คิดความเปลี่ยนแปลงทางสังคมอันใหญ่หลวงในวันนั้น พระพรหมก็เสด็จมาในขบวนรถบรรทุกทหาร นุ่มเกาะสรรพไฟไปด้วยอาวุธประหารนานาชาติ.....กรมทหารม้าที่ ๓ รักษาพระองค์ได้เคลื่อนขบวนมาตามถนนสายบางซื่อในยามฟ้าสาง พระพรหมทรงสวมหมวกเหล็ก เสด็จมาในท่ามกลางสรรพอาวุธด้วยดวงหน้าอันเคร่งเดียงดั่งมิ่งดั่ง เพื่อจะเข้าบดขยี้อำนาจเก่าให้แหลกเป็นมุยผง....

**กบฏ!**

**เปลี่ยนการปกครอง!**

**ยึดอำนาจจากกษัตริย์!**

이 변화에 대해 태국인들은 가지각색의 반응을 보였다. 고급관리는 자신의 지위에 대해 걱정하며 앞으로의 사태에 전전긍긍했으며 하급관리들은 희망을 갖기도 하였다. 영국에 유학했던 귀족들은 크롬웰사건을 떠올리며 불안해했고, 자본가와 지주들은 볼셰비키혁명을 연상했다. 이 입헌혁명에 대한 소식은 마을을 건너고 도회지를 넘어 방방곡곡으로 퍼졌다. 기독교층은 사태를 주시하는 한편 1912년에 일어났던 ‘려.썸. 130 사건’( 1912. 12. 130 )<sup>160)</sup>을 상기하며 이 사건도 곧 수습될 것이라 믿으면서도 자신과 가족의 재산과 안위를 염려했다. 일일노동자 등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국민의 대다수는 이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그 사건으로 인해 상실하거나 손해를 볼 어떤 재산이나 기독교가 없었기 때문이며, 또 그 혁명 사건으로 인해 어떤 이익도 차례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주변부 인생이 늘 그런 것처럼 다소 흥분하여 사태의 추이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을 뿐이었다.

운하에서 쪽배를 타고 다니며 행상을 하는 여인들끼리 물었다. “왕

---

160) 1911년 약 800-1,000명의 소령 이하 하급 장교들이 태국에 민주주의를 도입하기 위한 모의가 사전 밀고로 발각되어 92명(법무부 문관 4명, 해군 3명, 육군 85명)이 처벌받은 사건을 말한다. 이 모의의 계획에 따르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태국에 헌법과 의회가 있는 정치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었으나, 그들은 3파로 나뉘어 갈등하다가 계획이 노출됨으로써 실패했다. 그 원인으로서는 라마 6세의 지나친 영국생활에 대한 선호의식에 대한 불만, 하급 장교들의 애국심, 라마 6세의 군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 그리고 쓰어빠 창단에 대한 군의 불만을 들 수 있다. 김영애, 『태국사』, 한국외대출판부, 2001, pp.212-213 참조.

을 바꾼다며?”

“난 몰라.” 다른 상인이 답했다. “새로운 세력이 왕실을 점유하고 왕족과 고급관료를 잡아 가두었다는 것만 들었어.”

배를 타고 그 옆을 지나가던 승려가 “새로운 사람들이 세력을 잡았답니다. 아유타야 시대 때처럼 그들은 새로운 왕조를 세운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강둑에 붙어있는 집 입구에 앉아 있던 노인이 담담한 목소리로 거들었다. “나라의 운명이라네.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것이야.”

“사람도 죽이고 죽고 그럴건가요?” 여자 상인이 큰소리로 물었다.

“아유타야 시대에는 많이 죽였지. 툰부리의 딱썬 왕 때도 남자 왕족들은 거의 다 죽임을 당하고 어린애와 여자들만 남았지.” 노인이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른다우. 그들의 속셈을 알 수가 있어야지.” 말을 마친 노인은 합장한 손을 이마까지 끌어올리며 하늘에 대고 절을 한 후 “살육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네. 여보게들, 죄를 지어서는 안 되네.”

“세상은 일체가 무상해요.” 옆에 있던 처녀 상인이 한마디 거들었다.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한숨을 내쉬었다.

“천지신령님이시여, 그저 쌀값이나 오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상인 하나가 기도하는 투로 말을 한 후 노를 저어 그곳을 떠났다. 그 후 그들은 늘 하던 대로 소리치며 물건을 사고파는 일상의 세계로 돌아갔다.<sup>161)</sup>

พวกแม่ค้าพายเรือขายของตามลำคลองร้องถามกันว่า

“เขาจะผลัดแผ่นดินกันหรือ”

“ฉันก็ไม่รู้ยะ” อีกคนหนึ่งตอบ “ได้ยินแต่เขาว่าจะกันว่า พวกใหม่เขายึดพระที่นั่ง และจับเจ้านายมาขังไว้เยอะแยะ”

พระภิกษุรูปหนึ่งนั่งเรือผ่านมา ได้ชี้แจงว่า “สงพวกใหม่ได้อ่านาจแล้ว เขาก็ต้องตั้งราชวงศ์ใหม่ขึ้นปกครองอย่างสมัยกรุงศรีอยุธยาณะแหละ”

บุรุษผู้เฒ่าที่นั่งอยู่บนชานเรือนริมตลิ่ง ร้องผสมออกมาด้วยเสียงอันราบเรียบว่า “มันเป็นไปตามชะตาของบ้านเมืองไม่มีใครขัดขืนได้”

“เขาจะฆ่าจะแกงกันใหม่ค้า” แม่ค้าคนหนึ่งร้องถาม

“ในสมัยกรุงศรีอยุธยา เขาเคยฆ่ากันหึ่งโคตร เมื่อครั้งพระเจ้าตากสินที่กรุง

161) 『앞을 내다보며 : 청년시대』, p.25.

ธนบุรีนี้ พวกพระราชศัที่เป็นชาย ก็ถูกฆ่าเกือบหมดเหลือแต่เจ้านายผู้หญิงและ  
 เจ้านายเด็ก ๆ” ท่านผู้เฒ่าอธิบาย  
 “ในครั้งนี่เขาจะเอาอย่างไรเราก็ไม่รู้เขา” แล้วแกก็ยกมือขึ้นท่วมหัว “อย่า  
 ถึงกับฆ่ากันแหละดี แม่เอ๊ยอย่าให้มีเวรกันไปเลย”  
 “โธ่ ๆ ในโลกส่วนตัวจริง” แม่สาวบนเรือนข้างเคียงร้องผสมขึ้นมาบ้าง พลาง  
 พวกที่ชุมนุมอยู่แถวนั้นพากันถอนใจ  
 “ขอย่าให้ข้าวสารขึ้นราคาเลย เจ้าพระคุณ” แม่คำคนหนึ่งเปล่งเสียงภาวนา  
 แล้วพวกเขาก็พวยเรือ แยกย้ายร้องชื่อร้องขาย หากินไปตามเพลงของเขา

1920년대 말에는 종래의 사회적 신분제가 무너지며 반상의 신분 격차에 혼란이 일고 또한 중산층과 직업적인 노동자그룹이라는 새로운 신분계급이 생성함으로써 양반과 관료 등의 지배계급과 대등한 입장에서 활동하였다. 당시 있었던 태국 최초의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왕의 직계가족은 모두 108명(남자 52명, 여자 56명)이었고 방계 왕족까지 합하면 약 500명가량이었다. 왕족에 이어 관료들의 수가 7-8만 명으로 전 노동인구의 0.83%를 차지하였고 상업과 공업에 종사하는 중산층은 70만 명가량으로 전 노동인구의 10.14%를 차지하였다. 나머지는 농업에 종사하였다.<sup>162)</sup> 80%가 넘는 농민의 거의 문맹이 있었으므로 입헌혁명이 일어났을 당시 태국의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간의 지식의 차이는 매우 현격하였다.

그러므로 평민들은 정치적 변화에서 어떤 결과가 자신들에게 돌아올지 관심이 없다. 무식하기도 해지만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쌀값이 올라 먹고사는 일이 어렵게 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국민들은 정체 변화와 더불어 만들어진 ‘랏따탐마눈’ 즉 ‘헌법’(รัฐธรรมนูญ)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헌법’을 인민당의 주동 인물인 파혼(พันเอกพนพลพยุหเสนา)의 영향력 있는 친인척으로 생각했으며 ‘민주주의’(ประชาธิปไตย)라는 단어 역시 ‘쁘라차티빠파이’라는 발음을 제대로 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 의미를 당시 왕인 라마 7세

162) Statistical Year Book of Siam, No.19.

(พระเจ้าอิน)의 왕자 시절 이름과 앞부분이 같다는 이유로 왕의 형이나 동생의 이름으로 이해했을 정도로 무지했다. 당시 인민당의 주도세력의 한 사람이었던 송쭈라뎃(พระยาทรงสุรเดช)은 정부가 언론을 통해, 또 관리를 파견하여 입헌혁명의 목적과 의의를 설명해도 국민들은 정치적인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1932년 6월 27일 아난 궁전에서 임시헌법이 공포되던 날 정부가 일반 시민을 동원하려 했지만 매우 어려웠다. 겨우 몇 십 명이 동원되었으나 헌법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 하였다. 차라리 그 자리에서 연극을 공연하고 국수 등 음식을 주었다면 저 많은 사람들이 자진해서 몰려들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식인은 달랐다. 그들은 정치 변화에 대하여 새로운 희망을 걸고 있었다. 테웻랑쌀릿 교사며 쩐타와 니탓의 담임이기도 했던 우타이(อรุณทัย)는 새 시대에 거는 기대를 다음과 같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예전의 정부는 고위 상류층을 위한 정치를 했으나 신정부는 국민의 정부이므로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수행할 것이다. ... 신세력은 바로 국민의 편에 서서 함께 호호하는 사람들이므로 후에 국민 위에 올라앉는 귀족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 왜냐하면 인민당은 국민들의 평안을 위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주며 균등하고 최상의 교육을 국민에게 실시할 것이기 때문이다.<sup>163)</sup>

รัฐบาลเก่าปกครองเพื่อประโยชน์ของคนชั้นสูงแต่รัฐบาลใหม่เป็นรัฐบาลของราษฎรจะดำเนินการปกครองเพื่อประโยชน์ของราษฎร....เขาไม่ต้องการจะเป็นเจ้านายกันเลยพวกใหม่เป็นพวกของราษฎร....จะทำทุกอย่างเพื่อความสบายของราษฎรจะให้ราษฎรมั่งงานทำอย่างทั่วถึงและจะให้การศึกษาแก่ราษฎรเต็มที่

거사 직전 인민당으로부터 인민당 참여제의를 받은 씨부라파가 어느 한 편에 가입하는 것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활동하겠다는 정중한 답변으로 거절했

163) 『앞을 내다보며 : 청년시대』, p.39.

으나<sup>164)</sup> 그는 내심 입헌혁명을 환영하고 또 그들의 공약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음을 위 우타이교사의 말에서 읽을 수 있다. 당시 지식인들이 이 정치변화에 거는 기대가 매우 컸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씨부라파의 중립적인 입장은 그 후 지속되었으며 호주유학 이후부터는 변화하여 적극적으로 민중의 편에서 자신의 역할을 했다. 인민당에 의한 민주주의는 국민교육을 위해 대학교를 세우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의 실시를 시도하며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경제계획을 세우지만, 인민당은 바로 다음 해에 입헌정부를 밀어내고 스스로 정권을 장악하며 독재정권으로 흘렀기 때문이었다. 이 사실은 국가 권력이 전제군주에게서 소수 정치가와 군부 손으로 옮겨졌을 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sup>165)</sup> 인민당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목적에 반하는 왕족과 기득권층을 권좌에서 제거하고 자신의 사람으로 채우는 등 국민을 배반하고 국민의 희망을 짓밟았다. 게다가 전제군주제 하에서 관리에게 사용하였던 작위제를 다시 회복시켜 사용하려 함으로써 전제군주제 하에서보다 더 권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했다.

입헌군주제로 정체가 바뀐 후 2-3년도 지나지 않아 인민당에 의한 새 정치가 거둘 수 있는 성공의 정도에 대해 회의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국민들은 인민당이 주장한 새 정치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입헌혁명 바로 다음 해인 1933년에 입헌혁명 전 전제군주제 하에서 국방상을 역임했던 버워라멧 대군(พลเอก พระองค์เจ้าบวรเดช)이 왕정복고를 목적으로 마노빠껐니띠타다(พระยามโนปกรณนิติธาดา) 내각(이하 마노 내각)<sup>166)</sup>을 지

160) 차닛 싸이쁘라딧 ชนิด สายประดิษฐ์. 「บันทึกและงานของกุหลาบ สายประดิษฐ์」. 『โลกหนังสือ』. Vol. 2, No. 2 (Nov.) 2521.

165) 리킷 티라웨킨(ลิขิต ธีรเวคิน), 『태국의 정치 การเมืองการปกครองของไทย』, Bangkok, Thammasat University Press, 1990, p.83.

166) 1932년 6월 24일 거사 당일 라마 7세의 인준을 받음으로써 민주주의체제 도입에 성공한 인민당은 6월 27일 인민당 당원이자 프랑스 박사 1호인 뿌리디 파놈용이 초안한 임시헌법을 발표하고 구체제 하에서 대법원장이었던 마노빠껐니띠타다를 수상에 추대하였다. 마노 내각에서 뿌리디, 파혼, 쑹쭈라멧, 피분 등 인민당 당원 9명이 무임소장관에 임명됨으로써 정치에 직접 참여함은 물론 경험 많은 각료들을 견제하며 정치수업을 받았다.

지하며 군대를 일으키자 인민당 청년장교인 피분이 진압하였다. 이 사건으로 신체제 내에서 왕정복고파를 축출해 내고 파혼이 수상이 되었다. 그 후 인민당은 군부와 민간파로 나뉘어 세력 간에 다툼이 일었다. 군부는 다시 육군과 해군으로, 육군은 청년파와 노장파로 나뉘어 네 파가 각축하였다. 그리고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정부의 시녀로 전락했다. 정부는 경찰을 앞세워 언론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군부 예산을 늘리고, 2차 세계대전을 빌미로 새로운 헌법의 초안을 10년 후로 연기하였다. 이렇게 해서 태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후퇴하고 말았다.

언론인, 작가, 대학생, 하급공무원 등의 지식인이 앞장서서 이러한 인민당의 독재에 대항하며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그리고 평등을 위해 투쟁했다. 이러한 지배계층에 대한 피지배계층의 저항과 투쟁을 씨부라피는 『앞을 내다보며』와 『인생이라는 이름의 전쟁』에 재현하였다. 전통사회에서 전승되어 온 양반(상전)과 왕족과 고급관료에 대한 무조건적인 절대복종과 양반의 아랫사람에 대한 관용적인 배려 및 자본주의의 산물인 유산계층에 대하여 소극적이고 간접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이 라핀과 플린의 대화를 통해, 또 소년 시절 니탓의 입을 통해 암시된다. 그리고 텍왓 시절 짬타의 친구였던 땀(ແໜ້ນ)과 썽, 우타이 선생님, 그리고 니탓을 통해 적극적인 투쟁이 투영되었다.

짬타의 스승이자 보호자인 스님은 짬타를 고급관료(양반) 아피반의 집으로 보내며, 그 관료양반을 ‘백조’로, 짬타를 ‘까마귀’로 표현하는 등 짬타의 사회적 신분을 비하하였고 짬타는 스님의 이 말을 명심하고 동의하지만 방콕에서 성장하고 명문학교에 다니는 중산층의 아들 니탓은 이런 표현을 의아해 한다. 농촌의 전근대적인 사고에 얽매어 있던 짬타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존재이자 지도자격인 스님의 가르침을 한 번도 회의하지 않고 부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인다. 그러나 도시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있으며 독서를 많이 하는 니탓은 인간으로서의 명예는 세상사람 모두가 신분이나 빈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동등하므로 인간은 모두 다른 사람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

각하기 때문에 잔타나 잔타 스님의 말을 의아해한다. 개개인의 인격과 능력은 스스로 노력하고 공부해서 쌓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니탓의 이러한 의식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았다.

스스로 잔타의 학교 도우미를 자청한 니탓의 어머니는 겨우 문맹을 면하였지만 교육에 대하여는 많이 배운 사람 못지 않은 열의를 갖고 있다. 그녀는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힘든 생활을 한다”고 믿는 여성이다. 그래서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도 니탓을 명문에 보내며 늘 “아버지처럼 정직해라. 잘못된 것은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책임질 수 있고 자립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가르친다. 정직하게 일을 해도 가난한 사실은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며, 정작 부끄러워해야 할 사실은 남을 속이고 등치며 뇌물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가르친다. 니탓의 집안이 비록 명문대가의 집안보다 가난하지만 그들과 똑같은 등록금을 학교에 내고 다니므로 늘 그들과 동등하다고 생각하라고 가르친다. 이러한 가정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니탓에게 스님의 말과 그 스님의 말을 믿고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는 잔타를 의아해 한다.

니탓은 급우 앞에서 양반은 어디서 유래되고, 상인은 또 어디서 유래되며 또한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며 전통적인 신권정치와 상전에 대한 절대복종을 부인한다. 왕의 조상들도 하늘이나 어디 은밀한 곳에서 온 존재가 아니라 모두 같은 인간임을, 그것도 평민이었음을 강조한다. 학생 모두가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고급관료인 교장 선생님도 과거에는 ‘뽕’(ᄃᆞᆫ)이라는 이름의 보통교사였다고 했다. 니탓의 영향을 바도 학교교육을 받아가며 잔타도 인간평등에 대하여 눈을 뜨고 깨닫게 된다. 양반의 씨가 따로 없다는 것을, 인간은 양반과 악한으로 성장할 씨나 기질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며 선과 악은 성장하는 아이가 몸담고 있는 주위환경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함과 함께 평등사상과 자아에 눈을 뜬다. 그는 시골의 학생들에게도 방콕 그 학교의 교육환경과 같은 조건이 주어지면 모두

똑똑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 역사책에 나와 있는 증거가 있어. 딱씬 왕 같은 왕이 어디서 왔는지 너 아니?”

“몰라. 하지만 하늘이나 신의 세계 같이 고귀하고 높은 곳에서 오셨을 거야.”

“아니야” 니탓이 힘주어 말했다. “사실 그 분은 신비한 곳에서 온 것이 아니야. 그분은 본래 너나 나처럼 평민이었어. 지난 방학 때 난 툰부리 역사와 딱씬 왕, 그리고 그 왕의 신하장수에 대해 읽었어. ... 그 분은 아유다야 왕조의 장수였고 이름이 본래 ‘씬’이라는 중국인과 태국인 사이의 혼혈이야. ... 후에 그분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구하자 왕이 된 거야. 라마 1세도 마찬가지야. 라마 1세는 우리 선생님 몇 분처럼 ‘루엥’급 관리였어. 그분의 본래 이름은 ‘두엥’이고. 전쟁터에서 공을 많이 세워 ... 마침내 왕이 되셨지. 봐! 두 분의 왕은 하늘에서 내려온 분도 신도, 또 그 친척도 아니야. 왕이나 귀족들은 우리 같은 평민이 된 거야. 우리 교장선생님도 전의 이름이 ‘뽕’이셨어. 167)

“...ได้พบข้อพิสูจน์ในหนังสือพงศาวดารเธอรู้ใหม่ว่าพระเจ้าตากสินท่านมาจากไหน”

“ฉันไม่รู้ แต่ฉันคิดว่าต้องมาจากที่สูงมากเช่นฟากฟ้าหรือมาจากพวกเทวดา”

“ไม่ใช่” นีทัศน์แน่นเสียง “ความจริงท่านไม่ได้มาจากที่ลึกลับที่ไหนหรอก แต่เดิมท่านเป็นคนธรรมดาเหมือนกับเธอหรือฉันนี่แหละ เมื่อหยุดเทอมคราวที่แล้วฉันได้อ่านหนังสือพระราชพงศาวดารกรุงธนบุรี.....รวมทั้งพวกทหารเอกของท่าน.....แต่เดิมพระเจ้าตากสินท่านเป็นขุนนางของพระเจ้าแผ่นดินองค์ก่อน และแต่เดิมที่เดียวท่านชื่อสิน ท่านเป็นลูกจีน.... ภายหลังเมื่อท่านรบชนะภูบ้านภูเมืองได้แล้วท่านจึงได้เป็นพระเจ้าแผ่นดิน สมเด็จพระพุทธยอดฟ้าก็เหมือนกัน แต่เดิมท่านเป็นขุนนางชั้นหลวงเหมือนกับครูของเราบางคนเป็นกันนี้แหละ และแต่เดิมที่

“เดียวท่านชื่อดวง เมื่อออกรบชนะศึกมาก ..... ดูซิเธอ ท่านทั้งสองไม่ได้เสด็จมาจากฟากฟ้าหรือเป็นญาติกับเทวดาองค์ไหนเลย พระเจ้าแผ่นดินหรือขุนนางท่านก็มาจากคนธรรมดาเหมือนอย่างเรา ๆ ทั้งนั้น ท่านอาจารย์ ‘เจ้าคุณ’ เอง แต่เดิมท่านก็ชื่อ ‘แป้ง’”

167) 『앞을 내다보며 : 소년시대』, pp.152-153.

씨부라파는 학교가 사회적으로 신분제를 고착시키는 본거지임을, 더군다나 전근대적인 사회에서는 더욱더 그러함을 폭로한다. 지배계층을 세습적으로 지배계층으로 존재하고 군림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곳이 학교이므로 그런 명문에서 교육받는 것이 바로 부와 권위의 사회로 가는 열쇠이자 지름길이며 상류사회를 유지시키는 방법임을 비판한다. 그러면서도 인간의 자유와 권리와 평등 그리고 참된 민주주의를 깨닫게 해 주는 곳도 바로 학교라고 설교하였다.

짚타의 학급에는 왕족과 양반집 아들이 대부분이지만 니탓 같은 중산층 평민의 아들도 있고 썩과 같은 중국인과 베트남인의 혼혈 혈통을 가진 학생도 있으며, 분크령(ບຸນກຸ່ງ)처럼 태국 남부 고무농원의 주인아들도 있다. 분크령의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였으나 공부를 하여 하급 지방공무원이 되었는데, 이장과 결탁하여 지위를 이용한 부정한 방법으로 고무농원을 사들여 부자가 되었다. 아버지는 아들을 비싼 돈을 내는 방콕의 명문으로 유학시켰다. 분크령은 부모가 예전에는 가난한 농부였다는 것을 감춘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장래 권세를 부릴 수 있는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였으므로 ‘아버지는 네 뒤를 대줄 만큼 돈이 충분하니 남에게 주눅 들지 말고 돈을 쓰고 친구를 사귀라’고 말하며, 학교에서 지위가 높은 부잣집 아들하고만 사귀도록 종용한다. 분크령 아버지의 의식은 양반이나 부자와 친하면 자기 처지나 체면이 덩달아 올라가고 양반들의 사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남에게 의지하며 돈으로 무엇이던지 살 수 있다는 물신시대 사유의 전형이었다.

3년간 테웻랑쌀릿 학교에서 받은 교육은 짚타를 정신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었다. 절에서 살 때 그는 양반은 모두 지혜롭다고 배웠다. 지혜는 왕족, 귀족, 그리고 가문이 좋은 사람들의 전유물이고 가난한 사람이나 촌사람은 하층민으로 어리석고 게으르고 나쁜 성질을 갖고 있다고 배웠다. 그러나 3년 동안 그는 신체적으로 어깨가 떡 벌어지고 가슴도 단단하고 넓어져 어른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지적인 면에서도 성장하였다. 니탓을 존경하는 마음은 아직

도 여전했다. 시골아이, 가난한 연립주택에 사는 아이, 평민가정 출신의 아이들도 양반가문의 아이들처럼 공부할 기회를 갖게 되면 양반 못지않은 지혜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터득했다. 니탓, 썬, 그리고 자신이 바로 훌륭한 예인 것이다. 쩀타 자신을 왓차린과 비교해볼 때 공부가 처음에는 처졌지만 나중에는 더 잘하게 되었고, 약한 친구들을 보호하고 방어해 주며 굶은일을 나서서 했으므로 선생님과 친구들로부터 왓차린보다 더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된 사실 또한 그의 생각을 굳혀 준다,

1932년 폭발한 입헌혁명<sup>168)</sup>에 의하여 전제군주제도가 타파되었다. 열광하는 국민 속에 군중과 함께 감격하면서 씨부라파는 선진적 문학인으로서 새로운 시대의 공기를 깊이 호흡하고 있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의 소설은 역사소설이 아니었으며, 그의 문학작품들은 왜곡된 당 시대의 사회 현실을 리얼하게 압축한 결정체였다.

비록 전제주의 타파 이후에 나타난 인민당의 독선과 이어진 군부독재는 태국 사회에 또 다른 왜곡현상을 초래했지만, 민주주의는 시대적 추세와 역사적 필연으로 다가왔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제도인 민주주의가 태국 사회를 압도하기 시작하면서, 낡은 억압에서 해방된 백성들은 민주주의의 혜택을 향유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태국 사회의 역사적 전기에서 동 시대 선각적 지식인이며 대표적 작가인 씨부라파의 리얼리즘은 자기 문학작품 속의 주인공들을 통하여 시대적 현실인 민주주의 사상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었다.

### 3) 금전만능 의식에 지배되는 애정 윤리

씨부라파의 소설 중에서 계층 간의 빈부 격차와 갈등 그리고 약육강식이라는 자본주의의 속성을 가장 많이 다룬 작품은 러시아의 도스토예프스키 소설

---

168) 본 논문의 각주 57 참조.

『Poor People』 169)의 영향을 받았다는 서간체 소설 『인생이라는 이름의 전쟁』이다. 이 소설에는 가난한 연인 사이인 라핀과 플런 간의 순수한 사랑이 이야기되지만, 제목 "인생이라는 이름의 전쟁"이 시사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전쟁터이고 산다는 것 자체가 전쟁이라는 이야기이다.

삶이라는 전쟁에서 적은 인간의 욕망, 곧 욕심 사랑 분노 미혹을 비롯하여 천재지변이나 사회의 불의 등이고 무기는 지혜와 지식이다. 죽어야만 끝을 낼 수 있는 평생에 걸친 이 전쟁터에서 순수한 사랑은 자본주의의 상징인 금권에 패배한다. 당시 태국 사회에서 착한 마음은 무엇이든지 살 수 있는 돈을 이겨 낼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라핀의 또 하나의 적은 궁핍이다. 부에 패배만 하는 궁핍은 플런에 대한 라핀의 사랑마저 패배시키고 만다.

하급공무원인 라핀은 작가 지망생이다. 외아들로 태어난 라핀은 어느 정도 풍족한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했으나 6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8살 때 어머니마저 사망했다. 사망하기 전에 엄마는 전 재산을 아버지 측 친척에게 맡기고 아들의 교육을 부탁하였다. 그 친척집에서 그는 처음에는 조카로서 대우받으며 학교에 다녔으나 점차 냉대를 받고 급기야는 일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전락했다. 일도 가벼운 일에서 점차 힘든 일로 바뀌었다. 그러다 친척은 마침내 하인을 내보내고 그를 하인처럼 부렸다. 한 달에 8바트를 주던 하인을 내보내고 라핀을 부리며 라핀에게는 학교 등록금 1바트(บาท)와 간식비 90짜땅(๙๐๐๐๐, 1바트=100짜땅)을 주었으므로 매달 6 바트의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친척의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정말 이익도 남겨 재산도 챙기고 조카를 길렀다는 외형적인 공덕도 쌓는 일을 한 것이었다. 그게 세상인심이였다.<sup>170)</sup> 간신히 학교를 졸업한 그는 하급공무원이 되어 독립하여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집이나 방이라고 부를 수 없는 작은 공간에서 작가의 꿈을 키운다.

---

169) 흔히 씨부라파를 러시아 작가의 영향을 받은 첫 번째 작가로 꼽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작품 때문이다. 이 소설은 1977년에 쫓타차이 쟁끄라짱(สนิทชัย แสงกระจ่าง)에 의해 『가난한 사람들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두엥까몬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발간하였다.

170) 『인생이라는 이름의 전쟁』, p.39.

플런은 고급관료의 딸이다. 2-3년 전만 해도 그녀는 상류사회에 속한 가정에서 매우 호화롭고 우아한 생활을 했다. 영어와 프랑스어에 능통하고 피아노와 승마도 익혔으며 자동차 운전도 할 줄 안다. 노래도 수준급이어서 16살 때는 학교는 물론 동네에서도 소문난 다재다능한 팔방미인이었다. 아름답고 공부 잘하던 그녀는 동네의 꽃이었고 그녀가 다니던 명문 학교의 자랑이었다. 17살 그녀가 학교를 졸업하려던 해에 멋진 청년과 약혼까지 했으므로 그녀 자신 부족할 게 없는 행복 속에 싸여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공금 횡령에 연루되어 가산이 몰수되고 아버지도 체포될 운명에 놓이게 되자 아버지는 가족에게도 비밀로 한 채 중국으로 잠적해 버렸다. 그녀는 약혼자로부터 도움을 기대했으나 그 약혼자는 신문에 부친의 횡령기사가 나자 즉시 파혼을 선언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녀는 어머니도 여의었다. 결국 거의 빈털터리나 다름없는 신세로 전락한 그녀는 조카와 지내고 있는 가난한 이모 댁에 얹혀서 살고 있다. 직업을 구하지 못해 가지고 있는 돈을 아껴 쓰며 살지만 이모가 병석에 눕게 되자 이웃집에서 돈을 꾸었으나 더 꿀 데가 없게 된 사실을 안 라핀은 연인 플런을 돕기 위해 가진 옷을 저당 잡힌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각오가 되어있는 라핀이었기 때문이었다.

가난을 비판하지 않고 서로 용기를 주며 의지하고 사랑을 키워가던 어느 날, 생활비마저 바닥이 나자 플런은 영화사에서 여배우를 모집하는 광고를 보고 생활고와 가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보려는 마음에서 라핀의 반대를 무릅쓰고 응모한다. 영화사에 가서 예비심사를 받고 온 플런은 라핀에게 편지로 '자신은 스스로 영화배우로서 재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책도 읽고 노래도 하는 등 외모와 음성 테스트를 받은 다음 간단하게, 그녀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순식간에, 500 바트라는 출연료를 받는 태국 최초 유성영화의 주연배우로 선발되었다'는 이야기를 쓰며 그간의 사랑과 보살핌에 감사한다.

나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 거금에 대해 꿈을 썼어요. 내가 예상했던 것의 몇 배나 되는지 몰라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큰 금액이어서 기뻐요. 하지만 그 이유는 내 자신이 그 돈으로 호의호식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돈을 생각하면 누구보다 먼저 당신이 생각나요. 난 그 돈으로 당신의 은혜에 다 보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당신이 내게 베푼 은혜는 내 키만큼 돈을 쌓아올려도 부족해요. ... 마음으로 제게 주신 것이라서 히말라야 산만큼의 돈으로도 갚을 수 없어요.<sup>171)</sup>

ดิฉันฝันถึงเงินจำนวนก้อนใหญ่นี้ด้วยความปลื้มยินดีเป็นแสนสุด มันมากเกินไป ความคาดหวังของดิฉันหลายเท่า ดิฉันดีใจไม่ใช่เพราะมองเห็นความสุขที่ตัวจะได้รับจากการบำรุงบำเรอของเงินก้อนนี้ เมื่อนึกถึงเงินก้อนนี้ขบะใจ ดิฉันก็มองเห็นระพิณฑ์ก่อนใครทั้งหมด เพลินไม่ได้คิดว่าจะฉวยโอกาสตอบแทนบุญคุณเธอหรือก ถ้าบุญคุณที่เธอมีต่อเพลิน จะวัดได้ด้วยกองเงินที่สูงท่วมตัวดิฉัน ดิฉันก็ยังพอหวังจะคลายหนี้ของเธอได้ แต่บุญคุณที่ดิฉันรู้สึกในระพิณฑ์นั้นเป็นบุญคุณที่เธอได้ทำไว้ด้วยน้ำใจ จึงไม่สามารถจะคลี่คลายออกได้ แม้ด้วยกองเงินที่สูงใหญ่เท่าภูเขาหิมาลัย

그러나 그녀는 영화 촬영을 하러 태국의 남부지역에 갔다가 영화 제작자 위나이(วินัย)의 청혼에 응한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혼을 승낙한 플런은 영화 출연료의 일부 1,000바트를 라핀에게 보낸다. 월급 20바트 짜리 인생 라핀에게 1,000바트라는 거금은 물질만능 시대가 태국에도 열렸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류를 두고 라핀은 ‘선은 죽었다’며 약육강식의 세상을 한탄한다. ‘약육강식’의 법칙은 동물의 세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세계는 물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존재함을 들추어내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물질 앞에서는 무력하고 평등하지 못함을 폭로한다.

“ ... 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각기 자기 나름의 삶을 살며 관계를 맺고 있다. ... 계층이 다른 사람들은 다른 계층을 이해하지 못한다. 가난한 자는 가난한 사람들과 모여 교류하고 부자는 부자끼리 모 이

171) 『인생이라는 이름의 전쟁』, pp.164-165.

고 교체한다. 권력이 있는 자도 그렇다. 가진 자, 못 가진 자 그리고 권력자들은 서로서로를 모른다. ... 가난한 사람은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얻기 위해 투쟁하고 부자는 쌓아두기 위해 투쟁한다. 인간은 누구나 죽어 몸이 썩고 냄새를 풍기는데 부자들은 왜, 무엇을 위해 쌓아두려는 것일까?

이에 대해 난 두 가지 답을 할 수 있다. 하나는 그들은 겁쟁이로 매우 이기적인 삶을 살도록 훈련되었다는 것이다. ... 자신의 배를 채울 수 있는 만큼 부자가 되어도 자식의 배를, 손자의 배를 채우기 위해 계속 모으기만 한다. 두 번째 대답은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고 이들이 동물과 같이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일부 부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같은 부류끼리만 상종하므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 그러므로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갖지 못한다. ... 용감하고 이타적인 부자들도 있으나 그 수가 적다. ...

선함이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행복을 주지 못하고 가장 확실한 것은 돈뿐이다. 누구든 돈을 존경하지 않으면 그는 세상의 기호에 따른 발전을 만끽하지 못한다. ... 오늘날 모든 것은 사고 팔 수 있게 되었다. 명예와 사랑도 돈이라면 살 수 있다. 돈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존재이다. 이 세상에서 선은 죽었다. 사기 치고 부정을 일삼던 비천하고 추악한 사람이 가방 가득 돈만 있으면 지금은 사회에서 유명한 인사가 되어 양반행세를 하면서 거들먹거리며 걷는다.172)

ทุกพวกทุกเหล่ามีความเป็นอยู่และการสมาคมแต่ในพวกของเขา..... พวกอื่นไม่สามารถจะทราบหรือเข้าใจได้ คนจนสมาคมในหมู่คนจน คนมั่งมีในหมู่คนมั่งมี คนมีอำนาจในหมู่คนมีอำนาจ และแน่นอนในหมู่ทั้งสามประเภทนี้ต่างพวกต่างจะไม่ทราบกันเลยว่า ต่างพวกต่างมีความเป็นอยู่อย่างไรบ้าง....คนจนต่อสู้เพื่อความเป็นอยู่อันจำเป็น คนมั่งมีต่อสู้เพื่อความสะสม....เมื่อที่สุดมนุษยเรามาหยุดอยู่ที่ความตาย มีร่างกายอันเปื่อยเน่าและเหม็นคลุ้งเหมือนกันหมดเช่นนี้คนมั่งมีเขาจะสะสมกันไว้เพื่ออะไรกัน?

ในเรื่องนี้ผมมีคำตอบสองข้อ ข้อหนึ่งคนพวกจำพวกนี้อบรมชีวิตของเขาด้วยความขี้สลาดตาขาวและเห็นแก่ตัวเองมากเกินไป....แม้เขาจะ"ได้สะสมทรัพย์สินสมบัติ

172) 『인생이라는 이름의 전쟁』, pp.112-115.

ไว้เพียงพอ ที่จะบรรลุท้องของเขา.... เขาก็ยังทำการสะสมต่อไปเพื่อท้องของลูก  
ของเขา ของหลานของเขา... ส่วนคำตอบข้อสองก็ได้แก่คนมั่งมีบางคนที่ไม่ทราบว่  
ในโลกนี้มีคนยากจนและมีความเป็นอยู่ด้วยทุกข์ทรมานอย่างสิ้นดี เขาสมาคมอยู่  
ในหมู่คนมั่งมีด้วยกัน เขาคิดว่าทุก ๆ คนคงมีความเป็นอยู่คล้ายคลึงกับเขา.... ดังนั้น  
เขาไม่เอาใจใส่ในความทุกข์ยากของคนอื่น.... คนมั่งมีที่ก่ล้าหาญและเห็นแก่ผู้อื่น  
ก็มีอยู่บ้างเหมือนกัน แต่ก็น้อยเต็มที....

คุณความดีไม่ให้ความสุขแก่มนุษย์เสมอไป เงินอย่างเดียวยังที่แน่นอนนัก ถ้า  
คนไหนไม่มีความเคารพต่อเงิน คนนั้น จะอยู่ด้วยความเจริญรุ่งเรืองตามความนิยม  
ของโลกไม่ได้.... เดียวนี้ทุกสิ่งทุกอย่างต้องซื้อต้องขายกันหมดแล้ว ตลอดจน  
เกียรติยศและความรัก เงิน จะรับเหมาเป็นผู้ปรุงแต่งให้หมด คุณความดีสิ้นอำนาจ  
เสียแล้วในวันนี้ เจ้าคนถ้อยทรลัทธิคนโกง เคยทุจริตแต่ว่ามันมีเงินเต็ม  
กระเป๋าก็ เดียวนี้กลายเป็นคนมีเสียงดังในสมาคม เดินท่าอยู่ในท่ามกลางพวกผู้ดี....”

4 년 전 그녀가 17살 때에 ‘함께 영원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약혼자와  
사회에 대고 그녀는 “난 이제 사랑과 결혼문제에 있어 어느 남자에게도 성실  
하지 않을 것이며 조건만 맞으면 누구와도 사랑하고 결혼하겠다”<sup>173)</sup>라는, 결  
혼과 사랑이 별 개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조건이란 이전 약혼자 이  
상으로 젊고 잘 생겼으며 돈이 많은, 또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는 그런 남성이  
다. 위나이가 바로 그런 남성이었으므로 위나이의 구혼을 그녀는 주저하지 않  
고 받아들인 것이다. 위나이는 그녀를 다시 한 번 16-17 살 때의 그녀로 되  
돌려놓았다. 두셋의 말이 맞은 것이다. 두셋은 자기의 정원에서 장미꽃을 꺾어  
다 플런에게 주는 라편을 보고 귀뜸을 했었다.

"자넨 애인을 잘 관리하게. 그녀가 자네를 머리로 사랑하지 않도록  
하게. 그러면 결국에는 자네 손에서 떠날 걸세. 그런 예는 얼마든지  
있다네. 내가 아직도 총각으로 있는 것도 따지자면 바로 그런 이유 때  
문이지. 내가 전에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서 혼자 사는 게 아니야. ...  
순수한 사랑은 찾기 힘들다네. 오늘날 인간은 머리로 사랑하지 가슴  
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난 다시는 사랑을 하지 않는 거라네. 이제

173) 『인생이라는 이름의 전쟁』, p.193.

내게는 현금 10,000 바트와 기타 10,000 바트 값어치가 나가는 재산이 있는데, 나 같은 서른 살의 젊은 남자로는 적잖은 재산이 아닌가?"<sup>174)</sup>

"ระวังคู่รักของคุณให้ดี อย่าให้เธอรักคุณด้วยสมอง เพราะในที่สุดเธอจะหลุดมือไป เคยมีตัวอย่างมาากแล้ว ผมยังเป็นโสดก็เพราะเหตุนี้ ไม่ใช่เพราะ "ไม่เคยรัก .....ความรักที่บริสุทธิ์หายากเหลือเกิน คนเราทุกวันนี้ เขารักกันด้วยสมอง ไม่ใช่รักด้วยหัวใจ ดังนั้นผมจึงไม่คิดที่จะรักใครอีก เตี่ยานี้ผมมีเงินสด อยู่หมื่นบาท มีทรัพย์สินสมบัติดีราคาเป็นหมื่นบาทเหมือนกัน คนหนุ่มอายุ ๓๐ ปี อย่างผมก็ดูฐานะ "ไม่ชั่วร้าย" อะไรนัก"

그러나 라핀은 플런만은 그런 염려가 절대로 없다고, 자기가 보증한다고 대답한다. 라핀이 그렇게 믿는 그녀는 라핀에게 “넌 아직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며 “언젠가는 넌 내게 실망할 날이 있을 것이야. 네가 내게 해주는 만큼 나는 잘 해주지 못하는 이기적인 사람”<sup>175)</sup>이라고 한다. 소녀 시절에 받은 마음의 상처는 라핀에게 영화 제작자와 결혼한다고 통고하면서도 라핀을 버렸다는, 라핀의 순수한 사랑을 짓밟은 데서 오는 죄책감을 조금도 갖지 않게 만들었을 만큼 컸던 것이다. 그녀는 라핀의 사랑을 불쌍한 자신을 인간적 차원에서 도와주었고, 그런 은혜를 입은 자신은 그에게 갚으면, 돈으로는 무엇이든 다 된다는 금전만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라핀에게 변치 않는 우정만 요구하였다. 두셋의 말처럼 플런은 타산적인 여자다. 사랑도 머리로, 계산으로 하는 욕심 많은 여자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부유한 결혼도 하고 정신적인 만족을 위해 라핀을 영원한 친구로 두고자 한다. 그런 경험은 두셋도 있었다.

174) 『인생이라는 이름의 전쟁』, p.101.

175) 『인생이라는 이름의 전쟁』, p.193.

“나는 당신의 말을 존중합니다. 나는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두 사람 사이를 남성과 여성의 관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제일 사랑하는 플린과 라핀으로 남고 싶습니다. 플린과 라핀이 남성과 여성 또는 어떤 관계라 해도, 그러나 우리 두 사람은 똑같은 입장입니다. 만약 당신의 가장 친하고 좋은 친구가 여성이며 당신은 남성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다면 말입니다”<sup>176)</sup>

ดิฉันรักเธอด้วยใจบริสุทธิ์สุดมั่ง "ไม่อยากจะให้มีความเป็นผู้หญิงและความเป็นผู้ชายในระหว่างเราทั้งสอง ดิฉันอยากให้มีเพลีนกับระพินทร์ซึ่งรักกันมากที่สุด เพลีนกับระพินทร์จะเป็นหญิงหรือชายหรือเป็นอะไรก็ตาม แต่เราทั้งสองคนจะเป็นเหมือน ๆ กัน ถ้าเธอคิดว่ายอดมิตรของเธอเป็นผู้หญิงและเธอเป็นชายอยู่เสมอแล้ว

플린의 조건적인 사랑과 결혼은 끼라띠의 결혼과 맥을 같이 한다. 조물주 또는 신은 끼라띠에게 아름다움만 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 권리는 주지 않았다. 그런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인 그녀는 35 살에 접어드는 나이에 상처한 50 세의 남자와 결혼하는 운명을 택하고 만다. 그녀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총장의 청혼은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회가 그녀의 희망을 깨뜨렸음을, 그래서 그녀가 바라는 삶이 끝났음을 상징한다.

그녀는 아버지 같은 나이의 총장과의 결혼을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34년간 시키는 대로만 살았던 아버지의 가부장적이고 전근대적인 세계에서의 탈출로 삼았다. 장래가 없고 과거와 현재만 있는 남성과 결혼하기로 결심한 그녀는 자기에게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체념한다. 시멘트 바닥에서 어찌 장미꽃이 필 수 있겠는가? 그녀는 이성간의 사랑 대신 안락함과 편안함을 택하였다. 이 사실은 두셋이 “여자들은 머리로 사랑하므로 .... 난 아내를 얻고 싶으면 돈으로 살 것이다. 그 여자의 값은 그녀의 지위와 아름다움에 따라 다르다. 사실 난 돈으로 사고파는 결혼은 중요하지만, 그런데

176) 『인생이라는 이름의 전쟁』, pp.152-153.

여성들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결혼하게 하는 것보다 돈으로 결혼하게 하는데 어찌자는 것이냐?”<sup>177)</sup>

총장과 결혼함으로써 그녀는 아버지의 ‘황금 새장’에서 나와 또 다른 하나의 사회, 즉 변화가 없는 편안한 총장의 세계, 색깔만 다른 또 하나의 비좁은 전통세계로 들어갔다. 그녀의 새 세계에는 안락함과 평온함, 그리고 현숙하고 기품 있는 아내로서의 의무가 있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아내로서, 완전한 여성으로 대우받고 사랑 받는 것보다 어른이 어린애를 귀여워하는 그런 사랑의 세계에 들어갔다. 그녀는 남편의 장식물 또는 남편의 생활을 편안하게 해주는 부속의 하나였다. 그러한 세계에 익숙해질 무렵 그녀는 남편을 따라 일본에 가 남편을 만나 사랑하게 되었으나 전통적인 사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아내로서의 도리에 매달리고 집착한다. 남편이 자기에 성실한 만큼 자신도 성실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의무와 사회적 윤리에 매달린다. 남편과 결혼할 경우에 자신이 받아야 할 사회적 비난을 두려워하면서.

결국 남편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고백하지 못한 끼라띠의 미래는 종이와 연필을 달라고 하여 써 놓은 마지막 말로 끝난다.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녀는 그 종이를 손에 쥐고 죽었다. 그 쪽지에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이 나는 죽는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에 나는 감사하고 만족한다.”로 매우 심오하고 함축성이 있다. 이 문장을 새겨보면 “승리자의 말이 아니라 패배자가 자위하기 위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의 생활에 대해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은 전제군주제에서 번영을 누렸던 계층으로 소수이다.

끼라띠는 진실한 사랑을 추구했지만 실패했다. 34살이 되어서 처음으로 청혼한 아버지뻘 되는 남성의 제의를 며칠만의 생각 끝에 받아들인다.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모자라는 데가 전혀 없는 심신이 완전한 여성이라는 것을 주위에 알리려는 그녀 개인적인 자만심에서, 자신을

---

177) 『인생이라는 이름의 전쟁』, p. 103.

옥죄고 있는 답답하고 좁은 세계에서 탈출하려는 희망에서, 또 총장과와의 안락하고 편안한, 모든 것이 다 있는 부유한 생활이 기다리고 있기에 청혼을 받아들였다. 총장과 결혼함으로써 그녀는 전과는 다른 자신만의 세상을 구축하고 그 속에서 살다가 죽었다. 그녀는 자신의 세계에서는 주인이었으나 다른 세계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타인이었다. 시대적 변화라는 큰 흐름을 무시한 것이 이유라면 이유였다.

난 그 분을 좋아해요. 어린아이가 연세 드시고 마음씨 좋으신 어른을 좋아해야 하듯이. ... 여성은 스스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느끼면 사랑에 관한 문제에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사랑이건 아니건 간에 이미 편안한 삶을 즐기고 있는데 더 무엇을 원하겠어요?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살면서 사랑은 편안함의 어머니라고 믿고 있어요. 이것은 내 개인적인 견해인데 누구에게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은 어쩌면 쓰라린 고통이나 잔인함을 삶 속에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영원토록 달콤하고 신선한 감로수로 윤희유 역할을 해줄 거예요. ... 숲에 있는 두 마리 새보다 손안에 있는 한 마리 새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사랑이 없는 편안함이 편안함 없이 사랑을 영원하고 마음을 설레는 것보다 나을지 몰라요.178)

“ฉันชอบท่านอย่างที่ได้เด็ก ๆ ควรจะชอบบุรุษชราผู้ใจดี .... เจ้าตัวผู้หญิงเองเมื่อมีความผาสุกพอสมควรแล้วก็มักไม่สนใจในปัญหาที่เกี่ยวกับความรัก เพราะว่าจะเป็นความรักหรือไม่ก็ตาม เมื่อมีความผาสุกแล้ว จะต้องการอะไรอีก คนทั้งหลายอยู่กับตัววิธีนี้และคนโดยมากเชื่อถือว่า ความรักเป็นมารดาของความผาสุก ซึ่งตามความเห็นของฉันแล้วฉันเห็นว่าไม่ใช่ของจริงเสมอไป ความรักอาจทำให้เกิดความขมขื่น หรือความร้ายกาจต่าง ๆ นานา ๆ แก่ชีวิตก็ได้ แต่ว่าในดวงใจของผู้ที่มีความรักนั้น จะมีน้ำทิพย์แห่งความหวานชื่นหล่อเลี้ยงอยู่เป็นนิรันดร... เธออย่าลืมว่ามีนกตัวหนึ่งอยู่ในมือดีกว่าหวังได้นกสองตัวในพุ่มไม้ การมีความผาสุกที่ไร้ความรักคงจะดีกว่าการไม่ฝันถึงความรักด้วยปราศจากความผาสุก”

178) 『그림 저 편에』, pp.88-90.

아피반 영감댁 안주인마님의 손뜨개로 있던 뿌랑도 역시 진실한 사랑이나 성실 그리고 내실 있는 장래보다는 부와 외형적인 화려함을 추구하는 여성이다. 짠타가 구혼하자 시골태생인 뿌랑은 짠타와는 남매 같은 관계가, 우정이 좋으며 거절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옛날 어른이 말씀하기를 ‘남편 한 사람에 따라 여자의 팔자가 바뀐다. 태어날 때 신분이 낮고 높은 것은 혼전에만 문제가 될 뿐이다.’ 라고 했어. … 내게는 외모가 재산이야. 언젠가 내 외모가 부귀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야. … 가난하고 지위가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면 평생 고생해야 돼. 오빠(짠타) 남자라서 남자 식대로 살아가지만 나는 여자야. 내 아름다운 외모를 최대한 이용해서 살 길을 찾아야 돼.(179)

คำโบราณท่านว่าไว้ว่า ‘เป็นสตรีสุดดีแต่เพียงผิว จะดีชั่วก็แต่ยังกำสรวล’...  
รูปของฉันเป็นทรัพย์และรูปของฉันอาจจะทำให้ฉันได้เป็นผู้ดีกับเขาสักวันหนึ่ง...  
เกิดมาเป็นคนจน มันก็ต้องคิดอ่านดิ้นรนกันไปซิจะ พี่เป็นชายก็หาวิชาดิ้นรน  
กันไปทางหนึ่ง ฉันเป็นหญิงก็จะใช้รูปร่างของฉันดิ้นรนไปทางหนึ่ง

짠타의 한 달 봉급을 훨씬 넘는 비싼 음식을 사 주며 자신의 결단이 옳았음을 뿌랑은 과시한다. 여성에게서는 지적인 아름다움이나 현숙함보다는 외모적 아름다움을 무기로 삼고 있는, 그러한 인식이 아직도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전근대적인 모습을 작가는 뿌랑을 통해 지적하고 있다. 아피반 영감 댁에서 옹치리와 반춘을 통해 이미 익히 보아온 봉건적 모습이다. 이런 점은 배운 지식인 여성인 플런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뿌랑은 자신의 편안함과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을, 다시 말해 자신이 하고 싶은 물질적인 모든 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부유한 남성을 찾으려 했고, 마침내 상전의 아들 바람둥이 왓차라의 첩이 되어 일시적이지만 하인도 부리며 풍요로운 생활을 스스로 즐기고 짠타에게 화려함과 풍요로움을 뽐낸다.

179) 『앞을 내다보며 : 청년시대』, p.85.

위나이와 다음 달에 결혼하고 신혼여행 겸해서 미국으로 영화를 찍으러간다는 폴런의 편지를 놀라움과 절망으로 5번이나 읽은 라핀은 한달음에 폴런에게 달려갔으나 그녀는 지방으로 영화를 촬영하러 떠난 뒤였다. 그는 진실은 죽지 않고 영원한 것이나 폴런이 결혼한다는 사실은 그 자신을 죽이는 것임을 생각하며 2-3일 간 피눈물이 나도록 울었다. 그 자신이 쌍텅( สังข์ทอง )에 나오는 판투랏( พันธุรัต )180)과 같은 처지임을 생각하며, 숨을 쉬고 있는 산 송장과 다를 바 없다고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지만 마침내는 그 생각을 거두고 폴런에게 대한 사랑을 곰씹어 생각하며 되돌아 와줄 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해 본다. 한편, 가슴 한 구석에서는 작가가 되겠다고 다짐한다.

가난 속에서도 어려운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위로하고 대변하며 가난과 싸워나가던 라핀을 작가는 ‘삶이라는 이름의 전쟁’에서 사랑을 잃은 패배자로 만들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 싸워야 하는 전쟁에서 부유한 기득권층에 패배한 것이다. 삶에서만 패배한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도 패배했다. 사랑하는 여인을 돈이라는 자본주의에 빼앗긴 것이다. 라핀의 이러한 모습은 물질만능주의 또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에 빠져 있는 태국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라핀의 순수한 사랑은 짚타의 엄마가 남편에게 쏟았던 이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맥을 같이 한다. 짚타의 아버지는 총각 시절 세 시간을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이웃 마을의 처녀와 사랑에 빠졌다. 가난한 여러 농촌 마을이 공동으로 옷 공양을 하자는 스님(후에 짚타를 거두어 준 스님)의 제안에 따라 그 처녀가 사는 마을로 ‘텃까틴’( เตตทิน )181)을 하러 갔다가 만나 결혼하게

180) 태국인이 즐기는 서사문학의 하나인 쌍텅에 나오는 인물이다. 쌍텅은 자기를 낳은 엄마 판투랏이 인간을 먹는 거인임을 알고 거인왕국의 보물을 들고 도망을 간다. 아들이 자기를 떠난 것을 안 판투랏은 아들을 애절하게 부르며 뒤를 쫓아가지만 그만 아들은 자기의 영토를 벗어나 있었다. 판투랏은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애타게 부르다 가슴이 터져 사망하고 만다.

181) 6-7월경부터 시작되는 우기의 끝인 11월경에 태국인들은 우기 내내 절에서 수행을 한 승려에게 승복과 일용품을 공양하는 풍습이 있다. 태국인들은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며 공양을 하는데, 이 풍습을 ‘텃까틴’이라고 한다.

된 것이다. 결혼하기 전 어느 날 아버지는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가 길을 잃어 폐허가 되어 버려진 어느 절에서 노름을 하는 불량배를 만났는데, 그 불량배들은 낯선 아버지가 자기들을 잡으러 온 관리인 줄 알고 아버지에게 해코지하고 도망갔다. 상처는 다행히 깊지 않았으나 얼마 후에 불량배의 사주를 받은 경찰이 아버지를 잡아가지 4년 간 감옥에 가두었다. 아버지가 감옥에 있는 동안 어머니에게 청혼이 들어왔고 할머니가 결혼을 적극 권했으나 어머니는 응하지 않고 아버지를 기다렸다. 아버지는 짚타에게 어머니에 대해 늘 이렇게 들려주었다.

아버지는 감옥에 가기 전부터, 또 엄마와 결혼하기 전에는 품행이 방정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 엄마랑 결혼한 후부터 아버지는 마음을 바로 잡고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 아버지는 엄마를 매우 사랑하고 존경한다. 엄마는 성실하고 정조가 굳은 한 마음 한 뜻의 여성이란다.....182)

ก่อนพ่อจะติดคุกและก่อนที่พ่อจะมาได้กับแม่นั้น พ่อไม่ใช่คนเรียบร้อยนัก แต่เมื่อได้อยู่กินกับแม่แล้วพ่อก็พยายามเป็นคนดี พ่อรักและนับถือแม่มาก พ่อพูดเสมอว่าแม่เป็นหญิงที่มีน้ำใจสัตย์ซื่อมั่นคงมีใจเดียวไม่มีสอง

감옥에서 복수의 일념을 다진 아버지는 출옥 후 어머니의 정성과 설득으로 그 마음을 버리고 결혼했으나 불량배들과 이들과 결탁한 지방의 관리들은 아버지를 가만두지 않았다. 그들의 시달림에 견디지 못한 아버지는 마침내 그들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내가 폭력배가 되기를 그놈들이 바라는 모양인데, 그래! 내가 폭력배가 되면 그놈들이 날 잡으러 다니겠지? 내가 산속으로 들어가면 산속으로 따라 들어오겠지. 그럼 내가 산속에서 기다려주지’. .... 정부 관리들까지 합세하여 정직하게 살려는 농민인 아버지를 괴롭히자 아

182) 『앞을 내다보며 : 소년시대』, p.60.

버지는 살기 위해 자기 방어를 해야 했다. 아버지는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나 죽는 법이란다. 애야, 그렇지만 인간답게 죽어야지 그들에게 끌려 개나 돼지처럼 죽을 수는 없구나.’라고 했다.<sup>183)</sup>

“มันอยากให้อุเป็นโจร ก็จะไปเป็นโจรละ มันอยากจับกู ก็ให้มันตามไปในป่า  
กูจะคอยพบมันในกลางป่า.... เมื่อบ้านเมืองปล่อยให้เจ้าหน้าที่คอยรังความสุขของ  
ราษฎรที่สุจริตอยู่เช่นนี้ เราก็จะต้องคิดว่ารักชาติตัวเอง พอพูดว่า 'เกิดมาแล้วมันก็  
ต้องตายแหละเจ้าเอ๊ย แต่ขอให้ได้ตายอย่างคนที่ไม่ใช้ให้เขาทำเอาข้างเดียวอย่าง  
หมูหมา'”

이런 아버지가 걱정이 된 어머니는 스님과 상의하여 출가하도록 설득했다. 출가하여 속세와 인연을 끊어 시달림에서 벗어나게 하고 아울러 새로운 악업을 짓지 않게 하며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닦도록 했던 것이다. 4살도 안 된 어린 아들을 데리고 어머니는 어려운 생활을 했다. 남편의 깨끗한 영혼을 위해, 남편의 편안함을 위해, 더 많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머니는 사랑으로 모든 고통을 감내하다가 그 어린 아들을 스님에게 남긴 채 천연두에 전염되어 사망했다. 가뭄 끝에 돈 천연두로 온 동네 사람이 죽어나가자 이들을 간호하다가 전염되어 사망하고 말았던 것이다.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희생인 것이다.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사랑은 남녀 간의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음을 전제한다. 민중에 대한 사랑,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랑, 그리고 인류에 대한 사랑 등이 바로 그렇다.<sup>184)</sup>

높편의 사랑은 이기적이고 타산적이다. 그는 일본에서 만난 끼라띠를 보고 첫눈에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끼라띠가 자신이 결혼했음을 이유로 들어 높편에게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과 편지만 준다. 마침내 그는 끼라띠를 단념하고 4년 후에 귀국하여 끼라띠와 상봉하지만 그는 끼라띠를 오래 동안 헤어져 있던 누나를 만나듯 반갑지만 덤덤하게 대한다. 끼

183) 『앞을 내다보며 : 소년시대』, pp.60-61.

184) 차미씨리 씨뭇타와닛(ชัยศิริ สมทวานิช), 「씨부라파 작품에 나타난 사랑 ความรักในงานของศรีบูรพา」, 『문학비평 อภิปรัชญาสารคดี』, Vol. 2, No. 33-34(July), 1974.

라씨는 아직도 마음 깊은 곳 자기 세계에서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다.

끼라씨의 남편이 사망했다는 편지를 받고도 텅텅했던 남편은 오로지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 그에게는 자신의 장래와 출세만 있었다. 그는 남편 사후에 받은 유산과 친정에서 받은 유산으로 방콕 부자의 한 사람이 된 끼라씨에게 그 부유함을 이용하여 그녀의 꿈을 실현시키라고, 그러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자 끼라씨는 대답한다.

“돈이 힘을 가진 것은 사실이에요, 남편. 하지만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연하게도 내가 바라는 꿈은 돈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게 바로 내 불운이었지요.”<sup>185)</sup>

“เงินมีอำนาจจริง แต่ก็ไม่เหมือนทุกสิ่งทุกอย่าง บังเอิญสิ่งที่ฉันหวังและ  
คาดหวังอยู่นั้น ก็มักจะไม่ใช่สิ่งที่อาจได้มาด้วยอำนาจของเงิน นี่เป็นเคราะห์  
ร้ายอย่างฉกรรจ์ของฉัน”

위의 말은 남편의 죽음으로 방콕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된 끼라씨에게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며 돈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는 남편의 말에 그녀가 돈으로 할 수 없는 다른 것, 즉 ‘사랑’이라는 것이 있음을 일깨워 주며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려는 의도에서 한 말이다. 그러나 미다게에서 자신이 유부녀임을 내세운 끼라씨에 의해 사랑이라는 열병을 앓았던 남편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 그의 사전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편은 끼라씨의 슬픔의 원인이 된 인물로, 사랑의 윤리나 도덕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 인물이다. 그는 달콤한 사랑이라는 탑을 세웠다가 냉혈한처럼 그 탑을 무너뜨린 인물이다. 이런 인물은 어디든지 있는 흔한 캐릭터로서 결국에는 아버지가 정해준 여성과 사랑 없는, 타산적인 결혼을 한다. 그녀가 교육을 받았고 가문도 괜찮아서 그녀와 결혼하면 자신의 장래가 지금보다 나아

185) 『그럼 저 편에』, p.187.

질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그에게 사랑은 귀찮은 것이며 고통스러운 것이다. 뜨거운 사랑은 고통의 근원이다. 그래도 끼라띠는 일본에 갔을 때 뉘편과 함께 갔던 미다께의 한 장소를 그린 그림을 건네며 “우리의 사랑이 그곳에서 시작되었고 그곳에서 소멸되었으나 한 사람, 지금 이 세상에서 사라지려는 한 사람의 가슴 속에는 아직도 불타고 있다”며 사랑을 고백하였으나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사회 발달과정에서 인간관계라는 고리를 놓고 볼 때 뉘편은 끼라띠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그녀를 부인으로 맞을 수도 없었다. 이미 40세에 가깝고 아무런 밝은 미래가 없는 끼라띠에 비하면 그는 젊고 밝은 장래가 보장되어 있는 자본가(은행가, 금융인) 계층으로 과거 상류(양반)층을 대신하는 계층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시대의 유물을 반려자로 맞지 않는다. 그들이 바라고 탐내는 것은 단지 끼라띠의 “미모”뿐이었다. 외모는 일시적인 신기루와 같은 것이므로 “쉽게 사랑에 빠지고 또 쉽게 잊을 수 있는” 것이다.

씨부라파는 당시 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금융학을 공부하는 일본 유학 신 지식인 뉘편을 통해, 농촌 출신 뿌랑을 통해, 또 방콕 여성 플린을 통해 배금주의에 물들어 아름다운 전통을 상실한 1930년 초 태국의 현실을 폭로했다. 화려하고 찬란한 자본주의의 어두운 이면을, 사랑도 사람의 마음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금전만능주의 의식을, 관료사회의 부정부패를, 또 유산계층의 자신의 내생만을 위하는 이기주의를 고발하였다. 그러나 씨부라파는 태국사회에 만연한 이기주의와 배금사상을 사랑을 통해, 남녀 간의 개인적인 사랑보다는 범인류적인 사랑, 즉 휴머니즘을 더 고귀하고 숭고한 사랑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상대방의 좋은 점은 물론 나쁜 점까지도 감싸 안을 수 있는 인본주의적인 사랑을 강조하고 제시하였다. 역사적 상황과 시대적 현실에 충실한 리얼리스트인 씨부라파는 결국 금전만능 의식에 지배되는 애정운리를 묘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 IV. 염상섭과 씨부라과의 주체 정립과 사회적 전망

분석의 대상이 되는 현실 인식의 양상으로서 근원적인 모순과 갈등은 한국이나 태국이나 다같이 식민 모국과 피식민지라는 관계에서 비롯되고 있다. 또한 이 모순 및 갈등관계의 작동은 다양한 층위에서 전개되며, 그것은 식민지 경험으로서 작가 주체에게 내면화되게 마련이다.

한국의 근대화 과정은 자본주의의 전 세계로의 확산, 곧 자본주의 근대성의 국제화와 보편화 과정의 역사적 산물이다. 이 근대화 과정은 역사적으로 식민화 과정과 맞물려 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식민화 과정에서의 근대화가 타자로서의 근대를 '대립하면서 닳는' 모순적인 과정이라는 의미에서, 한 주체로서의 작가가 식민지 현실의 왜곡과 모순에 어떤 서사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냐에 따라서 지각방식과 대응양상이 다르게 설정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하는 타자로서의 근대와 그에 대응하는 문제에서, 염상섭은 심적으로 사회주의에 동조하는 중도적 민족주의로 규정할 수 있다. 씨부라과의 경우는 민중에 의한 실천적 사회주의에 상응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여기에서 씨부라과의 사회주의는 제국주의 및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1. 중도적 주체와 휴머니즘 : 염상섭

거족적 독립투쟁인 3·1운동이 실패로 끝났다고 해도 일제는 한국 민족주의 우파들의 고조된 절대 독립에 대한 열망과 민족운동의 열기에 놀라 문화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그 열기를 약화시키고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광분하였다. 그 결과가 소극적인 문화운동으로 그것을 유도함으로써 민족독립운동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거세시키려는 민족분열정책이었다.<sup>186)</sup>

일제는 한국에 ‘자치권 부여’라는 미끼를 던졌으며, 자기의 땅과 재산을 지키기에 급급한 지주 및 자본가와 결탁하여 친일단체를 조직해 조선민족 속에 타협주의와 개량주의를 침투시켜 식민지 지배에 동조하고 협력하도록 만들었다. 한 때 우국지사 또는 민족지도자를 자처했던 일부 상류층은 문화정책 및 자치권에 현혹되어 일본 식민주의 세력과 타협하고 민족 독립에 앞서 조선민중을 계몽하고 개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문화운동, 생활운동의 필요성을 내세우기도 했다.<sup>187)</sup>

그러나 일제의 문화정책 속에서도 조선인들은 독립투쟁을 계속하였다. 단재(丹齋)는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조선 역사를 연구하여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으로 보는 투쟁사관을 내세웠다. 1920년대 초에 노동자와 농민의 의식수준이 급격히 향상되자 역사의 본질을 민족정신의 열에서 찾는 열사관과 역사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민중의 역할을 강조하는 민족사학이 등장하였으며, 식민사학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회경제사학이 대두되기도 하였다.<sup>188)</sup> 당시 민족주의자들이 대체로 중산층 출신이었고 후진성을 면치 못한 식민지하에서 민주주의 사상에 의한 민족 혁명운동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혁명적 변화를 주장하는 사회주의사상이 전파되었으며, 민족주의 운동 안에서 필연적으로 사회주의적 경향이 발생하게 되었다.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내건 ‘현실 타과의 반항적 개혁주의로서의 입장’이 당시 절망적인 민중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던 것이다.<sup>189)</sup>

1927년 벽두에 ‘민족단일당 민족협동전선’이라는 표어 아래서 민족주의를 표방하며 좌익민족주의자와 우익민족주의자, 그리고 사회주의자가 제휴하여 창립한 신간회<sup>190)</sup>는 1920년대 민족적 반일 저항운동과 합법적인 결사운동의

186) 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1980, pp.385f.

187) 송건호, 『한국현대사론』, 한국신학연구소, 1977, p.71.

188) 강만길, 『한국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1984, pp.150-153 참조.

189) 김창순, 「이데올로기와 민족의식」, 『한국 아카데미 총서』 제3권, 삼성출판사, 1975, pp.289-291.

190) 신간회는 무슨 형태로든지 민족운동 대표기관이 필요하다는 민족주의자들의 절실한 모색, 식민지하의 특수사정으로 신흥세력만으로는 공산주의 운동을 전개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고

표상으로 비타협적인 투쟁을 감행하는 민족운동의 대표집단이었다. 신간회의 초대 회장 이상재는 “민족주의는 사회주의의 근원이며, 사회주의는 민족주의의 본류”<sup>191)</sup>라면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통일적으로 파악하였다. 1920년대는 이처럼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민족해방운동의 표리로 이해되고 인식되었다.

이 시대 대표적 소설가의 한 사람인 염상섭의 문학관은 크게 보면 프로문학론과 국민문학론의 절충적인 입장에 있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국민문학론 또는 민족주의문학론의 입장에 기울어져 있는 절충론이다. 이러한 절충론의 대두는 20년대 중반 이후 일제하에서 민족주의 진영의 우익세력과 사회주의 계열의 좌익세력이 연합하여 민족유일당운동의 일환으로서 신간회가 출현한 것과 관계가 있다. 염상섭은 민족주의 진영의 문학이론가로서 프로문학의 이론을 논리적으로 공박한 작가였으나 한편으로는 프로문학과 민족문학의 상처점 뿐만 아니라 타협점에 관한 모색까지도 시도하였다. 또한 그는 문학적 개성과 그의 발현으로서 민족성론에 기초한 일관된 문학적 신념을 펴 보임으로써 당시대가 필요로 하는 성숙한 문학이론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사랑과 죄』는 일상적이고 풍속적인 삶 속에 녹아 있는 물욕과 성욕의 기동과 이데올로기의 기동으로 떠받쳐 있는 소설<sup>192)</sup>이다. 부연하자면 한편으로

---

유 국내 잠재세력과의 결합의 필요성 인식, 그리고 일제가 문화정치의 회유책의 하나로 합법 투쟁을 표면화시켜 사건 취체의 단일체계 구성과 공산주의 운동은 민족주의로, 민족주의 운동의 발전은 공산주의로 꺾으려는 교육계라는 일제의 고등 경찰정책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어우러진 결과이다. 신간회는 초대 회장으로 이상재를 선임한 후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함, 단결을 공고히 함, 그리고 기회주의를 일제 배격한다는 3대 강령을 걸고 1927년 2월 15일 오후 6시에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출범했다. 일본이 제시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자치권을 받아들이려는 자치론자를 비난하고 좌-우익간의 세력다툼이 발생하였으며 또 일제의 조선 민족운동에 대한 분열정책과 세계적인 대경제공황에 즈음하여 코민테른이 민족주의자와의 연합전선인 합법단체를 해산한다는 원칙 등으로 인하여 1931년 5월 16일 YMCA회관에서 자진 해산하고 말았다. 조지훈, 「신간회의 창립과 해소」, 스칼라피노·이정식 외, 『신간회연구』, 도서출판 동녘, 1983, pp.9-27 참조. 송건호, 「신간회운동」, 『한국근대사론 제2권, 지식산업사, 1979, pp.439-471. 참조.

191) 서중석, 「일제시대 사회주의자들의 민족관과 계급관」, 『한국민족주의론 III』, 박현채 정창열 편, 창작과 비평사, 1995, p.272.

192) 김윤식, 『염상섭연구』, 서울대출판부, 1987, p.374.

는 이해춘과 지순영의 지순한 사랑과 이것을 방해하는 부정적 인물들과의 대립을 통해서 당대 현실의 모순과 추악성 그리고 돈에 의한 인간성의 타락을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지적 현실에 대한 문제적 인물들의 투쟁을 통하여 당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해춘과 순영 그리고 류진이 봉천으로 탈출하고 해정과 운선이 동경유학을 떠나는 결말은 미래에 대한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대목이다.<sup>193)</sup>

『삼대』와 『무화과』는 한 토착지주 가족의 몰락 과정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적 현실의 모순을 첨예하게 드러낸 작품이다. 이 속에는 염상섭 소설에서 좀처럼 극복되지 않는 전망(perspective)의 불확실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망이 명료할수록 “세부묘사는 경제적으로”<sup>194)</sup>되기 때문이다. 『삼대』라는 소설 제목은 가족사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 이 소설은 ‘가족사를 통한 시대사의 재구성’<sup>195)</sup>에다 목표를 둔 것이며 조부-부친-손자 삼대 사이의 갈등을 종축으로 하고 사회주의자들과 식민통치당국 사이의 대립을 횡축으로 삼고<sup>196)</sup> 있는 소설이다. 유종호도 “『삼대』는 실상은 조의관에 의해 사당과 금고지기로 지명된 덕기를 중심으로 조의관의 죽음을 전후한 약 일년간의 시간을 안고 있을 뿐이고 또 조의관의 내력이 분명치 않기도 하기 때문”에 가족사 소설로 보기 어렵다<sup>197)</sup>고 보았다.

### 1) 중산층의 전통지향적 윤리의식

소설 『사랑과 죄』, 『삼대』, 『무화과』는 외형적으로는 일제 치하에서 가족 갈등을 통해 운명적인 가부장사회의 균열과 몰락을 다룬 작품으로, 조부-아버지-손자 또는 아버지-아들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가계의 수직적인 결속

193) 유병석, 『염상섭전반기소설연구』, 아세아문화사, 1985, pp.157-158.

194) 게오르그 루카치, 『현대리얼리즘론』, 황석천 옮김, 열음사, 1986, p.34.

195)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1979, p.382.

196) 유병석, 『염상섭전반기소설연구』, 아세아문화사, 1985, p.161.

197) 유종호, 『동시대의 시와 진실』, 민음사, 1982, p.205.

과 주인공들 - 손자나 아들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수평적 인간관계라는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다. 수직적 가족관계는 봉건적 사상과 세계에 속해 있어 근대의 속성상 점차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직면해 있고, 수평적인 인간관계는 돈의 지배라는 근대적인 사상과 세계에 속해 있어 계속 확산되는 추세에 있으며, 한편 또래 집단의 동지적 결속이나 관계가 새로운 현상으로 부상한다.

소설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주인공을 제외하고, 이 두 집단의 구성원은 서로 이질적인 대립으로 그려져 있다. 수직적인 관계에서 형성된 집단은 혈연을 기초로 한 운명적인 가족 공동체이며, 수평적인 관계에서 형성된 집단은 동지에 또는 같은 목적을 기초로 한 정치적 이념적 공동체와 돈과 애욕을 둘러싼 일시적 또는 우연적 공동체이다. 주인공의 집안 역사가 바로 식민지적 난세의 축소판이기도 하다.<sup>198)</sup>

가족 공동체 구성원에서 유산자들의 가문에 대한 집착은 시대착오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가족 구성원들의 정신적인 뿌리는 구한말과 개화기 그리고 식민지 시대라는 각기 다른 토양에 박혀 있어 세대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세 편의 소설에서 작가는 수직적인 집단 구성원간의 관계를 통해 전통지향적 윤리성으로의 회귀성향을 묘사하고 있다.

수직관계의 정점에 있는 조의관의 가치체계에는 가족의 확대로서의 국가나 민족 같은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오입'이라는 성적인 메타포가 암시하는 것처럼 자기 가문의 씨족적인 번영만이 중요할 뿐이다. 씨족의 번영을 위해 또 가문치레를 위해 평생의 세 가지 오입에서 첫 번째 오입과 세 번째 오입을 단행한다. 칠십 나이에 아들을 낳으려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씨족적인 번영을 위해 조의관은 돈으로 족보를 위조하고 벼슬을 사서 명목상 양반이 됨으로써 집안의 근본을 조작하고 양반 대열에 진입한다. 가짜 양

---

198) 이보영, 『난세의 문학』, 예림기획, 2001, p.328. , 김윤식, 『염상섭연구』, 서울대 출판부, 1987, p.538.

반을 걸러낼 만큼 힘을 쓰지 못하는 서울에서, 경제적 위계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분적 위계보다 강하게 지배하는 서울에서, 조의관은 양반이 되고 싶은 선대의 유업을 식민시대에 와서 달성한 것이다. 조의관이 그러한 가문을, 재산과 족보를 고수하기 위해 아들을 짓히고 손자에게 상속하는 것은 그의 물질주의적 인생관에 기초한 영달의 비도덕성을 의미하지만 그의 가치체계로서는 당연하다. 그리고 개화기세대 지식인의 전형적인 가치관을 표상하는 인물로서 근대적인 합리적 가치관의 소유자이자 한 때 우국지사였던 조상훈의 눈에는 조의관의 그러한 행위와 사고가 '오입'으로 보이는 것은 물론 시대에 맞지 않는 일로 받아들여져 반발하게 된 것도 당연하다.

조의관의 삶이 지향하는 전통지향적 가치는 '사당'과 '금고열쇠'로 표상된다. 덕기를 일본유학까지 보내면서 공부시킨 것도 이 두 가지를 잘 모시고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른바 '세 가지 오입'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되는 그의 행위, 즉 을사조약 한창 통에 사백 원을 주고 양반을 산 일, 상배하고 사백 원이나 들여 수원집을 들여왔던 일, 그리고 사천 원 이상 들이고 대동보소를 맡은 일 등은 모두 이 가치체계에 의해 결정되고 전개된 것이다.

조의관이 집안의 안전과 번영에만 관심이 있듯이 이원영 역시 마찬가지다. 만주사변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원영에게는 김동국사건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 동경지진 때도 역시 일본에 있는 여동생 문경이 걱정된다. 이러한 모습은 이원영의 가족주의적인 의식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는 보수적이고 가정 우위의 의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점차 김동국이 연루된 독립운동이 진행되며 『무화과』에서는 가족 갈등과 저항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 개입의 정도도 점점 심해진다. 결국 이원영은 신문사에서 자신의 부를 재생산하지 못했고 또 일본 헌병에게 불러 다니면서 가장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도 상실하고 만다. 그가 중산층 가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은 자신의 도덕적 타락 때문이 아니라 전통적 가부장적 가치를 파괴하는 식민지 자본주의의 모순성과 식민지 현실 때문이다. 민족해방에 직접 참여하는 친구를 금전적으

로 도왔던 사실이 가장 직접적 원인이 되었으므로 전통지향적 윤리의식은 필연적으로 사회 저항운동과 깊이 관련된다.

유교적인 윤리의식을 근간으로 하는 종래의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족 공동체 의식과 운명주의적 인생관을 교육하고 공고히 하는 가정은 염상섭에게 있어서 하나의 신화적 원형이다. 핏줄을 중시하는 가족 중심의 윤리성을 강조함은 작가의 가부장적인 보수주의와 전통지향의 윤리성이 총체적으로 형상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작가는 돈을 둘러싼 가족 구성원의 갈등을 다루면서도 인간의 물질적 욕망보다는 혈연이라는 핏줄 찾기 또는 『삼대』의 덕기처럼 가문을 중시하는 사당지기 역할을 저버리지 못하는 전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겼다. 『무화과』의 이원영도 역시 복잡한 촌수와 전통적인 가례를 기억하고 평소 예의범절에서 어긋남이 없는 가부장적 장남의 의무에 충실하다. 이러한 비주체적이고 의타적이며 퇴영적인 가족주의적 사고와 완고하고 패배주의적인 세대의식은 신문사 사업에서 밀려나게 되며 자기 집안의 경제적 파산에 직면하자 이원영은 그 원인을 조선의 시운이라는 운명에, 부잣집 자식들이 받은 교육에 돌려버린다. 이러한 사고경향은 『사랑과 죄』의 해정이도 마찬가지이다. 시류에 어두웠던 부모의 교육이 돈을 쓰는 것만 가르치고 낡은 법은 가르치지 않아 배우지 못한 것을 탓할 뿐이다.

조 의관과 조상훈의 갈등은 미국 유학을 하고 온 조상훈이 천주학을 한다며 사회사업에 돈을 쓰며 가문과 재산의 보호 및 유지에 무관심한 것, 아들 동창생인 홍경애를 임신시킨 일 등이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조상훈이 기독교에 빠져 봉제사를 등한히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는 아들에게 책임을 물어 금치산자, 탕아로 낙인찍어 파문해버린 것이다. 조 의관의 눈에는 조상훈이 조씨 집안의 윤리와 정체성에 치명적인 위협을 줄 수 있는 존재로 비쳤기 때문이다. 조 의관은 자기가 죽은 뒤에 어떤 놈이 기도를 하면 황천으로 가다 말고 돌아와서 그놈의 헛바닥을 빼놓겠다고 으름장을 놓지만, 내심 죽은 뒤에 천주학쟁이 아들이 예수교식으로 장례를 치를까 봐 걱정될 뿐 아니라 아들의

손으로 제사 받기는 틀렸다고 믿고 손자 덕기에게 가권을 상속시킨다. 이로 인해 덕기는 학업도 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집안의 사당지기, 금고지기로 들어 있게 된다.

조 의 관 이 신봉하는 핏줄을 중시하는 가족중심의 윤리성은 바로 염상섭이 추구하는 삶이라는 의식의 중심체이다. 그러한 시각에서 관찰하면, 염상섭의 가부장적 보수주의와 전통지향적인 윤리의식이 총체적으로 형상화된 작품이 『삼대』이다. 아래의 대화에는 이러한 의식이 잘 나타나 있다.

“하던 공부를 그만둘 수야 있습니까. 불과 한 달이면 졸업인데요.”

“공부가 중하냐? 집안 일이 중하냐? 그것도 네가 없어도 상관없는 일이면 모르겠지만 나만 눈감으면 이 집 속이 어떻게 될지 너도 아무리 어린애다만 생각해 봐라. 졸업이고 뭐고 다 단념하고 그 열쇠를 맡아야 한다, 그 열쇠 하나에 네 평생의 운명이 달렸고 이 집안의 가운이 달렸다. 너는 그 열쇠를 붙들고 사당을 지켜야 한다. 네게 맡기고 가는 것은 사당과 그 열쇠-두 가지뿐이다. 그 외에는 유언이고 뭐고 다 쓸데없다. 이때까지 공부시킨 것도 그 두 가지를 잘 모시고 지키게 하자는 것이니까 그 두 가지를 버리고도 공부를 한다면 그것은 송장 내놓고 장사 지내는 것이다. 또 공부도 그 만큼 했으면 지금 세상에 행세도 넉넉히 할 게 아니냐.”<sup>199)</sup>

구한말 세대의 봉건주의자 조 의 관 이 식민지 세대의 덕기에게 죽음을 앞두고 유언 삼아 가권을 부탁하는 장면이다. 덕기의 가권 승계는 바로 조 의 관 의 가치관 수용이다. 사회 현실에 참여하기 위해 탈가정적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덕기는 결국 조부의 가계를 이어받으며 부르주아의 경제권을 고수하는 것을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들여기로 마음먹는다.

조부는 역시 자기를 이 속에 가두고 가려 한다. 덕기의 일생은 이

---

199) 『삼대』, pp.336-337.

금고 앞에서 떨어져서는 안 될 ... 그리고 이 금고지기의 생애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다. ... 내 일생에 하지 않으면 안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금고 여닫는 것과 사당문 여닫는 것 두 가지밖에는 없단 말인가? 마치 간수가 감방문을 여닫듯이 그리고 그 중대한 사업이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sup>200)</sup>

여기서 중대한 사업은 바로 가문의 전통과 할아버지의 유업을 받드는 것이다. 덕기가 금고를 여는 순간 가부장적인 상속을 받게 되고 가장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부여받는다. 또한 그는 식민지 현실에서의 경제인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부친이 뿌린 씨앗, 곧 이 걱정의 세대가 남긴 잔해를 거두어들이는 세대의 인물로서 조부가 물려준 경제적 토대를 가치관의 재조정을 통해 받아들였다. 염상섭의 중도적 가치관이 재해석된 것이다. 소설 『삼대』는 아버지의 혈육이라는 내력도 있겠지마는 시대를 달리해서 신교육을 받은 부자가 도덕성이 매우 다름을 보여주는 듯하나, 덕기의 필순에 대한 남성적 본능은 애써 아버지 세대를 닮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 속에서 조부를 닮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삼대』에서 전개되었던 돈에 의한 수직적인 가계 유전과 갈등은 『무화과』에서는 수평적으로 전개된다. 처음엔 이원영의 신문사 취직이, 이원영이 일경에 잡혀 들어간 후에는 문경을 중심으로, 뒷부분에서는 조정애와 김완식의 이야기가 중심이다. 『삼대』의 과도한 가계 유전 집착은 이원영에게 와서 바뀐다. 우선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이 조의관의 경우는 가문의 신분 상승과 그 유지였지만 그러나 이원영은 자신을 위해서이다. 그의 관심사 역시 조국의 안위나 국제 정치보다는 가문이나 집안 또는 자기 자신의 안전에 있다.

조의관은 보수적인 유교 가치관을 표방하고 있으며, 가부장적인 가족 관념을 고수하는 구한말 봉건세대의 전형이다. 그의 아들 조상훈은 서양 문명의 세례를 받은 근대적 가치관을 소유한 개화기 세대의 지식인이다. 그는 봉제사,

---

200) 『삼대』, pp.352-353.

족보, 혼인, 장례 등 봉건적인 관혼상제, 인습적인 가치나 유교적인 제도에 정면으로 대립한다. 그의 아들 조덕기는 조부의 전통적 가치관과 부친의 진보적인 이상주의를 이해하고 조정하려는 중도적 위치에 있는 세대이다. 조의관은 조상훈을 준금치산자로 규정하고 가권을 손자에게 승계함으로써 자신의 가치관에 집착한다. 그러나 덕기는 맹목적으로 조부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길을 모색한다. 조덕기의 역할은 중도적 입장에서 두 세대의 갈등을 중재하는 것이다. 조덕기는 합리적인 현실주의자이며 가치중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대와 계층 간의 화해모색이 가능하다.

염상섭은 조상훈 세대보다는 조의관 세대에 비교적 관대하다. 그것은 그의 복고주의적 취향 때문일 것이며, 그의 세계관의 토대가 전통 지향적이고 보수적인 삶의 방식에 밀착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는 신여성의 성적 타락을 문제 삼아서 자유연애가 기존의 가치체계에서 수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돈을 둘러싼 가족 구성원의 갈등을 다루면서도, 인간의 물질적 욕망보다는 혈연이라는 핏줄 찾기와 사당지기의 역할을 저버리지 못하는 전통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전통적 사고에 집착하지 않고 조덕기를 통해 중립적 위치를 고수하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하려 한다. 상류계층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통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윤리의식을 보여준다.

조의관과 같은 신흥지주계급의 사람들은 구시대에서 사회적으로 혼란한 틈을 타 경제적으로 신분상승을 이룬 후 그 부를 지속하기 위해 자녀를 미국과 일본 등 해외로 유학시키고 일제에 굽히면서 집안을 건사한다. 이들에게는 국가관이나 민족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신흥지주계급의 현실적응력이다. 집안 건사와 가문 유지, 비록 돈을 주고 산 가문이지만, 그리고 핏줄을 지키기 위해 조의관은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첩머느리와 손녀를 위해 재산을 분배해 준다. 그의 손자 조덕기도 역시 조부를 닮은 가부장적 본능에서, 남근 중심의 생식본능이고 종 보존 본능에서 방탕한 아버지 조상훈을 거두고 앞가림을 해 준다. 부친 세대의 허실에 대해 덕기는 대체로 연민과 우호적인 판단

으로 일관한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은 아버지 개인의 잘못만 아니라 유산계급 공통의 비애-자신도 장래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라며 그 잘못을 사회에 돌린다.

덕기는 ... 역시 구습상 부친에게 반대할 수도 없고 도 제 주제에 길게 논란할 수도 없는 터이어서 그만두었다. 그뿐 아니라 부친이 생각하였던 것보다는 현대 사상경향이나 사회현상에 대하여 아주 어둡고 무관심한 것이 아닌 것이 발견되어 반갑기도 하고 ... 어쨌든 부친은 봉건시대에서 지금 시대로 건너오는 외나무다리의 중턱에 선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 마치 집안에서도 조부와 덕기 자신의 중간에 끼여서 조부 편이 될 수도 없고 아들인 덕기 자신의 편도 못 되는 것과 같은 어지중간에 선 사람이라고 새삼스러이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만치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는 자기의 사상 내용으로나 가장 불안정한 변민기에 있는 처지인 것이 사실이다.

덕기는 부친에게 대하여 다소 이해가 있으므로 가다가다 반감이 불끈 치밀다가도 한편으로는 가없는 생각, 동정하는 마음이 나는 것이었다.<sup>201)</sup>

이렇게 덕기의 눈에 비친 조상훈의 모습은 당시 조선의 모습이기도 하다. 덕기 또한 일본 유학을 하고 신식문물과 사상을 접하였지만 유교적인 조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음을, 단지 머리로만 그 한계를 벗어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런 덕기이기에 병화가 병화부친에 대해 갖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아버지 조상훈을 가없게 생각하고 동정한다. 혈육이라는 끈도 있지만 그 보다도 삶의 가치 즉,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인간에 대한 연민이다.

남의 눈을 꺼리고 소문을 무서워할 때는 위선자이기는 하여도 그 래도 상식적 보통 사회의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종교이고 가면이고 다 집어던지고 난 오늘날에는 어느 편으로나 철저한 것만은 오히려

---

201) 『삼대』, pp.45-46.

취할 점이요, 자기 자신도 무거운 갑옷투구나 벗어 놓은 듯이 가뭏할지 모르겠으나 이렇게도 타락하여 갈 수야 있나 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

르네상스(문예부흥) 이후에 하느님을 잃고 산업혁명으로 빵(밥)을 잃은 현대인에게는 그래도 싸워 뺏겼다는 의기도 있고 희망도 있다. 적어도 새로운 신앙을 얻었다. 그 신앙은 싸움을 시도하고 싸움 속에서 빵이 나올 것은 다시 신앙케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신앙과 빵을 차차 잃어버려 가는 도중에 있는 양반이다. 전연히 잃어버린 사람보다 한끝을 아직 붙들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행복하다 할지 모르겠으나 결코 그런 것도 아닌 모양이다. 전부를 잃어버린 사람은 일시는 절망하고 방황할지는 몰라도 어떤 길이든지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지만 잃어버려 가는 도중에 있는 자에게는 절망이나 방황이나 단념이나 새로운 진취나 희망이 없는 대신에 불안과 초조와 자탄과 원망 속에서 옷에 불붙은 사람 모양으로 찢쩍떨 따름이다. 절망도 없는 대신에 희망도 없다. 진취적 기력도 없는 대신에 이왕이면 모든 것을 내던지겠다는 용단도 없다. 어떻게 하면 이대로라도 끝나갈까 하는 초조와 번민과 애걸뿐이나 이렇게 불안을 잊어버리자니 주색밖에는 위안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마시면 마실수록, 쾌락을 얻으면 얻을수록 고통은 더하여질 것이다.

... 집의 아버지는 현대인도 아니었다. 몰락의 운명을 앞에 두고 화에 뜨니까 저러시는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면 도리어 가엾으시기도 하나 그것은 아버지 일개인의 운명만도 아니다. 전 유산계급의 공통한 고통이다. ...202)

그러나 조상훈의 행위에서 비롯된 결과를 덕기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새로운 국면에서 염상섭은 병화의 입을 빌어 단죄한다.

자네 부친-그이는 자네 조부에게는 기독교인으로서 이단아이였지 마는, 자네에게도 시대의식으로서 이단일 것일세. 그에게는 얼마동안 술잔과 십구 세기 인형의 부름을 맡겨두는 것도 좋은 일이나, 아편을

---

202) 『삼대』, pp.458-459.

정말 자시지나 않게 하게.203)

사회주의자이고 독립운동가인 병화에게는 조상훈의 축첩행위, 그것도 독립운동가의 딸을 후원하다가 첩으로 삼은 것이어서 민족정기를 모독한 것으로 인식된다. 삼대에서 가문의식은 조덕기, 조상훈, 김병화에 의해 비판되는데, 이 비판의 축은 동질정보다는 이질적인 요소가 더 강하다. 이 사실은 기성세대에 들어선 개화세대들에 의한 비판이면서 동시에 개화세대가 지닌 이념의 허상을 표출하는 것이기도 한다.

염상섭은 상류층을 중심으로 한 소설에서 돈을 유교의 공동체 윤리에 결합하거나 전통적인 윤리성의 회귀라는 보수주의 입장을 견지한다. 그래서 염상섭이 상류계층을 주동인물로 설정하고 있는 작품에서는 대가족제도 하에서의 가족구성원의 갈등이 중심내용으로, 전통적인 가족중심의 윤리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염상섭은 병화와 상훈을 부정하면서 조덕기에게 절대화된 윤리관을 부여하고 있다. 바로 '부자간 윤리'라는 인륜관계에 절대성을 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조상훈과 흥경애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자신이 돌봐야 할 '한 핏줄'로 인식하는 것이다.

염상섭은 중간계층의 보수적 관점에서 하층민의 세계를 관찰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소시민의 생활양식을 가치척도로 삼고 있다. 일상적인 삶의 범주를 벗어난 -평균적인 삶의 감각을 벗어나는 행위- 비윤리적, 비도덕적 측면은 비판의 대상이 된다. 그는 '구차가 죄악도 아니거니와, 수치도 아니기는 하지만 ... 남의 앞에 가면-더군다나 여자 앞에 가면 쭈뼛거리지고 무안스러워지는 피천 없는 무산자'204)를 혐오하거나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프롤레타리아의 비굴한 삶의 태도에는 비판적이었고 부정적으로 형상화하였다. 빈부의 대립에 있어서 적대감이나 공격욕보다는 체념주의적 태도가 엿보이는 적응 논리가 더욱 현실적이고 현명하고 적절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205) 유산자와 무산자의

203) 『삼대』, pp.243-244.

204) 『무화과』, p.355.

갈등을 심화하기보다는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 신세지기가 예사’(206)라며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화합의 가능성의 필요를 중요시했다.

『삼대』에서 조부로부터 손자로 건너 뿔 가권 상속은 표면적으로는 유교적 가치관과 신사상의 대립으로 나타난다. 삼대 또는 부자가 지닌 세대별 가치관의 대립이 작품의 중심부(표면)에 놓여 전통과 반전통이 충돌하며 전통에 대한 재해석이 시도된다. 근대소설들이 대체로 전통에 대해 전면적인 거부를 다루는 것에 반해, 염상섭은 식민지 공간에서 전통과 근대의 절충을 식민지 가부장 사회의 가치관으로 재구성하려고 시도했다.

조 의관은 근대적 자본 축적의 수단인 화폐에 의해 부를 축적한 인물들이다. 전통 사회에서 하층신분이었던 조 의관이 재화를 이용하여 신분을 위조하는 것은 근대적 사회구조에서 상부진입이 차단된 식민지근대, 다시 말해 식민지 현실이라는 새 사회질서가 파생시킨 특이한 현상이다. 식민지체제가 자본 축적에 의한 서구적 의미로서의 부르주아 계급 형성을 원초적으로 차단했으므로 이러한 왜곡된 사회상이 발생하는 것이다.<sup>207)</sup> 이들은 축적된 화폐를 통해 근대적 의미의 계급상승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봉건질서로 복귀하여 전통적 권위를 향유하고 가문을 중시함으로써 가부장적 사회의 전형을 도모하고자 함으로써 자녀세대와 충돌하게 된다. 식민지 과정에서 축적된 자본은 구시대의 신분의식을 상승시켜 경제적인 지배관계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 2) 가치중립적 세계관과 민족 해방

작가는 『사랑과 죄』에서 인간성과 인격의 파괴는 그것이 외부적인 것이든 내부적인 것이든 조선인의 주체적 자유를 위태롭게 한다는 믿음을 드러내었다. 일제 식민지에서 억압되고 말살의 위협에 직면한 인간성과 민족을 지키고

205) 조남현, 『한국소설과 갈등』, 문학과 비평사, 1990, p.116.

206) 『무화과』, p.392.

207) 송기섭, 「근대소설과 유교적 인간」, 『국어국문학』 127, 2000. 12. p.364.

옹호하는데 휴머니즘을 제시했던 그가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방법으로 택한 것이 사회주의 운동이다. 그러므로 김호연의 사회주의운동은 혁명적 계급투쟁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사회주의적 휴머니즘이며 독립운동의 수단이었다. 당시 조선에는 원산파업 등 프롤레타리아가 어느 정도 성장은 했지만 아직 계급적 성장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염상섭의 사회주의운동은 무산자와는 유대가 없는 소수 사회주의 지식인인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의 제휴에 의한 지하 독립운동으로 나타났으며, 반식민주의적인 시민적 휴머니즘으로 발현되었다.

염상섭은 민족주의자의 입장에 서서 사회주의에 머리로 동조한다. 카페에서 이해춘은 적토, 야마노, 류진을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허무주의의 삼각동맹이라고 비꼬면서 이론과 실천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이라 그들의 동맹은 불철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적토 또한 이데올로기 문제를 제대로 논하려면 우선 예술의 상아탑과 귀족의 궁전에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시인하며, 그래야만 무산자들을 위한 실천적인 운동의 대열에 뛰어 들 수 있다고 응수한다. 나아가 *물산장려운동*(208)도 무산자와는 관계가 없다고 설파했다. 이에 대해 이해춘은 민족주의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운명적인 것, 운명처럼 걸치고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대꾸하는데, 이러한 논쟁모습은 1920년대 지식인들 사이에서 자주 있었던 논쟁과 공방전이라는 현실을 형상화한 모습이다.

---

208) 1920년 8월 평양에서 조만식 등이 자작자급, 일화배척을 내용으로 하는 <조선물산 장려회>단체의 구성에서 비롯되었다. 1923년 1, 20에 <조선물산장려회 발기준비회>를 구성하여 토산품 사용과 경제적 실용품을 사용할 것을 결의하고 자매단체로서 1923, 2.5.에 <토산품 애용 부인회>를 조직했다. 이것은 민족개량주의자들에 의한 사회운동으로서 국내 부르주아적 인텔리가 그 주류이며 문화운동, 민립대학 설립운동 등과 함께 일종의 자강운동이며 민족개량주의 사상에 기초한다. 일부 진보적 청년들은 이 운동을 부르주아적 운동이라고 비판하며 중산계급의 이기주의로 규정하였고, 또 보수적 민족주의자들이 중산자적 입장을 고수하고 자치제를 주장, 민족동등권 실현을 궁극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민족자본가에 의한 민주, 민족혁명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며 레닌적 계급해방의 시대적 사조로 끌려들어갔다. 강동진, 「일제하의 한국사회운동사 연구」, 안병직 편, 『한국근대민족운동사』, 돌베개, 1980, pp.486-489. 참조.

... 두 사람의 론난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에 관한 것이었다. 적토군은 해춘이더러 자작이라는 도금을 벗겨버리고 제 바탕의 납덩이가 되어서 무산전선으로 나오되 민족주의라는 녹초가 된 비단 두루마기도 벗어 젖히고 나와야 한다고 권고를 하였다.(납덩이라는 말은 턱진에 쏘는 탄환의 뜻에 물린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해춘이는 「납덩이가 되는 일은 필요한 일이다.-도금 장식은 갈보의(머리의) 뒤꽂이에나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민족주의라는 것은 낡은 비단 두루마기가 아니라 입지 않을 수 없는 수목 두루마기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물산장려의 수목 두루마기요?」 하고 적토군은 코웃음쳤다. 적토군의 의견에 의하면 물산장려가 몇 사람의 중산 계급인을 모아서 한 사람의 대자본가를 만들어 내자고 한 선언에 지나지 않은 것과 같이 민족운동이라는 것도 자본주의나 제국주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발출할 수 없는 것이라 했다.<sup>209)</sup>

사회주의자 적토는 민족주의를 이데올로기의 하나로 비판하였으나, 무산자에 대한 이해와 사회주의에 대한 얼마간의 감응력을 가지고 있는 이해춘은 민족주의를 민족 성원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본유적 관념이라고 암시하며<sup>210)</sup> 강조한다. 민족주의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두 사람의 논쟁으로 보아 염상섭은 당시 민족 개량주의의 한계를 비판하며 또 한편으로는 민족을 부인하고 계급성만을 강조하는 사회주의자들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해춘을 통해 작가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중간을 타고 나가는 것이 조선청년이 가야 할 옳은 길이라고 역설하며, 당대 역사의식의 핵심을 털어놓았다. 이 사실은 바로 1927년에 그가 표명한 절충론의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염상섭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중간”을 당시대 한국 청년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노선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정마리아와 이해춘의 대화에서도 잘 나타난다. “ ... 그런 수

209) 『사랑과 죄』, p.211.

210) 조남현, 『한국소설과 갈등』, 문학과 비평사, 1990, p.56.

난적 태도로 예술에 충실하신다느니 순교자의 정신으로 일생을 채운다느니 하시니 그런 용기가 계실 지경이면 좀 더 다른 큰일을 하실만한 공부를 왜 아니 하셨느냐? ... 나라를 위하고 일반 민중을 위해서 사회에 직접 나서서 하실 일이 좀 많아요? 그게 그 용기가 있고 남자로 태어났더라면 태산이라도 떠왔겠습니까”는 마리아의 힐난조 질문에 이해춘은 “그야 많겠지요. 사람이란-더구나 우리 처지로 보면 음악보다는 먹어야 하겠고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말 한 사례라도 알아야 하겠지요. ... 하지만 사람의 큰일이란 별달리 있는 게 아니라 아무거나 저 말은 소임을 제힘으로는 이것이 낫이라고 생각할 때까지 꾸준히 충실하게 하는 것”<sup>211)</sup>이라고 짐짓 그 속뜻을 모르는 체 대꾸하며 이어 “될 수 있으면 남의 머리 위로 걸어 다니지 않고 남의 입에 붙은 밥알을 노리지 않아도 제각기 먹고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사회”<sup>212)</sup>의 구현이 자신의 희망임을 말함으로써, 당시 유행사상인 사회주의 사상 및 그 운동에 공감은 하나 계급적 한계를 핑계로 직접적 활동은 못하는 심정을 토로한다.

『사랑과 죄』에 나타난 염상섭의 절충적, 중도적 입장은 『삼대』에서 같은 식민 치하에 살고 있는 인물들이지만 매우 다른 두 사람, 김병화와 조덕기를 통해 좀 더 구체화된다. 김병화에게 현실은 저항하고 극복해야 할 식민지적 현실인데 비해 조덕기에게는 순종하고 보존해야 할 가정생활이다. 그러므로 김병화가 지켜야 할 것은 일제가 짓밟은 민족의 명예이지만 조덕기가 지키는 것은 가정의 명예이다. 가부장적 권위를 주장하는 목사 아버지를 거부한 이단적 시민인 김병화와 달리, 조의관의 의문사와 관련되어 검거된 서조모, 돈을 위해 가짜 형사를 대동하고 금고를 탈취해 간 파렴치한 아버지를 위해 돈 봉투와 인삼을 들고 총독부 정무부의 시무라 과장과 경무주임을 만나러 다니는 조덕기이다. 그는 평소의 점진적 준비론과 함께 뇌물 증여라는 부도덕한 행위를 양립할 수 있는 보수주의적 인물이다. ‘때는 흘러가 조부가 돌아가시고 새

211) 『사랑과 죄』, p.32.

212) 『사랑과 죄』, p.35.

사람, 새 살림, 새 시대가 바뀌어 들쭉지마는 그것이 일조일석에 되는 것이 아닌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덕기의 점진적이고 중도적 준비론은 심정적 민족주의에 입각하고 있다는 한계를 보인다. 복잡한 정치적 현실을 근본적이면서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화시킨 것이어서 장래의 전망도 총독부 정책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비하면 사회주의는 새로운 가치체계를 제시하는 혁명적 신사상이다.

『삼대』의 조덕기로 표상된 민족주의적 유산계급의 중도적 가치지향성은 민족주의적 지주계급이 내부적 요인에 기인하는 위기감을 해소하고 지배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외부의 대적 세력, 즉 제국주의라는 타자가 설정되었다. 『삼대』는 제국주의자와의 대결의식을 통해 쇠퇴해 가는 민족주의 지향의 지주세력의 소망이 투영된 작품이다. 정서적 이데올로기적 구조의 내용은 '혈통'에 근거한 종족적 민족주의이다.

소설 속에서 작가는 조덕기를 통해 새로운 주체 형성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조상훈이 대표하는 개화 세력 및 김병화가 대표하는 사회주의 세력에 대하여는 부정적 입장을 시사하며 은연중에 조덕기를 부각시키고 있다. 덕기는 자신이 실천하지 못하는 병화의 행위, 즉 가난 속에서도 자기의 주의를 위해 싸우는 수난자의 굳건한 정신<sup>213)</sup>에 감격하고 산해진에서 그의 동지들이 보여주는 '우정'과 '동지애'에 감동하여 동조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는 편지에서 병화가 주장하는 삶의 태도를 비난한다.

자네는 투쟁의욕-이라느니보다도 습관적으로 굳어버린 조그만 감정 속에 자네의 그 큰 몸집을 가두어 버리고 쇠를 채운 것이 ... 내게까지 그 소위 계급투쟁적 소감정으로 대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 사교적 우의보다는 동지로서의 우의-동지애를 구한다고 하데마는 그것이 그릇된 생각이라는 게 아니라 너무 끝이끝술대로만 나가기 때문

---

213) 『삼대』, p.50.

에 공과 사를 구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자네가 가정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부자간 의절까지 한 것도 그런 편협한 감정 때문이지만... 동지애를 얻으면 거기에서 더한 행복은 없을지 모를 것이지만 그렇다고 사생활과 실제생활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투쟁은 극복의 전수단은 아닐세. 포용과 감화도 극복의 유산탄만한 효과는 얻는 것일세. 투쟁은 전선적, 부대적 행동이라 하면 포용과 감화도 투쟁만큼 적극적일세. ...

이십도 못 된 젊은 처녀에게서 꿈 중에서도 제일 행복스러운 청춘의 꿈을 깨뜨리지는 말게. 그의 운명에 대하여 간섭하지를 말게. ... 자네가 정말 이필순 양을 누이동생 같이 사랑한다면 자네의 인생관이나 자네의 사회관 속에 들어와서 자네 생활을 생활하라고 강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일세. 그것은 너무나 극단이요, 자기만을 살리는 이기적 충동이요, 남의 생명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일세. ... 길가는 손이 바위 틈에 돌아난 가련한 꽃 한 송이를 꺾는 것은 욕심이요 죄일지 몰라도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느끼지 말라는 것도 안 될 일이요, 흙 한 줌 북돋아주고 가기로 그것을 뒷날에 크거든 화충분을 가지고 와서 모종내 같 더러운 이해타산으로 보는 것은 보는 사람의 자유라 하여도 너무 몰퐁취 몰인정한 일이 아닌가?214)

평소 김병화의 고집과 뒤틀린 성격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덕기는 경도에 있는 학교로 가서 충고와 비판 그리고 제안이 담긴 편지를 병화에게 보낸다. 그는 병화의 냉소벽과 공격적 성향을 융통성 없는 조그만 투쟁 감정으로는 큰 그릇이 되고 큰 일을 경륜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면서 사생애(私生涯)와 실제생활도 돌보아야 된다고 충고하고 병화의 방법론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작가는 사회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김병화를 반복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나 같은 사람도 자네 옆에 있어서 해될 것은 없네. 자네의 반려가 되겠다고 머리를 숙이고 간청하는 것은 아닐세마는 나도 내 길을

---

214) 『삼대』, pp.238-244.

견노라면 자네들에게도 유조한 때도 있고 유조한 일도 없지 않으리라는 말일세. 이왕이면 한 걸음 더 나서서 자네와 한길을 밟지 못하느냐고 웃을지 모르지만 나는 내 견해가 따로 있고 나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는 피하지 못할 땀 길이 있으니까 결코 비겁하다고 웃지는 못할 것일세.<sup>215)</sup>

덕기는 병화와는 다른 길이 있음을, 다른 길을 걸을 것임을, 그러한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던지시 암시하며 그 자신 현실에서는 더 이상 만족을 추구할 것이 없으므로 "이 괴로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더 높은 행복을 바라는 마음-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덕기의 이러한 삶의 방식은 염상섭 개인의 세계관을 드러내는 것으로 판단되어 삼대에서 내세운 현실대응론이 "민족개량주의 노선"<sup>216)</sup>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오히려 "부르주아 출신 지식인의 한계, 즉 중용의 타협정신(포용과 감화)은 보수주의적 경사를 거쳐 현실 승인이라는 안전 도모의 방편으로 전락되고, 이상주의는 현실적 무력의 도덕적 위장에 대한 합리화의 구실 밖에 못하고 말 한계"<sup>217)</sup>를 보여주고자 한 염상섭의 객관적 관찰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므로 현실 모순에 비타협적이고 그 해결에 있어서 실천적인 사회주의자 병화에 대한 작가의 태도에서 이러한 점이 잘 드러나고 있다.

병화의 긍정적인 모습은 작가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다. 작가의 세계관은 병화가 덕기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편지에 잘 나타나 있다.

사람은 ... 빵이 없을 때 사람은 대담하여지네, 용감하여지네. 지금의 중산계급더러 몰락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나 자연지세로 몰락하는 날 그들은 생활난으로 자살할지는 ... 또 그때에는 봉건적 유물도 불살라 버리게 될 것일세. ... 귀족과 부호가 결혼하거나 부호끼리 돈으로 결합하는 결혼일 수록에 봉건적 유풍은 더 지키는 법이 아

215) 『삼대』, p.239.

216) 이주형, 「민족주의 문학운동과 <삼대>」, 신동욱 편, 『염상섭연구』, 새문사, pp.1-50.

217) 염무웅, 『민중시대의 문학』, 창작과 비평사, 1984, p.252.

닌가? ... 전일의 상민-상공계급-은 그 형식으로 봉건을 지키자는 것 일세. 그리함으로써 양반 행세하게 되네마는 그들은 조만간 몰락하네 . ...

자네는 자네 조부나 춘부보다 시대적으로나 의식으로 나에게 가까운 것을 아네마는 ... 내가 뒤처져 산다는 것은 내가 가진 사상이 산다는 말이요, 내가 가진 소위 이데올로기가 산다는 말일세. ... 나는 다만 시대에 끌려가는 동화자일 따름일세. ... 다만 한 가지 할 말은 나와 및 나의 동지는 시대라는 큰 수레에 타기를 꺼려하는 자네네와 자네네 이하 사람에게 어서 올라타라고 근호하고 재촉하는 임무를 우선 맡았다는 것일세. 그러나 여간해서 타야지 ... 한집에서 몇 해를 지내며 길러내다시피 한 필순이를 두고 보더라도 나는 거의 실망일세. 하여간 필순이의 일은 자네에게 맡기네. ... 자네에게 맡긴다는 말도 잘못일세. 필순이 자신에게 맡기는 것이 옳을 걸세.

그러나 언제나 만날 날이 있을 것을 믿네. ... 필순이가 앞서 오고 자네가 뒤처져 올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자네들이 시대의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자네의 조부는 미구불원하여 돌아가시지 않나. 그이의 지키시던 모든 범절과 가규와 법도는 그 유산목록에 함께 끼어서 자네에게 상속할 모양일 세마는, 자네로 생각하면 땅문서만 필요할 걸세. 그러나 그 땅문서까지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될 날이 올 것일세. 자네에게는 시대에 대한 민감과 양심이 있는 것을 내가 잘 아니까 말일세.218)

작가는 김병화의 입을 빌어 중산계급이 누리고 있는 봉건적인 시대적 잔재의 필연적이고 자연스러운 몰락을 예고했다. 당시 중산계급더러 몰락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사람은 빵이 없을 때 대담해지고 용감해진다면 유산계급인의 생활 태도-정사 등의 삶의 낭비적(제이타쿠한) 태도-를 비롯하여 유산계급의 정책 결혼-귀족과 부호의 결혼, 돈으로 결합하는 결혼 등-을 비판하고 자유결혼을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덕기의 사상보다 자신의 이데올로기가 더 오래 살아남을 것이지만 그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더 새로운 사상에 의

---

218) 『삼대』, pp.320-322.

해 대체될 것임을 예고했다. 자신의 사상은 단지 더 새롭고 더 안정한 인류 생활로 나가는 큰 계단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는데 의미를 두었다. 그리고 자신의 임무가 시대라는 큰 수레에 덕기나 덕기 같은 사람보고 올라타라고 군호하고 재촉하는 것이지만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음을 실토했다. 또한 병화는 덕기의 가정을 두고 “조부의 죽음이 그의 가정을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게 할 것이라며 덕기네 같은 명문거족의 가정 현상은 사회적, 시대적 반영으로, 흥미 있는 연구 재료가 되는 박물학 표본실로 본다”<sup>219)</sup>고 했다. 그러니 덕기는 조부와 부친의 시대를 청산하고 덕기 시대를 집안에 건설할 것을 중용하였다.

조덕기는 조상훈 만큼 사회문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인물로, 후견인적인 위치로 물러나 정세를 관망하며 아버지가 걸어온 실패를 간접적으로 습득한 지극히 현실 타협적 인물이다. 조덕기 같은 인물의 사고와 행위는, 필순과 그 부모를 위해 수백 원씩 쓰거나 조부를 치료한 의사와 조부 독살사건을 맡은 경찰에게 수고비로 몇 백 원씩 주는 뒷거래 행위, 1930년대 식민 사회의 상류 지식계층의 생존방법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김완식과 같은 긍정적 인물은 다른 인물에 비해 다소 색다르지만 작가 자신의 중간과 논리를 대변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김완식의 아래와 같은 편지내용도 『사랑과 죄』에 제시한 바 있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중간 길”의 변형에 불과하다.

실상은 그들(이원영과 김동국) 뒤에 내가 걷겠다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그것도 아직 내 자신이 분명히 깨닫고 바라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천적 타고난 성질로나 또한 사회에서 받은 영향-즉 교육이나 취미나 행습이나 머리에 젖은 생각이나- 그 모든 것이 그들과 같이 나가기 어려운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여기 아저씨(이원영)만 하더라도 그는 부르주아이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

219) 『삼대』, p.346.

그이 역시 그럴 것이 외다. 나는 재산도 없고 배운 것도 없으나 자연히 그 아저씨와 가까운 점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이와도 또 다른 것은 그이는 몰락해 가는 중산계급이요, 무기력한 인텔리가 아닙니까? 만일 그이에게서 돈을 빼앗아버린다면 그이는 아무 데도 쓸 모 없는 롬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이 추측하시는 그들(김동국, 김동욱)과도 다르지만, 그렇다고 아저씨와 유사하면서도 아저씨와 다릅니다. 통틀어서 그이네들은 두 가지 방면을 앞서가는 이들이나, 우리는 그 뒤에 가야 할 새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의 길은 그들이 걷지 않은 새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sup>220)</sup>

위의 내용은 염상섭의 중산계급적 보수주의로 인해 미래에 대한 뚜렷한 전망을 보여주지 못하였으나 당대 식민지적 현실을 폭넓게 드러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의 이념적 지평인 민족주의 또한 피상적이다. 완식을 통해 전달된 염상섭 자신의 현실대응론은 당시의 민족 개량주의나 사회주의와는 다른 제 3의 길이다. 당대 한국사회의 역사적 성격을 등장인물의 삶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방향성이 여전히 추상적인 것은 염상섭의 민중관에서도 나타났지만 그의 계층적 한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완식이란 인물이 노동자로 등장하지만 사실상 그는 작가 자신의 의도적인 의지가 강하게 침투된 인물에 불과하다.

소설 속에서 작가는 조덕기를 통해 새로운 주체 형성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조상훈이 대표하는 개화세력과 김병화가 대표하는 사회주의 세력에 대하여는 부정적이면서 그 대신 은연중에 조덕기를 부각시키고 있다. 사회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김병화를 덕기는 물론 다양한 인물들의 시점을 빌어 작가는 반복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작가 염상섭은 모순된 현실의 인식과 대응에 있어서 부르주아 이념과 사회주의를 함께 발전적으로 포용하는 가치중립성을 유산계급의 새로운 세계관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220) 『무화과』, p.819.

### 3) 무산계급의 시민적 휴머니즘

『사랑과 죄』, 『삼대』, 『무화과』의 시대적 배경은 일제 치하의 조선이다. 작가는 식민지 현실의 정치적 지형을 환기시키는 정치적 · 역사적 사건들을 소설적 허구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시대적 긴장감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인유는 매우 의도적인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어 작품의 내적 의미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며 서사적 장치로서도 의미를 갖는다. 제국주의와 식민지, 일본과 조선의 정치적 대립관계를 의식하고 씌어진 것임을 암시한다.

일본은 근대적 삶이 전개되는 개화된 공간이며, 조선은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삶이 재연되는 곳이라는 의식에 젖어 있던 『만세전』의 주인공 ‘나’는 관부여락선 안에서 비로소 자신이 식민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자각하게 된다. 일본으로 유학을 가는 유산계급의 조선인인 나는 일본의 식민지 수탈과 농민의 궁핍화라는 조선의 현실을 연락선 내 일본인의 대화를 통해 비로소 알게 된다. 간교한 수작에 의해 일본 노동자로 팔려 가는 농민의 참상, 남부여대하고 북간도로 쫓겨 가는 조선인, 임금을 착취당하는 현장에 대한 간접적 체험은 치욕적이고 참담한 식민지 현실을 인식하게 하며 망국민으로서의 적개심과 민족적 자의식을 일으키게 한다.

『만세전』에서 잉태된 반일감정은 『사랑과 죄』에서 항일운동으로 발전하는데, 이는 당대 지식인의 의식상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염상섭의 소설 3편에 나타난 사회주의는 매우 낭만적이다. 일제 치하라서 드러내놓고 항일이나 반일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사랑과 죄』에서 시작된 가난이 무기인 지식인 중심의 민족해방운동은 『삼대』에서 크게 발전하는 듯 했으나 『무화과』에서는 그 해방운동의 중심이 일제의 간악하고 극악한 탄압에 밀려 국내에서 해외로 이동하는 역사성을 대변하고 있다.

염상섭이 창조한 민족해방을 위한 독립투사 김호연과 김병화, 김봉익, 장훈

등은 모두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투철하거나 신봉하는 인물들이다. 그 중 김병화가 가장 강인하고 확고한 신념과 자기희생 정신으로 무장되어 지도자의 위치에 서서 혁명적 계급투쟁을 하며 직접 항일운동에 투신하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삼대』의 항일운동은 장훈의 죽음으로 더욱더 비장해진다.

김호연의 사회주의운동은 혁명적 계급투쟁의 이데올로기라기보다는 ‘진리’를 위한 사회주의적 휴머니즘으로 독립운동의 수단이었다. 김호연이 내세우는 ‘진리’는 민족을 위한 투쟁의 무기이면서도 ‘정신’을 중시하는 그의 주관이 강한 관념적인 사회주의인데, 이는 이해춘과 지순영에 대한 태도에서도 나타나 있다. 그는 이해춘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귀지만 비이기적인 우정의 순수성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며, 지순영에게도 ‘사업’을 강조하면서도 그녀의 윤리적 선택을 위한 자유를 보장해 준다. 그가 정치적 이념의 당파성보다 그 정신적 요소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김병화와는 다르고, 이 점이 바로 그가 관념적인 사회주의자이며 이상주의자라는 한계성을 갖게 만든다.

김병화는 사회와 민족만이 투쟁의 중심이자 목적인 철저한 사회주의자여서 사회적 현실을 역사적으로 파악한다. 그는 일본 유학 당시 가정에서의 일탈과 소외감, 그리고 빈곤이 원인이 되어 당시 일본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며 퍼진 사회주의에 몰들어 그 길로 들어선 인물이다.

덕기의 아버지와의 안면이 있는 황해도 목사의 아들인 김병화는 덕기와 같은 중학교에 다녔지만 자별한 사이는 아니었다. 피차의 부모가 교회 교역자라는 점과 자기들이 교회에 다닌다는 점 때문에 얼마간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그는 목사가 되라는 아버지의 강권을 뿌리치고 가출하여 일본으로 가서 와세다 전문부 정경과를 한 학기쯤 다녔으나 법학과를 택하지 않은 사실로 부친과 싸우고 대들다가 부친이 학비와 생활비를 끊어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그는 굶으며 먹으며 동경바닥에서 일 년간 뒹굴었는데 그 동안 생활이 그런 만큼 사상이나 기분이 더욱 과격해져 부친과는 더욱더 멀어졌고, 덕기 또한 그의 변한 모습에 놀랐다.

귀국한 그는 두 달도 못되어 가출하여 사회주의자의 길로 들어섰다. 그는 홍경애, 필순 부친, 원삼 등을 동지로 규합하여 가진 자에 대한 적의와 공격욕으로 채워진 당파를 조성하였다. 표면에 나선 운동가는 아니지만 한때 제1기 생 격으로 감옥에도 다녀왔다는 전력에 자긍심을 갖고 있는 필순 부친과는 가진 자에 대한 증오감과 적의로, 사회주의자의 딸인 홍경애와는 조상훈에 대한 적개심으로 동지애를 공유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김병화의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의 사회주의 이념이 산해진을 중심으로 한데 뭉쳤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병화에게 친구 덕기의 집안도 언젠가는 제거되어야 할 적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홍경애, 필순 부친, 그리고 병화까지도 덕기가 제공하는 조건 없는 물질적 지원과 도움을 거리낌 없이 받으며 우호적으로 대한다. 가진 자에 대한 적대관념이 해이하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홍경애와 연애를 하면서부터는 그의 투철한 사회주의의식은 어느 정도 순화되어 나타난다. 이는 그가 본디 사상적으로 무장된 사회주의자가 아님을, 작가 염상섭이 그런 인물이 아니듯이, 말해준다.

김봉익의 사회주의는 김병화의 사회주의와 유사하지만 철저하지 못하고 소극적이다. 소설의 후반부에 일본으로 떠난다는 이야기를 이원영에게 하며 조일사진관을 언급할 때에야 비로소 그의 사회주의자로서의, 독립투쟁가로서의 진면목이 나타나지만 그 역시 매우 암시적일 뿐이다.

이원영이 완식에게 당부하는 말은 바로 염상섭의 사회주의가 시민적 휴머니즘에 입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심퍼사이저(Sympertizer) 이원영은 완식이 사회주의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너는 우리(이원영)가 팔자 좋다고 실없이라도 그런다면, 나는 네(완식)가 부럽다. 지금 내가 쫓겨다니는 신세라 해서 그런 말이 아니라, 너나 나나 같은 사회, 같은 시대, 같은 우리 계급 속에서 자라났지만, 너는 앞으로 나갈 사람이다, 나는 삼십밖에 안 되었지만, 벌써 뒤쳐진 사람이다. ... 너는 네 근거지나 무어거나 다 잊어버리고 너는 독

립한 너대로 혼자 굳세게 걸어 나갈 도리를 차려라. 어떤 학교에 가서 공부를 더 한다느니 보다도, 내가 너를 공부시킬 돈이 있으면 조그만 철공장 같은 것을 내어주어서 확실히 자수성가하기를 바란다.. 물론 공부는 자습으로 해야 할 것이다. ... 얼굴에 핏기가 없는 나와 같은 인텔리가 된다는 것은 그리 찬성이 아니니까. ...221)

이원영이 완식에게 당부한 위의 말은 자신의 부정이기도 하고 완식의 장래를 미리 예시한 것이기도 하다. 지식인 머리로는 식민지 현실을 타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또한 민족해방의 길은 관념적인 사회주의로는 요원하다는 점도 넉넉히 일러주고 있다. 작가는 민족해방은 행동이 사고를 뒷받침해주는 지식과 확실히 실천할 수 있는 재력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완식에게 당부한 것이다.

염상섭이 이해하고 수용한 사회주의는 일종의 시민적 휴머니즘이다. 그는 젊어서부터 사회주의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항일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서였다. 그의 사회주의는 소설 속에서 사회주의에 동조하는 심퍼사이저로 등장했다.<sup>222)</sup> 그 자신 한 때 황빈 인쇄소의 직공으로 취직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가 젊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무산자운동’의 실천일 수도 있다. 그가 평론 「조선문학의 현재와 장래」에서 국민문학도 필경에는 무산문학일 것이라고 한 점과, 「민족 · 사회운동의 유심적 일고」(1927)에서 민족주의파의 민족운동이 사회주의파의 사회운동과 결국에는 일치하리라는 가능성과 당위성을 주장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김호연 같은 인물을 창조하여 무산계급의 관념적 사회주의를 제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김호연의 관념적 사회주의는 점점 퇴색하여 사회주의에 심적으로 동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며 입으로 민족주의를 이야기하는 휴머니즘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

221) 『무화과』, pp.844-845.

222) 김종균, 『염상섭』, 동아일보사, 1995, p.9.

## 2. 총체화된 주체와 민중의식 : 씨부라파

### 1) 계급간의 대립과 화해

인도 문화권에 속하는 태국 사회는 1932년까지만 해도 사회적으로 출생에 의해 신분이 결정되고 그로 인해 평생의 삶이 결정되었다. 전제군주제 하에서 평민의 생활은 상전의 삶과 밀접히 닿아 있었다. 개인적인 문제가 사회구조상으로 공적인 문제로 발전한다. 그러므로 태국인들은 신분에 따라 그들의 사회적 입장이나 가치관이나 풍속의 갈등이 수직적인 지배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민주주의가 들어온 1932년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고 지속되었다. 전제군주제 하에서 모두 권한의 근원이었던 왕과 왕족을 대신하여 민주주의라는 미명 하에서 인민당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나라라는 이름을 빌어 무력과 경찰력으로 압박하였기 때문이다.

씨부라파의 소설에는 혈연에 의한 주인공 가족은 니탓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주인공이 남의 가정에 일시적으로 편입되며 절대복종만이 요구되는 가족구성원으로서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로 나타난다. 소설 『앞을 내다보며』에서 아피반 영감 댁에 들어간 짚타와 그 저택 구성원과의 관계가 그렇다. 그러나 작중인물들의 수평적 관계는, 비록 작중인물이 속한 사회계층이 달라도, 대립이나 갈등보다는 인본주의 측면에서 조화를 이루기도 한다. 짚타와 니탓, 짚타와 썩, 썩과 니탓, 짚타와 땀과의 관계가 인본주의 측면에서 조화를 이룬 또래집단의 친화관계의 예이고, 라편과 깨운, 라편과 위나이, 니탓과 루찌랙, 반정부지식인과 군부, 짚타와 아피반 영감댁의 일부 구성원 등의 관계는 대립관계의 예이다.

씨부라파가 소설 속에 설정한 수직관계는 권력과 권위 또는 부에 의한 관계이다. 이 관계는 일시적 또는 우연한 공동체이며, 붕괴해 가는 봉건적 관계이다. 무산계급과 유산계급간의 관계, 인민당 세력과 신지식인 세력, 루찌랙 등

양반의 자녀와 니탓 등 평민의 자녀간의 관계, 양반과 평민간의 관계 등으로 투영되었다. 반면에 수평적 관계는 동지애, 우정, 사랑으로 결정된 관계로 동지적 결속이 새로운 관계로 부상하는데, 니탓 및 썬과 잔타와의 관계 외에 라핀과 두셋과의 관계가 있다.

잔타와 아피반 영감댁의 일부 구성원과의 관계는 대립과 갈등의 관계이다. 그 갈등의 원인은 구성원 모두가 힘으로 상대방 위에 군림하고 부리려는 욕망 때문이고 촌놈이 도련님과 동등한 혜택을 받는다는,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관에 대한 배반에 있다. 그리고 저택 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이러한 갈등은 잔타의 희생적인 복종으로, 또 나중에 그가 공무원이 됨으로써 해결되었다. 스님의 '까마귀의 무조건적인 복종'이라는 전근대적인 가르침과 아피반 영감이 3년간 명문학교에 다니게 해주었고 공무원으로 천거까지 해 준 배려에 감사하는 잔타의 순수하고 정직한 심성 때문이었다. 아피반 영감은 첫 출근하는 그에게 공무원 제복을 2벌 선물하고 축하도 해주었다. 영감이 손을 내밀어 잔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덕담을 할 때 영감의 손길은 그에게 소름이 온몸에 돋는 짜릿한 기쁨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의 가슴은 영감의 자비심에 감사하는 마음뿐이었다.<sup>223)</sup>

약육강식이라는 자본주의의 양상과 함께 유산계급과 무산계급간의 갈등과 대립은 씨부라파의 소설 모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씨부라파는 가난하다는 사실 때문에 사회적으로 차별대우를 받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마저 박탈당하거나 무시되는 사회를 그렸다. 있는 집 여인들은 아침마다 음식과 향초를 준비해 놓고 새벽마다 탁발 나온 승려에게 바치며 내생을 위해 복을 짓는다. 플런은 이웃집 중년여인의 이기적인 행위-적선을 많이 하여 공덕을 쌓아 내세에 좋은 곳으로 가려는 잘못된 불심(佛心)-을 라핀에게 들려주며 유산계급의 이기주의를 고발한다.

봉건시대에도 그랬지만 자본주의 시대에도, 민주주의 시대에도 역시 인간들

---

223) 『앞을 내다보며 : 소년시대』, p.219.

은 같은 계층의 인간들끼리만 사귀고 거래한다. 특히 부자들은 타산적이어서 다른 계층에 대하여 이해하려 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 대해 인정을 가지고 따뜻하게 대하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돕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뿐이다. 추운 겨울 날 새벽 떨고 있는 벌거숭이 어린 거지아이에게 음식 한 숟갈도, 버리는 옷가지도 주지 않는 그들이다. 거지들은 그들에게 보답해 줄 일이 하나도 없는 무가치한 계층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 차디찬 날씨에 너털거리는 천 조각을 걸친 늙은 거지 한 사람이 5살쯤 되는 아이 하나를 이끌고 (새벽공양을 준비해 놓고 스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라핀의 옆집 중년 여인 앞에 가더니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합장한 두 손을 머리까지 올리고 말했다. …

“떡을 음식과 이 추운 날씨에 몸을 가릴 헌 옷을 좀 적선해 주십시오.”

그 여인은 흘끔 그 거지를 쳐다보더니 대답했다.

“저리 비켜요! 이걸 스님에게만 바칠 거예요.”

그러자 그 거지는 계속 신음하듯 웅얼대었다.

“전 스님에게 바치는 좋은 음식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님떡에서 기르시는 짐승에게 주는 그런 것이면 족합니다.” …

“내가 하는 일이 당신 같은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아침공양을 바치는 건 복을 짓기 위한 거예요. 내가 죽어 저 세상에 가서 극락에 가려는 거예요. 난 음식을 해서 아무 대가없이 이 사람 저 사람 아무에게나 퍼줄 수 없어요.”

“저 같은 늙은이에게 아무 것도 주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만 이 어린것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이 아이가 죽지 않는다면 장래 나라를 위해 일을 할 아이로 성장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가 딱딱 마주칠 정도로 춥습니다. 그러니 아이 몸을 가릴 버리는 헌 옷이라도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얘야. 네가 내 손자로 태어난 것은 정말 전생의 네 업보인 모양이다. 이 세상에는 그냥 아무 보답도 바라지 않고 널 도와주는 사람이란 사람도 없구나.“(224)

เช้าวันหนึ่งอากาศหนาวจัด...ดาเต๋มาขอทานคนหนึ่งมีเครื่องปกปิดร่างกายอย่างกะรุ่งกะริ่ง จุงเด็กน้อยอายุประมาณ ๕ ขวบ...เดินตรงไปเข้าหาหญิงที่อายุกลางคน ทรวดกายนั่งลงเบื้องหน้าของนาง ชูมือทั้งสองขึ้น วันทาเหนือศีรษะ พลังรำพันอย่างน่าสงสารว่า

“กระผมขอบารมีพระคุณเป็นที่พึ่ง ขอทานอาหารสักมื้อหนึ่งและเสื้อผ้าเก่า ๆ พอพินภายในยามหนาว” นางหยุดมองดูนิดหนึ่งแล้วตอบว่า

“ไปข้างหน้าก่อนเถิด อาหารของฉันสำหรับตักบาตรพระเท่านั้น”  
ดาเต๋รำพันต่อไปว่า

“กระผมไม่ต้องการอย่างชนิดดีถึงอย่างตักบาตรพระดอกขอรับ กระผมต้องการอย่างที่คุณนายให้สัตว์เลี้ยงรับประทานก็ใช้ได้”.....

“แล้วมันเกี่ยวอะไรกับคนขอทานอย่างแก่ด้วยเล่า? รู้ไหมว่าฉันตักบาตรนะ ฉันต้องการบุญตายไปชาติหน้าจะได้ขึ้นสวรรค์ ฉันไม่ได้เป็นเศรษฐีจะได้เอาทรัพย์สินมาเที่ยวจ่ายแจกโดยไม่มีหวังว่าจะได้ผลประโยชน์ตอบแทน”....

“ถึงคุณนายไม่เห็นแก่คนชราก็ได้ โปรดสงสารเจ้าเด็กน้อยคนนี้สักนิดเถิดครับ ไม่ใช่ความผิดของมันเลยที่มาเกิด ณ ครอบครัวยากจน วันข้างหน้ามันอาจทำประโยชน์ให้แก่แผ่นดินบ้างถ้ามันจะไม่ตายเสียก่อน เตี้ยาเนี่ยมันหนาวจนปากคอสิ้นไปหมดแล้ว ขอทานเสื้อผ้าเก่า ๆ ให้มันพินกายสักชิ้นสองชิ้นเถอะขอรับ”.....

“เจ้าหลานรักเอ๊ย มันเป็นกรรมของเจ้าเองที่เกิดมาเป็นหลานของข้า ไม่มีใครตอกนะเจ้าในโลกนี้ที่เขาจะมาช่วยเหลือเราโดยไม่มีหวังสิ่งตอบแทน”

라편의 옆집 여자는 바로 태국 유산계급을 대표한다. 그녀의 가치관은 유산계급의 가치관이다. 그녀가 내생을 위한 공덕을 쌓을 수 있는 대상을 승려로만 한정 한 것은 빛나간 불심 때문이었다. 불교의 업보와 공덕을 믿고 있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라편도 너무 추워서 잠을 설치고 일어난 그렇게 추운 아침이었다. 그녀가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는 노인과 어린애를 자신을 구원해줄 수 있는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은 가난한 사람은 거지 근성이 있고 부처님과 달라서 그 부자들에게 현세나 내세에서 아무런 약속을 해주지 못한

224) 「인생이라는 이름의 전쟁」, pp.14-16.

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 모습을 지켜본 라핀은 자신이 입고 있는 겹옷을 벗어 준다. 그 옷의 주머니에는 비록 짠 음식이지만 아끼면 1-2끼니는 먹을 수 있는 12짜땅의 돈이 들어 있다. 작가는 입고 있는 단 한 벌의 겨울옷과 가진 돈 모두를 주는 라핀을 통해 인간애를 보여주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이지만 태국에는 아직은 선한 희망이 있음을, 그리고 그런 사람은 가난한 사람임을 그리고 있다. 경제적으로 서로 다른 계층에 속한 사람들에게 대한 이해심과 동정심이 없는 태국 사회의 빗나간 모습을 라핀과 그 옆집에 사는 부유한 중년여인을 통해 작가는 대비시켰다. 그 거지노인 가족의 가난은 전생의 업보이지 그 아이나 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라핀의 생각은 한편으로는 전생의 업보에 의해 현세가 결정되므로 부지런히 공덕을 쌓아야한다는 태국인의 업보관을 대변하고<sup>225)</sup>, 다른 한편으로는 가난한 처지가 되어본 같은 무산계급에 대한 연민과 동정에서 우리나라의 인간애를 말한다. 그것은 또한 가난한 사람끼리는 도울 수 있어도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다.<sup>226)</sup>

물질만이 중시되고 물질을 얻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부패한 공직사회를 씨부라파는 그려냈다. 라핀의 이웃에는 가난하지만 단란하게 사는 정직한 하급공무원 가족이 살고 있다. 세 살과 여섯 살짜리 딸 둘이 있는 부부다. 그

225) 김영애, 「상좌부불교와 동남아 사회」, 유석춘, 홍석준 외, 『동남아의 사회와 문화』, 도서출판 오름, 1997, pp.214-215.

226) 실제 1952년 7월-10월에 태국 동북부에 사상 유례가 없는 가뭄현상이 발생하자 이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인력거 운전사나 시장의 행상인들이었다. 정부도 부자도 아니었다. 이때 씨부라파는 신문을 통해 동북부 국민 돕기 운동을 벌려 모아진 구호금과 구호품을 모아 직접 10월말에서 11월초에 동북부를 돌며 나누어주었다. 일을 마치고 방콕으로 돌아온 씨부라파는 11월 10일에 “평화반란”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 신문의 자유권과 세계평화를 요구했던 작가, 대학생, 언론인들이 체포되었는데, 그 이유는 “태국에서 민주주의와 왕실, 그리고 현 정부를 전복시키고 공산주의 체제 건설을 도모하여 국내적으로 분열과 소요를 야기하고 선동했다”라는 것이었다. 이렇다 할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당시 피분 정부는 반체제인사와 언론에서 정부에 동조하지 않는 글을 쓰는 언론인과 작가를 주시하며 지켜보다가 일시에 체포한 것이었다. 이때 끌림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옥중에서 소설 『앞을 내다보며』를 써서 신문에 연재했다.

윗타야편 치앙쿤(วิทยากร เชียงกูล), 『씨부라파의 사상과 역할 연구 ศักยภาพบทบาทและความคิดศรัปพรภาพ』, Bangkok, Palleuk, 1989, pp.65-69 참조.

러다 어느 날 남편은 갑자기 실직한다. 그 이유는 그가 무능하거나 실책을 범해서가 아니라 상관의 비리에 협조하지 않은 그가 희생양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이다. 실직한 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병을 얻어 의사의 진찰도 받아보지 못하고 죽고 만다. 여섯 살짜리 딸은 이미 세상을 다 알아버린 듯한 눈으로 아버지를 지켜보며 흐느끼는 엄마 옆을 지킨다. 라핀은 그 모습에 가슴 아파하지만 메마른 세상에 대해 분노하지 않는다. “인간은 잘 생겼건 못 생겼건 모두 썩으면 모두 같은 냄새가 난다. 그리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간다. 가난한 사람은 꼭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투쟁하나 부자는 더 많은 것을 모아 쌓아두기 위해 투쟁한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죽는다”<sup>227)</sup>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핀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화교 2세인 께운(ကျွန်)이 출근하기 시작한다. 그는 부잣집 아들이다. 씨부라과는 라핀과 께운의 옷차림을 대비시키며 태국 사회에도 있는 빈부의 격차와 상류사회로 진입하는 과정과 그리고 부를 축적하는 방법을 비판한다. 독자로 하여금 마치 두 사람이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충격적 방법을 썼다. 께운은 24바트나 되는 셔츠를 입는다. 우연히 그 값을 들은 라핀은 너무 놀란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 사무실 사람을 모두 놀라게 만들었다. 라핀이 입고 있는 셔츠는 2바트 50짜땅 짜리인데, 연령도 비슷하고 하는 일도 같은데 어찌 그는 그런 비싼 옷을 입을 수 있는가? 옷뿐이 아니다. 모자는 26바트, 구두는 14바트, 친구들과 한 한 끼 식사는 80바트이고 그가 피는 권련은 개당 50짜땅이다. 이에 비해 라핀은 2바트가 안 되는 모자를 쓰고 1바트 50짜땅인 구두를 신는다. 께운이 피우는 권련 하나는 라핀이 피는 담배 열 개비와 맞먹는 액수다.<sup>228)</sup>

껴운의 아버지는 중국인이었으나 관료가 되고 딸을 왕족의 첩으로 들여보내 태국왕실 및 정계와 인연을 맺은 인물이다. 태국에 이민 온 다른 중국인들이

227) 『인생이라는 이름의 전쟁』, p.90.

228) 『인생이라는 이름의 전쟁』, pp.50-52.

그랬던 것처럼 그도 돈을 벌어 정착한 후 태국 여성과 결혼하고 자신의 부를 이용하여 관직에 올랐으며 딸을 이용하여 탄탄한 인맥을 형성하였다. 딸을 시집보낼 즈음 아들 깨운은 공무원이 되어 라핀의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자신은 '쿤프라'(คุณพระ)라는 작위까지 받았다. 라핀은 한 달에 15 바트라는 거금의 회비를 내는 모임을 여러 군데 나가고 있는 깨운을 바라보며 “부자고, 아버지가 귀족이고, 누이가 ‘멈’(หม่อม)인 집안”때문일 거라고 생각한다. 라핀은 그가 자기와는 다른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어쩐지 공정하지 못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체념한다. 라핀은 자신이 깨운과 다른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고 각자 자기의 본분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책을 사랑하는 그는 작가가 되는 것이 자기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책은 인간에게 박애정신을 일깨워주는 존재이므로 정진해서 인류의 행복과 발전을 위할 수 있는 책을 쓸 수 있는 작가가 되려 한다. 도스토예프스키 같은 작가를 꿈꾼다. 라핀은 씨부라파의 분신이다. 실제 그는 텃씨린 시절 글쓰기를 좋아해서 작가가 되기를 희망했다. 유명한 작가가 되어 명성도 얻고 가족도 부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다.

서양과 외교관계가 수립되고 무역이 이루어지며 제일 먼저 중산층의 반열에 오른 피지배계층은 중국인 그룹, 즉 중국인 자녀 2-3세, 즉 ‘룩쩐’(ลูกจีน)과 인도인 그룹이었고<sup>229)</sup> 이어 시대를 앞서가는 일부 태국인들이었다. 중국인들은 이미 19세기 말부터 동남아로 이민했으며 그 적지 않은 수가 태국의 항구에 정착했다. 부두 노동자로 태국에서 일을 시작한 중국인들은 근검절약하여 돈을 모아 행상-소상인-정미소-부유한 기업가의 과정을 거치며 부를 축적하고 때마침 평민층까지 보급된 서양식 교육의 혜택을 제일 먼저 받고 자비로 해외 유학을 보냄으로써 깨운의 아버지처럼 태국의 관료 및 왕족과 혼인관계 또는 공동투자를 통해 매우 밀접한 관계를 수립하였다. 이러한 중국인들은 정치적

229) สันติ ศรีเวศิน, 『การเมืองการปกครองของไทย』, Bangkok, Thammasat University Press, 1990, p. 82.

압박<sup>230)</sup>으로부터 자신의 부를 지키고 자녀들의 밝은 장래를 위해 태국 국적을 취득했다. 쩐타의 텡씨린 친구들의 일부는 이러한 록쨌이다.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성을 가진 중산층 출신 씨부라과의 어머니는 남편이 없는 어려운 살림이었지만 바느질을 하며 아들을 명문학교인 텡씨린<sup>231)</sup>에 보냈다. 텡씨린 2 학년에 편입하여 8 학년까지 마치면서 6년 동안 그는 교내에서 신분상의 차별을 체험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증오하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에 대한 의식을 키웠다. 명문이 아닌 학교에서 초등과정을 마치고 2 년을 소년군관학교(โรงเรียนทหารเด็ก)에 다니다 텡씨린으로 옮겼으므로<sup>232)</sup> 두 학교를 비교할 수 있었다. 당시 텡씨린학교의 교사들은 관례대로 학생과 운동장을 둘로 나누어서 학부모의 사회적 신분<sup>233)</sup>에 따라 학생을 구분하고 따로 운동장을 사용하게 했으므로 고위관료(양반)의 자제들은 그들끼리만 놀고 교류했다. 가문이 다르면 같이 놀지 못하는 것은 물론 말도

230) 중국인이 태국에 이주한 정확한 시기에 대한 기록은 역사서에 나와 있지 않으나 쑤코타이 왕국의 람캄행왕(พ่อขุนรามคำแหง)이 13세기에 태국이 중국과 조공관계를 맺은 후 왕래함에 따라 중국인 도공이 태국에 이주했다고 한다. 그 이후 아유타야 시대에는 중계무역의 발달로 중국인이 이주하여 태국정부와 왕족의 해외무역을 전담하였다. 툰부리 시대에는 딱싌왕(พระเจ้าตากสิน)의 아버지가 중국인이었고 그의 건국에 큰 도움을 주었으므로 많이 이주했다. 이때에 이주한 중국인들은 해안이나 강 유역에 거주하며 태국인이 꺼려하는 상업에 종사하면서 부를 축적하였고 태국여인들과 결혼하여 태국 사회에 동화되어 버렸다. 그러나 19세기에 이주한 중국인들은 태국에 정착하여 태국여성과 결혼하였으나 아들을 중국으로 유학 보내거나 중국인 학교나 독선생으로부터 한문교육을 받는 등 중국식 교육을 시킴으로써 중국인의 정체성과 문화 그리고 국적을 고수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상업을 기피하는 태국인의 가치관을 이용하여 태국의 경제권도 장악하였다.

그러므로 라마 6세가 즉위하였을 때 태국의 상권은 모두 중국인에게 있었다. 계몽군주로서, 태국인에게 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민족주의운동의 차원에서 라마 6세는 중국어 신문은 물론 중국어학교와 중국인학교를 제한하고 종사할 수 있는 직업도 제한하며 중국인의 태국 국적취득을 강제하였다.

231) 당시 텡씨린 학교는 텡씨린 사원에 속한 학교로, 서양인이 교장으로 있었으며 서양의 명문 교과과정을 그대로 옮겨 교육시키는 학교였다. 따라서 등록금이 비싼 당시 최고 명문의 하나였다. 방콕에 그런 수준의 학교가 2-3 군데 있었다. 당시 초등과정은 1-4 학년, 중등과정이 1-8 년이었는데, 중등과정은 1-3 학년, 4-6 학년, 7-8 학년의 3 단계로 나뉘어 있었다. 이러한 텡씨린의 모습은 소설 속에서 데헛랑쌀릿학교로 구현되고 그 학교의 학생들의 구성이나 행위, 사고의 모습은 바로 텡씨린 학교의 모습이다.

232) 윗타야전 치양꾼(วิทยากร เชียงกูล), 『민중의 정치 การเมืองภาคประชาชน』, Bangkok, Mingmit, 2001, p.15.

하지 못하게 했다. 말을 했을 경우에는 평민의 아들이 벌을 받았으므로<sup>233)</sup> 텡 씨런 입학부터 그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불의, 예를 들어 무산자와 유산자간의 갈등, 귀족과 평민간의 대립, 봉건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의 대립과 갈등 등 이중적인 가치관을 목격하고 경험하였다. 겉으로는 영국의 신식교육을 한다는 명문교육기관이지만 실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썩디나제도의 잔재가 그 어느 곳보다 많이 남아있어 고통 받았던 어린 시절을 작가는 재현시킨 것이다.

이러한 텡씨런 시절의 경험은 소설 『앞을 내다보며』의 잔타와 니탓, 『룩푸차이』의 마눗으로 구현되었다. 학생들 모두가 같은 액수의 등록금을 내므로 평등하다는, 다른 부자집안 출신의 학생에게 굶히지 말라는 니탓 어머니의 가르침은 같은 돈을 내고도 차별대우를 받는 학교제도에 대한 비판이며 도전이다. 어머니는 자신이 번 돈 한 푼 한 푼은 땀 흘려 번 깨끗한 돈임을 강조하며 절대로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도록 가르친다. 이러한 어머니의 의식은 전근대적인 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의식이지만 신문물의 유입으로 생겨난 새로운 가치관이다. 씨부라파의 아버지가 영어를 구사하는 철도청 직원이었고, 영국인 밑에서 일했던 사실은 니탓이나 니탓의 어머니라는 작중 인물의 캐릭터와 무관하지 않다.

씨부라파가 니탓을 중산층 가정 출신의 인물로 설정한 것은 그가 무산계급에 대한 이해가 있는 지식인이어서 양반계층과 평민계층을 함께 췌 수 있는 중간계층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씨부라파의 이러한 시도는 마침 태국에 불었던 정치적 봄바람에 기인한다. 군부 독재자인 피분이 1955년 유럽순방 후 1년여 간 독재의 끈을 늦추고 정치적 자유를 어느 정도 허용하였다. 영국 하이드파크(Hyde Park) 식의 자유로운 토론을 공개석상에서 허용하였음은 물론 정당과 노동조합의 결성 및 노사협상제도를 허용하였으며 언론의 자유도 용인하여 신문은 거리낌 없이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공격하고 폭로하였다.

---

233) บศ วิชรเสถียร, 『ศรัปฐพาทย์ข้าพเจ้ารัฐรัก』, Bangkok, Art and Sign, 1982, pp.34-37.

그의 왼팔 격인 경찰총경 파오(แพ ศัยยานนท์)는 공산국가인 중국과 문화적 접촉을 허용하였다.<sup>234)</sup>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씨부라파는 정부의 허가를 얻어 러시아<sup>235)</sup>에는 러시아 혁명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귀국하였고<sup>236)</sup>, 이어 1958년 여름에는 문화사절단의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시적인 자유의 바람은 피분이 제1차 집권 때(2차 세계대전 직전)와는 달리 자신의 정치적 지지 기반이 약해짐을 느꼈으므로 국민에게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여 민주적인 바람을 일으킴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자 한 데에 연유한다.

호주 유학 당시 호주에서 일어났던 백인 호주주의운동에 반대하는 운동에 참여하며 인권과 평등을 배웠고, 집권당 노동당의 정책을 통하여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민족주의자이자 인본주의자인 씨부라파는 상류층과 평민층이 화합한 사회를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건설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소설 『앞을 내다보며』를 구상하였다. 소설 속에서 니탕의 역할은 두 계층-루찌렉으로 대변되는 군부독재와 썩으로 대변되는 무산계급 지식인, 또는 왕정주의자와 민주주의자-의 가운데 서서 서로 다른 상황을 접합하여 조화를 이루어 다른 어떤 것으로 구체화시키는, 민중이 주축이 된 민주주의 국가 건설이다.

234) Rong Sayamananda, 『A History of Thailand』, Bangkok, Thai Wattana Panich, 1973, p.180.

235) 태국은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과 동맹관계에 있었던 국가였다. 그러므로 일본의 패전으로 종전되자 전쟁을 수행했던 피분은 전범으로 재판받았으며, 태국은 전쟁 중에 반일지하운동을 했던 자유타이군(ขบวนการเสรีไทย, Serithai Movement)의 활약과 유엔의 상임이사국과의 협상에 성공하여 1946년 11월에 유엔에 가입하였다. 유엔에 가입하기 위해 러시아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문화적인 교류가 그 후에도 지속되었으나 중국의 경우는 미국의 권유대로 대만의 장개석 정부를 인정하고 수교하였다. 중공과는 적대관계에 있었다. Rong Sayamananda, 『A History of Thailand』, Bangkok, Thai Watana Panich, 1973, pp.174-176 참조.

236) 1957년 10월 28일 주태러시아대사관의 서기관이 러시아국제문화증진위원회의 초청장을 가지고 와 태국에서 3명의 인물, 즉 씨부라파와 싸마이 르엥끄라이(สมัย เรืองไกร, 태국신문협회 회장 겸 일간지 《타이라이완(ไทรรายวัน)》 편집장) 및 암누웨이 쑥짜런(อำนาจ สุขเจริญ, 신문 《싼체리(สารเสรี)》의 편집국장)를 러시아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데 11월 1일까지 도착하라는 조건으로 초빙하였다. 이때 씨부라파 한 사람만 외무부로부터 여권을 받아 출국하였다. 돌아온 후 『러시아를 다녀온 이야기』를 써서 러시아의 모습과 미국의 대공산정책에 대해 피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왕족 및 고급관료 그리고 부유한 중산층과 함께 명문학교에서 수학하면서 형성한 비판의식을 갖게 된 고아 아닌 고아 잔타의 의식 변화를 통해, 그는 사회주의가 당시 태국이 안고 있는 문제인 빈부의 격차, 교육의 질적 향상,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 계층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변화는 바로 씨부라과 자신의 변화이다.<sup>237)</sup>

## 2) 반(反)독재와 민주주의의 의지

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일어난 정치적 대변화를 알게 된 씨부라과를 위시한 당시 지식인들은 태국에도 조만간에 그러한 정치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감하고 언론을 통해 그러한 추세를 알리고 여론을 형성하는데 앞장섰다. 1920-30년대 태국의 지식인들은 구체제 하에서의 왕족을 비롯하여 언론인들이거나 작가 또는 공무원들이다. 19세기부터 진행된 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전제군주제 하의 정부는 제국주의 국가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군부를 최우선으로 근대화시켰고 이어 서양식 행정개혁을 단행하며 관료 조직을 근대화시켰다. 그런데 라마 4세부터 라마 7세 등이 주도한 근대화는 모두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평민의 입장은 고려되지 못하였다.

태국의 민주주의는 1932년에 영국의 입헌군주제를 모델로 한 제도이고 태국에 민주주의를 도입한 계층은 중산층 출신의 지식인들이며 특히 해외유학생들이다. 국내외에서 서양식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은 조국의 독립 유지에 대한 자구책으로 먼저 스스로 변하여 국제 정세에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민주주의 제도의 도입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었고 신문은 이를 사회적으로 여론화하였으며, 그에 힘입어 인민당의 혁명은 성공할 수 있었다. 라마 7세 때에는 일반 평민에게도 광범위하게 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중산층

---

237) 씨티엔 잔티마턴(เสถียร จันทิมาธร), 「그의 이름은 꼴랍 사이쁘라덜 เขาคือกมลลาบ สายประทีปธรรม」, 『꼴랍 사이쁘라덜의 투쟁 ศึกการต่อสู้ของกมลลาบ สายประทีปธรรม』, Bangkok, Prachakkanphim, 1974, p.164.

지식인들의 수효도 증가했으며, 전제군주제로 인하여 받는 위협과 불이익을 민주주의를 통해 개선하고 회복하려는 노력도 강해졌다. 이들은 “침묵하는 다수(Silent Majority)”였다. 신문 《씨끄롱》(ศรีกรุง), 《싸암리뷰》(สยามรัฐ), 《타이마이》(ไทยใหม่) 등은 특히 민주주의에 대한 글을 실어 두터운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었다.<sup>238)</sup>

당시 언론은 양반계층이 아닌 신지식인이 내는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소리, 도시의 공장노동자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평민의 소리를 청취하고 그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정치에 대한 견해를 게재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무산계급의 소리를 불평으로만 받아들이며 나라정치는 양반들이 하는 일이므로 평민이 관여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sup>239)</sup>

태국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은 라마 5세 때부터 나타났다. 러.썸. 103 사건(ร.ศ. ๑๐๓, 1895)<sup>240)</sup> 이후부터 1932년까지 20-30년 동안 티안완(

238) รอง สยามานนท์, 『ประวัติศาสตร์ไทยในระบอบรัฐธรรมนูญ』, Bangkok, Thai Watana Panich, 1977, p.8.

239) 『앞을 내다보며 : 청년시대』, pp.19-20.

241) 문호가 개방된 이후 유럽에 파견되었던 외교관과 왕자, 그리고 유학생들 11 명이 1885년에 라마 5세에게 태국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태국이 개선해야 할 내용을 올렸던 상소문 사건이다. 그들은 유럽 열강의 제국주의 정책에 대하여 언급하며 태국이 이들의 마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입헌군주제를 시급히 도입하고 중립국을 선언해야 한다는 점 등 정책 개선에 대해 60 쪽에 이르는 분량이었다. 라마 5세는 시기상조라며 거부하였고, 행정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지방 분권화되어 있던 권력을 중앙 집권화하였다. Wyatt, David K., 『Thailand : A Short History』, Bangkok, Thai Watana Panich, 1984, p.199.

242) 본명이 떠.위.썸.완나포(ต.ว.ส. วัณณาโพ), 1842-1915)이다. 문족인 아버지와 포르투갈계 태국인 여성 사이에서 9남매중 7째로 태어난 그는 젊어서부터 보통 태국인과는 다르게 전국을 여행하기도 했고 배를 타고 중국도 다녀왔다. 어머니가 개가한 후 훌륭한 양부 밑에서 교육을 받은 그는 서양 상선을 타고 아시아와 태평양을 다니며 견문을 넓혔고 신문물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특히 법률과 불교와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당시 태국의 법률교문이었던 Kirk Patric 등과 친분을 쌓으며 서양문화에 젖었다. 그는 서양의 의식주 문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서양의 생활문화를 받아들였다. 그는 공무원이 되는 것을 마다하고 상업에 종사하였으며, 상인도 품위가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고위관리나 외국인처럼 뽐뽐한 것에 시계 줄을 늘인 복장을 고수함으로써 상업을 천시하는 태국인의 가치관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만민 평등을 몸소 실천했다. 이때 그는 신문 Siam Observer의 고문직을 맡아 도박장의 폐지와 노예해방 및 사회정의에 대한 글을 기고했다. 스스로 변호사를 개업하고 법을 모르는 평민을 위해 봉사했지만 이 사실로 투옥되어 17년간 복역했다. 57세에 석방된 그는 자비로 출판사를 차리고 사회혁명가로서 잡지 『톨라위팍팟짜나깃(ตลวิภาคพจนกิจ, 1900-1906)』과 『씨리פות』

เทียนวรรณ)241)과 께.씨.러. 꼴랍(ก.ศ.ร. กุหลาบ)242), 그리고 러.씨.130(ร.ศ. ๑๓๐ , 1912)243)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의 주장은 당시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는 지배계층의 기득권과 상충되는 부분이 적지 않았으므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민주주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었던 라마 5세는 지배계층의 반대에 부딪치기도 했고 또 개인적으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판단 아래 노예해방, 싹디나제도의 철폐, 행정개혁 및 교육개혁 등을 단계적으로 받아들였다.

6 · 24 입헌혁명 이후 인민당은 왕궁 한 곳을 국회의사당으로 삼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공약하였다. 이 희망적인 소식은 언론과 승려와 공무원

짜나팍(ศิริพงษ์ภาค, 1908)』을 만들어 인간존중과 만민평등, 사회정의와 국가발전의 관계, 민주주의, 의회정치, 축첩제와 노예제 폐지, 아편금지, 학교건설, 도로와 수로, 은행, 병원, 공장 건설 등등을 주장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금이 모자랄 경우에는 차관의 도입을 제의했다. 김영애, 『태국사』, 한국외대출판부, 2001, pp.210-212 참조.

242) 티안완과 거의 동시대(1834-1913)를 살았던 인물로, 자신의 개인적 사항을 기록해 놓지 않아 잘 알려지지 않으나 당 시대 사람들은 그를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한다. 그는 평민의 아들로 태어나 사미승으로 출가한 이래 '깨사로'라는 법명을 받아 승적을 갖고 있다가 1860년부터 15년 간 환속해서 영국, 미국 독일이 운영하는 정미소에서 사무원으로 일했다.

빠라마무치치노트대군(สมเด็จพระมหาสมณเจ้า กรมสมเด็จพระปรมาทิตยไพฑูริย์)의 제자였던 그는 환속한 후 배를 타고 페낭, 수마트라, 마닐라, 마카오, 홍콩, 캘커타, 유럽과 중국 등지를 다녔으며 라마 5세 때는 왕명을 받아 유럽에 통역으로 수행하여 왕실에서 사용할 물건-장례식에 하객들에게 나누어주는 작은 물건을 사오기도 했다. 그는 12명의 아내와 18명의 자녀를 두었다. 그는 위인전과 역사에 대한 저술과 연설이 많다. 그가 62세 때 『สยามประเภท สุนทรโวหารพิเศษ』을 발간하여 불교에서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요소를 배제할 것을 주장하는 등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역설하고 부처님이 가르친 불교에 따른 사회정의에 입각한 정치를 주장하였다.

차이아난 싸똌타와닛(ชัยอนันต์ สมุทวณิช), 『티안완과 께.씨.러. 꼴랍의 삶과 작품 ชีวิตและงานของเทียนวรรณและก.ศ.ร. กุหลาบ』, Bangkok, Bannakit, 1981, pp.184-257 참조.

243) 라마 6세가 나컨빠툼(นครปฐม)에 있는 왕의 여름별장에서 쓰어빠 모임에 참여하고 있을 때 방콕에 있는 중국계 혈통을 가진 위관급의 청년장교들-1909년 사관학교 동기생 중심-100여명이 일본, 페르시아, 터키, 그리고 중국의 정치적 변화, 즉 왕정의 붕괴에 영향을 받아 태국에도 전제군주제 대신 민주주의제를 도입하려고 1911년부터 모의했던 사건인데, 사전에 발각되어 무산되었다. 이들은 크게 입헌군주제(육군)와 대통령제 공화국(해군) 두 파로 나뉘어 합의를 보지 못하고 다만 1912년 4월을 디데이로 정하였다. 이들은 왕이 쓰어빠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여 민간인들을 군대식으로 훈련시키는 것을 보고 군부를 소홀히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Wyatt, David K., 『Thailand : A short History』, Bangkok, Thai Watana Panich, 1984, pp.225-226 참조.

과 국회의원을 통하여 입에서 입으로 도시에서 시골로 퍼졌다. 그러자 과거에 되뇌었던 “태국은 용감하고 명석하고 능력 있는 상전(양반)이 있어서 살기 좋은 나라이다”라는 말 대신에 “태국은 국민의 정부인 정부가 있어 살기 좋은 나라이다. 국민들은 자신의 대표를 선출하여 국회의사당에 보내 나라의 일을 감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기 때문이다.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 몇몇은 장관에 임명되어 직접 행정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옳지 않은 행위를 감독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 정치는 국민의 삶에 유익한 정치가 될 것이다”<sup>244)</sup>라는 말로 바뀌었으며 국민들은 자신이 뽑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고 정부의 정책을 감독할 수 있다는 말에 가슴 벅차 했다. 전통적으로 나랏일은 왕이나 양반이 하는 것<sup>245)</sup>으로만 알고 있었던 태국인들에게 하루아침에 그들 자신에게 그 권리가 주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자유’의 의미를 몰랐다. 그것은 요술과 같은 것이라고, 미륵이 세상에 내려올 때에 세상의 네 귀퉁이를 지키도록 심은 계수나무와 같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유’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때마다 두 손을 합장하고 머리꼭대기까지 올려 경의를 표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그 위대하고 존엄스러운 것이 땅에서 솟을 리는 없고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생각해서였다. 그들은 만나기만 하면 ‘미륵님이 이 세상에 내려 오셨다며요?’<sup>246)</sup>라며 수군대는 형편이었다. ‘자유’라는 단어 외에 ‘헌법’이라는 단어 또한 생소했다. 그들은 ‘헌법’이라는 분은 신성한 분 또는 신이라고 간주하고 잘 받들어 모시고 존경해야 되고, 어딘가에 모셔서 해마다 의식을 하며 잘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였다. 인간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해도, 임금이라 해도, 그분의 말씀을 어겨서도 안 되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신성한 존재로 받아들일 정도로 몽매했다. 인민당이 일으킨 입헌혁명을 제대로 아는 사람의 수는 매우 적었으므로

244) 『앞을 내다보며 : 청년시대』, pp.110-111.

245) Phaiboon Changrien, 『Social Politics and Administration in Thailand』, Bangkok, Thai Watana Panich, 1977, p.64.

246) 『앞을 내다보며 : 청년시대』, p.115.

인민당은 권력을 장악하고 독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정도이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씨부라파는 귀족이나 왕족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은 태어나면서 갖고 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때문이라며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양반은 공부하고 책을 통해서 정치도 알고 역사도 알고 재산도 모을 수 있는데, 이 현상은 평민이 귀족의 천거를 받아 하급관리가 되고 이들이 점점 승진하여 고위관리도 되고 귀족이 되며, 그럼으로써 벼슬도 가문도 세습되고 전승되는 것이 역사적 현실이라고 설명하였다.

하급관리가 된 짚타는 입헌혁명이 난 후 인민당이 공약대로 탐마삿대학교 (มหาวิทยาลัยธรรมศาสตร์) 247)를 설립하자 집안 사정으로 모교 교사가 되었던 니탕과 함께 탐마삿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졸업하고 니탕은 판사, 짚타는 검사의 길을 택한다. 두 사람 모두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중등과정을 5학년에 자퇴한 썩도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 시계 수리를 하여 집안을 다시 일으켰으며, 마침내 유명한 기자 겸 작가가 되었다. 무산자 계층에서 출세한 주인공들이 새로운 체제의 역군이 되겠다는 각오로 민주주의의 편에 서서 정의를 수호하고 실천하는데 앞장섰다. 이와 같이 씨부라파는 역사적 상황이 된 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당시대의 현실로 등장한 적극적 민주주의 세계관을 자기의 소설 속에 리얼하게 묘사하였던 것이다.

탐마삿대학교에서 그들은 생업에 필요한 지식만을 배운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정치의 전략이나 방법 그리고 각종 이론을 경제와 정치면에서 배움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비롯하여 국민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개방대학으로서 법학과 경제학부로 시작한 탐마삿대학교는 보수적이고 등록금이 비싼

---

247) 인민당이 공약했던 평민들의 고등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탐마삿대학교가 1934년에 설립되었다. 이 대학은 뿌리디 파놈웅에 의해 정치법률대학교로 시작하였으며, 개방대학이었다. 국민들에게 새롭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게 한다는 목적 아래 세워진 이 대학에는 지체 있는 집안의 자녀들이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에서 온, 가난한 가정 출신의 자녀, 농촌 출신, 공장노동자 출신, 하급 직원, 가족 생계부양자, 노동자, 학비를 스스로 벌어야 하는 사람들이 입학하였다.

쫄라롱껌대학교에 비해 도시는 물론 지방이나 농촌의 가난한 젊은이들과 근로자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마침내 민주주의 정치에 눈을 뜨고 관심을 갖게 된 젊은이들은 인민당이 표방한 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여기에서 씨부라파의 리얼리즘이 시대의 현실을 사실대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그려나가며 태국이 지향해야 할 세계와 그 방법을 제시하였고, 그럼으로써 동시대인에게 영향을 미쳤다.

짚타와 니탓이 대학에서 학위를 받기 전 날 군부는 언론기관에 대해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하였다. 썩이 일하는 신문사에 무기를 들고 들어온 2 명의 군인은 ‘사회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총을 쏜다’<sup>248)</sup>면서 영장 없는 검열과 수색을 단행하였다. 이를 보고 니탓은 태국의 민주주의가 빛나가고 있다고 한탄하는데, 이 말 속에는 씨부라파의 민주주의를 향한 적극적 세계관이 잘 나타나 있다.

“민주주의는 군 장교 2명의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10 명 100 명이 판단하는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1,000 만 명 이상 태국인 전체의 일이다.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그 군 장교 2명이나 국방부장과 또는 현재 정부의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실현 여부는 우리 전체의 몫이다.”

“그래 바로 우리의 문제야.” 짚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대학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쳤잖아.”<sup>249)</sup>

“ประชาธิปไตยไม่ใช่เป็นเรื่องของนายทหารสองคน ประชาธิปไตยไม่ใช่เป็นเรื่องที่ตัดสินใจโดยคนสิบคนหรือร้อยคน ประชาธิปไตยเป็นเรื่องของไทยทั้งหมด กว่าสิบล้านคน จะไปรอดหรือไม่รอด มันไม่ได้อยู่ที่นายทหารสองคนนั้น หรืออยู่ที่รัฐมนตรีกลาโหมหรืออยู่ที่รัฐบาลซึ่งปกครองของประเทศขณะนี้ จะรอดหรือไม่รอดมันอยู่ที่พวกเราทั้งหมด”

“มันอยู่ที่ประชาชน” จันทาพยักหน้าพร้อมกับเปล่งเสียงตามออกมาว่า  
“มหาวิทยาลัยได้สอนเราแล้ว”

248) 『앞을 내다보며 : 청년시대』, p.127.

249) 『앞을 내다보며 : 청년시대』, p.130.

씨부라파는 민주주의자이며 그 자신이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 군부독재에 맞서 싸운 투사이다. 그가 주장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 개인의 기본권과 언론의 자유권에 관한 원칙이었다. 정부와 정치가들이 언론의 눈과 입을 막아 압박하지 않고 언론의 권고와 비평을 귀담아 들으면 독재에 흐르지도 부정부패에 말려 정치를 망치지도 않을 것을 믿고 있었다. 역사적 상황은 이미 국민들이 사랑하고 원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한 해답을 주었으므로, 정치가들이 이를 무시하고 억압한다면 무모한 짓에 불과하다고 설파하였다. 민중적 복지사회로 가는 진정한 길은 정치가들이 국민의 편에 서서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sup>250)</sup> 이러한 역사적 현실에 대한 씨부라파의 주체성과 작가의식은 리얼리즘 문학을 통하여 작품 속에 생생하게 재현되었다.

영국에서 법학공부를 마치고 귀국한 씨리락(ศรีริรักษ์)은 영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영국에서는 누구든 정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권이 보장되어 있음을 역설하며 민주주의는 기본권이, 특히 언론의 자유 위에서 성장할 수 있음을 태국의 현실과 비유하여 설명한다.

“영국에서는 누구든지 신문지상이나 공공석상에서 또는 시위를 하며 정부와 반대되는 의견을 피력해도 된다. 정부의 정책에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의회에서 늘 있는 일이다. 영국 야당 당수는 정부 정책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대가로 월급을 받는다. 그들은 정부를 불신임할 수도 있다”

“그래도 경찰이 정부를 불신임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이리 저리 뒤지고 다니며 통제하지 않니? … 군인 간부가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인쇄소에 들어와 군부예산이 너무 높다고 반대하는 신문인을 협박하는 일이 더러 있니?”

“아니, 전혀 없어.” 씨리락이 힘주어 말했다.

250) 씨파 씨리마논(สุภา ศรีแมน), 「 회상 : 꼴랍 씨야쁘라닷의 인생과 투쟁 ความทรงจำ : ชีวิตและการต่อสู้ของกฤษณะ สายประสิทธิ์ », 『서적계 โลกหนังสือ』, Vol. 2, No. 70(Nov.) 1978.

“없어. 경찰도 군인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 영국에서 철학과 정치학을 공부하고 온 쭈파몽콘이 옆에서 거들었다.

“아주 강하게 정부에 반대의사를 표할 땐 경찰이 어떻게 하니?” (8학년 진급시험에 떨어져 2번 유급한 후 학교를 그만두고 공무원이 된) 분크령이 물었다. 그는 그럴 땐 경찰이 뭔가 행동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경찰은 그냥 가만히 있어. 경찰도 국민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정부를 반대하는 것이 그 나라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고, 경찰 또한 영국의 국민이니까 경찰은 국민의 자유권을 보호하고 높이기를 원해. 그게 그들 자신의 자유권이니까.”

“경찰이 정부편이 아니니? 씨리락” 분크령이 물었다. 그의 얼굴은 영국의 민주주의가 참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빛이 역력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어느 나라 식 민주주의인데?” 썸이 물었다.

“영국식 민주주의야.” 씨리락이 답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것은 왜 영국과 다르지? ... 특히 개인의 의사를 표명하는 자유권을 제한하는 면에서.” 썸타가 궁금해했다.

“그 문젠 내가 직접 대답하지 않을래. 너희들이 직접 인민당에게 물어 봐.” 씨리락이 곤혹스러운 낯으로 대답했다.

“어쩌면 분크령이 인민당 대신 답할 수 있을 거야. 그들하고 가까우니까.” 루씨랙이 갑자기 끼어들며 진실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분크령이 얼굴을 붉히며 우물쭈물했다.

“난 정치에 대해서는 몰라. 개인적으로 몇 분을 존경할 따름이야. 난 정치와는 무관하거든.” 분크령이 짹짹 변명했다.

“소문에 하원석이 비면 네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유력한 인물 중의 하나라며?” 루씨랙이 계속 빈정대는 투로 말했다.

“아냐. 나는 그런 생각이 없어. 난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 분크령이 급히 부정했다.

“네 차례가 언제 오던지 그때 내 편기도 좀 봐 줘.” 누군지 모르지만 다른 친구 하나가 말하자 모두 웃었다. 분크령은 더 얼굴이 붉어지면서 중얼거리며 따라 웃었다.

“영국 민주주의에 대해 씨리락의 말을 들으니 현재 우리나라는

영국식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거라고 생각해.” 또 다른 친구가 말했다. ...

“난 씨리락이 영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들려준 것으로 이만 끝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백화점을 하는) 티안밍이 눈을 깜빡거리며 그리 밝지 않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해. ...?”

“어떻게 한다기보다 ... 우리가 영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냈으면 해. 우리나라의 정치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자.”

“무슨 이유로?”

“우리나라 경찰은 영국 경찰과 다르니까.” 니탓이 중간에 끼어들어 말을 막았다. ...

“야! 백화점 주인, 여기는 경찰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있다면 우리가 스파이라고 부르는 경찰<sup>251)</sup>나 폴 분크령이 있을 뿐이야.”<sup>251)</sup>

“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 ใครจะคัดค้านรัฐบาลอย่างไรก็ได้ จะคัดค้านในหนังสือพิมพ์ หรือโดยการประชุมสาธารณะหรือโดยการเดินขบวนก็ได้ การคัดค้านรัฐบาลเป็นของที่กระทำกันเป็นการประจำในรัฐสภา หัวหน้าพรรคฝ่ายค้านของอังกฤษยังได้รับเงินเดือนในฐานะที่ทำหน้าที่คัดค้านรัฐบาลและจะเรียกร้องให้รัฐบาลลาออกก็ทำได้”

“แล้วไม่มีตำรวจไปเที่ยวคุกคาม ผู้ที่เรียกร้องให้รัฐบาลลาออกหรือ มีบ้างไหมที่ นายทหารยกพวกเขาไปในโรงพิมพ์ แล้วพูดจาข่มขู่พวกหนังสือพิมพ์ที่แสดงความเห็นคัดค้านงบประมาณการทหาร?”

“ไม่มีเลยคุณ “ไม่เคยมีเลย” ศิริลักษณ์ตอบแน่นอนเสียง

“ไม่มีแม้แต่ความคิดของตำรวจหรือของทหารคนใดคนหนึ่งก็ตาม จะกระทำ เช่นนั้น” หม่อมเจ้าศุภมวงคลเสริม

“แล้วตำรวจเขาทำอย่างไร เมื่อมีการคัดค้านรัฐบาลกันอย่างรุนแรงเช่นนั้น” เป็นคำถามของบุญครอง เขาคิดว่าตำรวจควรที่จะทำอะไรสักอย่างหนึ่งในยามเช่นนั้น

“ตำรวจก็อยู่เฉย ๆ ซิคคุณ ตำรวจก็มีความคิดเหมือนราษฎรทั้งหลาย คือคิดว่าการคัดค้านรัฐบาลเป็นของธรรมดาในประเทศของเขา ตำรวจอังกฤษก็เป็นพลเมืองอังกฤษคนหนึ่งเหมือนกัน ตำรวจก็ต้องการรักษาเขตอิทธิพลเสรีภาพของพลเมือง ซึ่งเป็นสิทธิเสรีภาพของเขาด้วยเหมือนกัน”

251) 『앞을 내다보며 : 청년시대』, pp. 173-176.

“ตำราจไม่ได้เป็นพวกของรัฐบาลหรือ คุณศิริลักษณ์?” บุญครองถาม สีหน้าของเขาแสดงความลงสนทนเท่าที่ในประชาธิปไตยของอังกฤษเป็นอันมาก.....

“ประชาธิปไตยของเราเป็นประชาธิปไตยแบบไหน” แซ็งคาม

“เป็นประชาธิปไตยแบบอังกฤษ” ศิริลักษณ์ตอบ

“แต่ทำไมการปฏิบัติในประเทศของเราจึงแตกต่างกับการปฏิบัติในประเทศอังกฤษมากนักโดยเฉพาะการปฏิบัติในทางคุณงามเสียภาพในการแสดงความคิดเห็น?” เป็นข้อถามของจินทา

“ผมไม่อาจตอบปัญหาข้อนี้ คุณต้องไปถามท่านพวกผู้ก่อการเขา” น้ำเสียงของศิริลักษณ์มีความรู้สึกขมขื่นระคนอยู่

“บางที่บุญครองอาจจะตอบแทนพวกผู้ก่อการได้กระมัง เพราะเขาใกล้ชิดกับท่านเหล่านั้น”

หม่อมราชวงศ์รุจิเรขโผล่ออกมาแล้วหัวเราะ ท่าทางของเขาแสดงว่า พุดด้วยอารมณ์สนุกมาก

กว่าจะหมายถึงเป็นการจริงจัง แต่ถึงกระนั้นก็ทำให้บุญครองหน้าแดงและรู้สึกอึดอัด

“ผมไม่มีความรู้ในเรื่องการเมือง” ผมรู้จักนับถือท่านเหล่านั้นบางคนเป็นการส่วนตัว ผมไม่เกี่ยวข้องกับเรื่องการเมือง” บุญครองรีบออกตัว

“มีข่าวว่าถ้ามีตำแหน่งสมาชิกประเภทสองว่างลง คุณก็เป็นคนหนึ่งที่มีหวังจะได้รับการแต่งตั้งกับเขาด้วยไม่ใช่หรือ” รุจิเรขยั่วต่อไป

“เปล่าครับ ผม-ผมไม่มีหวังอะไรเลยครับ ผมบังอรเด็กมากนัก” บุญครองปฏิเสธพลัน

“ถ้าถึงรอบคุณบุญครองเมื่อไหร่ผมขอฝากตัวด้วยนะครับ” มีคนหนึ่งสอดขึ้นแล้วก็มีเสียงหัวเราะกัน บุญครองเลยหน้าแดงยิ่งขึ้น เขาหัวเราะแหย ๆ พร้อมกับบ่น

พิมพ์

“เมื่อได้ฟังคุณศิริลักษณ์เล่าเรื่องประชาธิปไตยในอังกฤษแล้ว ผมเห็นว่าในเวลาที่นี่ประเทศเราไม่ได้เป็นประชาธิปไตยอะไรกับเขาเลย” อีกเสียงหนึ่งสอดขึ้นมา.....

“ผมคิดว่าเราพูดกันถึงประชาธิปไตยในอังกฤษอย่างที่ศิริลักษณ์เล่าให้ฟังนั้น ก็เป็นการพอสมควรแล้ว” เทียนหมิงกะพริบตาถี่ ๆ และยิ้มอย่างไม่สู้จะแจ่มใสสัก

“แล้วยังไง....”

“ก็ไม่มียังไงหรอก ผมคิดว่าเราควรจะจำกัดการพูดคุยของเราไว้เพียงแต่อังกฤษดีกว่า อย่ามาถกกันถึงการเมืองไทยเลย”

“เพราะอะไร”

“เพราะตำรวจไทยไม่เหมือนกับตำรวจอังกฤษนะซิ” นิติน์แซงขึ้นมา....  
 “นายห้าง อย่าตกใจไปเลยที่นี่ไม่มีใครเป็นตำรวจหรอก่อน เว้นเสียแต่บุญครอง  
 จะแอบไปเป็นข้าแล้ว ทีเขาเรียกกันว่า สายลับนะ”

위의 대화는 찐타의 텡씨런 동기들이 졸업한 지 여러 해가 흐른 뒤 은사였던 위분완나윗(ท่านขุนวิบูลย์สารธรรมวิทย์) 선생님이 모교의 교장선생님이 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에 다시 모인 동기들 간의 대화이다. 이 대화는 영국의 민주주의와 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다른가를, 당초 인민당의 의도가 얼마나 변했는가를, 그리고 그 사이에 친구들의 입장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확실히 보여준다. 작가(쌩), 법관(니탓, 찐타), 외교관(씨리락 ศิริลักษณ์, 쭈파몽콘 ศุภมงคล), 상인(티안밍 เตียบเหม็ง), 공무원(분크렁) 등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법관이나 외교관은 원칙을 따지지만 상업을 하는 티안밍은 세상을 앞서서 읽고 있었으므로 역시 정치에 깊이 관여하지 않으려는 태세를 보인다. 분크렁은 아버지의 소원대로 공무원이 되어 인민당과 친하게 지내며 장래 국회의원을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문학작품 속의 장면과 내용은 바로 지식인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태국에서 민주주의 발전에 관한 역사적 상황과 시대적 현실을 리얼하게 묘사하는 씨부라파의 작가의식의 진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인민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권좌에 있는 기간이 길어지고 이기주의가 팽배해짐에 따라 분열되었다. 인민당내 청년장교들은 자신의 방향에 반대하는 민간인 그룹과 노장장교들을 여러 이유를 걸어 인민당에서 축출하고 일부 도서를 판금하고 노동자들의 움직임을 제지하면서, 특별법정 구성에 대한 법을 공포하였다. 특별재판정의 구성에 대해 많은 민간인 지식인이 반대하였다.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932년 인민당과 뜻을 같이 했던 많은 지식인들이 정부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바뀌었다<sup>252)</sup>.

252) 1933년 4월 마노 수상이 의회를 해산하고 일부 헌법을 폐지한 후 태국 최초로 반공법을 공포함으로써 내각에서 사회주의의 색채가 강한 뿌리디 등을 축출하고 언론에 알리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이 사실에 대해 일간지 『쁘라차탓(ประชาธิปไตย)』 및 『타이마이』는 마노 정부의

입헌혁명 당시 인민당의 결행에 찬성하며 일을 도모했었고, 테웻랑쌀릿 학교 시절부터 찐타와 그 친구들의 정신적 우상이자 구심점이었던 담임선생님 우타이도 찐타와 닮았 그리고 썩의 견해에 동의하며 태국의 장래를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요 2-3년 사이에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사건들이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다”<sup>253)</sup> 라는 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정혼을 펴는 신문의 판매를 금지하는 시국을 걱정하였다. 결국 소설 속의 선각적 지도자인 우타이선생님은 씨부라파 자신의 모습에 대한 묘사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씨부라파의 리얼리즘 문학에서 문학과 현실의 상관성이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하겠다.

씨리락은 고위층으로부터 현 정부는 정부에 대한 비난을 매우 싫어하니까 그런 내색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으나 “있는 사실 그대로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정부가 가는 길이 민주주의 길이 아니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정부가 먼저 자신의 정책과 시행을 개선해야 한다. 진실을 이야기하려는 신문 내용을 고치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sup>254)</sup>라는 견해로 뜻을 굽히지 않았다. 언론인이 되려면 항상 신사다운 심성을 지녀야 하고, 신문윤리는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명심해야 하지만 이 윤리는 다른 나라의 것을 빌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 태국인 스스로의 윤리여야 한다고 주장한다.<sup>255)</sup>이 내용은 40년 전 일본의 아사히 신문을 예로 들어 씨부라파가 주장했던 것과

---

행위를 “국민이 알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정부의 정책을 비난했다. 마노 정부는 이 두 신문사를 “국민을 불안으로 몰아넣는 국가의 적”이라며 폐간시켰다. 그러자 1933년 6월에 피분 등 인민당내 청년과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마노 정부를 축출하고 파혼을 수상에 추대하였다. 이로써 인민당의 집권이 시작되었다. 이 즈음 언론은 크게 양분되었다. 구체제 옹호신문은 『방콕데일리메일(บางกอกเดลิเมล์)』, 『끄룽텝데일리메일(กรุงเทพเดลิเมล์)』, 『세리팝(เสรีภาพ)』 등이 있었고, 신체제 옹호신문은 『타이눔(ไทยหนุ่ม)』, 『타이마이(ไทยใหม่)』, 『씨끄룽(ศรีกรุง)』, 『밤룽누꾼라킷(บำรุงนุกุลกิจ)』, 『쁘라무언완(ประมุขวัน)』, 『쁘라차 çat(ประชาชาติ)』 등이 있었다.

253) 『앞을 내다보며 : 청년시대』, p.184.

254) 『앞을 내다보며 : 청년시대』, pp.185-186.

255) 수왓 워라달록(สุวัฒน์ วรดิลก), 『사람들이 마는 씨부라파 ศรีบูรพาที่ผู้รังเกียจ』, 『꼴ล랍 싸이쁘라덜의 삶 ชีวิตของกษัตริย์ สายประดิลก』, Bangkok, Prajakkanphim, 1974, p.39.

동일한데, 여기에서 리얼리즘 문학을 통하여 작가의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이 작중 인물인 썩과 씨리락을 통해 사실적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씨부라과의 곱힐 줄 모르는 정의에 대한 의지는 소설에서 옥살이로 결론이 났다. 씨리락의 글은 썩이 일하는 신문에 실렸던 니탓의 글보다 강경하지 않았고, 다른 신문에 게재된 글보다 그 비난 정도가 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영국 유학 중 인민당정부가 민주정부가 아니라며, 만일 계속해서 민주정치를 행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차라리 왕정을 바랄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경고를 왕정복고 지지라는 뜻으로 인민당은 받아들였던 것이다. 게다가 그의 집안이 전 체제에서 장관을 했던 집안이었고 정체 변화로 인해 타격을 받았으므로 그의 연사는 정론이 아니라 고위왕족의 동의를 구하는 개인적인 양갈음이라는 이유도 포함되었다. 인민당은 왕정복고주의자들을 숙청하는데 씨리락을 희생양으로 삼은 셈이었다. 문학 작품이 아니라 당시대의 태국 현실에서도 많은 지식인들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옥살이를 하였다.

씨리락에 대한 정부의 판결은 그 정부가 민주정부가 아님을 공공연하게 표방하는 결과로, 신정부에 걸고 있었던 지식인들의 기대가 산산조각이 났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그래도 일부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왕정복고가 아닌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악어늪지에서 간신히 악어를 피해 물으로 나왔으나 다시 (생각지도 않던) 호랑이를 만난 상황에 있다. 그렇다고 호랑이를 피해 다시 뒷걸음질 쳐서 악어의 입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입장이다. ...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다. 호랑이가 우글거리는 깊은 산중에서 몸으로 싸워 스스로 길을 찾아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지금 다시 왕정을 주장할 것인가? 그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거야..”(256)

“เราหลุดออกมาจากหนองน้ำของพวก จะเข้และเมื่อต้องเผชิญกับเสือ เรา  
จะกลับ เราจะกลับคอยเข้าไปในปากจะเข้หรือมันเข้าไปไม่ได้ใช้ใหม่.....  
ทางเลือกของราษฎรมีอยู่ทางเดียวคือเราจะต้องฟันฝ่าอันตรายในดงเสือและ  
ค้นหาทางออกไปข้างหน้าเท่านั้น ถ้าพวกชนชั้นสูงเขาคิดว่าราษฎรจะกลับเรียก  
ร้องให้พวกเขามาปกครองประเทศอีก ก็นับว่าพวกเขาได้ฝันไป.....”

이 말은 왕실장학금을 받아 영국으로 법률공부를 하러 떠나는 니탓이 째타와 자신의 여동생이자 째타와 결혼할 께염 (พยอม)에게 한 말이지만 왕정복고를 반대하는 작가의 뚜렷한 사상과 군부라는 폭력 속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작가의 의지가 나타난 부분이다. 아무리 군부독재가 심하고 언론탄압과 자유권의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도 태국은 더 나은 제도, 즉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찾아내야만 한다는 것을 독자에게 설득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남에 의해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더라도 싸워 얻어야 하는 값진 것이기 때문이다. 씨리락이 정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목격한 그는 태국에는 재판의 부재, 다시 말해 재판의 공정성이 정치에 의해 집권자에 의해 조작되는 현실을 폭로하고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다. 비록 많은 신지식인들이 반체제 인물이라고 지목되어 주시되고 체포되어 구금되는 현실이지만 장래에는 반드시 태국에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굳은 의지가 니탓의 입을 빌어 작가 자신이 역설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젊은 이들의 의지를 강조하고 역설하기 위해 작가는 이 소설의 제목을 『앞을 내다 보며』로 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씨부라과는 많은 필명(257)을 사용했으나 '잇싸라촌'(อิสสรชน)이라는 필명은

256) 『앞을 내다보며 : 청년시대』, p.197.

257) 꼀랍 싸이쁘라닷의 필명은 씨부라과, 다라라이(ดาราลอย), 나이텝쁘리차(นายเทพปรีชา), 우바쑈(อุบาสก), 맏꼬쑈(แม่โกสุ่ม), 씨.๓.ดี.꼀랍(ส.ป.ด. กุหลาบ), 마까토(มกโท), 잇싸라촌(อิสสรชน), 촌짜이(ชื่นใจ), 나이밤러(นายบำเรอ), 끼.싸이쁘라닷(ก. สายประดิษฐ์), 덕마똘(ดอกมะตูม) 등이 있으나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되는 글에 대하여는 본명을 사용하였다.

피분 정부가 범타이주의(Pan-thaiism)<sup>258</sup>)을 표방하며 독재의 길로 치닫는 것을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그의 축출을 요구할 때 사용한 것이다. 그는 1938년에 집권한 후 일본과 공수동맹을 맺은 피분의 민족주의 정책에 대해 과격한 민족주의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피분의 정책에 동조하는 지식인들에게 “당시 민족주의 물결은 불 속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sup>259</sup>)라고 경고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 볼 것을 촉구하였다. 사실 일본 신문업계를 시찰하고 귀국한 후 그는 1941년에 집권자 스스로 자신들의 집권을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그들의 행위가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행위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1932년 혁명 뒷이야기(เบื้องหลังการปฏิวัติ ๒๔๗๕)』을 시리즈로 써서 다시 모인 동인들과 함께 다시 만들기 시작한 신문 《쑤팜부룻》(สุภาพบุรุษ)<sup>260</sup>)에 연재하며 피분정부가 “지도자를 따르면 위험에서도 벗어날

258) 파혼에 이어 1938년에 집권한 그는 태국인들에게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19세기 거대한 서양의 제국주의 물결 앞에서 태국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에게 어쩔 수 없이 내주었던 라오스와 캄보디아, 미얀마 일부 그리고 말레이 일부 등의 영토를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다시 찾아야 한다는 정책을 표방하며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그는 동남아와 아시아에서 태국어틀 구사하는 종족을 모두 한 나라 통일한 타이제국을 구상하였다. 많은 지식인들이 이에 동조하였다.

259) Baston, Benjamin A. 「Kularb Saipradit and the War of Life」, Siam Society Vol. 69, 1981, pp.58-73.

260) 쑤부라파가 사재를 털어 1929년에 동인 “쑤팜부룻”(신사, สุภาพบุรุษ, The Gentleman)을 결성하고 동인지 『쑤팜부룻』을 발간하였다. 동인 10명은 대부분이 탭씨런 출신이었으며 당시 대학생, 공무원, 지식인들이 즐겨 읽었다.

동인은 말라이 추피닛(มาลัย ชูพินิจ), 읍 차이야와쑤(อับ ไชยบาล), 쑤트 프래판(โชติ พรหมพันธ์), 쑤닛 쑤런랏(สนิท เจริญรัฐ), 쑤란 우타딧(จรัส ฐาติตย์), 쑤트 부라딧(ชิต บุรทัต), 쑤딧 쑤마닌(สถิตย์ สมานิล), 파욘 로짜나위팟(ไพยม โรจนวิภาค), 팟 네뜨라랑씨(เน็ต랑씨) (พัฒน์ เนตรรังษี), 춘 뿌라파위왓(ฉุน ประภาวิวัฒน์) 이다. 그러나 자금난으로 그 해에 문을 닫았다가 1939년에 재조직하고 일간지 《쑤팜부룻(สุภาพบุรุษ)》을 발간했으나 1942년에 완와이(ม.จ.วรรณไวทยากร วรวรรณ)가 창설했던 《뿌라차밧(ประชามิตร)》과 합병하여 《쑤팜부룻-뿌라차밧》(สุภาพบุรุษ - ประชามิตร)이라 개칭했다. 두 신문사가 합병한 계기는 피분 정부가 언론 탄압의 한 방법으로 1941년에 경찰의 신문기사 사전검열과 통제를 허용하였고 1942년에 ‘신문사 설립법’을 공포하였기 때문이다. 신문사 설립법에 따르면 신문을 발간하려는 사람은 토지와 건물 외에 자산이 5만 바트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고 했으므로 작은 신문사들은 병합해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이 바람에 25개 신문사는 12개 신문사로 그 수가 줄었다. วิทยากร เข้มกุล, 『การเมืองภาคประชาชน』, Bangkok, Mingmit, 2001, p.39 참조.

수 있다( เชื่อผู้นำทำให้ชาติพ้นภัย)”, “피분쑥크람을 믿으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 เชื่อพิบูลสงครามชาติไม่แตกสลาย), “지도자가 원하는 대로 믿고 따르면 나라가 안전하다( เชื่อมั่นในท่านผู้นำ ชาติจะปลอดภัย)”, “국가의 안전은 피분을 믿고 따르는 것에서...(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ของชาติอยู่ที่เชื่อและทำตามท่านพิบูลสงคราม)” 등등의 슬로건을 통해 강제로 태국 국민의 마음을 쇠뇌 시키려는 음모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가 피분 수상으로부터 수상청 전용의 닭 도장이 찍힌 노란 봉투의 편지를 7통이나 받았어도 전혀 민주주의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고 중립적 입장을 고수했다. 이 사건 등으로 인해 결국 씨부라파는 구속되었다<sup>261)</sup>. 이렇게 씨부라파의 리얼리즘 문학에서는 작품 속의 작가의식과 그 풀롯 구성이 오히려 현실에 구현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씨부라파는 1943년 11월 17일 가난하여 함께 모일 장소를 갖지 못한 언론인들을 위해 자신들의 복지단체 성격의 “태국신문협회”<sup>262)</sup>를 만들어 언론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고 동시에 언론인끼리 결속을 다졌으며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씨부라파의 정신을 두고 후배나 동료들은 그를 인류를 위한 투쟁가이지만 어느 누구도 해치지 않는 사람, 휴머니스트, 인권주의자 등등의 이름으로 부른다. 독재정부는 씨부라파의 이러한 정신 때문에 그를 위협한 인물로 평가하여 실제 있었던 사실도 역사에 왜곡하여 기록할 정도였다. 그러나 태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씨부라파의 편에 서서 발전해 나갔다.

---

261) รุ่งวิทย์ สุวรรณอภิชน, 『กุหลาบ สายประดิษฐ์ พญาวีหคในคัตนานต์แห่งวรรณกรรมไทย』, 『ศรีบูรพา - ศรีแห่งวรรณกรรมไทย』, Bangkok, Phasiko, 1979, p.130.

262) 초대 회장은 당시 덕망 높은 언론인인 쿤쁘리차누앗이 맡았고, 씨부라파는 사무총장을 맡았다. 2대 회장은 마냥 와쑤앗(1944), 3대 회장은 씨부라파였다. 씨부라파는 2년을 연임하였다.

### 3) 무산계급의 실천적 사회민주주의

씨부라파가 평생을 추구한 무산계급의 생활 향상을 위한 사회발전 문제를 두고 룡윗 쑤완아피촌(รุ่งวิทย์ สุวรรณอภิชน)은 “꿀랍 싸이쁘라덜은 작가나 이론가 일 뿐만 아니라 실천가이기도 하다.”<sup>263)</sup>라며 “꿀랍은 진정한 휴머니스트이다. 그의 사상과 이론으로서의 휴머니즘은 행동으로 발전하였다. 그는 동북부의 가난한 주민들이 겨울 추위에 견딜 수 있도록 옷과 음식, 그리고 일용품을 직접 나누어주었다.”<sup>264)</sup>라고 한 까루나 꾸싸라싸이(กรุณา กุศลสัย)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그는 애연가에게는 담배를, 환자에게는 먹을 것을, 가난해서 끼니를 거르는 대학생들에게도 도움을 주었는데, 이는 부인 차닛(ชนิด สายประดิษฐ์) 여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씨부라파의 인류에 대한 사랑과 희생의 정신은 『앞을 내다보며 : 청년시대』에서 땀을 통해 민중의 힘으로 발산된다. 씨부라파는 민주주의는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의 힘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님을 설명하고 있다. 비록 태국에 민주주의가 해외유학생 100여 명에 의해 도입되고 시행되었지만 그러나 국민의 힘을 무시하고 발전할 수 없음을, 그의 문학작품 속의 니탕, 썩, 짠타, 땀 등을 내세워 강조하였다.

땀은 짠타가 시골서 방콕으로 올라와 스님과 같이 절에 살고 있었을 때, 다시 말해 그가 시골의 텍왓에서 방콕의 텍왓으로 변신한 후에 만난 친구이다. 땀도 ‘텍왓’이었으나 짠타처럼 속맥이 아니었다. 텍왓 시절 짠타는 늘 허기졌다. 태국의 승려는 하루에 오전 7시경과 11시 30분 경 두 번만 식사를 하기 때문에 저녁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였기 때문이었다. 시골보다 물질적으

263) รุ่งวิทย์ สุวรรณอภิชน, 「กุหลาบ สายประดิษฐ์ นักเขียนของปวงชน」, 『ศรีบูรพา ศรีแห่งวรรณกรรม - ไทย』, Bangkok, Phasiko, 1979, p.12.

264) 까루나 꾸싸라싸이(กรุณา กุศลสัย), 「내가 아는 꿀랍 싸이쁘라덜 คุหลาบ สายประดิษฐ์ที่ข้าพเจ้ารู้จัก」, 『꿀랍 싸이쁘라덜의 투쟁 ชีวิตการต่อสู้ของกุหลาบ สายประดิษฐ์』, Bangkok, Prachakkanphim, 1979, p.120.

로는 풍부했으나 상대적으로 텍왓은 배가 고팠다. 당시 짬타의 눈에 비친 방콕은 천국이였다. 그가 방콕에 와보게 된 것은 정말 큰 행운이었으나 보스프루스에 도착해서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라고 외쳤던 시이저와는 정반대로 “왔노라, 보았노라, 패배했노라”이었다. 방콕생활은 절대적인 빈곤이 있는 시골보다 더 참담했다. 짬타는 눈에 보이는 풍요 속에서 늘 상대적인 배고픔으로 고통받았다.

방콕에 온 후 명절에 푸카오텅(พื้กาอเต็ง)에 놀러 가서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풍경과 푸짐한 음식들을 보고 저절로 탄성이 나왔다. 그러나 돈이 없는 그는 굶은 채 절로 와서 간신히 밥 한 숟가락을 얻어 간장에 비벼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래서 흑시 하고 부엌에 가서 찬장을 뒤지는데 장난꾸러기 댐을 만났다. 그때 짬타는 댐이 훔쳐 온 오리 다리를 얻어먹으며 허기를 면했다. 짬타는 살아남기 위해 소소한 도둑질이나 부도덕한 행위는 괜찮다고 댐에게서 배웠다. 그 후 그는 아피반 영감택으로 가면서 댐과 헤어졌다. 그 댐을 짬타는 검사보가 되어 씨싸켓(ศรีสะเกษ)으로 떠나기 전 날 시장에서 만나게 된다.

댐은 짬타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려서 우연히 킥복싱 경기장에 가서 구경하다가 킥복싱에 입문하여 선수로서 성공하는 듯했으나 가난은 여전히 면치 못해 결국 어려서부터 익혀온 소매치기로 전업하고 말았다고 했다. 그는 패거리를 지어 전국을 누비며 소매치기를 했는데, 훔치다 보니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자기들만이 아니라 높으신 양반도, 경찰은 물론 검사도 판사도 마찬가지로 했다. 높으신 양반들은 자기들보다 더 인정사정 보지 않고 냉정하게 뜯어내는데, 댐과 다른 것은 높으신 분들은 합법적으로 해먹는다는 점이라고 했다.<sup>265)</sup> 댐은 경찰 공무원과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소매치기를 하다가 결국은 감옥을 제집 드나들듯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감옥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된 후 소매치기에서 성실한 공장노동자로 거듭 태어나 지금은 정미소에서 일한다고 했다. 고된 삶에서 오는 실망도 익숙해지고 친해져서 생명의

265) 『앞을 내다보며 : 청년시대』, p.204.

일부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면 인간이 성숙해진다는 뎀의 말은 그 여성에게서 배운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그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의 동료애와 과감성 등 장점을 칭찬하며 어려서 올바른 성장할 기회를 잃었기 때문에 나쁜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라며 격려하였다 했다. 그녀는 사회가 만들어놓은 함정에 그가 빠졌던 것이라고, 그래서 사회라는 환경의 희생물이라고 했다. 그러한 말 속에서 뎀은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기 시작한 끝에 자신의 장점을 태국의 발전에 동참하는데 사용해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고 했다.

씨부라과는 뎀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과 노동의 위대성을 설교하고 있다. 뎀이 쩐타와 같은 교육을 받았더라면 그의 삶도 달라졌을 것이라는 것을 쩐의 삶을 통해 증명해 보였다. 뎀은 가난이라는 경제적 환경, 사랑이나 관심이 결여된 텍왓이라는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사회의 어두움으로 빠져들었으며, 그 결과 강도가 되어 여러 차례 감옥을 드나들게 되었던 것이다. 뎀은 이름이 없는 그 여성으로부터 일깨움을 받기 전에는 자신들의 가치와 힘을 몰랐었지만, 일단 알고 나자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그 힘을 훌륭한 일에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일었다고 한 것은 그녀가 준 교육으로 인해 자아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움이 적고 가난한 노동자는 각기 따로 있을 때에는 약하고 의미가 없지만 다른 사람과 단결하여 힘을 합할 때에는 그 개개의 인생이 의미를 갖게 되고 더 강하고 큰 힘으로 나타난다.<sup>266)</sup> 그 힘이 체계적으로 뭉치면 국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씨부라과는 강조한다. 민주주의나 독재정치나 하는 정치적 기로점에 서 있는 태국에서는 태국 사람 모두가, 배움의 고하를 막론하고 또 빈부를 가리지 않고 힘을 합하여 국가발전이라는 공통된 목표, 즉 조국이 빨리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만 그만큼 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씨부라과는 무산계층의 존재와 태국 사회에서의 긍정적인 역할을 뎀의 입을 통하여 설교하고 있다. 저 장터에서 국수를

266) 『앞을 내다보며 : 청년시대』, pp.215-216.

먹고 있는 노동자 모두가 자신과 같은 뜻을 가진 동지라고, 그리고 그 진실을 볼 줄 아는 눈을 준 사람은 자신의 정체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그 여성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태국에서 가장 큰 가족이야. 과거의 나는 장님이었어. 그래서 내 생을 내 형제를 괴롭히고 해치는 데 사용했었어. 이제 난 새 눈을 얻게 되어서 진실을 볼 수 있게 되었어. 전에 형제들에게 해를 끼친 게 몹시 가슴이 아파. 그 죄를 씻기 위해 난 그들을 위해 뛰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어.”<sup>267)</sup>

“เราทั้งหมดเป็นครอบครัวที่ใหญ่ที่สุดในประเทศของเรา แต่ก่อนนี้ผมตาบอด ผมจึงใช้ชีวิตไปในทางเบียดเบียนทำร้ายพี่น้องของผม เดียวนี้เมื่อผมได้ดวงตาใหม่และเห็นความจริงแล้ว ผมก็เสียใจมากที่ได้เคยเบียดเบียนทำร้ายเขามา และเดี๋ยวนี้ผมก็พร้อมที่จะรับใช้พวกเขาเป็นการลบล้างบาปกรรมที่ผมได้ทำมา

씨부라파는 유일하게 이 소설에서 여성을 민주주의의 희망으로, 특히 민중에게 의한 사회민주주의를 이끌어가고 발전시킬 지도자로 이름이 없는 여성을 설정하였다. 씨부라파가 자신의 소설 속에서 그려낸 여성은 희생과 사랑으로 모든 아픔과 고통을 감싸 안고 조용히 타이르는 어머니 같은 여성이다. 부드러움 속에 강한 의지를 감추고 있는 나약한 보통 여성이다. 여성을 비하하고 남성의 장신구로 인식하고 있는 전근대적 사고 속에서 씨부라파는 그간 태국 사회를 이끌어 온 보이지 않는 여성의 힘을 인식하고 여성을 태국 사회의 변두리, 어떤 경우에는 남성에 의해 가려 있어 참모습을 드러내지도 못했던 위치에서 중심부로 끌어내는 순간이다.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알고 인내와 투쟁으로 남성과 대등할 수 있는 여성, 그럼으로써 남성을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여성상을 창조하면서, 무산계층의 중심에 여성을 두고 있는 것이

---

267) 『앞을 내다보며 : 청년시대』, p.217.

다. 그런 여성이 바로 『앞을 내다보며』에서 잔타의 어머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뎀이 감화를 받은 이름 없는 여성과 『다시 만날 때까지』의 낸시이다. 작가는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며 인류를 온 몸으로 사랑하며 몸소 실천에 옮겼던 이상주의자 낸시를 아름다운 삶-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는 여성으로 그렸다. 낸시의 사람을 창출해냄으로써 국민 대다수가 가난과 무지, 그리고 박해에 시달리고 있는 태국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탈출구로 제시했을 뿐 아니라 그 방법은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길밖에 없음을 강조하였다. 작가는 범세계적인 사랑, 즉 인본주의에 입각한 인류애 실천을 문제 해결을 위한 최고의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씨부라파의 의식은 그가 호주에서 경험했던 백인 호주주의와 이에 대항하며 반정부운동을 했던 여성들과의 교류에서 얻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는 호주에서 귀국한 후 첫 소설 『다시 만날 때까지』(1950년 1월)에서 평범한 직장 여성인 도로시를 소설을 이끌어 나가는 화자로 설정하여 제3자의 눈으로 태국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태국사회의 부조리한 모습과 외국 유학의 퇴폐적인 목적을 꼬뎀의 집안과 꼬뎀을 통해 비난하였다.

“가문 좋고 영어를 구사하며 외국인 친구를 둔 해외유학생이라는 이유와 외국유학생들의 모임인 친목회에 참석하는 사실만으로도 상류사회 여성들이 자진해서 사귀려하고 무조건 태국 사회의 엘리트로 인정하는”<sup>268)</sup> 태국 사회에서 꼬뎀의 아버지는 그를 호주로 보냈다. 그 역시 고급관료인 아버지의 뜻, 해외유학생이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 몇 년 만 버티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또 호주에서 색다른 환락의 세계를 맛보려는 꿈을 가지고 못 이기는 척하고 호주에 왔다. 호주에 도착해서도 방콕에서의 생활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3년여 간 학업을 멀리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던 꼬뎀은 어느 모임에서 낸시를 만났다.

낸시 헨더슨은 겉으로 보기에 상냥하고 가냘픈 여성이다. 노동당을 위해 일하는 그녀는 노동자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인 노동대학(Labour College)에서

---

268) 『다시 만날 때까지』, p.39.

일하면서 호주에 이민 온 아시아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서위원회 (East West Committee)에서 도우미로 활동한다. 아시아인의 권익을 위해 그녀는 호주 정부와 맞서 싸우기도 한다. 스스로 천국이라고 믿고 있던 진창에서 그를 건져낸 여성이다. 약한 몸집의 작은 여성 낸시는 사랑과 열정으로 꼬멧을 과거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눈을 갖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 결과 그는 학업에 열중하고 호주에서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홀대받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다가 끝내는 호주의 백인주의에 환멸을 느끼고 학업을 마치자 귀국을 결심한다. 조국에서 가서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일함으로써 조국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도 역시 낸시처럼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 쉽지는 않겠지만 타인의 힘을 빌지 않고 다수의 이익을 위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태국에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계층은 세계와 나라밖은 자꾸 변하고 있는데도 새 현상이나 새 사상을 원하지 않고 과거의 사상과 실천양식만을 고집하지요. 사실 과거의 생각이나 그 행동양식 중 일부는 효력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건 그 당시에만 적합했다는 거예요. 태국 지배계층은 아직도 과거의 전통만을 고수하는데 만족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고 편리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국민과 나라의 이익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 그래서 나는 귀국해서 공무원이 되지 않고 내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직업에 종사할 거예요.(269)

คนชั้นที่มีอำนาจและมีอิทธิพลในสยามไม่ต้องการศึกษาท้าวการณใหม่ ๆ และความคิดใหม่ ๆ เขาชอบอ้างถึงแบบแผนการปฏิบัติและความคิดเก่า ๆ ทั้งที่ท้าวการณของประเทศและโลกได้เปลี่ยนแปลงไปจากเดิมหมดแล้ว จริงอยู่ การปฏิบัติและความคิดเก่า ๆ บางอย่างนั้นเคยใช้ได้ผลมา แต่ก็จะต้องหมายความว่าได้ผลและเหมาะแก่ท้าวการณที่เป็นอยู่ในเวลานั้น การที่ชนชั้นปกครองในสยามยังคงพอใจอ้างอิงแบบแผนและความคิดเก่า ๆ อยู่นั้นก็เพราะมันทิ้งสะดวกและสมประโยชน์ของเขา แต่ก็มักจะเสียมประโยชน์ของประเทศและของ

269) 『다시 만날 때까지』, p.75.



성장한 모습에 감명 받은 씨부라과는 신분제가 아직도 사회구성원을 억압하고 있는 태국사회에서 노동자, 특히 지식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에 관심을 가졌다. 태국이 후진국이라는 사실과 정치에 눈을 뜬 젊은 학생이나 지식인들은 씨부라과의 이러한 동향에 관심을 가졌고 그의 사회비평에 동조하기도 했다.

그래서 씨부라과는 호주에서 귀국한 후 소설 속에서 민중, 특히 노동자의 힘을 강조하고 노동의 가치를 역설하였다. 민중, 특히 평민의 힘에 대하여 니탕은 역사에 이름이 기록된 인물을 조상으로 둔 장관의 아들 루찌렉과의 토론에서 강조한다. 나라의 안위를 지키고 독립을 유지하는데 한 몫 한 사람은 장관이나 역사에 기록된 인물뿐 만 아니라 전쟁에서 희생된 이름 없는 무명용사, 즉 평민의 힘도 있음을 다음과 같이 설파하고 있다.

“우리 증조부님은 용감하셨대. 전쟁터에서 적장과 일 대 일로 싸워야 했는데, 적장은 몸집이 매우 컸대.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는 목숨을 잃을 뻔 하셨지만 뛰어난 칼솜씨로 결국에는 이기셨대. … 그 증조부님과 우리 가문의 시조이신 선조들께서 용감히 싸우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독립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 모두는 루찌렉의 할아버지의 은혜를 입고 있는 거네. 그 분이 나라를 구하셨으니까.”

“그럼 방라짠(บางระจัน) 전투<sup>271)</sup>에서처럼 나라를 구하다가 목숨을 잃은 분들은 나라를 구한 분이 아니란 말이냐 …?”

“뭐? 그럼 넌 우리 조상님이 존경을 받으면 안 되단 말이냐?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입고 있지 않단 말이지?”

“난 그런 뜻이 아니야. … 난 네 조상님을 존경해. 하지만 네 조상님이 혼자서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나라를 구한 분이 그분 혼자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전쟁에 나가 싸웠거나 나라를 구한 기록이 역사에 남은 조상이

---

271) 미얀마와의 국경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으나 아유타야 시대 미얀마의 침입을 온 마을 사람들이 단결하여 물리친 유명한 전투가 있었던 마을과 그 전투 이름이다. 그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전사하였다.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알고 싶어.”...

“난 우리 조상님이 전쟁에 나갔는지 아닌지 몰라. 그러나 우리 집 안에는 단 한 분의 조상님도 역사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다는 것은 알아. ...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죽음으로 나라를 지키고 독립을 유지하는 데 공을 세운 어른들의 이름 하나 하나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분들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냐는 거야?”<sup>272)</sup>

“เสด็จปู่หวาดของฉันได้ทำการรบอย่างกล้าหาญ ครั้งหนึ่งท่านได้เข้ารับกับแม่ทัพของข้าศึก มันล่าสั้นพ่วงพีกว่าท่าน ท่านหวุดหวิดจะเสียชีวิตไปเหมือนกัน แต่ท่านเอาชนะได้ด้วยฝีมือดาบที่เหนือกว่า .....เสด็จปู่หวาดของฉันและบรรพบุรุษต้นตระกูลของฉัน ได้เสี่ยงชีวิตทำสงครามปกป้องรักษาชาติไทยให้ยั่งยืนเป็นปีกแผ่นมาได้จนถึงทุกวันนี้”

“พวกเด็กรุ่นเราและชาติไทยเป็นหนี้บุญคุณเสด็จปู่หวาดและบรรพบุรุษของบุรีรัมย์ เพราะที่ท่านเหล่านั้นได้กอบกู้ชาติและรักษาเอกราชของชาติเราไว้จนได้ตกทอดมาถึงพวกเรา”

“แล้วคนอื่นที่ออกรบป้องกันบ้านเมืองและได้เสียชีวิตไปเพราะเหตุนั้น เช่นพวกชาวบ้านบางระจันนะ เราจะไม่นับว่าเป็นผู้กอบกู้ชาติและรักษาเอกราชของชาติไว้ให้เราด้วยหรือ...?”

“เธอคิดว่าบรรพบุรุษของฉันไม่สมควรเป็นที่เคารพและไม่สมควรที่เธอยอมรับว่าเป็นหนี้บุญคุณท่านเช่นนั้นหรือ”

“ฉันไม่ได้คิดเช่นนั้น ฉันเคารพบรรพบุรุษของเธออย่างยิ่ง แต่เธอคงจะทราบดีเท่ากับฉันเหมือนกันว่า บรรพบุรุษของเธอไม่ได้ออกรบแต่ลำพังและไม่ใช้มีแต่บรรพบุรุษของเธอเท่านั้นที่ออกรบกู้ชาติบ้านเมือง”

“บรรพบุรุษของเธอได้เคยออกรบหรือได้ทำงานกู้ชาติอะไรบ้างเล่า? ฉันอยากรู้จักบรรพบุรุษของเธอสักคนหนึ่ง ที่มีชื่อจารึกอยู่ในพงศาวดารบอกมาซิ”...

“ฉันไม่ทราบว่ามีบรรพบุรุษของฉันสักคนเดียวที่มีชื่อจารึกอยู่ในพงศาวดาร.... ในที่นี้ฉันอยาก จะพูดให้บุรีรัมย์และเพื่อนนักเรียนของเราได้เข้าใจด้วยว่า การที่พงศาวดารมิได้จารึกชื่อราษฎรสามัญชนจำนวนมากมายังได้สละชีวิตเพื่อต่อสู้ป้องกัน

272) 『앞을 내다보며 : 청년시대』, pp.186-190.

กันบ้านเมืองของเราเหมือนกันนั้น จะเป็นเหตุให้เราถือว่าเราไม่ได้เป็นหนี้บุญคุณ  
ท่านผู้กล้าหาญที่เป็นสามัญชนชาวบ้านเหล่านั้นด้วยหรือ”

역사에 기록되지 않아 자칫 소홀하기 쉬운 수많은 평민의 힘에 대해 작가는 니탕의 충명함과 슬기로움을 통해 말한다. 나라의 독립이나 건설의 현장에는 늘 숨어있는 민초들의 힘이 있음을 간과하지 않는다. 또한 씨부라파는 노동자가 ‘민주주의에 대한 자각’으로 정당한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하여 자본가의 착취에 대항하여 일으킨 노동운동을 옹호하면서, 노동이란 인간의 영원한 ‘생명의 발로’이고 ‘창조 혹은 개조의 환희’이고 ‘인류의 무한한 향상’이며 ‘행복의 원천’이자 ‘가치의 본체’라고 강조하고 있다. 왕이나 왕족이 사는 궁궐이나 사원 등 그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과연 누구의 힘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독자에게 반문한다. 그러므로 씨부라파는 부두노동자에서 정미소노동자가 된 땀을 통해 노동자들도 의식이 깨이면 정치적, 사회적 힘으로 거듭 날 수 있음을 실파한다. 민주주의도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민주주의의 실현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태국이 농업국가여서 농민이 전국민의 80%이상을 차지하지만 거의가 다 문맹에다 정치에 대한 의식이 아직은 깨이지 못했으므로, 도시에 사는 노동자 중심의 사회민주주의의 실천이 현실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씨부라파는 인민당에 의한 민주주의 도입에 대한 지식인의 기대가 바로 다음 해에 군부 집권으로 좌절되고 마침내는 전쟁 국면으로 치달으며 국민의 입과 귀를 막아버리는 정부의 압제의 실태를 니탕, 짬타, 땀, 등의 입을 통해 고발하였다. 또한 민주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평등 위에서 성장하고 꽃핀다는 역사적 사실을 역설하면서, 힘에 의한 독재를 거부했다. 1932년 입헌혁명이 신이나 브라만 또는 어떤 신성한 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특히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적으로 진행된 거대한 새 물결에 눈을 뜬 지식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이 사건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나라의

운명'으로 표현하였다. 이 운명을 도시의 지식인들과 노동자들은 태국의 발전과 희망으로 받아들였으며, 정치와는 본질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치부되어온 노동자와 농부들도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역할이 증대된다는 사실에 대해 흥분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 상황을, 씨부라파는 리얼리즘 문학을 통하여 사회구조적으로 생생히 묘사하였다.

피분 정부의 경찰 및 군인 그리고 공무원의 작위제를 부활하자는 제의(273)와 씨리락의 재판 결과는 지배계층의 횡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존재함을 국민들, 특히 노동자계층에게 깨닫게 만들었다. 언론과 국민이 하나가 되어 사회 정의와 올바른 민주주의 정치 실현을 위한 반대와 노동자 및 무산계층의 봉기로 인한 작위제 철폐는 국민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힘이 영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작위제 부활의 저지는 민중의 힘이 정부의 정책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에게 씨부라파는 국민 대다수가 비록 무산계층이지만 민중도 뭉치면 정부와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설득하는데 성공하였고, 그럼으로써 실천적 사회민주주의 사상을 전파하였다.

---

273) 1932년 입헌혁명에 성공한 인민당들은 작위제도가 전제군주제의 전근대적인 산물이라며 폐지하였다. 그 후 5-6년이 지나자 바로 인민당들이 작위제의 부활을 들고 나왔다. 물론 국민들은 이에 반대하였다.

## V. 결론 : 한 · 태 리얼리즘 문학과 작가 의식

본 연구에서 다룬 염상섭과 씨부라과의 소설들은 6편이다. 염상섭의 작품은 『사랑과 죄』, 『삼대』, 『무화과』로, 그 시대적 배경은 모두 1920년대-1930년대 초이다. 씨부라과의 작품은 『인생이라는 이름의 전쟁』, 『그림 저편에』, 『앞을 내다보며』인데, 비록 발표된 시기가 1930년대 초, 30년대 중반 그리고 1950년대 후반이지만 소설 속에서 설정한 시대적 배경은 1920년대-1930년대이다.

이 시기는 한국이나 태국 모두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근대화가 서서히 진행되던 때였을 뿐 아니라 한국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태국은 그와는 달리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제국주의 세력들의 침략과 군부독재에 직면한 상황이었다. 당시에 한국과 태국의 선각적 지식인들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제국주의에 대처하고 열강들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은 국권의 회복과 민족의 해방을, 그리고 태국은 독립의 유지와 외세의 침략을 극복할 수 있는 민주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하였다. 염상섭과 씨부라과는 고뇌하는 지식인들의 선두에 자리 잡고 있었다. 비록 당시에 한국과 태국이 처한 시대적 현실이 다르고 또 두 작가가 의식하고 구현한 문학적 양상이 상이하다 하더라도, 염상섭과 씨부라과는 각각 한국과 태국을 대표하는 지도적 작가로서 문학과 현실의 상관관계 위에서 작가의 의식에 투영된 불행한 현실을 자기의 소설에 생생하게 재현하고 비판하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나갔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리얼리즘 소설의 연구에서 현실 인식의 양상에 대한 구체적 고찰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국과 태국을 대표하는 리얼리즘 작가인 염상섭과 씨부라과의 작품을 분석하고 비교하는 데 있어서, 두 작가의 사회의식을 해부하고 또 당시 문학과 현실의 상관성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리얼리즘이라는 양식이 갖는 일반적 속

성을 확인하는 작업이고 동시에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두 작가의 시대의식과 작가적 전망, 그것의 구체적 구현 양상을 고찰하였다.

먼저 식민치하 한국의 시대적 상황과 염상섭의 작가의식을 검토하였다.

염상섭의 대표적 작품인 『사랑과 죄』, 『삼대』, 『무화과』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자신이 처한 계급적 한계를 벗어나서 직접 프롤레타리아운동에 투신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회주의사상에 어느 정도 공감하며 사회주의자를 친구로 사귀고 있거나 또 자금을 대어주기도 한다. ‘3·1 만세’ 이후 사회주의운동이 민족해방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당대 한국 사회의 역사적 현실을 고려할 때, 심피사이저의 등장은 당시 유산계급의 지식인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시대적 현실로 파악된다. 특히 1927년 신간회의 결성은 민족해방투쟁에서 좌우합작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진보적 지식인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음을 볼 수 있는데, 염상섭은 자기의 소설에서 이러한 상황을 리얼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점은 염상섭이 발표한 자신의 평론에도 잘 나타난다. 그는 소설 『삼대』의 중심구조 및 서술 의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조상훈을 ‘회색적 존재’(흔히 좌익에서 말하는 회색분자라는 뜻이 아님)로, 그리고 그의 대를 신구 완충지대격 즉 과도기로 설정함으로써 조상훈이 바로 당시 조선의 현실이자 필연적인 존재임을 다음과 같이 암시한다

“... 삼대는 신구시대를 조손(祖孫)으로, 그 중간의 신구완충지대 격인 시대, 즉 흑백의 중간적이요 흐릿한 회색적 존재로서 부친의 대를 개재시키어 세 시대상의 추이와 그 특징을 밝힌 작품이다. 이 조·부·손의 삼대를 다시 명확히 규정한다면 조부는 ‘만세’전의 사람이요, 부친은 ‘만세’후의 허탈상태에서 자타락(自墮落)한 생활에 해매던 무이상, 무해결인 자연주의 문학의 본질과 같이, 현실폭로를 상징한 부전적인 인물이며, 손자의 대에 와서 비로소 새 길을 찾아들려고 허덕

이다가 손에 잡힌 것이, 그 소위 ‘심퍼사이저’라고 하는, 즉 좌익에의 동조자 혹은 동정자라는 것이었다. 작품을 떠나서 실제로 보더라도, 이것이 3·1운동 후 한 귀퉁이에 나타난 시대상이자, 동시에 인텔리층의 일부가 가졌던 사상적 경향이었으며, 어떠한 그룹에 있어서는, 대중을 끌고 나가는 지도이념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또 그것은 내가 대판(大阪) 감옥에서 나오자 길야(吉野)박사의 제자들이 권하기를, 독립운동을 정면으로 부딪뜨릴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 -- 광의로서는 무산자 해방운동으로 방향과 수단을 돌려서 간접적인 방법과 행동을 취함이 양책이리라고 시사하던 것과 부합되는 일이기도 하였었다. 그리하여 그 때의 내가, 이 시사나 종용에 붙쫓았던 것은 아니로되, 자기의 애국사상과 이에 따르는 모든 행동을 좌익에 동조하는 길로 돌리어, 독립운동을 잠행적(潛行的)으로 실천하는 길 -- 요셋 말로 하자면 지하공작이라 할까? 하여간 속에서 치밀어 내어뿜는 열과 울분을, 이 ‘심퍼사이저’-- 동조(同調) -- 하는 창구명으로 내뿜으려 하였던 것이요, 또 이것이 실천의 수단방법이라고 믿었던 것이다.”<sup>274)</sup>

일제 치하에서의 한국인들의 사회운동은 급진적이며 무력투쟁도 불사하는 무산자 해방운동의 노선과 점진적이며 교육과 산업진흥을 통해 해방과 독립을 쟁취하려는 민족개량주의 노선으로 대별되는데, 심퍼사이저란 물질적 정신적 양면에서 전자의 노선을 지원함으로써 독립운동의 대열에 자연스럽게도 은밀하게 가담하려는 태도를 말한다.<sup>275)</sup>

심퍼사이저의 태도는 『사랑과 죄』의 이해춘, 『삼대』의 조덕기, 『무화과』의 이원영의 모습이다. 이들은 소설 속에서 근본적인 부정이나 절대적인 긍정과 같은 극단론을 끊임없이 회피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데, 동조나 지원 등의 뜻을 갖는 심퍼사이저의 논리를 행사하면서도 자신은 끝내 김호연이나 김병화 또는 김봉익이나 김동국과 같은 범주의 인물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염상섭이 점진적인 측면에서 현실 변화를 모색하려

274) 염상섭, 『황보문단회상기』(2회), 『사상계』 115호, 1962. 12. pp.260-261.

275) 조남현, 『한국소설과 갈등』, 창작과 비평사, 1990, p.182.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타락한 삶의 행태를 디디고 일어서는 새롭게 창조된 인물인 심퍼사이저들은 개량주의적 입장에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다 같이 흡수하려 했다.<sup>276)</sup> 바로 가치중립적인 절충론을 소지한 염상섭의 작가의식의 발현이다.

작가 염상섭은 지배계층의 대다수가 일본인이었던 시대에 중산층 문화를 소설화하고 있는데, 그는 작품 속에서 사회에 대한 참여방식이 자본주의적인 논리에 좌우되는, 사회의 저항운동도 금전과 완전히 결별되어 존재하기 어려운 문제를 다룸으로써, 문학과 현실의 상관성을 예리하게 파헤치고 있다. 한편 작가의식이라는 시각에서 검토할 때, 당대 식민지 현실과 주인공들의 갈등을 저항적 투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현실적 적응으로 볼 것이냐 라는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하여 이보영은 염상섭의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삼대』를 분기점으로 사회주의에 밀려나 버린다고 분석하였다.<sup>277)</sup> 조덕기나 이원영의 정치적 성향을 사회주의에 대한 심정적 동조로 규정하는 문제는 기존에 그들 중간계급의 가치중립적 성격을 논했던 시각<sup>278)</sup>과는 확실히 다르기 때문이다.

염상섭의 소설에서는 중산층 문화의 토대 위에서 유산계급이 중심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작품들은 거의 현실과 치열한 대결의식을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인계급은 비록 현실을 날카롭게 파악하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신분적 특성상 현실의 벽을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대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리얼리즘에 철저한 작가의식은 염상섭으로 하여금 소설 속의 지식인의 역할 문제를 통하여 현실대응의 차원에서 언제나 한 발 뒤로 물러선 방관자의 입장을 취하게 한다.

지식인들은 어떤 계층의 사람들보다 당대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한 시대의 인식 체계화 윤리적 명제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나타

276) 김윤식, 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p.160.

277) 이보영, 『난세의 문학』, 예림기획, 2001, p.425.

278) 김윤식, 『염상섭연구』, 서울대출판부, 1999, pp.429-433.

낸다.<sup>279)</sup> 그런데 염상섭은 작품에서 지식인들의 본질적인 시대적 역할 문제를 일정한 수준에서 포기하고 다시 일상적 현실의 문제로 관심사를 돌린다. 또한 빈곤의 문제도 식민지 현실의 구조적 모순으로 치환하거나 근본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개인 차원의 일상적 측면에서 다룬다. 작품의 이러한 성격에서, 염상섭의 리얼리즘은 시대 현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염상섭의 작가 의식에서는 유산계급의 민족운동은 심폐사이저로 굳어지고 사회주의자들의 민족운동은 윤리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염상섭의 리얼리즘에서는 부르주아이건 무산계급이건 긍정적 주체로서 자아는 구성될 수 없었다.

다음으로는, 1930년대 태국의 시대적 상황과 씨부라파의 작가 의식을 검토하였다.

씨부라파의 작가 의식은 철두철미 휴머니즘적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다. 씨부라파의 이러한 사상은 초기에 일간지 《타이마이》에 익명으로 발표한 (1931년 12월 8일, 11일) 「마누싸야팍( มนุษย์ภาพ , 人性)」에 잘 나타난다.<sup>280)</sup> 이때는 태국에 역사적 입헌혁명이 일어나기 전이다.

“... 우리가 태국인으로 태어난 사실에 대해 조금이라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세계의 자유국가의 국민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 자유를 최고의 가치관으로 삼는 태국인으로 태어났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인은 현재 그 작은 자긍심마저도 상처받고 있다고 본다. 우린 스스로 타락하여

279) 조남현,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지식인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3, p. 3.

280) 자본가들의 불만을 산 이 글로 인한 필화사건으로 《타이마이》지를 사퇴한 그와 ‘신사 동인들은 《씨끄롱》으로 옮겼다. 씨부라파는 「인성(人性)」을 수정 보완하여, 1931년 1월 10일, 16일, 21일 3번에 나누어 《씨끄롱》에 게재하였다. 동월 26일에 Radical이라는 필명을 사용한 지식인이 씨부라파를 지지하는 글을 역시 《씨끄롱》에 올렸는데, 지배계층은 신문사의 허가증을 몰수하여 신문사를 폐쇄하였다. 그 당시는 4월 1일을 신년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1931년 12월 다음 달은 다시 1931년 1월이 되었다.

다른 사람의 사상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다. 즉 너나 할 것 없이 진실과 맞서 도전하고 싸우는 용기를 버리고 현실에 몸을 맡겨버렸기 때문이다.”281)

“.....ก็พวกเราทั้งหลายที่ได้มีชีวิตอยู่ในสมัยปัจจุบันนี้ มีอะไรบางอย่างที่เราควรจะภูมิใจ และชอบใจสิ่งศักดิ์สิทธิ์ที่ได้บันดาลให้เราเกิด เรามีความภูมิใจแต่เพียงนิดเดียวที่ได้เกิดมาเป็นคนไทย ซึ่งตามประวัติศาสตร์และพงศาวดารแสดงว่า เขาเป็นไทยแก่ตัว เรามีอิสรภาพทั้งในทางปฏิบัติและทางความคิด ละม้ายคล้ายคลึงกับอิสรชนทั้งหลายในโลก แต่ข้าพเจ้าให้วิตกว่าในความเป็นไปได้ที่เราได้เผชิญหน้าอยู่ เราได้ทำลายความภูมิใจอันเล็กน้อยนี้เสียแล้ว เราได้ม้วนตัวของเราเข้าไปเป็นทาสความคิดเห็นของผู้อื่น นั่นก็เพราะเหตุอย่างเดียวกันคือเราพากันยอมละเสียซึ่งการสู้หน้ากับความ เป็นจริง.....”

“... 거짓말과 사기 그리고 속임은 모두 정부와 상류층에서 비롯되었다. ...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널리 만연되고 즐겨 사용할 거짓말과 허구의 과학에 대해 경악할 준비를 해두어야 하지 않겠는가?”282)

“การโกหกต่อแผล การหลอกลวงได้ก่อกำเนิดจากคณะรัฐบาลและหมู่คนชั้นสูง.....ฉะนั้นเราจะไม่เตรียมตัวไว้ต่อกิจกันบ้างหรือว่า วิทยาศาสตร์ของการโกหกต่อแผลจะแพร่หลายและเป็นที่ยอมรับทั่วไปในบ้านเรา.....”

“... 권력자는 그 권력이 어떻게 형성되었든 간에 나라의 부름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을 믿고 따르도록 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본인은 대답하고 싶지 않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나라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본다. 아직은 어리석은 국민이 많다. 똑똑하다 해도 다른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권력자들은 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항상 돌고 돌아 어느 한 순간도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오늘의 권력자라 해도 ... ”283)

281) 《타임아이》 1931년 12월 8일.

282) 《타임아이》 1931년 12월 11일.

283) 《타임아이》 1931년 1월 21일.

“บุคคลที่มีอำนาจอันประกอบขึ้นด้วยชาติ ตระกูล ด้วยศศิกดิ์หรือด้วยเงินก็ตาม มักพอใจเป็นในคนทั้งหลายหลงตัววาจาอันไพเราะเพราะพริ้งของเขา เขาทำตัวนั้นเพื่อประโยชน์ของใครเข้าเจ้าไม่ยอมยกตอบ แต่แน่นอนต้องไม่ใช้เพื่อประโยชน์ชาติ จริงอยู่ในสมัยนี้คนโง่ยังมีมาก หรือคนฉลาดที่ไม่เอาธุระของเพื่อนร่วมชาติก็ยังมีอยู่ดาษดื่น ผู้มีอำนาจดังกล่าวแล้ว จะดำเนินการพูดเพราะของเขาไปได้โดยราบรื่น แต่ทุกคนย่อมรู้ว่า โลกที่เราอาศัยอยู่นี้มันหมุนและสรรพสิ่งในโลกจะไม่หยุดอยู่กับที่ ฉะนั้นจึงเป็นการแน่นอนที่เขาเหล่านั้น จะต้องพบอุปสรรคในวันหนึ่ง”

태국의 대표적 작가의 반열에 올라선 씨부라파의 작가의식은 크게 선회하였다. 휴머니즘적 자유주의사상이 민주주의를 넘어 사회주의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후진자본주의와 군부 독재에 실망한 나머지 사회주의가 민중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선진적 제도라고 인식하면서, 사회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지식인 그룹의 선두에 나섰다. 씨부라파는 이러한 시대적 리얼리티를 작가의식으로 소화하면서, 자기의 소설 속에 구현하였다.

씨부라파의 사회주의 지식은 호주에 유학하면서 축적되었다. 당시 호주에서의 연구생활에서 ‘백인 호주주의’ 반대운동에 동참하면서 제3세계 지식인들과 교류하였으며, 이러한 계기를 통하여 마침 제3세계 지식인 사회에 유행하고 있던 마르크시즘과 선진적 사회주의에 깊이 접촉할 수 있었다.

씨부라파의 문학도 태국의 현실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유지하면서 전개된다. 그의 작가 의식이 사회주의에 확대되고 있을 때, 태국의 현실도 큰 변화를 겪고 있었다. 2차 세계대전 후 라마 8세의 돌연사(1946)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수상직에서 물러나 일시 해외 망명생활을 하던 뿌리디가 귀국하여 다시 지식인의 우상으로 존경받던 뿌리디가 ‘까붓왕루엥’(กบฏวังหลวง)<sup>284</sup> 사건에 연루되어 망명길에 다시 오르던 1949년 2월 26일에 씨부라파가 호주 유학에서 귀국한

284) 1949년 2월 26일에 뿌리디와 그의 추종자가 왕궁을 점령하고 피분 정부의 사임을 요구하고 디렉 차이남을 수상으로 내세웠던 사건이다. 이 사건은 곧 진압되었으며 그 결과 군민 합해 10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당했다. 이 사건의 실패로 해외 망명길에 나선 뿌리디는 그 후 영원히 귀국하지 못 하고 1983년 5월 2일 프랑스 파리에서 8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다.

당시 태국은 군부 쿠데타로 재집권한 피분의 독재체제 하에 있었다. 귀국하자마자 씨부라파는 이러한 태국의 군부 독재 현실을 맹렬히 비판하였다. “우리나라를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려면 정치를 ‘권력쟁탈을 위한 정치’로 생각지 말아야 한다. 정치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국민 개개인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정치를 이해하도록 가르치고 지침을 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sup>285)</sup>

이러한 상황 하에서 결국 최고 지식인이며 지도적 문학가의 위치에 있던 씨부라파와 군사 정부 간에는 긴장이 고조되어 갈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잡지 『악썬싼』(อักษรสาร) <sup>286)</sup>을 통하여 씨부라파가 마르크시즘과 사회주의를 소개하면서 민중의식을 고취하기에 이르자 정부와의 갈등은 고조되었으며, 1952년 8월 ‘평화반란’(กบฏสันติภาพ) <sup>287)</sup>으로 체포된다. 2차 세계대전 후에 다시 집권한 피분 정부는 전쟁 전의 민족주의 성격이 약해지고 친미노선을 걸으며 권력지

285) 폴랍 싸이쁘라딧(กุลลาบ สายประดิษฐ์ 『ข้าพเจ้าได้เห็นมา』, Bangkok, Kwienthong, 1957.  
286) 언론인이자 2차 세계대전 때 반일 지하운동을 했었고, 전후 모스크바와 파리 주재 대사관에 근무하며 유럽의 민주주의와 마르크시즘에 대해 알게 된 쉰파 씨리마논(สุนภา ศิริมานนท์), 쫓겨난 푸미썩이 귀국하여 외무부를 사직하고 발간한 월간지로, 1949년 4월부터 1952년 8월 까지 발간되었다. 호주에서 귀국한 씨부라파는 이 잡지의 편집장을 맡아 태국의 젊은이들에게 사회주의, 민주주의 및 마르크시즘과 정치 이론과 정치사상을 전파하였다. 특히 뿌리디를 잃은 탐마삿대학교 학생들과 지식인들은 이 잡지를 애독하며 씨부라파를 존경하고 흠모했다. 태국(อัศนีชัย พลจันทร์), 짜막 부라왓(สมัคร บุราราส), 쉰파 쉰콘타피롬(สุนทร สุนทรธำมรงค์), 디렉 차이남(ดิเรก ชัยนาม, 왓타나 파약카라니티(วัฒนา พยัคฆนิธิ) 등이 글을 발표하였다.  
287) 1952년 11월 10일에 피분 정부는 평소 주시해 왔던 태국의 반체제 인물들-언론인, 정치가, 변호사, 대학생 등 104명을 ‘공산주의 이념을 도입하여 태국의 민주주의, 왕실, 그리고 정부를 전복시키고 공산정권을 설립하기 위해 공모하여 국내 불안을 야기하고 국론을 분열시켰다. 이는 헌법상의 국내 반란에 해당하는 형법상의 과실이다’라는 이유로 체포하여 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 그 해 동북부 지역에서 대규모의 가뭄현상이 일어나 기아에 허덕이는 국민이 늘자 씨부라파는 언론에 호소하여 모은 구호금과 구호물품을 10월말에서 11월초 사이에 직접 나누어주고 귀경한 다음 날 체포되었다. 평소 군부 독재에 항거하며 자유주의 지식인들과 함께 언론의 자유권, 민주주의, 평화를 요구하며 ‘태국 세계평화위원회’를 창설했던 씨부라파는 이 사건에서 13년 4개월의 형을 받았으나 1957년 석가탄신 2500주년 기념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 옥중에서 소설 『앞을 내다보며』를 쓰기 시작하여 잡지에 연재하였다.

상주의의 보수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씨부라과의 개혁 사상을 좌시할 수 없었던 데다 당시 진보적 자유주의 지식인들과 대학생들이 씨부라과를 지지하고 추종하면서 그의 활동에 동참하였기 때문이었다.

1930년대 초부터 중국에 망명하기 전까지 태국을 대표하는 지식인 언론인으로서 씨부라과는 태국의 근대화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다. 특히 그는 큰 영향을 미치는 지도적 문학가로서 억압받는 무산계급 민중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의 수호하고 국민을 사회민주주의로 계몽하면서 독재정부 및 보수세력과 투쟁하였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현실 변화를 모색하려는 그의 시대적 투쟁정신은 소설 『인생이라는 이름의 전쟁』, 『그림 저 편에』, 『앞을 내다보며』에 리얼하게 구현되었다. 타락하고 왜곡된 삶의 방식과 행태를 극복하고 일어서는 주인공들을, 씨부라과는 휴머니즘에 입각하여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조화 속에서 국민 대중을 위하여 선두에 나서는 의식화된 인물들로 성장시켰다.

당시 태국의 시대적 리얼리티의 산물이며 동시에 씨부라과 작가 의식의 결정체인 소설의 주인공들은 라핀, 니탓, 찐타, 썩, 땀과 그리고 이름은 나와 있지 않은 수많은 무명의 동지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무산계층이나 중산층에 속한 신지식인들이다. 그들의 의무는 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에 직접 뛰어들어 개선하는데 한 몫을 해야 하는 데 있다. 도시와 농촌에 있는 가난한 계층의 목소리와 공장과 들판에서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 그리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고를 귀담아들어야 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어야 한다는 시대적 현실 의식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이념적 차원에서도 씨부라과의 문학과 시대 현실은 밀접한 상관성을 유지한다. 후진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사회민주주의의 옹호 및 실천이 그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전 세계는 민중을 착취하는 후진자본주의 체제와 그의 세계화인 제국주의의 탐욕에 대한 비판으로 들끓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민주주의 또는 민주적 사회주의에 대한 선호의식이 신생국가들을 중심으로 시대적 추세가 되고 있었다. 호주 유학 중 씨부라파는 이러한 경향에 눈을 뗀 것이다.

그의 작품을 통하여 씨부라파는 당시의 부조리한 사회의 착취 구조와 군부세력을 중심으로 한 독재 그리고 부의 부정한 축적과정을 폭로한다. 특히 돈이면 무엇이든지 거래되는 사회, 즉 배금주의가 만연된 사회를 정경유착 부정부패의 원죄로 규탄한다. 소설 속의 주인공들인 깨운의 아버지와 분크령의 아버지 그리고 분크령 자신의 행태를 태국의 시대상과 연결시킴으로서, 문학작품의 리얼리티를 절정으로 유도하였다.

하급관리로 있으면서 주민들의 가난과 무지를 악용하여 그들의 토지와 고무농원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축적함으로써 부호의 반역에 든 인물인 분크령의 아버지는 그 수법을 자식에게 전수한다. 방콕으로 유학하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가 다 뒤를 댈 테니 귀족 등 상류층 아이들과 친교를 맺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분크령은 학교 졸업 후 방콕에서 중앙관리가 되고 결국 군부독재 정부의 꼬나폴로 전략하면서, 아버지의 원죄를 승계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씨부라파의 근대화 성향과 정치의식은 『앞을 내다보며 : 청년시대』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작품의 제 1부에는 해외 유학생이 주동되어 일으킨 입헌혁명에 의한 민주주의 채택과정이, 그리고 그 후 군부독재로 민주주의가 파산되어 가는 흐름이 정치적 사회적 관점에서 적나라하게 재현된다. 제 2부에는 군부독재 피분 정부가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과 공수동맹을 맺고 연합국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제국주의의 진상이, 그리고 국내에서 독재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현실이 사실적으로 그려진다.

이 소설은 여기에서 미완성으로 끝난다. 그러나 독자들은 이 소설이 2차 대전 말기 친연합국 세력인 자유타이군 운동의 등장으로 이어져 민주화운동의 성공으로 끝맺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씨부라파의 문학이 태국

의 시대 현실과 충실하게 상관관계를 유지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씨부라파의 문학은 태국 국민, 특히 무산계급에게 주인의식이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안녕 발전을 위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을 제시한 문학이다. 씨부라파는 투철한 작가 의식을 갖고 태국의 시대적 현실을 소설 속에 사실화시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씨부라파 소설의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조화된 실현을 태국의 이상향으로 보았다. 이러한 사실은 1973년 10월 14일 사건 이후 씨부라파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었다. 현재도 태국에서는 씨부라파가 “20세기 태국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작가이며, .... 오히려 사망 이후 작가 및 언론인으로서의 지위는 그가 살아 있을 때보다 더 인정받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288)</sup>

한국과 태국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상호 교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으로는 세계사적 관점에서 볼 때 거의 동시대에 속해 있었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근대’를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태국은 서구 열강으로부터 직접 선진 문물을 수입하고 있었다. 한국이나 태국 다 같이 개화 = 근대화 = 서구화라는 등식이 의미하는 것처럼 이른바 후진국이 겪는 ‘근대화 과정’을 겪고 있었던 것이다.

문학은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양식이다. 또한 문학 작품은 사회 속의 인간에 의해 제작되어진다. 문학 작품은 그 사회의 역사적 발전단계의 산물이다. 특히 리얼리즘에서 문학 작품은 사회의 지배적 의식의 모사이고 사회의 사실적 반영이며 사회의 종합적 표현이다. 리얼리즘 문학의 존재성과 의의는, 역사적 상황과 객관적 현실로 이루어진 인류 사회의 실상을 문학 작품을 동원해 정확하게 반영하고 재현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근대화와 발전과 모순과 갈등과 위기 등으로 뒤섞인 한국과 태국 사회의 당대적 현실은 리얼리즘을 통하여

---

288) Batson, Benjamin A., 『Kularb Saipradit and the War of Life』, Journal of Siam Society Vol. 69, pp.58-73.

염상섭과 씨부라과 두 소설가의 작품에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재현되었다.

한국 사회와 태국 사회는 모두 전근대적 요소와 근대적 요소가 뒤섞인 과도기적 특성을 갖고 있었다. 개화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계층과 개화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계층의 혼합, 신분상의 사회적 차별과 빈부의 격차, 봉건제도의 잔재, 그리고 가치체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세대적 혼란 속에 갈등과 고통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이렇게 근대화적 동시대성에서 유사하였지만, 그러나 한국과 태국의 시대 현실은 뚜렷한 차이를 노정하였다. 한국의 경우,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상태 하에서 국가 독립이 최고의 역사적 과업이며 그의 실천인 거족적 민족해방투쟁이 지상 과제로 대두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태국의 경우는 민주주의 체제의 완성과 그를 위하여 군부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세력의 독재와 억압을 타파하는 일이 매우 긴박하였다는 사실이다.

리얼리즘 작가가 작품 속에 사회의 시대적 현실을 정확하게 그리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만이 아니라, 작가에 의해 재해석되고 재창조된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다. 여기에 문학의 기능에서 현실의 구성과 재현 과정을 통하여 작품 구성의 주체가 중요시되고 주체로서의 작가 의식이 강조된다. 이 경우 작가 의식은 사회 현상의 단순한 묘사나 재현이 아니라, 문학을 통하여 사회와 문화를 비판하고 갈등과 모순을 치유하며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사회에 긍정적 변혁을 가져오려는 주체성이다. 리얼리즘 문학의 심미적 목표가 문학 환경의 중심인 인간 사회의 정확한 분석과 묘사에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리얼리즘 문학의 진보적 사조로 평가받는 비판적 리얼리즘에서는, 사회의 현실을 관찰하고 분석함에 있어서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인식하고 사회 전체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며 사회의 움직임과 인과관계를 광범하고 다양한 기능들이 상호 연계된 시스템으로 파악한다. 나아가 충실한 리얼리즘 작가는 세부적 진실성의 묘사 외에 당대의 역사적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사회 심층부의 구조적 양상을 동태적으로 분석 묘사해 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선각적 지식인으로 당시대의 왜곡된 현실에 울분을 토로했던 저항적 문

학자인 염상섭과 씨부라파는, 리얼리즘 소설 속에 의식화된 주인공들을 등장시키고 그들을 통하여 시대정신을 구현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모든 작가는 시대의 산물’이라는 말은 리얼리즘 문학의 변함없는 격언이 아닐 수 없다. 씨부라파와 염상섭은 자신들이 정성을 기울여 완성한 소설 『인생이라는 이름의 전쟁』, 『그림 저 편에』, 『앞을 내다보며』와 『사랑과 죄』, 『무화과』, 『삼대』에서 자신들이 속한 가정과 계층과 민중과 사회와 국가의 시대적 현실을 생생하게 그려내었다. 두 사람 모두 리얼리즘 문학의 원리에 입각하여 작품과 현실의 상관관계를 충실히 보여주었다고 할 것이다.

염상섭과 씨부라파는 작가의식에서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이 차이는 당대 한국과 태국의 리얼리티에서 오는 당연한 귀결이다. 중도적 민족주의에서 출발한 씨부라파가 불교적 자비와 서구적 박애주의에 충실한 사회민주주의 쪽으로 삶의 자세를 굳히고 작품 속에서 행동하는 지식인(rational doer) 또는 적극적인 참여자(active participator)를 설정하여 태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무산계급과 진보적 민중에 의해 해결하려고 했다. 한편 염상섭도 씨부라파처럼 중도적 민족주의에서 출발하였으나 무자비한 일제의 압박 속에서 민족해방 투쟁이라는 지고의 목표에 주인공들의 의식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심퍼사이저의 설정을 통하여 일본의 눈을 피하고 결국에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조화시키는 가치중립적 작가 의식을 재현하게 되었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두 사람의 작가의식은 당대 한국과 태국의 공통적 지도사상이었던 민족주의이념을 기본으로 하여 염상섭은 중도 우파인데 반하여 씨부라파는 중도 좌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두 작가가 리얼리즘이라는 동일한 문학방법론으로 작품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근본요인이다.

## 참 고 문 헌

### 1. 장편소설

- 엄상섭, 『사랑과 죄』, 민음사, 1987.
- , 『삼대』, 한국소설문학대계 5, 동아출판사, 1995.
- , 『무화과』, 한국소설문학대계 6, 동아출판사, 1995.
- ศรัปฐพา(씨부라파), 『ข้างหลังภาพ(그림 저편에)』, ดอกหญ้า, ๒๕๒๙.
- , 『จนกว่าเราจะพบกันอีก(다시 만날 때까지)』, ดอกหญ้า, ๒๕๓๑.
- , 『แลไปข้างหน้า : ภาคปฐมวัย(앞을 내다보며 : 소년시대)』, ดอกหญ้า, ๒๕๓๓.
- , 『แลไปข้างหน้า : ภาคมัธยมวัย(앞을 내다보며 : 청년시대)』, ดอกหญ้า, ๒๕๓๓.
- , 『สงครามชีวิต(인생이라는 이름의 전쟁)』, ดอกหญ้า, ๒๕๒๙.

### 2. 국내외 연구 논저

- 강동진, 「일제하의 한국사회운동사 연구」, 안병직편, 『한국근대민족운동사』, 돌베개, 1980.
- 김영애, 「상좌부불교와 동남아 사회」, 유석춘, 홍석준 외, 『동남아의 사회와 문화』, 도서출판 오름, 1997.
- 김창순, 「이 테올로기와 민족의식」, 『한국 아카데미 총서』 제3권, 삼성출판사, 1975.
- 김채운, 「한국사회계층 구조와 변화」, 『한국사회론』,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민음사, 1980.
- 서중석, 「일제시대 사회주의자들의 민족관과 계급관」, 박현채 · 정창열 편, 『한국 민족주의론 III』, 창작과 비평사, 1995.
- 송건호, 「신간회운동」, 『한국근대사론』 제2권, 지식산업사, 1979.
- 송기섭, 「근대소설과 유교적 인간」, 『국어국문학』 127, 2000. 12.

- 염상섭, 「문예와 생활」, 『조선문단』, 1927. 2.
- 유보선, 「차디찬 시선과 교활한 현실」, 『무화과』, 한국소설문학대계 6, 동아출판사, 1995.
- 이보영, 「민족의식과 정치소설적 특성」, 김종균 편, 『염상섭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99.
- 임명진, 「리얼리즘」, 백운복 외, 『문예사조의 이해』, 새문사, 2003.
- 정호웅, 「식민지 현실의 소설화와 역사의식-염상섭의 <사랑과 죄>」, 『사랑과 죄』, 민음사, 1987.
- 조지훈, 「신간회의 창립과 해소」, 스칼라피노·이정식 외, 『신간회연구』, 도서출판 동7년, 1983.
- 차기벽, 「일본제국주의 식민정책의 형성배경과 그 전개과정」, 『일제의 한국식민통치』, 정음사, 1985.
- 최창성, 「태국어 관용어의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태국학회논총』 9호, 한국태국학회, 2002.
- , 「속담을 통해 본 한 · 태 양국민의 의식구조」, 『외대논문집』 1979.
- 한배호, 「한국정치문화의 주요경향」, 『한국사회론』,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민음사, 1980.
- 梶村水樹, 「식민지에 있어서 민족자본과 예속자본」, 장시원 편역, 『식민지 반봉건사회론』 미래사, 1985.
- 권영민, 「한국근대소설론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4.
- 신영복, 「1920-30년대 염상섭 소설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학위논문, 1987.
- 윤홍로, 「1920년대 한국소설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0.

- กรุณา กุศลสัย(까루나 꾸손 싸이), 「กุหลาบ สายประดิษฐ์ที่ข้าพเจ้ารู้จัก(내가 아는 풀랍 싸이쁘라뎃)」, 『ชีวิตการต่อสู้ของกุหลาบ สายประดิษฐ์(풀랍 싸이-쁘라뎃의 투쟁인생)』, ประจักษ์การพิมพ์, ๒๕๒๖.
- ชัยศิริ สมุททาณิซ(차이 씨리 싸뎃 তা와닛), 「ความรักในงานของศรีบูรพา(씨부라파 작품에 나타난 사랑)」, 『อักษรศาสตร์วิจารณ์(문 학비평)』, Vol. 2, No. 33-34 (July), 1974.
- ชนิด สายประดิษฐ์, 「บันทึกชีวิตและงานของกุหลาบ สายประดิษฐ์」, 『โลกหนังสือ』, Vol.2 No.2, 1978.
- สุทิน กัลยพฤกษ์(수틴 칸라야프รุก), 「ศรีบูรพาในฐานะนักมนุษยธรรม인본 주의자로서의 씨부라파」, ปริญญาบัตร กศ.ม., มหาวิทยาลัยศรีนครินทรวิโรฒ(ประสานมิตร), ๒๕๒๑.
- สุภา ศิริमानนท์ (수파 씨리มาน), 「ความทรงจำ : ชีวิตและการต่อสู้ของกุหลาบ สายประดิษฐ์(회고 : 풀랍 싸이쁘라뎃의 인생과 투쟁)」, 『โลกหนังสือ (서격계)』, Vol. 2, No. 70(Nov.), 1978.
- สุวัฒน์ วรรดิลอก(수왓 워라ดัลลอก), 「ศรีบูรพาที่ผู้รู้จัก(알려진 씨부라파)」, 『ชีวิตของกุหลาบ สายประดิษฐ์ (풀랍 싸이쁘라뎃의 인생)』, ประจักษ์การพิมพ์, ๒๕๑๗.
- เสถียร จันธิมาธ(싸티엔 จันตีมาธ), 「เขาชื่อกุหลาบ สายประดิษฐ์(그는 풀랍 싸이-쁘라뎃이다)」, 『ชีวิตการต่อสู้ของกุหลาบ สายประดิษฐ์(풀랍 싸이쁘라뎃의 투쟁인생)』, ประจักษ์การพิมพ์, ๒๕๑๗.

### 3. 단행본 및 국의 번역본

- 장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1980.
- 장만길, 『한국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1984.
- 장진호, 『현대소설사와 근대성의 아포리아』, 소명출판사, 2004.
- 김양선, 『1930년대 소설과 근대성의 지형학』, 소명출판, 2003.
- 김열규 · 신동욱, 『염상섭연구』, 새문사, 1982.
- 김영애, 『태국사』, 한국외대출판부, 2002.
- 김옥동, 『리얼리즘과 그 불만』, 청하, 1989.
- 김윤식, 『염상섭연구』, 서울대출판부, 1987.

김윤식 · 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2001.  
 김일곤, 『한국경제발전론』, 무역경영사, 1989.  
 김종균, 『염상섭』, 동아일보사, 1995.  
 -----, 『염상섭 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99.  
 -----, 『염상섭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3.  
 김진기 외, 『문학으로 사회 읽기』, 박이정, 2003.  
 김학동, 『비교문학』, 새문사, 1997.  
 송건호, 『한국현대사론』, 한국신학연구소, 1977  
 신동욱, 『우리 시대의 작가와 모순의 미학』, 새문사, 1982,  
 염무웅, 『민중시대의 문학』, 창작과 비평사, 1984.  
 유병석, 『염상섭전반기소설연구』, 아세아문화사, 1985.  
 유종호, 『동시대의 시와 진실』, 민음사, 1982.  
 이기백, 『한국사신론』, 일조각, 1975.  
 이보영, 『난세의 문학』, 예림기획, 2001.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흥성사, 1979.  
 장사선, 『한국리얼리즘문학론』, 서울, 새문사, 1988.  
 정현기, 『한국 현대문학의 제도적 권력과 사회』, 문이당, 2002.  
 조남현, 『한국소설과 갈등』, 문학과 비평사, 1990.  
 -----, 『한국지식인소설연구』, 일지사, 1984.  
 -----, 『한국 현대문학사상 탐구』, 문학동네, 2001.  
 조진기, 『한국근대리얼리즘소설연구』, 새문사, 1989.  
 최유찬, 『문예사조의 이해』, 실천문학사, 1995.  
 한영옥, 『한국 현대시의 장』, 푸른사상사, 2004.  
 허영자 · 한영옥, 『한국 여성시의 이해와 감상』, 문학아카데미, 1997.  
 홍두승, 구해근, 『사회계층, 계급론』, 다산출판사, 1993.  
 게오르그 루카치, 『현대리얼리즘론』, 황석천 옮김, 열음사, 1986.  
 루시앙 골드만, 『소설사회학을 위하여』, 조경숙 옮김, 청하, 1982.  
 르네 웰렉 · 오스틴 워렌, 『문학의 이론』, 김병철 역, 을유문화사, 1986  
 스테판 코올, 『리얼리즘의 역사와 이론』, 여균동 역, 미래사, 1986.

- 제임스, C.V. 『사회주의 리얼리즘론』, 연희원 역, 도서출판 녹진, 1990.
- Damian Grant, 『Realism』, 김종운 역,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 Mattani Rutnin, 『Modern Thai Literature』, Bangkok, Thammasat University Press, 1988.
- Ministry of University Affairs, 『Thai Higher Education in Brief』, Bangkok, Chuan Printing Press, 1995.
- Phaiboon Changrien, 『Social Politics and Administration in Thailand』, Bangkok, Thai Watana Panich, 1977.
- Rene Wellek, 『Concepts of Criticism』, Yale University Press, 1973.
- Rong Syamananda, 『A History of Thailand』, Bangkok, Thai Watana Panich, 1973.
- Terry Eagleton, 『Marxism and Literary Criticism』,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6.
- Wibha Senanan, 『The Genesis of Novel in Thailand』, Bangkok, Thai Watana Panich, 1975.
- Wyatt, David K., 『Thailand : A short History』, Bangkok, Thai Watana Panich, 1984.

#### 4. 태국어 논저

- กรมศิลปากร(예술청), 『ประวัตินักเขียนไทย เล่ม ๑(태국작가 1)』, สำนักพิมพ์ - บรรณการ, ๒๕๒๗.
- กุหลาบ สายประดิษฐ์(꼴ลัป สายไปรัด), 『ข้อคิดจากใจ กุหลาบ สายประดิษฐ์ (꼴ลัป สายไปรัด의 사상)』, แม่ตำfang, ๒๕๔๓.
- , 『เบื้องหลังการปฏิวัติ ๒๔๗๕(1932년 혁명의 뒷 배경)』, มิ่งมิตร, ๒๕๔๔.
- จรัส รัตนารณ(짜랏 룡 짜나완), 『ชีวิตการต่อสู้ของกุหลาบ สายประดิษฐ์(꼴ลัป สายไปรัด의 투쟁)』, กลุ่มเผยแพร่สังคมนิยม, ๒๕๑๗.

- ชัยอนันต์ สมุทวณิช(차이아난 싸뭇타와닛), 『ชีวิตและงานของเทียนวรรณ และก.ศ.ร. กุหลาบ(티안완과 께.씨.러.꿀랍의 생애와 작품)』, บรรณกิจ, ๒๕๒๕.
- ตรีศิลป์ บุญขจร(뜨리썸 분카썸), 『นวนิยายกับสังคมไทย ๒๔๗๕ - ๒๕๐๐(태국 사회와 소설 :1932-1957)』, โครงการตำราคณะอักษรศาสตร์ จุฬาลงกรณ์มหาวิทยาลัย, ๒๕๔๒.
- ณรงค์ พ่วงพิศ(나롱 पू영พิศ)และพลศักดิ์ จิรไกรศิริ(꼰라ซัก จีรากรัยไซริ), 『สังคมไทย ๒๐๐ ปี(태국사회 200년)』, มหาวิทยาลัยศรี นครินทรวิโรฒ, ๒๕๒๖.
- ณรงค์ สินสวัสดิ์(나롱 신싸วัต), 『การเมืองไทย : การวิเคราะห์เชิงจิตวิทยา(태국정치: 심리학적 분석)』, วัชรินทร์การพิมพ์, ๒๕๓๙.
- ม.ล. บุญเหลือ เทพยสุวรรณ(멈루영 분르어 텡พอาฮูวาน), 『วรรณกรรม(문학)』, อันไทย, ๒๖๒๙.
- ปรีดี พนมยงค์(쁘ริ디 판눔ยง), 『บางเรื่องเกี่ยวกับการก่อตั้งคณะราษฎร(인민당 결성에 대한 이야기)』, นิติเวชช, ๒๕๑๕.
- พรภิรมณ์ เข้มธรรม(편피롬 เขียมตัม), 『บทบาททางการเมืองของหนังสือพิมพ์ไทย (신문의 정치적 역할)』, ไทยวัฒนาพานิช, ๒๕๑๘.
- เพื่อนร่วมยุค ๒๔๙๕ - ๒๕๐๐ และสหธรรมิก(욱중 친고와 싸하탐낙), 『รำลึกถึงกุหลาบ สายประดิษฐ์(꿀랍 싸이ปปราดิต을 생각하며)』, สันติธรรม, ๒๕๒๘
- ไพฑูริย์ เครือแก้ว ณ ลำพูน(파이툼 ครูเอแจอู นา ลัมพูน) 『ลักษณะสังคมไทย(태국사회의 특성)』, บพิธ, ๒๕๑๙.
- ยศ วัชรเสถียร(ยศ 왓ชาลาชาติเยน), 『ศรีบูรพาที่ข้าพเจ้ารู้จัก(내가 아는 씨부라파)』, อีรต์ แอนด์ ซายัน, ๒๕๒๕.
- รอง สยามานนท์(รอง 싸ยามาโน), 『ประวัติศาสตร์ไทยในระบอบรัฐธรรมนูญ(입헌체제 하의 태국사)』, ไทยวัฒนาพานิช, ๒๕๒๐.
- รัชนิกร เศรษฐ์ (รัตธานีจัน เซตโต), 『โครงสร้างสังคมไทยและวัฒนธรรมไทย(태국 사회구조와 태국문화)』, ไทยวัฒนาพานิช, ๒๕๓๖.
- รัฐจาวร อินทรกำแหง(란จูอัน อินทราจัมเขม), 『วรรณกรรมวิจารณ์ (문학비평 1)』, ดวงกมล, ๒๕๒๑.

- รัฐจาร อินทรกำแหง(란주연 인트라감행), 『วรรณกรรมวิจารณ์ ๒(문학비평 2)』 ,  
ดวงกมล, ๒๕๒๑.
- รุ่งวิทย์ สุวรรณอภิชน(룽윗 추완아피촌), 『ศรีบูรพา : ศรีแห่งวรรณกรรมไทย(씨부  
라파: 태국문학의 영예)』 . พาสโก, ๒๕๒๒.
- ลิขิต อึ้งเวศิน(리킷 티라เว킨), 『การเมืองการปกครองของไทย(태국정치)』 ,  
มหาวิทยาลัยธรรมศาสตร์, ๒๕๑๓.
- วิทยากร เข้มยกุล(윗ตา야권 치양꾼), 『การเมืองภาคประชาชน(민중정치)』 ,  
มีมิตร, ๒๕๔๔.
- วิทยากร เข้มยกุล 『ศึกษาบทบาทและความคิดศรีบูรพา(씨부라파의 사상과 역할에  
대한 연구)』 , พลัส, ๒๕๓๒.
- วิภา กงกะนันท์(위파 콩까นัน), 『กำเนิดนวนิยาย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 (태국소설의 기원)』 .  
ดอกหญ้า, ๒๕๔๑.
- สายทิพย์ นกุลกิจ(สายทิพย์ 누꾼 กิจ), 『วรรณกรรมไทยปัจจุบัน(태국현대문학)』 ,  
มหาวิทยาลัยศรีนครินทรวิโรฒ, ๒๕๔๓.
- สุกัญญา ตีรวณิช(สุกัญญา ตีรวณิช), 『ประวัติการหนังสือพิมพ์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ภายใต้  
ระบอบสมบูรณาญาสิทธิราช ๒๓๒๔-๒๕๑๔(전제군주제 하의 태국신문사 :  
1782-1932)』 , ไทยวัฒนาพานิช, ๒๕๒๐.  
----- , 『หนังสือพิมพ์ไทยจากปฏิวัติ ๒๔๗๕ สู่ปฏิวัติ ๒๕๑๖(1932년 혁명  
에서 1973년 혁명까지의 신문)』 , ไทยวัฒนาพานิช, ๒๕๒๐.
- ม.จ. อากาศดำเกิง รัชพัฒน์(ม.จ. อากาศดำเกิง รัชพัฒน์), 『ละครแห่งชีวิต(인생이라는  
이름의 연극)』 , แพร่พิทยา, ๒๕๒๗.
- เอมมอน นิรัฐราช(에먼 니란랏), 『ทัศนทางสังคมในนวนิยายไทยสมัยรัชกาลที่ ๗ (라마  
7세 당시 소설에 나타난 태국 사회)』 , ต้นอ้อ แกรม, ๒๕๓๙.
- อุดม รุ่งเรืองศรี(อุดม รุ่งเรืองศรี), 『สภาพทางวรรณกรรมไทยปัจจุบัน(현대 태국문학)』  
ศิลปะบรรณกิจ, ๒๕๒๓.

## 5. 기타

『김동인전집』 16권, 조선일보사, 1988.

『창조』 창간호, 1919.

## Abstract

###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Korean and Thai Modern Literature - Based on the Works Written by Yum Sang Sub and Sriburapha -

Kim Youngaih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literature, reality and the embodiment of realism. This study also contrasts the social and historical realities of two countries, Korea and Thailand, during the 1920s-1930s by analyzing the senses of understanding reality possessed by two writers from that period. The writers used in this study are Yum Sang Sub(1897-1963), from Korea, and Sriburapha(Kularb Saipradit, 1905-1976), from Thailand. The works of Yum Sang Sub that are analyzed are 『Love and Sin』 (1927-1928), 『Three Generations』 (1931) and 『A Fig』 (1931-1932). The works of Sriburapha that are analyzed are 『The War of Life』 (1932), 『Behind the Painted Picture』 (1936) and 『Look Forward』 (1955-1957).

Korea and Thailand have little influence on each other due to geographical distance between them. Also, they share few common cultural factors except for those common to most countries in Asia. However, Yum Sang Sub and Sriburapha share a number of similar personal backgrounds and perspectives. They both were newspaper editors and writers from the middle class in their respective capital cities (Seoul and Bangkok). They both lived through daunting times. Yum Sang Sub lived when Korea was colonized by Japan, and Sriburapha lived when Thailand was under the military dictatorship after the constitutional monarchy was initiated. Furthermore, the two writers accepted influences of modern civilization from such developed countries as Japan and England. They both regarded liberty, equality and philanthropy as the most valuable principles that lead to national independence and democracy. These two writer's modern

senses were presented in realistically written works of literature : Yum Sang Sub's work was embodied in critically realistic works and Sriburapha's work in socialistically realistic works.

The background of all novels studied in this thesis is the 1920s-1930s. During this time, in Korea and Thailand, intellectuals began to have clearer visions of the period, and a successful modernization process was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carried out.

Korean society was going through a transitional period where feudalistic elements and contemporary ones merged together. It had countless problems due to unease between social classes. These classes included : a class of the civilized, a class of people who did not have any knowledge about civilization; a class of people who were aware of the sense of independence under Japanese colonialism, a class of people who flattered Japan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its power and a class of people who surrendered in the face of Japanese exploitation without being able to oppose it.

Similarly, Thailand was having a crisis based on class tensions between a civilized class, a class of people who had begun to be enlightened and a class of people who were unaware of civilization. Furthermore, Thai society was troubled with the still-existing vestiges of Feudalism, social discrimination, economic disparity and the discord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These issues were caused by the adhesion of censorship of newspapers performed by the military government.

Yum Sang Sub and Sriburapha made these typical aspects of people's lives a focal point in their novels. A writer's setting of character's interests are regarded as an essential part of demonstrating special quality of the writer, Yum Sang Sub displayed the ups and downs of the main characters Lee Hae Chan, Cho Deok Gi and Lee Won Young, who try to resolve the family's inner order with the outer order which is threatening the bourgeois life style. He also showed the changes of life and struggles for independence -the nation's hope- which was represented by Kim Bong Yun, Kim Byung Hwa and Kim Bong Ik brothers in 『Love and Sin』, 『Three generations』 and 『A Fig』. These works were written in the distinguished time lines such as feudalistic, transitional and contemporary periods.

Yum Sang Sub practiced a theory of modernization which represented the middle class in Seoul. His theory was based on moderate nationalism. However, he had a strong tendency towards progressive conservatism. To strike a balance between conservatism and socialism he tried to protect himself by siding with the conservative viewpoint while sympathizing with, understanding and supporting socialism. The writer set up a similar intellectual as a 'sympathizer' in his works. He did so in the aspect of nationalistic humanism which was based on Confucianism. He should be credited for dealing with the underground movement of the socialistic intellectuals before anyone else did.

Sriburapha, as well, described the efforts to accomplish a contemporary life, and the conflicts and changes within the feudalistic ideas which were threatening the contemporary life in his society. He did this through the main characters Raphin and Pleon in 『The War of Life』, Kirati and Nobpheon in the 『Behind the Painted Picture』 and Janta and Nithat in 『Look Forward』. The timeliness of these pieces of literature were the same distinguished timeliness used in the works of Yum Sang Sub.

Sriburapha also practiced a theory resembling that of the middle viewpoint of the intellectuals who spoke for Bangkok. His theory was initiated from nationalism. However, he later displayed a firm tendency towards progressive socialism. He tried strongly to protect the rights and profits of the proletariat by standing on their side and speaking for them. He also attempted to make social democracy come true through the intellectuals who were from the proletariat and the progressive people. Sriburapha set up either a proletariat intellectual or a middle-class intellectual as an 'active participator' or a 'rational doer'. However, in his process he denied war and conflict and expressed a preference for reconciliation through talks. Like Yum Sang Sub, Sriburapha was also the first novelist who regarded the socialistic intellectuals as founders of Thai democracy or as warriors standing against the government in order to protect democracy.